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2011. 4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2011. 4

이 정 근	박 서 춘	최 형 수	황 주 태
서 광 국	송 헌 재	전 병 힐	박 노 욱

목 차

날자, 희망리본 프로젝트 / 1

경기

- I. 2010년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추진 주요개요 3
- II. 2차년도 핵심추진사업보고 4
- III. 2차년도 사업추진주요결과 11

2010년 희망리본프로젝트 최종보고서 / 21

부산

- I. 추진계획 평가 23
- II. 집행내용 31
- III. 성과 43
- IV. 종합평가 54

인천, 희망을 쏘다 / 91

인천

- I. 추진계획 평가 97
- II. 집행내용 109
- III. 성과 125
- IV. 종합평가 135

2010년 희망리본프로젝트 결과보고서 / 143

전북

- I. 추진계획 평가 145
- II. 집행 내용 159
- III. 성과 176
- IV. 종합평가 184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 / 191 중앙

I. 개요 193
II. 2010년 모니터링 추진 방향 195
III. 지역별 모니터링 진행 결과 분석 202
IV. 마무리 하며 229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성과분석 / 243

송헌재 · 전병힐

I. 도입 249
II. 시범사업 참여자의 특성 253
III.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행태 268
IV. 시범사업의 성과 278
V. 결론 337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 / 243 박노욱

I.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도입 배경과 목적 347
II.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주요 쟁점과 2차 연도 시범사업 평가 352
III.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발전 방향 362

2차년도 지역별 성과 보고



날자, 희망리본 프로젝트

2011년 3월

▶▶▶ 이 정 근 | 경기광역자활센터장

날자, 희망리본프로젝트



CONTENTS

I. 2010년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추진 주요개요 4p

II. 2차년도 핵심추진사업 보고 11p

III. 2차년도 사업추진 주요결과 18p

- ✓ 참여자 기본 분석
- ✓ 참여자 교육지원사업
- ✓ 서비스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 사업
- ✓ 대외협력사업
- ✓ 취업 및 서비스지원관련 성과보고
- ✓ 사업평가 및 향후 방향

2010년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추진 주요개요



Our Vision

복지고용통합지원 체계 강화

인적자원관리시스템 내실화

지역사업수행기관 조직정비를 통한 품질관리 성과관리 시스템 체계화

강화된 지원체계활용 복지-고용통합서비스 제공

개인별 맞춤 사례관리를 통한
빈곤취약계층의 실질적 자활성공

추진전략

- 지역센터 중심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다각화 모델 구축
- 경제단체 및 고용관련 기관과 Plus One 일자리창출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연계 복지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자활센터 및 일자리지원센터와 협력으로 사업의 효과성 증대
- 참여자 유형분류에 따른 맞춤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중앙-지역센터 1:1 성과관리 - 대상자-일자리매니저 1:1 책임관리제

빈곤취약계층의 실질적 자활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

추진체계

중앙센터

- ✓ 취업자사례관리 모형개발
- ✓ 취업전 프로그램 개발 보급
- ✓ 권역별 서비스 설계 및 컨설팅
- ✓ 권역별 평가 및 모니터
- ✓ 실적 및 품질관리, 행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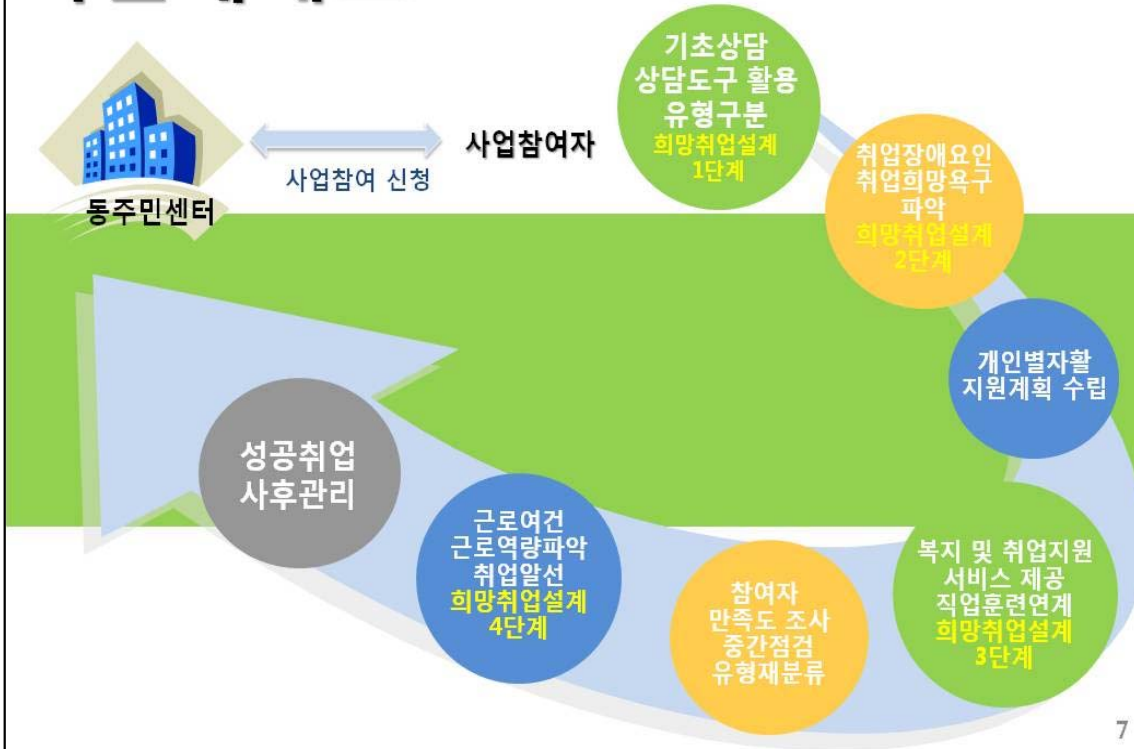
지역센터 - 10개 지역센터

[지역센터당 대상자 60~150명 관리]

- ✓ 참여자 기초상담 자활계획수립
- ✓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제공
- ✓ 직업의식 및 직업교육 진행
- ✓ 일자리 및 복지통합협의체 구축운영
- ✓ 참여자 취업 및 사후관리

센터구분	담당지역	대상인원
남양주센터	구리, 남양주	70
성남센터	성남, 광주	145
수원센터	수원, 오산, 용인, 화성, 평택	145
시흥센터	시흥, 광명	70
부천센터	부천, 김포	145
안산센터	안산	145
안양군포센터	안양, 의왕	35
	군포	35
양주센터	양주, 의정부	70
고양파주센터	고양, 파주	70
평택센터	평택, 안성	70

지원체계도



참여자 종합분석표에 따른 유형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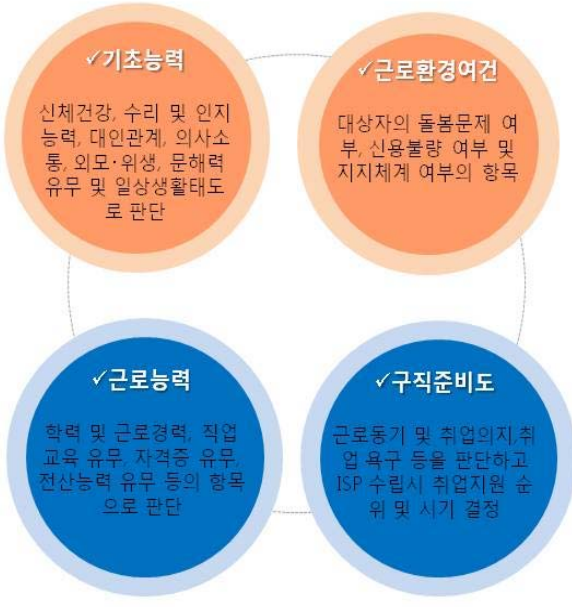
- ✓ 참여자 유형 구분의 목적은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취업장애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참여자 맞춤 서비스 지원 경로를 설계하기 위함
- ✓ 초기활동계획서상의 참여자 기초정보를 평가하여 대상자 종합 분석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참여자 유형을 구분한 후 초기활동계획서의 활동계획을 작성
- ✓ 참여자 종합분석표는 참여자에 대한 기초능력, 근로여건, 근로능력, 근로동기 및 기타 참여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고 집중지원 유형 구분



참여자 집중지원 유형 흐름도

대상자 종합 분석표

번호	2010 -	작성일자	2010.	대상자명		
구분	항목	항목별 (답표시)			종합	우월 구분 비율
		상	중	하		
기초능력	신체건강	(0)~(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수리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인관계	(1)~(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의사소통	(1)~(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모·위생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로환경여건	일상생활능력	(1)~(16)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학력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로능력	활동분야	(0)~(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중하 2
	근로가능시간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용불량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질병	가혹노동(24시간 초과, 24시간 초과, 24시간 초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	(1)~(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학력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로준비	근로경력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중하 3
	기술·기술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직업교육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격증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산능력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취업의사	(1)~(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직준비	취업준비정도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직경험	(1)~(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간호원서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특수취업가능성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	(0)~(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률	(0)~(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정내 폭력	가정폭력 및 스토킹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	(2)~(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압박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자리간행성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상자의 우선 요구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희망직종/업종	희망직종/업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10년 일자리원스탑센터
핵심추진사업



희망직업개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쟁점을 인지하고 있다

[참여자 주요 쟁점]

- ✓ 경력 및 직업능력부족, 낮은 구직기술과 근로의지, 복지의존적 복합적인 취업장애요인 (신용불량, 가구내 간병, 보육, 의료, 문화적 차이)
- ✓ 우리는 참여자의 신상파악부터 시작한다 - Service Plan
- ✓ 고용서비스 중심이 아닌 복지+고용서비스 제공 모두 중요하다

현 시장에는 참여자에게 맞는 상담, 교육프로그램이 없다?

[참여자에게 맞는 상담, 교육, 네트워크 노하우 필요]

- ✓ 어떻게 상담하고, 개인별 지원 목표 및 방향을 잡을 것인가?
 - 참여자 지원을 위한 업무가이드라인 [업무매뉴얼] 개발
 - 참여자 개개인에 따른 지원을 위한 [참여자종합분석표] 개발, 유형구분
 - 참여자 특성에 기반한 상담매뉴얼 개발
- ✓ 충분한 자기탐색, 직업탐색 기간이 必 - 직업의식교육 중요 하지만? 기존의 직업의식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이 어려웠다
 - 참여자에 맞는 직업의식교육 필요 → 희망취업설계 1~4과정 개발
- ✓ 참여자에 맞는 복지서비스와 구인기관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지역관련협의체 적극적 참여, 복지지도 제작, 이웃사촌캠페인

그렇다면

11

핵심추진사업 1 - 희망취업설계 프로그램 개발

희망취업설계 프로그램 왜, 우리가 개발해야 했나

[희망취업설계 2-자기탐색, 치유와 성장프로그램]

- ✓ 취약계층의 경우 심리적, 사회적 여러 요인으로 단순 일자리 제공과 취업 알선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움
- 사회와 고단한 일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잠재된 자아를 끌어내어 자신의 삶과 대면하게 함으로서 자신을 통찰하게 하고, 동시에 자신 안에 있던 새로운 동력을 스스로 끌어내도록 돕는 교육 절실히 필요

[희망취업설계 3 - 의사소통, 구직기술 강화프로그램]

- ✓ 일반적인 구직기술습득의 프로그램으로는 우리대상자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음
- ✓ 우리 대상자의 주된 특징인 의사소통의 부족과 취업에 있어서의 여러 걸림돌로 인해 구직면접에서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주기에는 역부족
- 참여자가 구직활동의 자신감을 가지고 구직기술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 개발

12

희망취업설계 2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 ✓ 지지받고 지지하는 상호교류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워크숍 방식 운영
 - 운영 방법을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
- 촉진자의 역할을 돕으로써 비문해자도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만지고, 그리고, 쓰고, 말하고, 타인과의 스킨십을 유도하는 도구와 놀이 등을 통해 오감을 열도록 촉진

어떠한 내용으로?

- ✓ 자신 안에 상처투성이로서 내버려져 있는 자신과, 또한 존중 받아야 할 존재로서 자신의 욕구가 존재함을 깨닫도록(자기탐색, 재발견)
- 별칭짓기, 형용사쓰기, 내 얼굴로 오감느끼기, 찰흙으로 만들어보는 아바타
 - 부정적 자아, 부정적 삶의 태도,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좌절', '무기력'을 이겨내고 '삶'을 긍정하는 태도 훈련, 자신의 강점 발견(자신의 모든 경험이 힘의 근원임을 깨달음)-(치유와 성장)
- 숨은 행복 찾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열망-목표설정

무엇을 중심으로
개발했는가

13

희망취업설계 3

기존의 프로그램 VS 한계는 무엇?

- ✓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직종 소개 VS 그 분야에 취업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
- ✓ 화려한 스킬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VS 참여자는 쓸만한 경력과 학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 ✓ 면접의 방법 태도도 중요하지만 VS 기본적으로 타인과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못하다

어떻게 개발했는가?

- ✓ 현실적이지 않은 직종소개는 의미 없다
 - 참여자에게 맞는 직업군을 중심으로 소개
-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법, 일반적인 교육내용이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 학력과 경력 등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자신만의 특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
- ✓ 면접스킬? 의사소통 부족과 취업에 있어서의 여러 걸림돌로 인해 구직면접에서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 강사에 의한 면접과 피드백이 아닌 참여자 서로가 면접관이 되어 피드백과 코멘트를 주어 스스로 파악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함. 즉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

무엇을 중심으로
개발했는가

14

핵심추진사업 2 - 실무자도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의미와 가치는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교육은 1차년도에도 진행되었는데 왜?

- ✓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의미와 가치, 철학을 제대로 알고 복지, 고용통합서비스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직무능력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사례관리의 질을 향상, 표준화 필요
- ✓ 실무자의 경력에 따라 교육을 분리하여 진행 필요
- ✓ 참여자의 특성은 매년 달라짐 - 2010년에는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의 참여가 시작됨
- ✓ 노동시장, 복지고용정책은 매년 달라짐 - 흐름에 맞는 정책적 제도적 이해가 필요

무슨 교육을 진행하였나?

- ✓ **일자리매니저 양성교육** - 신입실무자와 기존의 실무자를 구분하여 프로그램 진행
→ 총 9회 52시간으로 진행
- ✓ **일자리매니저 보수교육** - 참여자 취업 이후 재무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 대두
→ 총 1회 6시간으로 진행
- ✓ **희망취업플래너 양성교육** - 희망취업설계는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강의한다
→ 총 7회 56시간으로 진행

15

핵심추진사업 3 - 업무추진의 표준화 업무매뉴얼 매년 개발

업무매뉴얼도 경험과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 ✓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필요
 - ✓ 2009년, 2010년 업무매뉴얼 제작 배포를 시작으로 2011년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과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중심으로 재구성 필요
 - ✓ 2011년 지난 2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무매뉴얼 재구성 발간
- 희망리본프로젝트 진행과 함께 완성도 있고 견고한 빈곤취약계층의 독자적인 고용서비스 모델 역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 ✓ **제1장: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추진배경 및 기능**
→ 사업추진배경/ 기관 운영 및 역할/ 사업수행기관 지원내용/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 ✓ **제2장: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 대상자/ ISP수립법/ 서비스지원일지 작성법/ 근로여건조성/ 근로능력강화/ 일자리지원/ 창업지원
- ✓ **부록**
→ 행정서식/ 상담서식/ 직업심리검사도구/ 관련법률/ 일자리원스탑 자원목록표

16

사업추진 주요결과

2010.03.01~2011.02.28



1 참여자 기초현황 분석

일자리원스탑센터
Work Support One-stop Center

구분	내용
성별구분	남(246명, 25%) 여(754명, 75%)
대상자구분	기초생활수급자(694명, 69%) 차상위자(306명, 31%)
연령별구분	40~49세(421명, 42%) 50~59세(226명, 23%) 30~39세(202명, 20%)
학력별 구분	고졸이하 (594명 59%) 중졸이하(152명, 15%)
유형별 구분	1유형(289명), 2유형(414명), 3유형(239명), 4유형(54명)
장애질환구분	정신장애(34명), 신체장애(60명), 만성질환(298명) 총 392명(39%)

2 참여자 교육지원사업

근로동기강화-희망취업설계 1,2,3,4

- ✓ 각 유형에 맞는 취업전 준비교육을 통해 근로동기강화, 취업설계, 취업성공을 위한 실질적 기법 전달
- ✓ 참여대상자에게 맞는 취업준비교육 개발
- ✓ 참여대상자는 취업전 희망취업설계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교육받음으로써 자신의 진로설계 지원
- ✓ 일방적 강의방식이 아닌 대상자의 참여식 교육 운영

희망취업설계 1단계

- 사업설명 및 참여목적에 대한 이해
- 사업참여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부여
- 선배와의 만남
- 1일차 2시간

* 총 20회 571명 참석



19



희망취업설계 2단계

- ✓ 집단상담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감 회복지원
- ✓ 3일차 12시간

* 총 23회 - 399명 참가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만족도 84%]

- 나에게 새로운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 85%
- 취업에 대한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88.3%
- 나의 취업을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울 것이다 81.5%



20

희망취업설계 3단계

- 올바른 직업의식고취와 취업을 향한 명확한 목표설정 교육
- 3일차 12시간
- 교육내용

- ✓나를 찾는 한걸음(직업심리검사 활용)
- ✓직업의 의미
- ✓취업걸림돌 제거, 구직네트워킹형성
- ✓구직서류컨설팅
- ✓면접실전

* 총 15회 273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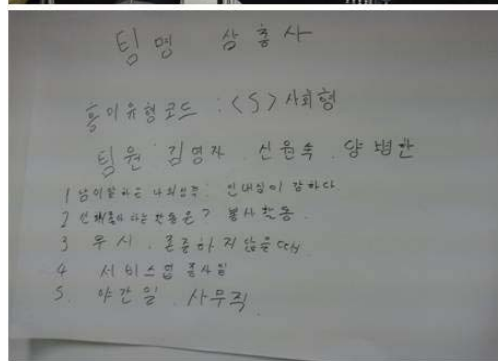


희망취업설계 4단계

- 문해력이 없는 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훈련, 직장인예절 및 이미지메이킹, 모의면접을 통한 실제 면접대비교육을 통해 취업성공 지원
- 1일차 6시간
- 교육내용

- ✓이력서 작성
- ✓직장예절 / 이미지메이킹
- ✓-모의면접/피드백

* 총 8회 88명 참석



근로능력강화- 직업교육 연계지원사업

- ✓개인별 취업지원 목표에 맞춘 교육훈련 연계를 통한 근로능력강화, 일자리폭 확대
- ✓지역자원을 활용한 무료교육연계 및 중앙센터에서 개인별 맞춤교육비 지원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연계 - '에듀윌' 온라인 자격취득과정 지원(8개 과목, 59명 지원)
- ✓인력을 다수로 필요로 하는 기업과는 기업맞춤교육 지원 - (주)해피프릿지(총 10명 참여)



4 서비스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 사업



4 대외협력사업 -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경기도와 함께 시군구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시군구 담당 공무원 설명회
2010년: 총 5회 428명 참석
2011년: 총 5회 90여명 참석

✓사업참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참여자 대상 사업설명회
2010년: 총 4회 200명 참석
2011년: 총 18회 682명 참석

5 대외협력사업 - 대외인프라 구축 사업

복지기관 MOU 및 서비스 연결	1,105
지역 네트워크 회의 참석 등	179
유관기관 사업홍보(유관기관, 지자체 담당자 등)	2,167
일자리관련 사업홍보(구인업체 등)	4,857
원스탑센터 복지, 고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	13

이웃사랑캠페인 165호 기업 약정



구인등록 4,068 건

취업알선 2,947건

구인처개발활동 3,772건

25

6 주요성과 - 취업성공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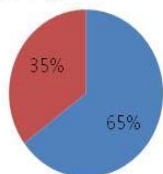
● 취업성과

성과지표	최저임금이상 1개월이상	현재시점 최저임금이상유지자	최저임금이상 취업성공자	최저임금이상+이하
실적(명)	480명	368명	523명 (+창업 6명)	656건

● 평균임금: 1,080,000원

● 취업자분석

보장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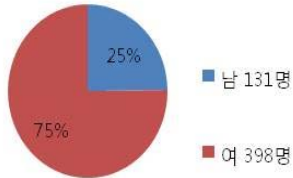
- 수급자 343명
- 차상위 186명

- ✓ 전체취업자중 65%가 기초생활수급자, 35%가 차상위자로 구분되었으나
- ✓ 기초생활수급자 중 49.4%가 취업성공
- 차상위자 중 60.8%가 취업성공함에 따라 차상위 참여자의 취업성공률이 높음을 알 수 있음

26

6 주요성과 - 취업성공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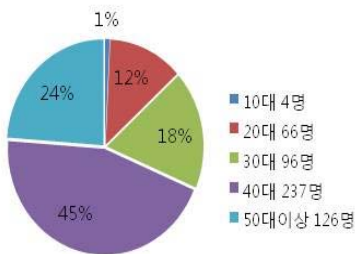
성별구분



✓취(창)업 성공자중 여자가 75%, 남성이 25%의 분포도를 보이고 있음

✓전체 여성 중 취업 성공자는 52.8%, 전체 남성중 취업성공자는 53.2%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남성참가자가 조금 높은 취업율을 보이고 있음

연령별 인원



✓취(창)업 성공자중 40대에서 가장 높은 취업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50대이상의 취업성공자가 많음을 알 수 있음
 ✓40대 참여자 중 취업성공율은 56.3%이며, 50대 참여자 중 취업성공율은 47.0%로 나타남
 ✓30대는 47.5%, 10~20대는 63.6%의 취업성공율을 보임
 ✓참여자는 40대-50대이상-30대-20대 미만으로 분포하며, 취업성공율은 20대미만-40대-30대-50대 이상 순

6 주요성과 - 취업성공성과

유형구분



1유형 중 37.7%가 취업성공
 2유형 중 54.1%가 취업성공
 3유형 중 64.2%가 취업성공
 4유형 중 83.3%가 취업성공
 ✓2유형의 취업성공율이 가장 높았으나 각 유형중에서의 취업성공율은 4-3-2-1유형순으로 나타남

업종구분



✓전체 취업자중 단순노무종사자가 33.4%로 가장 많고, 서비스종사자 25.9%, 사무종사자 12.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3%순임

6 주요성과 - 서비스지원실적



- ✓ 참여자에게 제공된 총 서비스건수는 53,710건으로 1인당 평균 53.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 서비스 지원분야중 근로동기강화가 34.7%로 가장 많이 지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후관리 19.1%, 근로역량강화 17.5%, 취업지원 15.8%, 복지서비스 10.4%순임
- ✓ 지역센터별 서비스지원분야와 취업성공률 비교분석 해 보았을 때 취업지원서비스 비율이 높다고 해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음. 성남, 파주센터의 경우 취업성공률은 가장 높았으나 취업지원서비스는 타 지역센터보다 낮았으며, 근로역량분야와 복지서비스 지원분야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음

29

6 주요성과 - 유형상(하)향 현황

유형상향			유형하향		
인원		349명	인원		53명
비율		34.9%	비율		5.3%
1유형	2유형상향	19명	2유형	1유형 하향	21명
	3유형상향	25명		3유형	2유형 하향
	4유형상향	52명	1유형 하향		14명
2유형	3유형상향	47명	4유형	3유형 상향	2명
	4유형상향	121명		2유형 하향	2명
3유형	4유형 상향	85명		1유형 하향	1명

- ✓ 참여대상자 1,000명 중 사업참여 후 최종 유형 상승된 인원은 349명으로 34.9%가 유형 상향되었으며, 유형하향자는 5.3%로 나타났음
- ✓ 유형상향자는 의식변화, 사례관리, 직업교육등 취업준비과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 유형하향 된 인원은 52명으로 가족 및 대상자의 건강악화로 인한 자가 19명, 근로의지없음으로 인한 자가 11명, 반복된 취업회피자가 10명, 기타 임신등으로 취업이 어려워 유형이 하향된자가 6명으로 나타남
2차년도에는 대상자종합분석표에 의해 초기유형오류자가 6명으로 1차년도 오류자 32명에 비해 감소
- ✓ 참여기간동안 사례관리, 희망취업설계, 직업교육등으로 취업하거나 의식변화로 인해 변화된 참여자는 결과가 반드시 취업이 아니더라도 과정속에서 변화된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음

30

6 주요성과 - 미취업자 중 유형상승자

- ✓취업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의식변화 등으로 유형이 상승하여 취업을 준비중인 자는 총 100명으로 나타남
- ✓이들은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경과적일자리 참여, 직업교육 참여등으로 향후 취업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

구분	유형상승인원	현재상태
1→2유형상승	15명(15.0%)	1순위: 취업준비중(9명/60.0%) 희망취업설계를 통한 의식변화, 가족문제해결, 채무조정등으로 인한 요인으로 유형상승 2순위: 경과적일자리 참여중(5명/ 33.3%) 의식변화, 사례관리 지속으로 인한 취업의지 발생등으로 유형상승 3순위: 직업교육 수강중(1명/6.7%)

구분	유형상승인원	현재상태
1→3유형상승	11명(11.0%)	1순위: 경과적일자리 참여중(6명/54.6%) 희망취업설계를 통한 의식변화, 가족문제해결등으로 인한 요인으로 유형상승 2순위: 직업교육참여중(4명/36.4%) 의식변화, 사례관리 지속으로 인한 목표설정등으로 유형상승 3순위: 취업준비중(1명/9.1%)

구분	유형상승인원	현재상태
1→4유형상승	7명(7.0%)	1순위: 경과적일자리 참여중(4명/4.0%) 그외 취업준비중(2명), 직업교육참여(1명)

31

6 주요성과 - 미취업자 중 유형상승자

구분	유형상승인원	현재상태
2→3유형상승	20명(20.0%)	1순위: 경과적일자리 참여중(10명/50.0%) 희망취업설계를 통한 의식변화, 직업교육 수료 후 경과적일자리 참여중 2순위: 취업준비중(6명/30.0%) 의식변화, 직업교육 수료 후 취업준비중 3순위: 직업교육 수강중(4명/20.0%)

구분	유형상승인원	현재상태
2→4유형상승	20명(20.0%)	1순위: 경과적일자리 참여중(12명/60.0%) 가족문제해결, 의식변화(건강상태에 맞는 일자리 취업)으로 유형상승 2순위: 취창업준비중(8명/40.0%) 희망취업설계를 통한 의식변화등으로 인한 취업욕구상승, 취업준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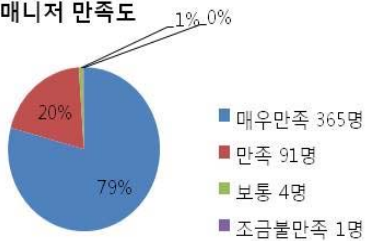
구분	유형상승인원	현재상태
3→4유형상승	13명(13.0%)	1순위: 취업준비중(10명/76.9%) 직업교육, 의식변화등으로 유형상승하여 취업준비중 2순위: 경과적일자리 참여중(3명/23.1%)

- ✓이처럼 사업참여 기간동안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사례관리, 교육 등으로 인한 의식변화에 따라 취업준비-경과적일자리참여-직업교육 수강중으로 향후 취업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음
- ✓희망리본프로젝트가 참여자의 성공적인 취업지원이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참여자의 삶의 변화에도 주목한 점은 타 사업과는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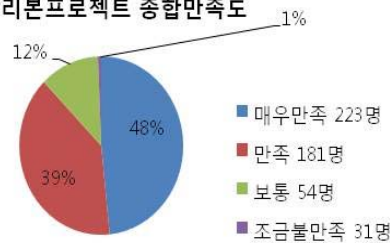
32

6 주요성과 - 자체만족도 조사 주요결과

일자리매니저 만족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종합만족도



✓일자리매니저의 만족도는 98.2%가 만족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었음. 또한 희망리본프로젝트에 참여한 종합적인 만족도는 87.1%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질문문항	그렇다 이상 응답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 할 수 있게 되었다	80.1%
어려움에 대처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졌다	82.1%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81.5%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졌다	83.4%

7 2차년도 참여자 현재상태 및 향후 지원방향

취업준비자 (총156명)

- 구직활동 중 117명
- 창업준비 8명
- 직업교육참여 21명
- 자격시험 준비 10명

향후 지원계획
취업알선 및 관련 정보제공 및 연계

취업장애 미극복자(총151명)

- 가사, 가족돌봄, 양육문제 60명
- 건강약화 91명

향후 지원계획
무한돌봄센터, 관련 정보제공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성과기준
취업유지자
368명

취업불가 사유자(총26명)

- 공공근로, 자활근로, 희망근로 16명
- 임신 6명
- 군입대 4명

기타(총168명)

- 중도탈락, 연락두절, 이사 67명
- 취업기피 53명
- 기타 48명

✓경과적일자리 참여중 119명
✓창업 12명

향후 지원계획
정보제공 및 사후관리

8

2차년도 사업평가 및 향후방향

잘된점

- ✓ 교육프로그램(희망취업설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메뉴얼화하여 참여자의 환경 및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 구축, 일자리매니저 양성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
- ✓ 1차년도 조직운영시스템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10개의 지역센터가 도내 20개 지역 대상자의 밀착 사례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안정적인 구조로 사업 추진
- ✓ 또한 지역센터당 참여자 60~150명 구조로 재편하여 일자리매니저 2인 이상이 사업을 추진하여 참여자에 대한 밀착취업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 이를 통해 일자리매니저는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동시에 적절한 복지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음

한계점

- ✓ 시범사업 제도적 한계, 타부처와의 관계부재로 인한 참여자 지원 및 사업추진 어려움
 - 사업참여 중, 취업 후 참여자에 대한 지원 혼선(추정소득부과, 자활특례적용 문제 등)
 - 참여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계좌제 신청 불가
-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부족

3차년도 사업추진방향

- ✓ 효율적인 대상자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구조 강화
- ✓ 지침, 제도 개선 및 사업지속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제안
- ✓ 시범사업 이후 중앙-지역센터간 협력적 관계를 통한 진로 모색

2차년도 지역별 성과 보고



2010년 희망리본프로젝트
최종보고서

2011년 3월

▶▶▶ 박 서 춘 | 부산광역시자활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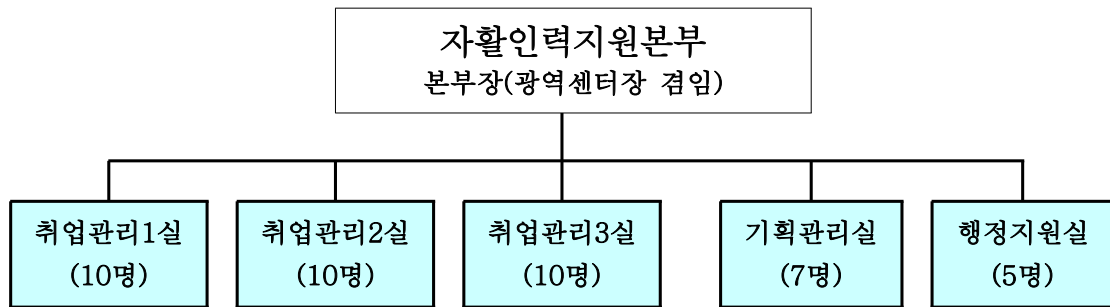
2010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최종결과 보고서

I. 추진계획 평가

□ 기본사업계획(※ 승인된 실행계획)

① 사업제안(계획)서 요약

- 수행조직 : 1본부 5실
- 인 력 : 본부장, 5실장 등 총 43명으로 구성
- 조 직 도



- 사업목표
 - 참여자 취(창)업 : 300명(30%)
 - 6개월이상 취(창)업유지율 : 150명(50%)
 - 탈 수급, 최저생계비 120%이상 소득유지 : 125명(12.5%)
- 추진전략
 - 사례관리사 1인이 참여대상자 37명 전담사례관리 및 취(창)업, 맞춤형 교육, 사후관리 등 탈수급까지 책임관리
 - 가정 및 취업 현장 방문을 통한 대상자별 밀착형 사례관리
 - 지역 유관기관, 관련단체, 기업체, 복지기관 등 구인처와 업무협약 및 연계를 통한 참여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취업, 6개월 이상 취업유지, 탈수급 등 직원 성과에 따른 성과급지급

- 전담사례관리, 맞춤형 교육 및 구인처 발굴, 행정지원 등 업무분담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 추진
- 지역자원을 활용한 취업, 창업, 복지서비스 지원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예산항목		총 소요예산	정 부 지원금	자 체 부담금	산출내역
총 계		2,723	2,723		
기본금 소계		1,523	1,523		
기 본 금	인건비	1,121	1,121		o 팀장 : 2.3×12월×4명 o 팀원 : 1.8×12월×34명
	운영비	303	303		o 월 25×12월
	대상자 교육	99	99		o 참여대상 취업교육 및 정신교육
참여자 실비		600	600		o 1인 연간 60만원 이내
성과금 지급		600	600		o 취업성과에 따른 성과금 지급

② 기본사업계획대비 변경사항

○ 사업목표대비 추진실적

(2011. 2. 28일 기준)

구 분	사업목표	추진실적	목표대비	비 고
참여자 취(창)업	300명	647명	215.7	· 총취창업자수 : 647명 (취업 634명, 창업 13명)
취(창)업 유지	150명	242명	161.3	· 6개월 이상 유지자 (취업 236명, 창업 6명)
탈수급 추진	125명	138명	110.4	· 6개월이상 자 중 지자체를 통한 확인자 138명

○ 사업목표대비 성과급 추진실적

(2011. 2. 28일 기준)

구 분	사업목표	성과급 지급인원	성과급 신청인원	총인원	목표대비
참여자 취(창)업	300명	353명	185명	538명	179.3
취(창)업 유지	150명	15명	178명	193명	128.7
탈수급 추진	125명	0명	91명	91명	72.8

※ 성과급 신청은 2011년 3월 이후 지속적 발생예정

○ 예산집행계획대비 집행현황

예산항목	집행계획 (A)	집행액 (B)	비고 (A-B)	비율	산출내역	
총 계	2,723	2,372	345	100.0%		
기본금 소계	1,523	1,406	77	56.3%		
기 본 금	인건비	1,121	1,068	53	76%	○ 직원 38명 급여 ○ 4대보험 및 퇴직금
	운영비	299	223	36	16%	○ 월 21,83×12월
	사무실 준비	4	7	-3	0.5%	○ 사무실 비품구입
	대상자 교육	99	108	-9	7.7%	○ 참여대상 취업교육 및 정신교육
참여자 실비	600	475	125	24%	○ 1인 연간 60만원 이내	
성과급 지급	600	491	143	19.7%	○ 취업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 성과급 중 2.28일 현재 청구 후 미수령 성과급 406,100,000원 제외)

□ 추진과정

①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

○ 월간/분기별 계획 및 집행내용(수량화 기술)

구 분	사업계획 단계별 추진목표	목표대비 추진현황(실적)
·'10.2월 준비	·부산시 계약	
·'10.3~5월(1단계)	·참여대상자(1,000명) 선정 ·창업아이템 개발 ·교육 : 200명	· 5월 31일 참여대상자 확정 · 3월 기초상담 등 조사 · 교육 : 263명
·'10.6~8월(2단계)	·참여자 취(창)업 350명 ·맞춤형 교육 : 250명	· 취(창)업 : 411명 · 교육 : 315명
·'10.9~11월(3단계)	·참여자 취(창)업 130명 ·맞춤형 교육 : 200명	· 취(창)업 : 175명 · 교육 : 209명
·'10.12~2월(4단계)	·참여자 취(창)업 40명 ·맞춤형 교육 : 20명	· 취(창)업 : 61명 · 교육 : 26명

<붙임 1 > 자치구(군)별 참여대상자수 및 취(창)업수

-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자치구(군)순회 모집 홍보, 복지담당직원과 회의를 통하여 대상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요청.
- ※ 자치구(군)순회 모집홍보(3.9~3.15일) : 시 자립지원계장, 주무관, 본부장, 실장 합동으로 자치구 담당과장, 계장, 주무관에게 협조요청
- 2010년 신규로 시작되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사통망) 미비로 대상자 선별지연,
- 2010년 자활사업 예산증가로 인한 자활사업 참가 대상자 확대 모집으로 사업참가 대상자 모집 제한.
- 또한 각 지자체의 지역경기부양을 위하여 년초 예산 조기집행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자활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타사업참가자 조기 모집으로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음.
- ※ 2011년 대상자 모집은 조기에 시작하여 3.1일 전 모집완료

②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 참여대상자 모집방법(내용)

- 2010. 3~5월 참여대상자 1,000명 모집을 위하여 시, 자치구(군) 담당 복지직원과 3월 회의 및 기일내 대상자 모집이 저조하여 자치구 담당계장 독려, 자치구·군별 모집인원 배정 등을 통하여 대상자 1,045명 모집 등 대상자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자치구(군) 순방(3.9~3.15일) : 시 자립지원계장, 본부장, 주무관, 본부 실장 합동으로 자치구 담당과장, 계장, 주무관에게 협조요청

- (대상자 모집시 애로사항) 2010. 1월 기존의 자활사업에 근무하여야 할 자활사업 대상자를 모두 모집한 이후 3월부터 본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다보니
- 자치구(군)별 대상자 모집인원 배정(할당), 자치구(군)에서는 동주민 센터별 대상자 할당 등 무차별, 강제적인 대상자 모집이 되어 기초조사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가 많았으며, 기초조사 이후에도 억지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더러 있었음.
- 또한 사회통합전산망 구축, 희망리본프로젝트 2009년 참여대상자 감사원요구자료 등으로 인하여 자치구(군) 담당자의 업무 과부하로 대상자 모집이 힘들었음.
- 그러나 본부 자체적으로 2009년 취(창)업 실적을 바탕으로 한 브로셔 제작 및 지역신문 기사게재, 유료신문을 통한 홍보, 특히 동주민 센터에 참여대상자 모집을 위한 X-배너 설치 및 버스 광고 등으로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상자가 발생하였고 기초조사이후 적극적으로 취업 의사를 밝히는 대상자가 많이 있어 사업초기 취업 성과가 많이 나타남.

○ **참여대상자 교육방법(내용)**

- 2010년 3~5월 자치구(군) 또는 본부 자체적인 홍보방법으로 대상자 모집과 대상자 모집 후 기초상담 등 본사업 착수를 병행하다 보니 '10년 3월 초에 사업참여를 신청한 수급자, 차상위자들중 생계가 급한 대상자는 불평과 동시에 빠른 취업을 요구하였으며
- 본부 사례관리사 1명이 대상자 37명을 전담하여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업스킬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계좌제 등 교육 소개 및 교육수강 확인, 신용불량 대상자 신용회복 방법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 취업을 기피하고 우울증 등 장기간 깊이있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부산시(사회복지과 권복순 자립지원계장)에서 개발한 자립마인드 향상 프로그램인 **심밭에 밑알심기 프로그램** 훈련을 실시한바 있음.
-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부산알콜상담센터를 통한 치료, 대상자 본인이 **장애인줄을 모르고 생활하는 대상자**를 장애인 판정지원을 통한 지적장애판정, 이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한 취업처 지원협조 등 사례관리사가 대상자를 교육시키고 적절한 업종에 취업시키는 데 주력하였으며
- 사례관리사가 교육 및 사례관리하기 어려운 대상자(장기간 깊이있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취업실 실장·사례관리사의 사례토의와 본부장, 실장, 실원 모두가 참석한 사례토의를 통하여 대상자 교육방향, 사례관리 방향을 확정하여 취업을 알선하였음.

○ **참여대상자 서비스 요구 및 연계내용**

-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대상자와 부산지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전면허학원 6곳과 업무협약을 맺어 운전면허를 취득 후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 또한 자신감 귀취를 위한 사례관리의 한방편으로 중, 고등학교 미졸업자에 대하여는 검정고시 학원과 연계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토록 하였음.
- 본인의 적성을 잘 모르는 대상자의 경우 MBTI, STRONG, 홀랜드 검사 등으로 본인이 성격 및 적성을 알도록 하였고,
- 취업스킬교육, 이력서교육, 모의면접 등을 통하여 취업을 위한 실제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을 연계하였음.

<붙임 2 > 참여대상자 교육연계실적

○ 본부 종사자 모집 및 교육

- 2009년 본부 종사자 43명은 취업관리, 기업체 발굴, 교육훈련, 행정 지원 등 직원이 근무할 업무에 맞게 채용공고를 통하여 공개채용을 하였으며 2010년 3명에 대한 결원에 대하여도 공개채용하였음.
- 전직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퇴근이후 직원상호간에 토의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 애로사항 토의 및 본부장, 실장이 참여한 토의를 통하여 직원능력을 향상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취(창)업에 최선을 다하였음.
- 월 1회 전직원 월례조례 및 본부장 교육과 수시 본부직원과 본부장과의 대화시간을 통한 사례관리 협의
- 또한 직원 개인능력 향상을 위한 MBTI 등 적성검사 교육,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 교육 등에 최대한 지원하고 있음.
- 2010년 직업상담사 자격증 3명 취득
- 2011. 3. 20일 :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18명)

<붙임 3 > 직원 교육실적

③ 성과목표의 부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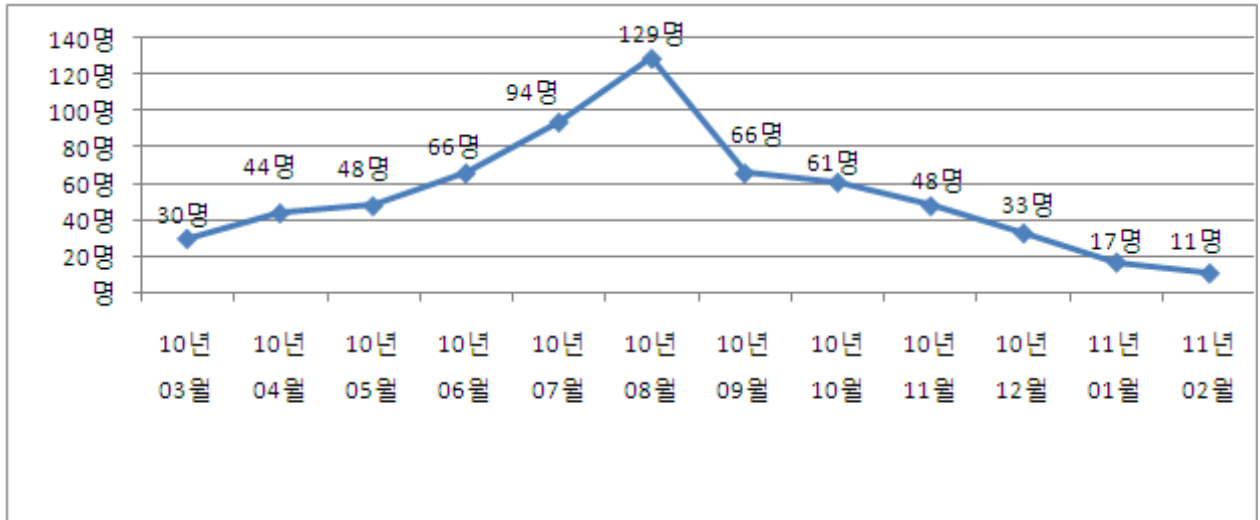
- 2009년 1차년도 사업을 바탕으로 사례관리자의 밀착사례관리와 참여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취(창)업 추진실적을 높였으며
- 취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9~11월 취업자가 6개월 동안 유지를 한다면 탈수급 목표 달성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대상자가 희망키움통장 가입으로 인하여 7,8월에 많은 취업성과를 거둠.

<사업목표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사업목표	추진실적	목표대비	비 고
참여자 취(창)업	300명	647명	215.7	· 총취창업자수 : 647명 (취업 634명, 창업 13명)
취(창)업 유지	150명	242명	161.3	· 6개월 이상 유지자 (취업 236명, 창업 6명)
탈수급 추진	125명	138명	110.4	· 6개월이상 자 중 지자체를 통한 확인자 138명

< 월별 취(창)업자수 >

취(창)업보고시기	취(창)업수	%	재취업수
10년 03월	30명	4.6%	명
10년 04월	44명	6.8%	2명
10년 05월	48명	7.4%	3명
10년 06월	66명	10.2%	7명
10년 07월	94명	14.5%	10명
10년 08월	129명	19.9%	31명
10년 09월	66명	10.2%	28명
10년 10월	61명	9.4%	62명
10년 11월	48명	7.4%	49명
10년 12월	33명	5.1%	48명
11년 01월	17명	2.6%	25명
11년 02월	11명	1.7%	15명
합 계	647명	100.0%	280명



II. 집행내용

□ 취업지원 사례관리 업무

- ① 업무인원 : 본부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본부직원 41명(공개채용)
- 취업관리 1·2·3실 30명 : 대상자 사례관리 및 취(창)업 추진
 - 기획관리실 7명 : 구인기업체 발굴을 통한 취업지원, 대상자 교육 및 직원 교육인원
 - 행정지원실 4명 : 실비·기본급 지급, 홍보, 취(창)업 실적보고 등 행정지원

② 취업前 업무내용(주요지원 내용/기타지원내용)

- 주요지원 내용(기본사항) : 대상자별 초기상담과 유형별 구분척도에 의한 정확한 욕구 파악 후에 개인별 활동계획(ISP)수립 후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였음.
 - 먼저 대상자별로 근로욕구 고취를 위한 근로동기 강화를 위해서 MBTI, STRONG 검사를 활용한 심리상담 및 진단검사를 지원하였고, 취업욕구 있는 대상자의 근로역량강화 교육실시를 위해서 기술

교육, 자격증 취득교육 등 직능교육을 대상자 실비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활용하면서 취업前 사례관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 개인별 맞춤형 취업정보제공 후에 취업알선에 동의하는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력서작성과 면접스킬 등 취업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에 사례관리사가 직접 본부차량을 이용하여 동행면접을 지원하였음. 그리고 취업처가 정부 또는 지자체 유관기관 및 복지시설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자활인력본부장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하여 서류심사 과정에서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특이사항** :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과정에서 도출된 근로장애요인 해소를 위해서 양육이나 돌봄 등의 취업장애요인 제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특히, 대상자별로 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 신청지원이나 기타 요양보호나 장애인 돌봄 서비스지원을 위한 장애등급 신청, 기타 밑반찬 도시락배달서비스 등 복지관 재가서비스지원과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예:정기적 건강검진)를 통해서 취업욕구는 있으나 취업 장애요인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차별화된 취업前 사례관리를 지원하였음.
- **기타지원 내용** : 취업에 대한 욕구와 삶에 대한 의욕이나 목표의식도 부족한 참여 대상자에게는 부산시 자체에서 개발한 자립마인드 향상 프로그램인 『심(心)밭에 밑알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상자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삶의 근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함.
- 이외에도 신용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MOU 체결되어 있는 법무사와 적극 연계하여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등을 상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정신장애가 있는 심화관리대상자는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및 정신보건지원센터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심층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대상자에게 여가활용을 위해서 무료영화공연지원하여 가족이라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였음.

③ 취업後 업무내용

- **기본지원사항** : 대상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와 맞춤형 취업알선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근로유지를 할 수 있도록 취업 초기에 **격려문자 발송, 주기적인 안부 및 격려전화** 그리고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취업처를 방문하는 등** 취업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함. 또한, 취업자에게는 대상자 실비를 초기 교통비 및 취업유지활동 소요 실비로 적극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근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음.
-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직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자가 끝까지 대상자를 포기하지 않고 **이전의 취업알선과 퇴사한 직장의 문제점을 재분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사례관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근로의지를 강화해가기 위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음.
- **특이사항** : '10년 11월에는 참여대상자 850여 가구에 본부 전직원과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직접 김장김치를 담궈 **가가호호** 배송하였으며,

연말에는 본부 대상자 중 취업자 및 가족, 미취업자 중 취업욕구가 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중심으로 **희망리본 가족의 밤에 600여명**을 초청하여 취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취업가능자가 함께 어울리는 **희망리본 가족의 밤**에서 대상자에게 다시 한 번 자존감을 심어주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면서 우리 자활인력본부가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음.
- **기타지원 내용** : 취업자에게는 탈수급을 통한 자립이라는 마인드를 계속 함양시키면서 수급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인 **희망키움통장과 자산형성지원사업(IDA)**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탈수급에 한발 더 다가 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이외에 취업처에서 일하는 동안 근로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대상자 가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나, 의료비지원, 자녀학자금 혜택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직장에서 편안하게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또한 우리 참여대상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와 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음.
- 취업된 업체와 협조관계 유지 : 2명 이상 우리 사업 참여자가 근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원하여 우수 기업체로 관리하며 관리유지를 위해 본부행사 시 사업주를 초청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수 기업체에 대한 인증패 수여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본부와 고용주간의 교류의 폭을 넓혔음.
- 취업 후 적응을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업처에 멘토 지정을 요청하여 조기 적응을 유도

□ 사업비

① 기본금 집행 및 실적(율)

○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0.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 1월	2월	합계
합계	126.7	126.7	126.7	126.7	126.7	126.7	126.7	126.7	126.7	126.7	126.7	126.7	1,523
인건비	93.4	93.4	93.4	93.4	93.4	93.4	93.4	93.4	93.4	93.4	93.4	93.4	1,121
운영비	24.9	24.9	24.9	24.9	24.9	24.9	24.9	24.9	24.9	24.9	24.9	24.9	299
사무실준비	0.33	0.33	0.33	0.33	0.33	0.33	0.33	0.33	0.33	0.33	0.33	0.33	4
교육비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99

○ 집행

(단위 : 백만원)

구분	'10.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 1월	2월	합계
합계	30	195	132	139	107	102	124	105	130	117	97	128	1,406
인건비	15	149	99	118	82	81	99	77	90	78	75	105	1,067
운영비	10	37	19	16	16	16	21	18	14	28	10	19	224
사무실준비	-	1	-	-	-	4	-	-	-	1	1	-	7
교육비	5	8	14	5	9	1	4	10	26	10	11	4	108
계획-집행	97	-68.3	-5	-12	20	25	3	22	-3	10	30	-1	85

② 실비 집행 및 실적(율)

(단위 : 백만원)

구분	'10.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 1월	2월	합계
집행계획(A)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600
집행실비(B)		18	35	48	44	44	42	44	53	72	36	39	475
A-B		37	20	7	11	11	13	11	2	-17	19	16	125

③ 성과금 집행 및 실적(율)

(단위 : 백만원)

구분	'10.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 1월	2월	합계
집행계획(A)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0
집행실비(B)		34	30	28		29	100		73	197			491
A-B		-34	30	32	60	31	-40	60	-13	-137	60	60	109

4 예산 활용 적정성

- 1차년도에 사례관리사 1인당 37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편성하고 지원 부서에 다수 인원을 배치하였으나 자연감소(퇴사)로 인해 사례관리사의 결원을 현 지원 부서에서 보충하고, 신규인원 4명을 지원 부서에 충원하였으나, 하반기 추가 결원 발생으로 인건비는 계획대비 미집행 잔액 발생.
- 국고 지원예산인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무실 비품 및 소모품 비용 최소화, 비품 구매 등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 1차년도와는 달리 2차년도에는 1년간의 경험과 사례관리사의 개인차 및 개인간의 능력차이 등을 본부장, 실장들이 파악하여 주1회 사례관리 토의, 월1회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월례조례 및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한 토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1년차에 주로 실시하였던 초청간연비나 능력향상을 위한 특강비용 등의 비용 요소를 감소 하는 등 기본급 예산 편성을 적절히 조정하였음.
- 그러나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12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사례관리사가 실비를 지급하기 전 참여자들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무조건 지급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임.
- 성과급은 모니터링 시간소요로 적시적절한 예산 집행이 지연되었으며 2010년 성과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준비된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2011년 1월부터 취업유지 및 탈수급 성과급을 지원하지 못함.

□ 홍보

① 주요홍보

○ 사례관리, 교육연계를 통한 취업지원과정 방영

- 일 시 : 2010. 6. 10(목) 방영 (20분)
- 언론사 : “KBS 갈매기 도시락” 방송
- 참여대상자 : 이O호
- 취업기업체 : 명성공업
- 내용 :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소개, 알콜의존증인 참여대상자의 집
중사례관리, 교육연계(특수용접)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는
모습 및 가족(다문화 가정)의 화합, 인터뷰 등 방영

○ 성과관리 취업실적 신문사 홍보

- 일 시 : 2010. 12. 21(화)
- 신문사 : 동아일보
- 제 목 : 『“일하는 기쁨 알려준 희망리본 고마워요”』
- 주요내용 : 부산 저소득층 자활사업 성과, 2년간 1002명에 일자리
지원, 2,500명에게 사회서비스 지원

○ 저소득층 지원 업무협약 홍보

- 일 시 : 2010. 4. 27(화) ~ 4. 28(수)
- 언론사 : YTN, CBS, KBS, MBC
- 내용 :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지원(부산지역내 6개 운전 전문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 일 시 : 2010. 8. 23(월) ~ 8. 27(금)
- 언론사 : KBS, MBC, KNN
- 내용 : 부산지역내 종합병원과 저소득층에게 유.무산 의료지원 업무
협약(부산지역내 4개 종합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② 기타 팜플렛 등 홍보

- 부산시 자활인력지원본부 홍보 팜플렛 및 리플렛 제작 및 배포
 - 본부 취업실적 및 참여대상자 지원사항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자활사업 팜플렛 4,000부 및 리플렛 4,000부 제작
 - 16개 자치구(군) 및 21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우편발송)
 -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등 저소득 층 지역주민 방문 용이한 장소 배포 및 기업체 방문시 배포를 통한 홍보

- 『2010 희망리본 가족의 밤』 개최
 - 일시.장소 : 2010. 11. 25(목) 16:30, 허심청 대청홀
 - 내용 : 참여대상자와 사례관리자의 화합도모 및 취업성공사례 발표

 - 참석대상 : 총 600여명(사업참여대상자 및 가족 450명, 부산시 복지건강국장 ·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 중앙자활센터 등 유관기관 인사, 취업기업체 대표, 본부직원 등)

- 2010년도 성과관리 자활사업 관련 지역언론사 광고홍보
 - 홍보기간 : 2009. 12월 ~ 2010. 3월말
 - 홍보방법 : 메트로 및 포커스 격주 1면 지면광고
 - 내용 : 성과관리자활사업 홍보 및 2010년 대상자 모집 안내

□ 사업방식의 효율성(자체평가)

○ 사업추진체계 형태의 적정성(잘된점/미흡한점)

- 2010년 2년차를 맞아 본사업의 체계적인 수행과 성숙도를 높이기 위하여 성과관리 자활사업의 특징상 사례관리와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7실 체계(취업관리실3, 경영전략실, 교육지원실, 행정지원실)에서 효과적인 협조와 통합지원체계유지를 위한 6실체계로 조직을 조정편성하였으며
- 업무는 사례관리를 위한 취업관리실과
- 구입기업체 발굴 및 기업과 업무협조, 홍보, 대상자 및 직원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
- 전직원이 본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실 등으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였음.
- 부산시 16개 자치구(군)를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리 전담관리자를 지정관리(사례관리 업체관리, 지역자원관리)

- 직원 개인 취업성과에 따른 성과금이 차등 지급됨으로 상호협조 문제에서 일부직원의 경우 유익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보유하는 점,
지역자활센터 취업지원사업 및 인큐베이팅 사업과 협조하지 못하는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과급지급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잘된점/미흡한점)

- 전직원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취업사례관리 직원의 취(창)업실적에 따른 취업가점, 실장의 실원평가 가점, 본부장 직원평가 가점 등을 통한 직원실적 평가를 종합한 점수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였으며
- **취업실적이 높은 직원에게는 높은 성과금을** 실적이 미진한 직원에게는 기본성과금을 지급하였으며 기본취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직원은 연봉을 연봉을 조정하거나 조건부 재계약을 실시하여 전직원이 본 사업에 매진하도록 하여 성과금 지급방식은 적절히 활용하였음.

- 성과금 지급방식이 개인 취업실적 중심으로 흐르다보니 체계적인 사례관리보다는 취업중심의 성과관리가 우려 되고 있어 성과금지급 시 사례관리에 대한 사항도 적절한 반영이 요구됨
- 유사사업과의 중복이나 관계성(잘된점/미흡한점)
-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은 다소 모집하는 대상자가 다를 뿐 행자부의 **희망근로**,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복지부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 **인큐베이팅사업**, **취업사례관리** 등 저소득층 대상자가 혼돈할 정도로 중복이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대상자 선정작업간에는 각 사업별 참여자 유치 경쟁이 발생하는 등
사업수행기관간 협조보다는 갈등조짐이 일고있음.
 -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직원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가중시켜 업무의 집중과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단순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사업진행정도의 적정성(잘된점/미흡한점)
- 본 사업 참여대상자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88%)로 초기에는 **현 생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으나 기초상담과 ISP작성간 신뢰감을 주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고양시키므로써 자신감을 찾고 취업에 임할수있었음
 - 2년차에는 사례관리사의 적극적인 교육과 기획관리실의 적시적절한 업체발굴 및 정보제공 동행면접등 입체적 서비스지원 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대상자들을 취업시키는데 결정적역할을 하였으며, 본부 사례관리사 1명이 대상자 37명을 전담 사례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긍심 함양과 **첫출근을 꺼리는 대상자의 경우 집에서부터 동행하여 기업체에 출근을 시킨후 멘토를 편성해주는 등 조기적응할수있도록**하므로써 취업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특히 20대의 젊은 대상자들에게는 장래성이있는 취업처를 발굴하여 소개하므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내고 사전 체험 등을 통해 조기에 취업처에 적응하도록 하였음.
- 사업취지 및 시범사업 대상자의 적정성(잘된점/미흡한점)
 - 자활역량평가결과 70점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점수판정이 주관적이라서 차이가 많이 났으며, 대상자 선정 통보시기(모집시기 1~3월)가 예산결산, 자활사업 대상자 모집업무등의 중첩과 자치구(군)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파악 등으로 대상자 모집시 혼란이 발생하고있었음
 - 지자체의 신규 발령된 직원이 업무현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 모집하다보니 일부 관심부족과 업무의 혼선이 발생하고 비능률적이었음 특히 본 사업은 구와 동주민센터의 복지직 직원간 협조와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을 인지하고 협조해야하나 복지직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협조에 제한이 있었음.
 - 따라서 자치구 통합조사팀에서 수급자의 자활역량평가 결과를 토대로노동부취업패키지사업,성과관리사업,지역자활사업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안내하므로써 혼란을 막도록하고 본사업에 편성된 인원에게 타사업참여를 권유하는등의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하겠음.
 - 계약완료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므로써 약 1~3개월간 대상자모집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등 사례관리에 제한을 받게되므로 주관기관에서는 계약전 대상자를 선발하여 계약과 동시에 수행기관에 통보해주므로써 상담, 활동계획작성 및 사례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겠음
- 미취업자에 대한 조치 여부(계획수립 여부 및 내용)
 - 3009년 2월말을 기준으로 2009년도 대상자중 미취업자 일부를 관리하며 취업에 이르도록 일부를 관리하였으나, 2010년 참여대상자

에 대해 서는 사례관리가 종료되는 시점(2010.2월말)에 사업종료 통보를 실시하여 2010참여대상자중 미취업자들이 사례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따라서 일부사례관리사들은 업무부담이 있었음

2010.2월말 취(창)업 유지 284명,

계속적으로 사례관리 54명, 2010신규참가자 1000명 등

2010년 대상자 모집이 종결된 시점부터8월까지 총 1,338명 관리

○ 전체 규모 및 사업항목별 예산의 적정성(잘된점/미흡한점)

- page 14 참조

○ 업체 및 대상자 홍보의 적정성(잘된점/미흡한점)

- page 16~16 참조

Ⅲ. 성과

□ 기본성과(※ 시스템에서 발취)

○ 취(창)업을

• 고용형태

(단위 : 명)

고용형태		취업자	재취업	3차취업	4차취업	합계
취업	정규직	166	48	17	2	233
	비정규직 - 상용직	434	163	39	5	641
	비정규직 - 임시직	10	3	1	1	15
	비정규직 - 일용직	43	10	2	0	55
창업		13	2	0	0	15
합계		666	226	59	8	959

- 최저임금이상 647명, 최저임금이하 19명

• 임금분포(시스템 임금부분 일부 미입력으로 보고실적기준)

급여		취업자	재취업	3차취업	4차취업	합계
취업	859천원미만	19	8	4	1	32
	85.9만원이상 ~ 90만원이하	45	6	4	1	56
	90만원이상 ~ 100만원이하	131	36	7	0	174
	100만원이상 ~ 110만원이하	143	53	6	2	204
	110만원이상 ~ 120만원이하	63	14	6	0	83
	120만원이상 ~ 130만원이하	99	53	9	0	161
	130만원이상 ~ 140만원이하	51	22	10	0	83
	140만원이상 ~ 150만원이하	29	10	7	3	49
	150만원이상 ~ 160만원이하	42	13	2	1	58
	160만원이상 ~ 170만원이하	10	1	2	0	13
	170만원이상 ~ 180만원이하	6	4	1	0	11
	180만원이상 ~ 190만원이하	4	1	1	0	6
	190만원이상 ~ 200만원이하	5	0	0	0	5
	200만원이상 ~ 210만원이하	1	1	0	0	2
220만원이상 ~	5	2	0	0	7	
창업		13	2	0	0	15
합계		666	226	59	8	959

• 취업률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업종	취업자	재취업	3차취업	4차취업	창업	합계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2	2	0	0	0	4
건설업	16	6	1	0	1	2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교육서비스업	22	5	2	0	0	29
광업	1	0	0	0	0	1
금융 및 보험업	23	4	2	0	0	29
농업, 임업 및 어업	3	2	0	0	0	5
도매 및 소매업	80	25	8	1	3	1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0	21	1	0	1	83
부동산업 및 임대업	4	1	1	0	0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30	39	15	1	0	185
숙박 및 음식점업	78	26	7	1	3	11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11	4	1	2	37
운수업	19	4	1	0	2	26
전기, 가스, 수도사업	6	0	1	0	0	7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15	5	1	1	1	23
제조업	156	61	13	2	0	232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6	1	0	0	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5	6	1	1	2	25
합계	653	224	59	8	15	959

○ 취(창)업유지율

• 고용형태

(단위 : 명)

고 용 형 태		취(창)업자
취업	정규직	141
	비정규직 - 상용직	361
	비정규직 - 임시직	7
	비정규직 - 일용직	27
창 업		14
합 계		550

- 최저임금이상 532명, 최저임금이하 18명

• 임금분포(시스템 임금부분 일부 미입력으로 보고실적기준)

급 여		취업자
취업	859천원미만	18
	85.9만원이상 ~ 90만원이하	36
	90만원이상 ~ 100만원이하	107
	100만원이상 ~ 110만원이하	110
	110만원이상 ~ 120만원이하	57
	120만원이상 ~ 130만원이하	87
	130만원이상 ~ 140만원이하	39
	140만원이상 ~ 150만원이하	20
	150만원이상 ~ 160만원이하	37
	160만원이상 ~ 170만원이하	7
	170만원이상 ~ 180만원이하	8
	180만원이상 ~ 190만원이하	3
	190만원이상 ~ 200만원이하	0
	200만원이상 ~ 210만원이하	2
220만원이상 ~		5
창 업		14
합 계		550

• 취업률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업종	취업자	창업	합계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2	0	2
건설업	15	1	1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교육서비스업	22	0	22
광업	0	0	0
금융 및 보험업	21	0	21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1
도매 및 소매업	71	3	7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0	1	6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0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2	0	82
숙박 및 음식점업	65	2	6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	2	19
운수업	14	2	16
전기, 가스, 수도사업	2	0	2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12	1	13
제조업	125	0	12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0	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8	2	20
합계	536	14	550

□ 취(창)업자 분석(본부분석 자료)

※ 본부분석 자료는 시스템분석 이외의 항목을 분석한 자료임.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 취(창)업자 - 취업자 634명 - 창업자 13명	647명	◦ 취(창)업 성과금 지급 및 신청 인원: 538명 - 취업 : 532명 - 창업 : 6명
◦ 859천원 미만	19명	◦ 6개월 유지 성과금 지급 및 신청인원 : 193명 - 취업 : 190명 - 창업 : 3명 ◦ 탈수급 성과금 신청인원 : 91명
◦ 취(창)업 유지자수	242명	
◦ 탈수급 인원	1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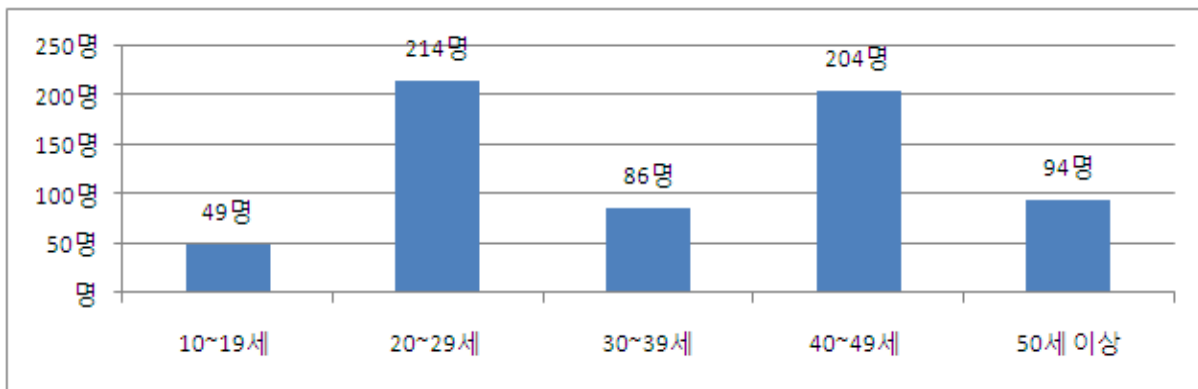
※ 월급여 859천원미만 취업자 19명 본부분석자료 분석 제외

- 총 취(창)업자 누계 : 647명
 - 취업자 : 634명
 - 창업자 : 13명

① 취·창업자 성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 령 \ 성 별	계	비율	남	여	비율(%)	
					남	여
10 ~ 19	49	7.6	20	29	3.1	4.5
20 ~ 29	214	33.1	81	133	12.5	20.6
30 ~ 39	86	13.3	29	57	4.5	8.8
40 ~ 49	204	31.5	71	133	11.0	20.6
50세 이상	94	14.5	59	35	9.1	5.4
계	647	100	260	387	40.2	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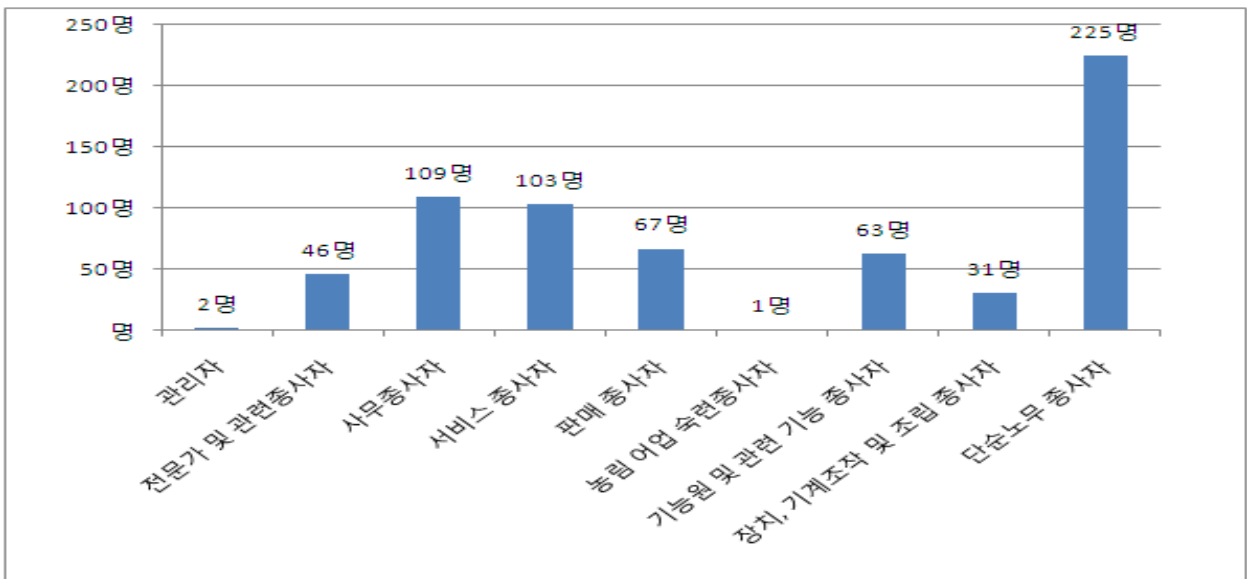
② 대상자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취업수	창업수	계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558	13	571	88.3
차상위계층	76	0	76	11.7
합 계	634	13	647	100

③ 업종별 현황

취(창)업자 업종별	취(창)업자 수	비율 (%)
관리자	2 명	0.3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46 명	7.1 %
사무 종사자	109 명	16.8 %
서비스 종사자	103 명	15.9 %
판매 종사자	67 명	10.4 %
농림 어업숙련 종사자	1 명	0.2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3 명	9.7 %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31 명	4.8 %
단순노무 종사자	225 명	34.8 %
계	647 명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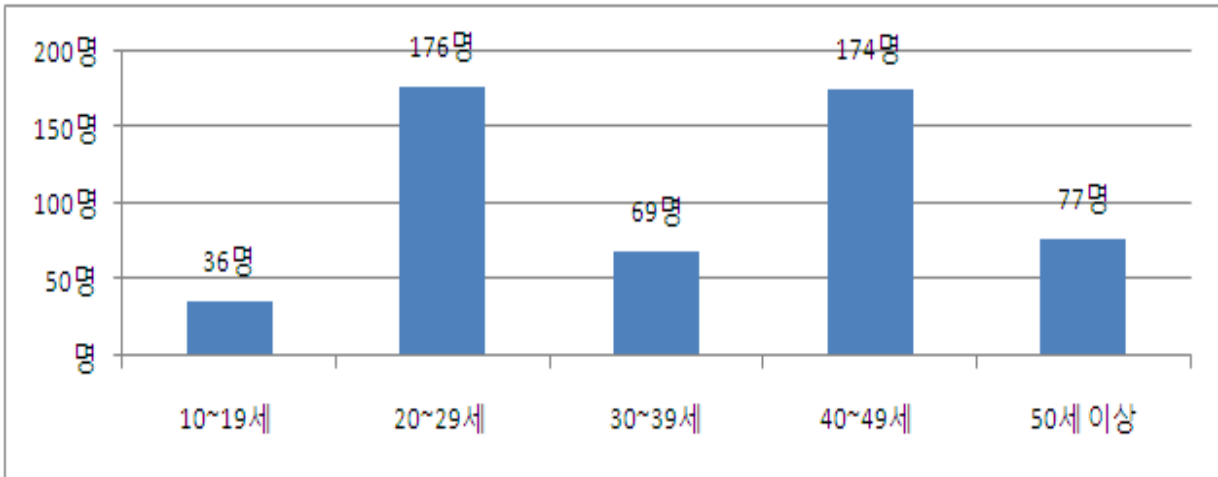


○ 취업유지자(532명) 분석

① 취·창업자 성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	성별	계	비율	남	여	비율(%)	
						남	여
10 ~ 19		36	6.8	15	21	2.8	3.9
20 ~ 29		176	33.1	58	118	10.9	22.2
30 ~ 39		69	13.0	22	47	4.1	8.8
40 ~ 49		174	32.7	57	117	10.7	22.0
50세이상		77	14.5	45	32	8.5	6.0
계		532	100	197	335	37.0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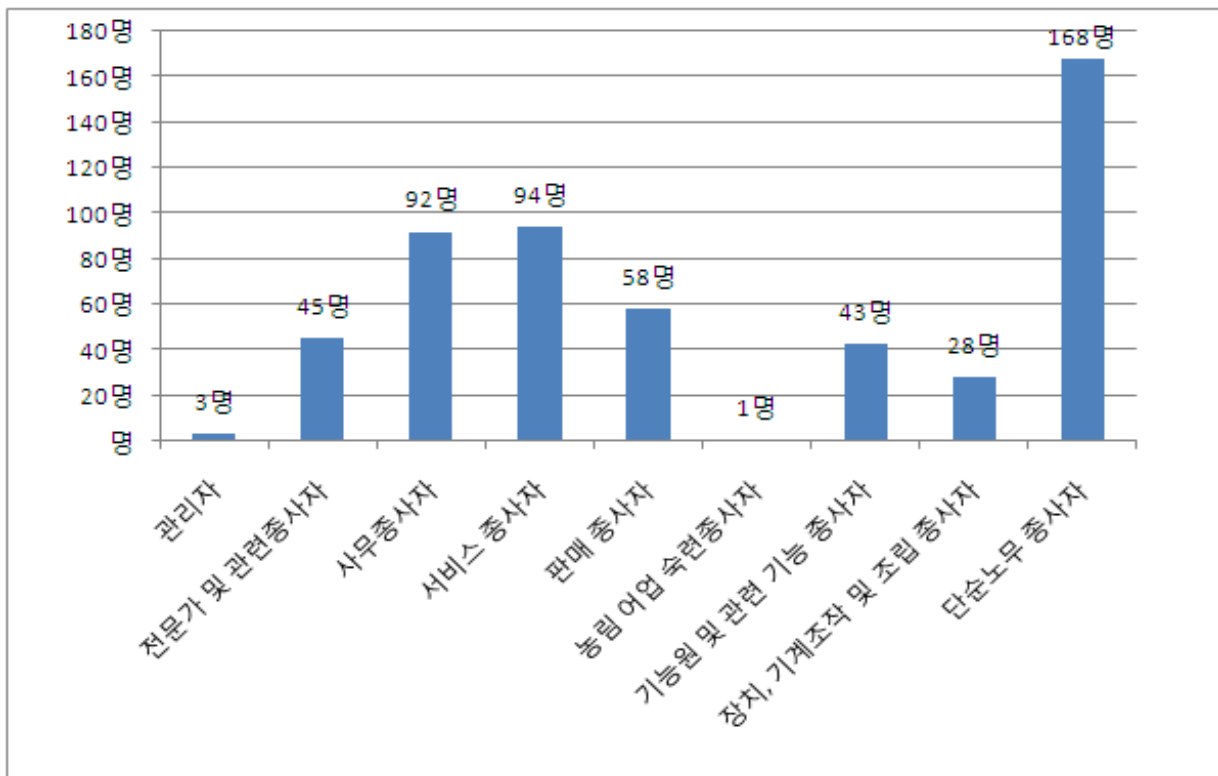
② 대상자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취업수	창업수	계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462	14	476	89
차상위계층	56	0	56	11
합계	518	14	532	100

③ 업종별 현황

취(창)업자 업종별	취(창)업자 수	비율 (%)
관리자	3 명	0.6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45 명	8.5 %
사무 종사자	92 명	17.3 %
서비스 종사자	94 명	17.7 %
판매 종사자	58 명	10.9 %
농림 어업숙련 종사자	1 명	0.2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3 명	8.1 %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28 명	5.2 %
단순노무 종사자	168 명	31.5 %
계	532 명	100 %



○ 창업자 분석 : 창업자 13명, 취업 퇴사후 창업자 2명

▷ 창업이후 14명 계속유지중(1명 폐업)

① 창업자 성별 : 남 3명(20%), 여 12명(80%)

② 창업자 연령별 : 30대 3명(20%), 40대 10명(77%), 50대 2명(13%)

③ 창업자 현황

순번	참여자	성별	나이	거주지역	창업일	창업처명	창업처 유형	비고
1	허○서	여	45	영도구	10.03.19	포비헤어	미용실	
2	오○순	여	48	북구	10.04.15	수산나옷수선	옷수선	
3	차○협	남	40	해운대구	10.06.04	차민헤어클럽	미용업창업	
4	김○미	여	46	동구	10.05.09	버드나무집	한식전문점	폐업
5	윤○희	여	39	사하구	10.06.30	영일사무가구	가구판매	
6	김○희	여	47	부산진구	10.08.05	명품옷수선	옷수선	
7	조○식	남	53	사상구	10.08.31	캡틴당구장	당구장	
8	강○화	여	30	금정구	10.10.01	엑스빅	의류판매	
9	김○순	여	49	금정구	10.11.08	닭통	치킨집	
10	김○미	여	56	해운대구	10.11.11	미술라	인터넷쇼핑몰	
11	이○자	여	43	기장군	10.12.22	이순자옷수선방	옷수선	
12	김○애	여	47	북구	11.01.27	5톤 화물운수	식품배송업	
13	강○연	여	41	북구	11.02.01	신성	화물운송	
14	김○만	남	43	부산진구	10.11.03	엠케이건설	건설	2차
15	김○나	여	35	사하구	10.12.10	일조억손짜장	음식점	2차

○ 탈수급율/소득상향

- 6개월 취업유지자(242명)중 생계급여가 중단된 대상자를 파악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가 생계급여가 중단되었고 자활특례자, 일반으로 상향(138명, 57%)되었음.

2월 28일 현재 6개월 유지 성과급 신청 후 탈수급성과급 91명 신청함.

- 자활특례로 전환 : 131명 (54.1%)
- 일반으로 전환 : 7명 (2.9%)
- 생계급여 중지 : 56명 (23.2%)
- 수급자 유지 : 48명 (19.8%)

□ 확인 성과

○ 상담횟수

총건수	전화, SMS 등	본부직원 가정방문	대상자 본부 방문
36,232건	28,454건	4,308건	3,470건
100%	72.4%	16.8%	10.8%

※ 상담횟수는 매주 추진실적 파일 참고

○ 1인당 서비스 제공횟수(월별)

(단위 : 건)

구 분	①상담	①교육훈련 (자체)	③사회서비스 연계	④구인처 연계	⑥외부 위탁교육	합 계
10년 05월	2.73	0.36	0.15	0.31	0.01	3.56
10년 06월	3.69	0.37	0.07	0.15	0.01	4.29
10년 07월	4.90	0.19	0.13	0.19	0.09	5.5
10년 08월	3.50	0.26	0.28	0.43	0.06	4.53
10년 09월	3.88	0.15	0.22	0.15	0.01	4.41
10년 10월	3.57	0.14	0.09	0.12	0.02	3.94
10년 11월	4.12	0.07	1.31	0.16	0.03	5.69
10년 12월	3.16	0.04	0.12	0.12	0.01	3.45
11년 01월	2.01	0.01	0.05	0.03	0.01	2.11
11년 02월	2.00	0.01	0.02	0.03	0	2.06
합 계	33.56	1.6	2.44	1.69	0.25	39.54

○ 취업연계 활동(1인당 취업연계 활동 횟수/월별)

(단위 : 건)

구 분	①이력서 작성	②동행 면접	③창업 알선	합 계
10년 05월	0.22	0.14		0.36
10년 06월	0.11	0.09		0.2
10년 07월	0.12	0.16		0.28
10년 08월	0.27	0.22		0.49
10년 09월	0.11	0.09		0.2
10년 10월	0.08	0.10		0.18
10년 11월	0.08	0.08		0.16
10년 12월	0.07	0.07		0.14
11년 01월	0.02	0.03		0.05
11년 02월	0.02	0.03		0.05
합 계	1.1	1.01	0	2.11

※ 1인당 서비스제공횟수와 취업연계 활동은 전산시스템 입력부분을 참고하여
N/1,000 로 나눈 숫자임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

○ 구인처 정보제공 (월 단위)

(단위 : 건)

구분	경비직	기술직	단순 노무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 직	식당 관련직	영업직	운전직	의료 관련직	미화직	계
2010. 3월	1	1	1	1	4	3	-	1	1	-	1	14
4월	18	8	9	20	44	10	5	9	14	1	12	150
5월	13	7	10	28	24	16	4	2	8	-	7	119
6월	26	20	9	81	30	31	9	13	16	4	24	263
7월	20	23	17	63	33	25	13	9	14	6	12	235
8월	20	21	11	42	21	26	13	9	7	7	17	194
9월	7	10	10	28	11	11	6	2	3	4	10	102
10월	8	6	6	25	12	4	2	-	3	-	6	72
11월	10	3	4	8	18	10	-	2	4	4	2	65
12월	3	2	-	2	4	6	2	1	3	2	2	27
1월	3	4	1	3	4	6	2	3	-	2	6	34
2월	2	2	8	7	21	14	2	3	1	2	9	71
계	131	107	86	308	226	162	58	54	74	32	108	1,346

IV. 종합평가(서술식)

- 2010년 2월 2차년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월에는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재계약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보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3월부터 5월까지 사통망의 수정지연으로 인원모집에 제한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5월말에야 인원모집이 종료되어 사업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어, 모든직원들이 자치구와 동을 방문하며 홍보는 물론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전대상자들을 사전에 만나 대면 상담한 것이 참여대상자를 본 사업에 조기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였음.
- 대면상담이후 대상자로 확정된인원에 대해서는 기초상담과 ISP 작성, 그리고 사례관리사별 37명분의 케이스파일을 작성하여 면담, 사례관리시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조기에 사례관리사와 대상자간의 **밀착사례관리**로 라포형성에 기여하게되었음.
- 기획관리실에서는 지역내 자원발굴을 위해 지역을 할당하여 관리하였으며 특히, 구인기업체 발굴과 지역내 교육자원발굴, 사회복지서비스기관발굴 발굴된기관과의 업무협약등을 통하여, 사례관리사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즉시 활용가능한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가능토록 관리유지함.

대상자들이 본 기관을 신뢰하며 취업 후 계속 업무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월동김장김치를 1000명 전원에게 제공하고, 시내 병원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비의료보험분야 진료지원, 중,고등학교 미수료자들에게는 검정고시학원과 연계하여 대상자들이 학비 부담없이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 지원하였으며, 운전면허 미취득자에게는 운전면허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체적인 서비스지원으로 본부에대한 신뢰 여건을 마련하였음

취업관리실과 협조하여 취업을 원하는 대상자를 기업체에 연결토록 하고 직원교육과 대상자 교육 및 행정지원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한공간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판단됨.

- 일부대상자들은 자립보다는 **수급생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들에대한 결정적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은 대상자들에게 자립과 미래에대한 희망이 되고 있음. 따라서 2011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희망을 가지고 본 사업에 참가하고 3년 후에는 그 꿈이
결실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어야하겠음. 이렇게하여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수급생활에
서 안정되게 자립할 수 있는 종자돈이 확보 되도록 제도화가 절실
히 요구됨

희망키움통장은 사업참여자 확보 및 성과 극대화 그리고 탈수급의
지 고취에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고있음

<붙임 1>

자치구(군)별 참여대상자수 및 취(창)업수

번호	거주지별	대상인원				취(창)업인원	
		인원	%	수급자	차상위	인원	%
1	중구	14명	1.4%	9명	5명	7명	1.1%
2	서구	61명	6.1%	82명	5명	48명	7.4%
3	동구	87명	8.7%	48명	13명	55명	8.5%
4	영도구	24명	2.4%	18명	6명	11명	1.7%
5	부산진구	124명	12.4%	94명	30명	90명	13.9%
6	동래구	59명	5.9%	50명	9명	36명	5.6%
7	남구	61명	6.1%	56명	5명	37명	5.7%
8	북구	108명	10.8%	106명	2명	76명	11.7%
9	해운대구	66명	6.6%	53명	13명	47명	7.3%
10	사하구	86명	8.6%	81명	5명	55명	8.5%
11	금정구	74명	7.4%	69명	5명	57명	8.8%
12	강서구	19명	1.9%	18명	1명	9명	1.4%
13	연제구	52명	5.2%	42명	10명	28명	4.3%
14	수영구	60명	6.0%	57명	3명	34명	5.3%
15	사상구	79명	7.9%	74명	5명	40명	6.2%
16	기장군	26명	2.6%	24명	2명	17명	2.6%
누 계		1,000명	100.0%	881명	119명	647명	100.0%
				88.1%	11.9%		

<붙임 2>

2010년도 참여대상자 교육연계 및 교육결과

□ 교육훈련기관 연계실적

(단위 : 건, %)

구분	접수건수	기관연계		연계취소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 계	244건	244	100%	-	-
2010-12월	7	7	-	-	-
2010-11월	4	4	-	-	-
2010-10월	10	10	-	-	-
2010-09월	28	28	-	-	-
2010-08월	30	30	-	-	-
2010-07월	45	45	-	-	-
2010-06월	35	35	-	-	-
2010-05월	29	29	-	-	-
2010-04월	27	27	-	-	-
2010-03월	29	29	-	-	-

○ 교육분야별 참여대상자 교육신청현황

(단위 : 건)

구분	돌봄	요리	전산	운전	재봉수선	기술	미용	공예	기초교육	기타	총계
합 계	20	36	32	70	2	8	17	3	37	19	244
2010년12월	1	2	1	3	0	0	0	0	0	0	7
2010년11월	0	0	0	3	1	0	0	0	0	0	4
2010년10월	1	3	3	2			1				10
2010년09월	3	3	3	7		1	2		6	3	28
2010년08월	1	5	4	3		1	2		4		20
2010년07월		2	1	3				1	1	2	10
2010년06월	6	6	5	29		2	3		6	4	61
2010년05월	7	11	12	18	1	4	8	1	20	6	88
2010년04월	1	3	2	1						4	11
2010년03월		1	1	1			1	1			5

○ 교육분야별 참여대상자 교육연계현황

(단위 : 건)

구분	돌봄	요리	전산	운전	재봉수선	기술	미용	공예	기초교육	기타	총계
합 계	20	36	32	70	2	8	17	3	37	19	244
2010년12월	1	2	1	3	0	0	0	0	0	0	7
2010년11월	0	0	0	3	1	0	0	0	0	0	4
2010년10월	1	3	3	2			1				10
2010년09월	3	3	3	7		1	2		6	3	28
2010년08월	1	5	4	3		1	2		4		20
2010년07월		2	1	3				1	1	2	10
2010년06월	6	6	5	29		2	3		6	4	61
2010년05월	7	11	12	18	1	4	8	1	20	6	88
2010년04월	1	3	2	1						4	11
2010년03월		1	1	1			1	1			5

○ 직업교육기관연계 교육자 수료현황

(단위 : 명)

구분	교육연계	수료여부		탈락
		수료	자격취득	
합계	244	41	203	-
1실	76	15	61	-
2실	79	17	62	-
3실	89	9	80	-

취업 계	교육연계 취업	교육무관 취업
120	102	18
45	35	10
35	31	4
40	36	4

참여대상자 교육·훈련 실적(인원별)

(~2011.2월말)

참여 대상자		모집유형	희망 교육		교육결과	
성명	연령		분야	교육내용	강사	교육일
김혜리	26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3월 11일 목요일
박형오	28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강영주	2010년 3월 11일 목요일
김성범	31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3월 12일 금요일
김영민	24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3월 12일 금요일
이기주	35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3월 15일 월요일
이규하	25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3월 16일 화요일
이송호	18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장태정	2010년 3월 17일 수요일
조현진	22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3월 17일 수요일
김다혜	22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3월 18일 목요일
박고은	25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3월 19일 금요일
오효진	3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3월 19일 금요일
강성균	19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3월 22일 월요일
차미란	4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정휘	2010년 3월 22일 월요일
이미선	41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3월 24일 수요일
문선희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3월 29일 월요일
조성복	29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3월 31일 수요일
하유림	26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4월 1일 목요일
배현서	25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4월 2일 금요일
김성진	36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4월 5일 월요일
임현숙	40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4월 6일 화요일
양현숙	42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4월 6일 화요일
강수진	35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4월 7일 수요일
염득진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4월 7일 수요일
조점석	56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4월 7일 수요일
윤선길	49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4월 7일 수요일
안병화	60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4월 7일 수요일
김이름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4월 7일 수요일
소치영	55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4월 7일 수요일
박정만	55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4월 7일 수요일
최재기	61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4월 7일 수요일
김명환	63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4월 7일 수요일
김창백	46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4월 7일 수요일
심주영	25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4월 12일 월요일
이현채	27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4월 12일 월요일
최봉경	24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4월 12일 월요일
서정환	27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4월 15일 목요일
장상조	44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4월 15일 목요일
서정환	27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4월 15일 목요일
김선옥	53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4월 15일 목요일
김희순	48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4월 15일 목요일
박선애	41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4월 15일 목요일
안병화	59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4월 15일 목요일
장은정	38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4월 15일 목요일
소치영	55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4월 15일 목요일
백정희	60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4월 15일 목요일
김영식	49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4월 15일 목요일
강중희	58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4월 15일 목요일
김안나	21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4월 16일 금요일
김창백	46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4월 16일 금요일

참여 대상자		모집유형	희망 교육		교육결과	
성명	연령		분야	교육내용	강사	교육일
박현재	23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4월 19일 월요일
이미선	42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4월 20일 화요일
김안나	21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4월 20일 화요일
박정은	21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4월 22일 목요일
김아름	20	개별	취업스킬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최종인	2010년 4월 23일 금요일
박정은	21	개별	취업스킬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최종인	2010년 4월 23일 금요일
황영미	25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장태정	2010년 4월 25일 일요일
최인권	19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4월 26일 월요일
김안나	21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4월 26일 월요일
정아영	22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4월 26일 월요일
문광수	59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4월 26일 월요일
최인석	5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장상조	4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강수진	35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임나정	2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김성문	19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이옥분	4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구옥련	5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김민구	20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한미성	35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김채완	39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전정애	40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오아람	19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김소영	26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이혜경	4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김정란	4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원연지	2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엄정웅	5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정재호	40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이유석	37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김기영	59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김문숙	4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김채완	39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이현탁	25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정휘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최인석	5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장상조	4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강수진	35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임나정	2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김성문	19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송민희	19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이옥분	4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김민구	20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김민지	24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임은주	21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오아람	19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이혜경	4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엄정웅	5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김기영	59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전정애	40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김미경	46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김아름	20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4월 29일 목요일
정선화	43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4월 29일 목요일

참여 대상자		모집유형	희망 교육		교육결과	
성명	연령		분야	교육내용	강사	교육일
김채완	39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4월 29일 목요일
이주란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4월 30일 금요일
김현옥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5월 3일 월요일
이선희	31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5월 4일 화요일
김성문	19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5월 4일 화요일
계은실	22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5월 4일 화요일
안태영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5월 4일 화요일
염경렬	41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5월 4일 화요일
안태영	19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5월 4일 화요일
한용빈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5월 4일 화요일
이유석	37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5월 7일 금요일
박상용	57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5월 7일 금요일
최인석	51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5월 7일 금요일
송민수	25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5월 7일 금요일
박수만	56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5월 7일 금요일
박상민	49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5월 7일 금요일
임나정	22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5월 10일 월요일
장근창	58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5월 7일 금요일
문광원	55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5월 7일 금요일
정용배	52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5월 7일 금요일
강수진	35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5월 10일 월요일
김명수	48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5월 12일 수요일
이두환	30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5월 7일 금요일
팽재원	3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5월 10일 월요일
서만석	2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5월 11일 화요일
문지수	18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5월 11일 화요일
강선옥	2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5월 11일 화요일
김지윤	4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5월 11일 화요일
김선영	25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5월 11일 화요일
서만석	2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5월 12일 수요일
강선옥	2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5월 12일 수요일
김지윤	4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5월 12일 수요일
서정환	26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6월 4일 금요일
이두환	3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5월 10일 월요일
배우리	24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5월 13일 목요일
박대해	33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5월 18일 화요일
김종철	44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5월 18일 화요일
임경곤	60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5월 18일 화요일
임경순	39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5월 18일 화요일
박대호	23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5월 18일 화요일
정숙자	51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5월 18일 화요일
박금석	53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5월 18일 화요일
오미정	39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5월 18일 화요일
문광원	55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5월 18일 화요일
김창백	46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5월 18일 화요일
서은미	21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5월 17일 월요일
김성희	27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5월 19일 수요일
김은정	36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5월 22일 토요일
최연주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5월 22일 토요일
최성은	22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5월 22일 토요일
이태영	23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5월 24일 월요일
정숙자	5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5월 25일 화요일

참여 대상자		모집유형	희망 교육		교육결과	
성명	연령		분야	교육내용	강사	교육일
박금석	5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5월 25일 화요일
오미정	39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5월 25일 화요일
이민자	5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5월 26일 수요일
오미정	39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5월 26일 수요일
박금석	5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5월 26일 수요일
정숙자	5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5월 26일 수요일
노장환	23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6월 1일 화요일
최용	25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6월 1일 화요일
이용희	23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6월 1일 화요일
박현주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5월 25일 화요일
이상직	49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6월 4일 금요일
조점석	56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6월 4일 금요일
조영미	42	집단	유형별	대상자경제교육	외부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이문식	43	집단	유형별	대상자경제교육	외부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김종철	44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6월 4일 금요일
이용우	52	집단	유형별	대상자경제교육	외부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강영희	54	집단	유형별	대상자경제교육	외부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노장환	23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6월 4일 금요일
김종철	32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6월 4일 금요일
조민경	31	집단	유형별	대상자경제교육	외부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양하얀	24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6월 7일 월요일
곽현우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6월 7일 월요일
유은진	21	집단	유형별	대상자경제교육	외부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박민수	2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6월 8일 화요일
이수미	36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6월 8일 화요일
김봉주	26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6월 8일 화요일
주꽃님	25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6월 8일 화요일
서운이	46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6월 8일 화요일
박상용	57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6월 4일 금요일
김미리	27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6월 8일 화요일
이용희	2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6월 8일 화요일
최용	25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6월 8일 화요일
조나라	2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6월 8일 화요일
이영신	2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6월 8일 화요일
박선영	20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9일 수요일
이수미	36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9일 수요일
김봉주	26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9일 수요일
권재균	2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9일 수요일
김정혜	53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6월 9일 수요일
오미연	25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6월 9일 수요일
김중석	26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6월 9일 수요일
권오석	56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6월 4일 금요일
김미리	27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9일 수요일
이용희	2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9일 수요일
최용	25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9일 수요일
조나라	2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9일 수요일
송하연	2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9일 수요일
이영신	2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9일 수요일
김보은	21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6월 14일 월요일
김현수	23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6월 15일 화요일
오윤지	23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6월 15일 화요일
박진희	28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6월 15일 화요일

참여 대상자		모집유형	희망 교육		교육결과	
성명	연령		분야	교육내용	강사	교육일
장현주	27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6월 15일 화요일
최유미	21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6월 15일 화요일
안형숙	47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6월 15일 화요일
김명수	48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6월 15일 화요일
김종수	42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6월 15일 화요일
김형미	38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6월 15일 화요일
주꽃님	24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6월 17일 목요일
양하얀	23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6월 17일 목요일
박정재	30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6월 18일 금요일
김영희	25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6월 21일 월요일
김정민	19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6월 21일 월요일
윤선길	48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6월 22일 화요일
조미령	49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6월 22일 화요일
구계순	45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6월 22일 화요일
노범주	47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6월 22일 화요일
이상직	49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6월 22일 화요일
김명수	48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6월 22일 화요일
김순분	5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6월 22일 화요일
윤선길	48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23일 수요일
조미령	49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23일 수요일
구계순	45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23일 수요일
노범주	47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23일 수요일
김명수	48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23일 수요일
김순분	5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6월 23일 수요일
신현지	22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6월 28일 월요일
조윤정	25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6월 29일 화요일
문유진	22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6월 29일 화요일
문유진	22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6월 29일 화요일
문유진	22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6월 29일 화요일
이태일	24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6월 30일 수요일
최유미	20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7월 1일 목요일
송하연	24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7월 1일 목요일
최연호	20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7월 5일 월요일
김미리	27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7월 5일 월요일
이덕웅	20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6일 화요일
조민경	3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6일 화요일
최성욱	3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6일 화요일
최연주	20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6일 화요일
최성은	2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6일 화요일
김은지	2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6일 화요일
김민주	4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6일 화요일
김희선	2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6일 화요일
김유선	2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6일 화요일
이은지	2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6일 화요일
이덕웅	20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7월 7일 수요일
조민경	3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7월 7일 수요일
최성욱	3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7월 7일 수요일
최연주	20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7월 7일 수요일
최성은	2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7월 7일 수요일
김민주	4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7월 7일 수요일
서필중	23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7월 7일 수요일
김혜진	22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7월 7일 수요일

참여 대상자		모집유형	희망 교육		교육결과	
성명	연령		분야	교육내용	강사	교육일
이은지	2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7월 7일 수요일
서필경	22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7월 7일 수요일
배종관	60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6월 4일 금요일
김보검이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7월 13일 화요일
이정석	54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6월 4일 금요일
이호재	54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6월 4일 금요일
전현호	51	개별	유형별	운전면허필기교육	신영우	2010년 6월 7일 월요일
전현호	51	개별	유형별	운전면허필기교육	신영우	2010년 6월 8일 화요일
전현호	51	개별	유형별	운전면허필기교육	최종인	2010년 6월 9일 수요일
김경호	54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7월 20일 화요일
윤선길	48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7월 20일 화요일
김아진	22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7월 20일 화요일
오주연	49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7월 20일 화요일
엄용성	52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7월 20일 화요일
장영희	51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7월 20일 화요일
임나정	23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7월 21일 수요일
김경호	5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21일 수요일
김희순	48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21일 수요일
김아진	2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21일 수요일
엄용성	5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21일 수요일
김순분	54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7월 21일 수요일
장영희	5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21일 수요일
박미순	4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7월 21일 수요일
김경호	5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7월 22일 목요일
김아진	2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7월 22일 목요일
김현주	23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7월 22일 목요일
송하연	24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이해옥	2010년 7월 22일 목요일
장영희	5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7월 22일 목요일
박미순	4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7월 22일 목요일
김형선	53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7월 13일 화요일
이상인	60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7월 13일 화요일
김광조	60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7월 13일 화요일
박선정	21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박태신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이송호	20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박태신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김기남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박태신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황영미	26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박태신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강수진	35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양우정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차미란	40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박태신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이수민	22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박태신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박현재	24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박태신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박현주	23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박태신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황지영	21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박태신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김선민	20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박태신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김명수	47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박태신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권혜영	24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박태신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정유진	25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양우정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김봉주	27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양우정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임나정	23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양우정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김보은	22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양우정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정주연	20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양우정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박해민	22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양우정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이성한	25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박태신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참여 대상자		모집유형	희망 교육		교육결과	
성명	연령		분야	교육내용	강사	교육일
심수정	23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장태정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김동일	27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장태정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신영희	37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8월 5일 목요일
이주란	20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8월 4일 수요일
이혜진	20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장태정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박준형	29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장태정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이회광	32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장태정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양보인	26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8월 3일 화요일
김진우	26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8월 3일 화요일
김민자	40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장태정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양미숙	29	개별	상담검사	STRONG(직업적성검사)	장태정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양보인	26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8월 3일 화요일
김진우	26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8월 3일 화요일
김형미	38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8월 4일 수요일
오정민	2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8월 4일 수요일
박대해	3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8월 18일 수요일
이은지	24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8월 10일 화요일
김진우	25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8월 3일 화요일
강미경	20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8월 16일 월요일
옥순덕	42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8월 11일 수요일
정무성	48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8월 11일 수요일
송민수	24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8월 3일 화요일
김미경	33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8월 17일 화요일
박대해	34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8월 17일 화요일
차미란	40	개별	취업스킬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정은숙	2010년 8월 18일 수요일
박대해	34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8월 19일 목요일
김홍수	24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최종인	2010년 8월 19일 목요일
최미선	4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이재희	20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8월 5일 목요일
김기엽	55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최종인	2010년 8월 23일 월요일
박금석	53	개별	유형별	직장소양/친절교육	정은숙	2010년 7월 14일 수요일
윤향희	41	집단	유형별	대상자경제교육	외부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이명희	44	집단	유형별	대상자경제교육	외부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임정숙	55	집단	유형별	대상자경제교육	외부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김주양	23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8월 13일 금요일
김홍수	24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최종인	2010년 8월 19일 목요일
박제관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8월 20일 금요일
윤지영	22	개별	유형별	직장소양/친절교육	정은숙	2010년 7월 16일 금요일
김민정	20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8월 23일 월요일
박금석	53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8월 23일 월요일
박나래	26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8월 20일 금요일
전혜빈	20	개별	유형별	직장소양/친절교육	정은숙	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안병화	59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8월 24일 화요일
최현성	28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최종인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이재선	46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8월 24일 화요일
최성욱	35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8월 24일 화요일
최수정	53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8월 24일 화요일
진영숙	58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8월 24일 화요일
박정대	59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8월 24일 화요일
최인정	43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8월 24일 화요일
윤향희	42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8월 24일 화요일
김정기	45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8월 24일 화요일

참여 대상자		모집유형	희망 교육		교육결과	
성명	연령		분야	교육내용	강사	교육일
김일봉	48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8월 24일 화요일
정수향	26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9월 1일 수요일
이재선	46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최수정	5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진영숙	58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정병선	5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염경열	4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최인정	4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윤향희	4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김일봉	48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박성민	25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8월 20일 금요일
최미선	4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8월 26일 목요일
이정은	37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8월 26일 목요일
이재선	46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8월 26일 목요일
최수정	5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8월 26일 목요일
박정대	59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8월 26일 목요일
정병선	5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8월 26일 목요일
염경열	4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8월 26일 목요일
최인정	43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8월 26일 목요일
윤향희	4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8월 26일 목요일
최현성	27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9월 8일 수요일
김민정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8월 23일 월요일
진영태	53	개별	취업스킬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최종인	2010년 9월 1일 수요일
김형미	38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9월 2일 목요일
오미정	40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9월 6일 월요일
김미옥	40	개별	취업스킬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최종인	2010년 9월 8일 수요일
김형선	53	개별	유형별	직장소양/친절교육	정은숙	2010년 7월 23일 금요일
문득수	47	개별	유형별	직장소양/친절교육	정은숙	2010년 7월 23일 금요일
김미옥	40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9월 8일 수요일
황천용	47	개별	유형별	직장소양/친절교육	정은숙	2010년 7월 23일 금요일
오정수	20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8월 20일 금요일
김원희	26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9월 7일 화요일
김원희	26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9월 8일 수요일
신봉주	44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오미연	25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9월 8일 수요일
박소영	23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안병화	59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8월 20일 금요일
서필경	2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9월 8일 수요일
최현성	27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9월 9일 목요일
임운화	27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9월 9일 목요일
김원희	26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9월 9일 목요일
배상은	23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8월 30일 월요일
이윤영	25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9월 15일 수요일
최현성	27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9월 8일 수요일
이봉선	53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8월 20일 금요일
김정기	46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8월 20일 금요일
박종익	53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8월 20일 금요일
강성수	42	개별	유형별	운전면허필기교육	신영우	2010년 8월 23일 월요일
박금석	54	개별	유형별	직장소양/친절교육	정은숙	2010년 9월 1일 수요일
이영대	54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9월 6일 월요일
조민홍	28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9월 9일 목요일
박종인	20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9월 6일 월요일

참여 대상자		모집유형	희망 교육		교육결과	
성명	연령		분야	교육내용	강사	교육일
김일봉	48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9월 6일 월요일
박규석	62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9월 6일 월요일
박소영	23	개별	취업스킬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정은숙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진영태	53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9월 13일 월요일
손광생	41	개별	유형별	운전면허필기교육	최종인	2010년 9월 14일 화요일
신봉주	44	집단	유형별	대상자경제교육	외부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박나래	25	개별	취업스킬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정은숙	2010년 9월 15일 수요일
정귀순	53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9월 14일 화요일
김광조	60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9월 14일 화요일
김용선	46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9월 14일 화요일
장영희	51	집단	유형별	대상자경제교육	외부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이윤영	25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9월 14일 화요일
이욱	28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9월 9일 목요일
임정숙	56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박나래	25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9월 15일 수요일
이윤영	24	개별	취업스킬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최종인	2010년 9월 15일 수요일
김희선	21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9월 16일 목요일
조덕만	34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9월 15일 수요일
김희선	21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9월 16일 목요일
김희선	21	개별	유형별	직장소양/친절교육	정은숙	2010년 9월 16일 목요일
김혜경	48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최종인	2010년 9월 16일 목요일
이윤영	25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9월 16일 목요일
박수경	20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9월 16일 목요일
박수경	20	개별	유형별	직장소양/친절교육	정은숙	2010년 9월 16일 목요일
천은경	4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천은경	40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정수향	26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정수향	26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정수경	26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정수경	26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이욱	28	개별	유형별	직장소양/친절교육	정은숙	2010년 9월 27일 월요일
김철훈	51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9월 28일 화요일
권택준	42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9월 28일 화요일
심주영	25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9월 28일 화요일
김철훈	51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9월 28일 화요일
권택준	41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9월 28일 화요일
심주영	25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9월 28일 화요일
김석희	40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9월 28일 화요일
손태규	25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정휘	2010년 9월 28일 화요일
김석희	41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9월 28일 화요일
김철훈	5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9월 29일 수요일
권택준	41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9월 29일 수요일
김경호	52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9월 30일 목요일
심주영	25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9월 30일 목요일
장영희	51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9월 30일 목요일
장영희	51	개별	유형별	직장소양/친절교육	정은숙	2010년 9월 30일 목요일
김민지	24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상미	2010년 10월 1일 금요일
김병수	25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10월 1일 금요일
김아진	22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10월 5일 화요일
박수경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10월 5일 화요일
박수경	20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10월 5일 화요일
김미정	45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0월 5일 화요일

참여 대상자		모집유형	희망 교육		교육결과	
성명	연령		분야	교육내용	강사	교육일
김아진	22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0월 5일 화요일
노장환	22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0월 5일 화요일
황보찬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10월 7일 목요일
김윤미	24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10월 7일 목요일
서은미	21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10월 8일 금요일
노대원	60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10월 8일 금요일
진재봉	5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10월 8일 금요일
진재봉	50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10월 8일 금요일
라판선	54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10월 8일 금요일
강성수	42	집단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10월 8일 금요일
박점대	59	집단	유형별	재취업희망대상자교육	정은숙	2010년 10월 11일 월요일
진재봉	50	집단	유형별	재취업희망대상자교육	정은숙	2010년 10월 11일 월요일
김중철	45	집단	유형별	재취업희망대상자교육	정은숙	2010년 10월 11일 월요일
강중희	58	집단	유형별	재취업희망대상자교육	정은숙	2010년 10월 11일 월요일
진재봉	50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0월 12일 화요일
진재봉	50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10월 13일 수요일
투무르투구	35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10월 13일 수요일
투무르투구	34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양재호	2010년 10월14일 목요일
천은경	40	개별	유형별	직장소양교육및친절교육	정은숙	2010년 10월14일 목요일
박충식	58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10월14일 목요일
투무르투구	35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10월14일 목요일
강중희	58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10월15일 금요일
김민주	42	집단	유형별	TM취업희망대상자교육	정은숙	2010년 10월15일 금요일
염경열	41	집단	유형별	TM취업희망대상자교육	정은숙	2010년 10월15일 금요일
천은경	40	집단	유형별	TM취업희망대상자교육	정은숙	2010년 10월15일 금요일
이미옥	34	집단	유형별	TM취업희망대상자교육	정은숙	2010년 10월15일 금요일
투무르투구	35	집단	유형별	TM취업희망대상자교육	정은숙	2010년 10월15일 금요일
최희경	43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정휘	2010년 10월18일 월요일
김희량	38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정휘	2010년 10월18일 월요일
김근옥	46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정휘	2010년 10월18일 월요일
장복희	49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0월18일 월요일
정숙향	26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10월18일 월요일
조점석	59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10월28일 목요일
서석환	58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0월26일 화요일
장세원	22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0월26일 화요일
신석교	40	집단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0월26일 화요일
서석환	58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10월27일 수요일
장세원	2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10월27일 수요일
천은경	40	개별	취업스킬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정은숙	2010년 10월28일 목요일
서석환	58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10월28일 목요일
장세원	22	집단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10월28일 목요일
서석환	58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10월28일 목요일
공계숙	36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10월29일 금요일
이미옥	40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10월29일 금요일
김용선	47	집단	유형별	재취업희망대상자교육	정은숙	2010년 10월29일 금요일
박금석	53	집단	유형별	재취업희망대상자교육	정은숙	2010년 10월29일 금요일
김수향	40	정기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11월2일 화요일
김유선	23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최종인	2010년 11월2일 화요일
김희선	21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최종인	2010년 11월2일 화요일
최주희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정휘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이은석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정휘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이승경	38	개별	유형별	직장소양교육및친절교육	정은숙	2010년 11월2일 화요일

참여 대상자		모집유형	희망 교육		교육결과	
성명	연령		분야	교육내용	강사	교육일
김수향	38	정기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최종인	2010년 11월2일 화요일
김수향	38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11월 3일 수요일
김용선	47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11월 3일 수요일
김수향	38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11월 4일 목요일
김용선	47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11월 4일 목요일
공계숙	36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11월 4일 목요일
서대훈	45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11월 4일 목요일
김수향	38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정은숙	2010년 11월 8일 월요일
이호재	53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11월 9일 화요일
최정미	42	정기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1월 9일 화요일
정연용	53	정기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1월 9일 화요일
한형순	37	정기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1월 9일 화요일
최미선	43	정기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1월 9일 화요일
이승경	38	정기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1월 9일 화요일
최정미	42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정연용	53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박금석	53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정연용	53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최정미	42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권혁래	44	정기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11월 12일 금요일
김해수	53	정기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11월 12일 금요일
최준혁	19	정기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1월 16일 화요일
진미경	41	정기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1월 16일 화요일
김유선	23	정기	유형별	TM취업희망대상자교육	정은숙	2010년 11월 18일 목요일
이현주	20	정기	유형별	TM취업희망대상자교육	정은숙	2010년 11월 18일 목요일
박창규	46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11월 17일 수요일
최준혁	19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11월 17일 수요일
박대해	34	정기	유형별	재취업희망대상자교육	정은숙	2010년 11월 19일 금요일
김현주	23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11월 19일 금요일
박소영	23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11월 19일 금요일
정옥분	39	정기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이미숙	43	정기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이미숙	43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11월 25일 목요일
김경호	54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11월 24일 수요일
강다은	20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정은숙	2010년 11월 30일 화요일
문광원	56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12월 10일 목요일
박선미	19	개별	취업스킬	면접 및 모의면접	정은숙	2010년 12월 10일 목요일
최영진	18	정기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2월 7일 화요일
최영진	18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12월 8일 화요일
최미선	43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12월 8일 화요일
송호림	28	정기	유형별	경비/보안기본교육	정은숙	2010년 12월 10일 목요일
김경호	55	정기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2월 14일 화요일
하현환	53	정기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2월 14일 화요일
하현환	53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12월 15일 수요일
최복란	44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면접요령)	정은숙	2010년 12월 15일 수요일
하현환	53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12월 16일 목요일
최복란	44	정기	기본(정기)	취업능력배양교육(HOLLAND)	정은숙	2010년 12월 16일 목요일
남계옥	37	정기	기본(정기)	기본소양교육(의사소통)	정은숙	2010년 12월 21일 화요일
최주희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정희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이은석	20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정희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최혜미	22	개별	상담검사	HOLLAND(직업선호도검사)	최종인	2010년 12월 21일 화요일
최혜미	22	개별	상담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박정희	2010년 12월 21일 화요일

직원교육·훈련 실적

(2010.1.1~2010.12.31)

NO	구분	기간	회/시간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1	직무교육	2010.1. 8(금)	2시간	4층교육장	29명	2010직원/대상자교육지침
2	소양교육	2010.1.21(목)	2시간	4층교육장	42명	상담기법초청특강
3	직무교육	2010.1.28(목)	1시간	4층교육장	41명	사례관리특강
4	직무교육	2010.1.28(목)	1시간	4층교육장	41명	2010사업지침교육
5	정보교육	2010.1.28(목)	2시간	4층교육장	41명	정신보건과 정신보건센터활용
6	직무교육	2010.2.11(목)	1시간	4층교육장	41명	직원재배치에 따른 정신교육(본부장)
7	직무교육	2010.2.11(목)	1시간	4층교육장	41명	사례관리 업무 특강(취업2실장)
8	직무교육	2010.2.11(목)	1시간	4층교육장	41명	구인기업체 발굴관련특강(취업3실장)
9	직무교육	2010.2.11(목)	0.5시간	4층교육장	41명	편제개편과 직무(행정실장)
10	직무교육	2010.2.11(목)	1.5시간	4층교육장	41명	심리상담 기법 및 의사소통 특강(자립지원계장)
11	소양교육	2010.3. 2(화)	0.5시간	4층교육장	41명	본부장 소양교육 및 월간공지사항 전달
12	직무교육	2010.3. 2(화)	0.5시간	4층교육장	41명	CASE FILE 작성방법 변경 교육
13	소양교육	2010.4. 1(목)	0.5시간	4층교육장	41명	본부장 소양교육 및 월간공지사항 전달
14	직무교육	2010.4. 1(화)	0.5시간	4층교육장	41명	CASE FILE 작성방법 변경 교육
15	소양교육	2010.5. 3(월)	0.5시간	4층교육장	41명	본부장 소양교육 및 월간공지사항 전달
16	직무교육	2010.5. 3(월)	0.5시간	4층교육장	41명	희망리본 전산입력 안내
17	직무교육	2010.5.3(월)~5.27(목)	14시간	4층교육장	1명	심발에 밀알심기 참여(기획관리실 정은숙)
18	직무교육	2010.5. 20(목)	6시간	해운대아르피나호텔	1명	인사노무마스터 과정(외부위탁)
19	소양교육	2010.6. 1(화)	1시간	4층교육장	42명	본부장 소양교육 및 월간공지사항 전달
20	직무교육	2010.6.30(수)	2시간	4층교육장	8명	이력서/자기소개서 검토 / 면접지도교육
21	소양교육	2010.7. 1(목)	1시간	4층교육장	42명	본부장 소양교육 및 월간공지사항 전달
22	직무교육	2010.7.14(수)~7.16(금)	21시간	해운대아르피나호텔	1명	보고서 역량향상과정(고용지원센터)
23	직무교육	2010.7.29(목)	2시간	고용지원센터	2명	웃음치료과정(웃음만복래)
24	직무교육	2010.7.30(금)~7.31(토)	16시간	해운대아르피나호텔	1명	보고서 역량향상과정(고용지원센터)
25	소양교육	2010. 8. 2(월)	1시간	4층교육장	42명	본부장 소양교육 및 월간공지사항 전달
26	소양교육	2010. 9. 1(월)	1시간	4층교육장	42명	본부장 소양교육 및 월간공지사항 전달
27	직무교육	2010. 9. 1(월)	1시간	4층교육장	42명	내게 맞는 금융자산관리방법
28	소양교육	2010. 10.1(월)	1시간	4층교육장	42명	본부장 소양교육 및 월간공지사항 전달
28	직무교육	2010.10.21(목)~23(토)	24시간	강원도 일대	42명	본부 정기 워크샵-5차
29	직무교육	2010.10.28(목)	1.5시간	4층교육장	20명	중독예방 직원교육
30	소양교육	2010. 11.1(월)	1시간	4층교육장	42명	본부장 소양교육 및 월간공지사항 전달
31	소양교육	2010. 12.1(수)	1시간	4층교육장	42명	본부장 소양교육 및 월간공지사항 전달
31	직무교육	2010.12.15(수)	1시간	4층교육장	42명	본부 정기 워크샵-6차
32	소양교육	2010.12.31(금)	1시간	4층교육장	42명	중무식

<붙임3>

언론사 홍보 실적

○ 신문기사

일자	언론사	제 목(주요내용)
2010.1.7	포커스	희망리본 31일까지 1천명 선발
1.8	메트로	‘희망리본’ 참여자 선발
1.9	연합뉴스	부산 ‘희망리본 프로젝트 성과’
1.9	매일경제	부산 ‘희망리본 프로젝트 성과’
1.9	노컷뉴스	부산, 희망리본 프로젝트 기대 이상 성과
2.10	부산시보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해 드립니다.
2.12	메트로	차상위층 취·창업 알선 ‘희망리본’사업 펼친다
2.22	포커스	희망리본프로젝트 신청 접수
2.25	자치구 구보	희망리본프로젝트 신청 접수 연제구,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등
4.27	연합뉴스	부산시,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 지원
	뉴시스	부산, 저소득층 취업 필수'운전면허취득' 지원
8.20	연합뉴스	부산시,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위한 MOU 체결
	연합뉴스	부산시, 저소득층 취업지원으로 힘찬 날개짓
	매일경제	부산시, 의료지원 강화
	메트로	희망리본프로젝트 305명 ‘취업결실’
	불교방송	부산시, 저소득층 의료지원확대
	헤럴드 경제	부산지역 저소득층 대상 ‘의료·일자리’ 지원 봇물
8.21	뉴시스	저소득층 취업지원 ‘희망리본프로젝트’성공적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서민 일자리.복지 챙기기 의욕
8.24	국제신문	부산시 ‘평균수명 꼴지 탈출’ 팔 걷었다
8.22	국민일보	부산시, 저소득층 의료.일자리 부촉
	한국일보	부산시 ‘희망리본프로젝트’ 순항
	뉴시스	부산시, 온종합병원 등 저소득층 의료진료서비스 협약
	헤럴드생생	부산지역 저소득층 대상 ‘의료.일자리’ 지원봇물
8.25	부산시보	자활노력 저소득층 의료비 30% 할인
9.14	매일경제	부산광역자활센터, 저소득층 알코올질환 치료 지원
	e조은뉴스	부산시, 알코올중독 저소득층 치료·취업 지원
	뉴스에이	부산시, 알코올중독 저소득층 치료·취업 지원

일자	언론사	제 목(주요내용)
10.13	매일경제	부산시,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시사코리아저널	부산시,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추진
	파이낸스투데이	부산시,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추진
	대한매일신문	몸아프고 돈없는 설움 겪으면 안돼죠
10.19	예스TV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한 희망리본 우수기업체 간담회
	대한뉴스	부산 '희망리본 우수업체'
11.1	연합뉴스	부산시·동아대 '다문화가정 취·창업 지원'
	매일경제	부산시·동아대, '다문화가정 취업·창업 지원'
	세계일보	부산시-동아대, 다문화 및 저소득층 지원 나서
	국민일보	부산, 다문화가정·저소득층 '입체적 지원'
	국제신문	부산시·동아대, '다문화가정 취업·창업 지원'
	조선일보	[부산·경남] "일자리 창출은 지역 경제·주민 행복의 근간!"
11.12	국제신문	마라톤초보들의 설레는 첫 도전 - 자활인력지원본부
11.23	국제신문	부산시 저소득층 신용문제 해결 '총대'
	뉴시스	부산시, 저소득층 신용문제 해결과 예방책 추진
	브레이크뉴스	저소득층 신용문제 해결과 예방책 추진에 부산시가 발벗고 나선다.
	연합뉴스	부산시, 저소득층 신용문제 해결·예방 추진
	예스TV	부산시, 저소득층 신용문제 해결과 예방책 추진
11.24	연합뉴스	부산시, 희망리본프로젝트 가정에 온정과 희망 전달
	이투뉴스	부산시, '희망리본프로젝트' 가정에 온정 전달
12.15	뉴스와이어	부산시 자활인력지원본부, 지난2년간 1,000여명 취업달성
	부산진인터넷뉴스	저소득층 자활 돕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연합뉴스	부산시 자활인력지원본부, 지난2년간 1,000여명 취업달성
12.16	대한매일신문	부산 자활인력지원본부 새로운 도약
	메트로	저소득층 자립 속도낸다
	부산인터넷신문	저소득층 자활 돕는 '희망리본프로젝트' 뿌리내려
12.21	동아일보	일하는 기쁨 알려준 희망리본 고마워요
12.15	뉴스와이어	부산자활인력지원본부, 지난2년간 1,000여명 취업달성
	부산진인터넷뉴스	저소득층 자활 돕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연합뉴스	부산자활인력지원본부, 지난2년간 1,000여명 취업달성

일자	언론사	제 목(주요내용)
12.16	부산인터넷신문	저소득층 자활 돕는 ‘희망리본프로젝트’ 뿌리내려
	대한매일신문	부산 자활인력지원본부 새로운 도약
	메트로 부산	저소득층 자립 속도낸다.
12.21	동아일보	“일하는 기쁨 알려준 희망리본 고마워요”
12.22	부산시보	‘희망리본’, 1002명 취업 성공
2011.1.3	기장사람들(군보)	저소득층 가슴에 피어나는 희망리본
	동래고을(구보)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새수영(구보)	저소득층 자립 도와주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중구신문(구보)	희망리본프로젝트 1천명 취업, 내년 참여자 모집
	진구신문(구보)	희망리본프로젝트 1002명 취업, 참여자 모집
2011.1.12	부산시보	부산, 저소득층 취업.창업 지원
2011.1.26	노컷뉴스	부산시, 저소득층 취업지원“희망리본” 가동
	부산경제신문	부산 희망리본.. 웃으며 일하세요!
	부산인터넷신문	부산 희망리본을 통해 웃으며 일하세요!
	아시아뉴스통신	부산 "희망리본을 통해 웃으며 일하세요"
	에스TV	부산 희망리본을 통해 웃으며 일하세요!
	조선일보	부산시, 2011년도 희망리본 신규참여자 2.15까지 모집
	중앙일보	부산시, 저소득층 취업지원“희망리본” 가동
	한국소비자방송	희망리본 신규참여자 2.15까지 모집
	뉴시스	부산, 저소득층 취업.창업 지원“희망리본” 사업 활기
2011.2.8	경상 조은뉴스	쪽방이웃에게 취(창)업 희망을 드립니다.
	뉴스와이어	부산시, 동구.부산진구 쪽방 생활 이웃대상으로 희망리본 사업설명회 개최
	뉴시스	부산, ‘쪽방이웃’ 취.창업 희망리본 참여자 모집
	부산인터넷신문	쪽방이웃에게 취업 희망을 드립니다.
	부산진인터넷뉴스	쪽방이웃, 취업의 희망 ‘닿을 올린다’
	연합뉴스	쪽방이웃에게 취(창)업 희망을 드립니다.
	에스TV	부산시, 쪽방이웃에게 취(창)업 희망지원
	CNB NEWS	쪽방이웃에게 취(창)업 희망을 드립니다.
2011.2.10	뉴시스	장애인고용공단-부산희망리본본부, 업무협약 체결

○ TV, 라디오 방송

일자	언론사	제 목(주요내용)
2010.1.8~9	KBS 뉴스	사업참여자 취업처를 방문한 성공사례 홍보
1.9	MBC 부산뉴스	2010년 대상자 모집
1.29	KBS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방송
4.14	KBS 뉴스	고용이 희망이다! 일자리 알선사업 - 일거양득 고용효과!
4.27	YTN	저소득층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
	CBS	부산시, 저소득층 운전학원비 지원한다
4.28	KBS 부산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지원 업무협약체결
	MBC 부산	부산시, 저소득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6.10	KBS 부산	KBS 갈매기 도시락
8.23	MBC 부산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 체계 구축
8.23	KBS 뉴스	저소득층에게 유·무상 의료지원 확대
8.24	KNN 뉴스	부산시.지역병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8.27	부산 시정뉴스	저소득층 의료·일자리 지원 알차다!
10.20	부산 시정뉴스	저소득층 취업지원 우수기업 감사패
10.25	부산 시정뉴스	저소득층 의료지원
11.26	부산 시정뉴스	취업성공 저소득 가정에 박수를
11.26	KNN 뉴스	희망리본 가족의 밤
12.21	헬로TV	희망리본프로젝트 대상자모집
12.22	부산 시정뉴스	저소득 시민 희망찾기 성공
12.21	헬로TV	희망리본프로젝트 대상자모집
12.22	부산 시정뉴스	저소득 시민 희망찾기 성공
2011.1.28	KNN	유랑극단-유랑뉴스 : 김장김치나눔
2.9	티브로드(CATV)	희망리본-빈곤탈출구

<붙임4>

구인업체 및 취업실적 분석 현황

1. 2010년 구인업체 발굴현황

지역	기업수	발굴업체	우수기업	취업연계
강서구	1,507	91	5	49
금정구	943	67	5	41
남구	682	138	-	49
동구	785	78	5	42
동래구	703	53	12	55
부산진구	1,257	112	10	107
북구	317	34	9	45
사상구	2,764	62	18	70
사하구	1,395	104	12	66
서구	530	49	2	28
수영구	382	63	1	26
연제구	657	112	3	39
영도구	461	26	2	13
중구	1,144	52	6	31
해운대구	710	181	-	59
기장군	396	55	1	23
김해	3,233	15	4	28
양산	1,263	33	5	44
기타	-	21	-	39
합계	19,129	1,346	100	854

2. 직종별 구인내역 현황

지역	의료직	경비직	기술직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식당 관련	영업직	운전직	청소직	단순 노무	합계
강서구	-	7	4	14	72	-	5	2	11	5	10	130
금정구	5	13	5	15	29	15	8	2	2	13	7	114
남구	10	25	22	34	20	19	8	5	6	5	13	167
동구	10	8	4	25	5	13	10	1	8	12	8	104
동래구	5	10	11	12	5	10	12	4	2	10	5	86
부산진구	5	13	8	40	10	30	16	6	4	19	8	159
북구	3	5	3	12	15	5	5	2	2	3	2	57
사상구	5	8	6	13	45	7	5	3	1	5	3	101
사하구	5	9	9	20	55	4	8	4	14	8	9	145
서구	2	8	2	18	5	2	5	3	3	10	5	63
수영구	10	8	-	14	3	3	10	10	7	5	11	81
연제구	7	7	13	35	12	33	10	3	3	15	8	146
영도구	2	6	2	9	5	4	3	1	1	5	5	43
중구	-	7	3	27	-	18	5	2	3	5	10	80
해운대구	15	3	5	60	10	45	10	8	5	35	13	229
기장군	5	9	2	4	43	7	-	1	-	10	7	88
김해	-	3	3	2	25	-	-	-	1	-	4	38
양산	-	4	3	1	45	-	-	-	-	-	7	60
기타	-	-	4	-	35	1	-	1	1	-	10	52
합계	89	173	109	355	439	216	120	58	74	165	145	1,943

3. 지역별 취업연계 현황

지역	관리업체 구인내역	대상	취업연계현황			기획실 지원율	취업 기여율
		인원	총원	취업관리실	기획관리실		
강서구	130	19	49	22	27	20.8%	55.1%
금정구	114	74	41	34	7	6.1%	17.1%
남구	167	61	49	35	14	8.4%	28.6%
동구	104	87	42	29	13	12.5%	31.0%
동래구	86	59	55	37	18	20.9%	32.7%
부산진구	159	124	107	93	14	8.8%	13.1%
북구	57	108	45	23	22	38.6%	48.9%
사상구	101	79	70	50	20	19.8%	28.6%
사하구	145	86	66	45	21	14.5%	31.8%
서구	63	61	28	26	2	3.2%	7.1%
수영구	81	60	26	19	7	8.6%	26.9%
연제구	146	52	39	30	9	6.2%	23.1%
영도구	43	24	13	10	3	7.0%	23.1%
중구	80	14	31	24	7	8.8%	22.6%
해운대구	229	66	59	47	12	5.2%	20.3%
기장군	88	26	23	20	3	3.4%	13.0%
김해	38	-	28	11	17	44.7%	60.7%
양산	60	-	44	17	27	45.0%	61.4%
기타	52	-	39	38	1	1.9%	2.6%
합계	1,943	1,000	854	610	244	12.6%	28.6%

<붙임5>

우수기업체(23개) 현황

NO	업체명	업종	주요 사업 내용
1	(주)기현산업 (주)선진S.S.T	제조	자동차 쿨링시스템 부품 제조
3	한국EMS	제조	반도체 1차 기관 생산 (삼성전기내)
4	SL전자(주)	제조	반도체기관불량검사
5	(합)범양기업	서비스	KBS외 경비, 미화 용역업무
6	(주)지엠피	제조, 조립	제빵기 및 가습기등 생산업체
7	프로종합관리(주)	서비스	부산역 철도차량 청소 용역
8	세계식품(주)	제조	가공식품, 머거본 땅콩 캔 제품 생산
9	(주)엔에스아이티	제조	비파괴 검사업체
10	(합)신양선박	서비스	수출입 화물 검수 업무
11	테코스(주)	제조	휴대전화 기관 가공 생산
12	(주)포앤텍	광고	옥외광고판제작,신규도로명표지판설치
13	한신정신용정보주식회사	TM	통신요금 추심업무
14	(주)에스투	서비스	경비, 보안 용역, 서비스 제공
15	(주)국제식품	육가공, 도소매	정육 가공 및 도소매, 초원농원 음식점
16	의료법인 제일나라병원	의료기관	노인요양 병원
17	(주)넥센	제조	자동차용 타이어 생산업체
18	의료법인 수영나라병원	의료기관	노인요양 병원
19	(주)정관	제조	각종 전자부품 및 디스플레이류 제조
20	(주)하이패션가람	제조, 도소매	섬유, 의류패션 토탈 제품 생산 및 판매
21	(주)래치원	제조	금속지지대, 손잡이 생산업체
22	청우물산(주)	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
23	(주)다모테크	제조	휴대전화 기관 검사 업무

<붙임6>

업무협약 기관

○ 2009년도 : 5개 기관

NO	협약기관	주소(연락처, 홈페이지)	협약일	협약내용
1	FC요리학원	부산진구 양정동 (051-868-7920)	6. 9일	저소득층 조리기능사교육 및 음식업종 자문 지원 등을 위한 FC요리학원과 업무협약 * 실적 : 저소득층 조리기능사 자격과정 교육연계(3~5월, 기능필기시험6명합격후 조리기능사5명 자격증취득)
2	포도재무설계(광역)	수영구 남천2동 7-14 (051-625-1940, http://www.podofp.com)	6.16일	양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참여자들에 대한 취업지원 및 현장 밀착형 사례관리를 위해 양 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업무협조 *추진실적 : 저소득층 자산형성 교육 등 협조추진 1) 저소득층창업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창업 전 교육 연계 및 진행(2차례, 100여명) 2) 찾아가는 무료재무상담 연계 및 진행(2차례, 19명)
3	원스톱	사상구 주례동 189-21 (051-315-7535, http://www.osjob.or.kr)	8. 6일	저소득층 취업 및 창업연계등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함 *추진실적 : 성과관리 취업대상자에게 취업, 창업 지원(사상구 지역대상자 중심)
4	(재)부산디자인센터	해운대구 센텀 (790-1000, http://www.dcb.or.kr/)	10.20일	저소득층 자활지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력 *추진실적 : 북구희망터 '떡향기'사업단, 사하'도솔베이커리'사업단 디자인개발지원 - (재)부산디자인센터 2010 디자인마켓 행사 참가(북구 희망터, 수영자활)로 자활상품 홍보 판매
5	동래구 정신보건	동래구 온천3동 1413-6 (051-507-7306, http://happylog.naver.com)	12. 16일	저소득층의 정신보건 의료업무 관련 교육상담, 건강가정 등 저소득층 진료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추진실적 : 광역센터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저소득층 사례관리방안 교육

○ 2010년도 : 20개 기관

NO	협약기관	주 소(연락처 및 홈페이지)	협약일	협약내용
1	(사)한국공인 중개사 협회	(803-8060, http://busan.kar.or.kr/)	1.15일	창업(점포) 입지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추진실적 : 15건 입지(점포)지원 추진
2	(사)한국 미 술 심리치료 센터	연제구 거제동 581-10(1600-3275, http://www.kapa.pe.kr)	1. 25일	저소득층의 심리치료 및 정신보건에 필요한 상담및 교육 등 저소득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을 위한 제반적인 지원사항 * 추진실적 : 2010년 성과관리 참여자중 심리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인 경우 연계하여 심리 상담 등 실시
3	기장군 도시 관리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051-728-8011, http://www.gijangcmc.or.kr/)	4. 13일	저소득층 취업 및 창업등 자립에 필요 한 사항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연계를 통해 교육이수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 추진실적 : 영도구에서 센터까지 방문 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복지관 시설 을 이용하여 심발교육 등 사례관리
4	한양학원	부산진구 부전2동 255-1(051-851-6331, http://www.blackgosi.com)	4. 21일	저소득층 학력검정 취득희망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위탁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음 * 추진실적 : 검정고시를 원하는 대상자 의 경우 학원 연결, 학력취득에 최선을 다함.
5	노사공동 재 취업 지원센터	연제구 연산5동 1287-9(051-860-1300, http://www.newjob.or.kr)	4. 21일	저소득층에게 재취업센터의 지원서비스 를 홍보하고 교육프로그램 지원 희망자 를 참여시키는데 협력하며 본부의 저 소득층 취업 및 창업등 구직의뢰를 하 는 경우 적극 지원 * 추진실적 : 성과관리 대상자 취업을 위한 정보교류
6	부산광역시청 소년종합지원 센터	사상구 덕포동 247-6(051-303-9601, http://www.bs1388.or.kr)	5. 7일	저소득층 청소년중 교육 또는 취업과정 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상호지원프로 그램을 제공하기로 협력 * 추진실적 : 성과관리 대상자 취업을 위 한 정보교류
7	수영자동차 전문학원	수영구 망미동	5.11일	
8	남영	사하구 신평	“	운전면허 취득지원(학원비 20% 할인 추진) *추진실적
9	서면	부산진구 전포동	“	- 총102명 운전면허 취득 지원
10	학장	사상구 학장동	“	- 자치구(구), 동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저소 득층 대상자 취득지원
11	대우	사상구 학장동	“	
12	영동	부산진구 당감동	“	
13	부산장애인	연제구 연산5동 1369-9(051-863-0650, http://www.pjy.or.kr)	5. 18일	저소득층 장애우 및 가족의 취창업과정 에 필요한 본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총연합회에서는 본부 대상자관

NO	협약기관	주 소(연락처 및 홈페이지)	협약일	협약내용
				<p>런 홍보와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p> <p>* 추진실적 : 성과관리 대상자 취업을 위한 정보교류</p>
14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 동삼1동(051-403-4200, http://www.wachi.or.kr)	7. 06일	<p>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상자 확보, 교육프로그램교환, 기관홍보 및 나아가 교육 및 대상자면담의 거점으로도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의 절감효과</p> <p>* 추진실적 : 영도구에서 센터까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여 심발교육 등 사례관리</p>
15	온종합병원	진구 당감동 (051-6070-130, http://www.onhospital.org)	8. 23일	<p>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지역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유·무상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함</p> <p>* 추진실적 : 진00(52세)의 1차 어깨 회전근개 복원술, 2차 목디스크 수술 무료 시행)</p> <p>- 지역자활센터 의료지원 대상자 수요조사 및 지원 추진</p> <p>- 부산진 치주질환, 사하두송 치질환자 2명 신청 접수 완료 및 협의 진행중</p>
16	프라임병원	사하구 하단1동 /연제구 연산동(051-861-7600, http://프라임병원.kr)		
17	세웅종합병원	금정구 서동 (051-500-9700, http://www.sewoongh.co.kr)	10. 13일	<p>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지역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유·무상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함</p> <p>* 추진실적 : 신장질환자 시술 협의중</p>
18	온사랑병원	동래구 온천동 (051-555-0808, http://www.on-sarang.com)	9. 8일	<p>알콜치료전문병원으로서 저소득층 대상자 및 가족 중 알콜리즘 또는 의증 치료 혜택 제공</p> <p>* 추진실적 : 알콜리즘, 게임중독 저소득층의 경우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 지원(무료)</p>
19	신용회복위원회	연제구 연산동 (1600-5500, http://www.ccrs.or.kr)	11. 23일	<p>저소득층의 신용회복 및 관련 문제 상담서비스 제공</p> <p>* 추진실적 : 신용회복이 급박한 대상자의 경우 동행면접을 실시하여 회복 등 지원</p>
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부산지사	부산진구 범일로 341 https://www.kead.or.kr	02월 10일	<p>부산지역저소득장애인의고용촉진을 통한자립기반마련등제반서비스 연계협약</p>

업무 제휴 및 협약을 통한 효과 실적

가. 검정고시학원 과정 및 수강료 (20~25%할인) : ₩3,150,000 소득 효과

구 분	과 정 별			비 고
	3개월	6개월	1년 회원제	
정 가	750,000	1,000,000	1,250,000	본부지원: 60만원 3개월 과정 수강시 전액지원 가능 (6개월 / 1년교재무료)
할인수강료	600,000	800,000	1,000,000	
교 재 비	50,000	교재비무료	교재비무료	
본인부담액	50,000	200,000	400,000	
할인금액	150,000	250,000	300,000	
수강인원수	16	3	-	계
총지원금액	9,600,000	2,400,000	-	12,000,000
할인금액	2,400,000	750,000	-	3,150,000

나. 운전교육

◇ 시지역 5개 운전학원과 업무협약후 84명 운전교육으로 ₩14,364,000 소득 효과

구 분	금 액(단가)	교육인원(수)	총액	비고
정 가	890,000	84	74,760,000	※ 할인액: ₩14,364,000 (SAVE한 금액)
소 계	719,000	84	60,396,000	
지 원 금	본부지원 (사업비)	84	9,996,000	
	본부지원 (실비)	84	50,400,000	

다. 의료지원 내용 : 무료지원 연간 ₩12,000,000 / 할인 ₩10,000,000 이상 확보
온종합 월 30만원+프라임 50만원+온사랑병원 20만원 = 100만원/ 비급여 할인 20~60%

병원별	의료지원 사항		
	월무료 지원(월15만원 内)	비급여 할인적용	기타 지원
온종합 병원	- 인원 3명 : 5만원 이하 - 인원 5명 : 3만원 이하	- 입원+수술 → 본인부담 20% 할인 - 기타 비급여 검사 → 30%할인	※ 부산시, 본부 특별 요청건 → 무료진료
프라임 병원	- 월1명 수술, 입원비 - 월3명 외래진료	- 수술 재료대 60% - 의료비 가족할인: 10-20%	※ 건강생활지원 위한 무료 건강상담 및 강좌지원
온사랑 병원	- 「인지 행동 치료」 비보험 월10만원/외래진료시1회 10만원 → 요청시 무료	- 그외 비급여(병상 변경,식사 및 기타) : 30%~50%	※ 각종 중독예방 관련 특강 등

라. 기타사항 : 김치 축제 2010. 11.24(수)~11.29(월) 주최로 참여 지정기탁받아 희망리본 참여 가정 총 961가구에 전달함. → ₩ 52,417,000 소득 효과

마. 업무제휴를 통한 총소득금액 : ₩ 91,931,000

검정고시 ₩3,150,000+운전교육 ₩14,364,000+의료협약₩22,000,000+김치축제가탁 ₩ 52,417,000
--

“새로운 기회, 새로운 희망”

관세사무소 취업 / 류0진 (사례관리사 박태신)

저희 집은 9인 가족이며 제게는 6명의 소중한 동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없는 대가족이었기에 늘 많은 동생에 대한 놀라운 반응들은 저에겐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녀였기에, 주변에서는 늘 ‘네가 고생이 많다, 어깨가 무겁겠다’라는 걱정 섞인 격려의 말들도 많이 들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동생들을 등교시키기 위해서 양말 옷 등을 챙겨주고 과제물 준비하여 학교로 보낼 때까지는 전쟁터가 되곤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많기에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늘어났고,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은 아버지 혼자였기에 열심히 일을 하셔도 형편이 힘든 건 늘 똑같았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닌 일용 건축일이라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힘들어서 불평 불만하거나 한탄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린 마음에 서운했던 것은 친구들도 다니는 그 흔한 학원을 가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이 힘들다는 것을 보아왔고, 그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불편할 뿐이었고, 부모님께서는 어린 저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주지 못해 안타까우셨겠지만, 저와 동생들은 부모님의 그런 마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구김살 없이 밝고 건강하게 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형제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덧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었고, 또래의 학생들이 그렇듯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끝나고 받은 성적은 좋지 않았고,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는 절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수를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결론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며 공부를 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이 어려운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보다 대학 진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저를 응원해주시고,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해하시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때, 저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힘들게 공부를 했고, 무엇보다 1년을 더 투자했기에 결과는 더 나아질 줄 알았지만 몇 과목 빼고는 작년과 같은 결과가 나온 성적을 보며 저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고, 장녀이기에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한 번 더 준비하기엔 부모님께도 죄송스러웠고,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제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에 합격된 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하자고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집안 형편을 봤을 때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웠기에 대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졸업 후 차차 갚으면 되기에 학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본인의 돈으로 먼저 지불하는 형식이었기에 결국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처음으로 ‘돈만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학생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서 남을 수밖에 없었고, 대학은 가고 싶었기에 공부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쓸쓸한 2010년을 맞이하며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서2동사무소 선생님의 소개로 성과관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청 자활센터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취직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웠고, 당장 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취직을 하게 된다면 제 꿈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도 어려운데 공부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 대학 나와도 취직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일하는 것도 낯지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고민속에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목표까지 고민하게 되었고 복잡한 생각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성과관리 선생님

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무조건적으로 취직이라는 것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어주시며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이번 일을 기회라고 생각하자는 쪽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며 준비하는 쪽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만나면서 적성검사도 다시 해보고, 공부만 생각 해왔던 저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틈을 마련해 주셨고, 이번 일이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려는 모습에 저도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취직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었기에 기본적인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두 달 동안 ITQ의 3과목과 ,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역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꿈이었기에 선생님의 도움으로 수출입 서류를 작성하는 조금 큰 규모의 관세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이었기에 두려움도 앞섰지만 편안한 분위기의 사무실이었고, 여러 가지를 배우며 첫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와는 다른 느낌의 월급이었고, 조금이나마 집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더욱 뿌듯했습니다.

지금은 희망키움프로젝트를 통하여 동생도 취업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도 취업을 하여 일정하지 못했던 일용직 수입에서 정기적인 수입을 가지게 되었으며 가족 소득이 4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들어오면 생활비로 쓰기 바빴지만, 선생님의 소개로 희망 키움 통장에 가입하게 되어 매 월 10만원을 저금해서 3년 후면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든든한 통장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집은 저금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막연한 희망이 아닌 명확한 목표가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부 교육때 보았던 추신수 선수의 다큐가 생각이 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선수가 될 때까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끊임없는 집념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련에 져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주고 격려해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픔을 같이 겪어 온 가족이 있었고 그 것을 함께 이겨냈기에 그의 성공이 더욱 빛날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신수 선수처럼 유명한 가족이 아니지만 평범한 우리 가족도 시련을 겪었고, 그것을 함께 이겨 내가고 있기에 이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만 봤을 때 늘 제자리걸음일 것만 같았던 우리 집도 돈이 없어서 겨울날 차가운 방에서 자본 적도 있고, 쌀이 떨어져서 세 끼를 라면으로 떼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많았기에 마음만은 부자였고, 지금은 성과관리를 알게 되어 돈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으며, 어려웠던 시절을 그 땐 그랬었지하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은 배우고 싶은 것 마음껏 배우며 자랄 수 있는 환경, 많은 동생들을 낳으시고 어려운 환경에 산후조리를 제 때하지 못해 치아가 부실해지신 어머니가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족들의 소원이기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던 올해, 무엇보다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사회에 보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모가 보내는 감사의 편지”

삼성전기, 도시치과 취업 / 최0은, 최0주(사례관리사 양재호)

작성자 : 이모 이0란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추수하는 것처럼 지금은 너무나 풍성한 농부의 마음이지만 일 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저 매일 매일 배짱이 같이 반복되는 지겨운 나날들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무의미한 날들을 보내며 청소년 상담도 받아보고 취업상담도 해보았지만 상담 받는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제자리에서 그저 그렇게 지내고 이를 야단치면 아이들은 온갖 짜증도 냈지만 각자의 달란트를 가진 아이들이라서 한편으로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가정환경이 형제 네 명 모두가 각자가 자기 짐을 지고 가야하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속으로만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던 중에 참으로 우연히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되어 성0이와 연0가 이렇게 취업할 수 있게 체계적인 상담과 성격적성검사 그리고 아이들 성향까지 꼼꼼히 짚으며 상담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때로는 복지사와 상담을 약속하고도 아이들이 매번 가지도 않고 무시해 버릴 때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연락을 주어 아이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하였으며 저에게 격려까지 해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0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재주가 많은 아이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동시에 늦게 찾아온 사춘기의 방황에 2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무하게 지내도록 했으며, 동생 연주 또한 고등학교 졸업을 했지만 뚜렷한 직장도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내며 서로가 지쳐갈 때 이렇게 감사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 이제 성0이는 삼성전기 본사 정규직에 취업하고 동생 연주는 개인병원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제 가슴에 ‘감사’라는 글귀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정말로 우리 조카들에게 좋은 직장으로 취업을 시켜서 우리 두 조카들이 앞으로 자기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되찾아준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의 귀여운 조카들의 진로와 취업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주신 양재호 복지사님의 열정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나도 한국에서 일하는 아줌마입니다.”

지엠티(전자제품조립)취업 / 홍티홍탐(사례관리사 노수미)

저는 베트남에서 온 26살 홍○희 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3살 된 아들 동혁이가 있습니다. 결혼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밖에도 제대로 나갈 수 없었고 한국말도 서툴렀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남편의 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생활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저를 한국 사람과 다르게 보는 시선들이었고 저는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2010년 한해를 돌아보며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일들을 이야기 해보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가 노수미 선생님을 만난 것입니다. 노수미 선생님은 조금 큰 체구 만큼이나 한국말이 서툰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셨고, 사람을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던 저에게 심밭에 밑알심기 교육을 받아보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저는 교육을 통해 나 자신을 한번 더 되돌아 볼 수 있었고, 조금씩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아이와 함께 외출이 없었던 저에게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하였고, 차를 타고 아이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잊지 못한 행복했던 일중 두 번째는 저의 본국인 베트남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2006년 결혼 이후 저의 고향 베트남을 다녀 올 수 없었던 저에

게 선생님은 고향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구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송국에 저희 가족 사연을 보내주셨고 드디어 2010.08.12일 고향인 베트남을 남편과 동○이와 함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신 친정 부모님은 첫손자인 동○이를 처음으로 안아 보시고는 평평 우셨습니다. 동혁이를 출산할 때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어 밤새 울었고 그로 인해 생긴 산후우울증은 나의 고향을 방문하면서 씻은 듯이 낫았습니다.

베트남을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노수미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저의 행운은 나의 직장 지엠피입니다.

행운은 한꺼번에 오는 것일까요? 베트남을 가기 한달 전 노수미 선생님이 저희 집 인근에 위치한 전자제품 조립회사에 면접을 보러가지 않겠냐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취업이 절실했던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일을 하게 되면 베트남의 일정과 겹치게 될까봐 베트남을 다녀와서 생각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은 베트남을 다녀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면접 전 선생님은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 현재 제 상황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터라 면접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장님과 선생님의 배려로 저는 베트남을 다녀온 후에 무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활인력지원본부의 도움으로 그리워하던 베트남의 가족을 만났고 취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를 옆에서 자신의 일마냥 도와주는 나의 하나뿐인 언니 노수미 선생님이 항상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홍○희도 한국사람으로 일을 가진 멋진 한국아줌마 홍○희라고 말합니다. 나를 처음 한국사람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부산광역시 자활인력지원본부와 노수미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이 아빠! 그리고 동○아 사랑한다.

2차년도 지역별 성과 보고



인천, 희망을 쏘다

2011년 3월

▶▶▶ 최 형 수 | 인천광역시활성센터장

2010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사업결과 보고서

인천, 희망을 쏘다

보거복지부
희망리본프로젝트



Contents..

04-15 추진계획평가

1. 기본사업계획
2. 추진과정

16-31 집행내용

1. 취업지원 사례관리 업무
2. 사업비
3. 홍보
4. 사업방식의 효율성

32-41 성과

1. 기본성과
2. 확인성과

42-51 종합평가

취업목표 달성 354명[59%] 취업유지율 248명[41%] 달성

2010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사업결과 보고서
주요 사업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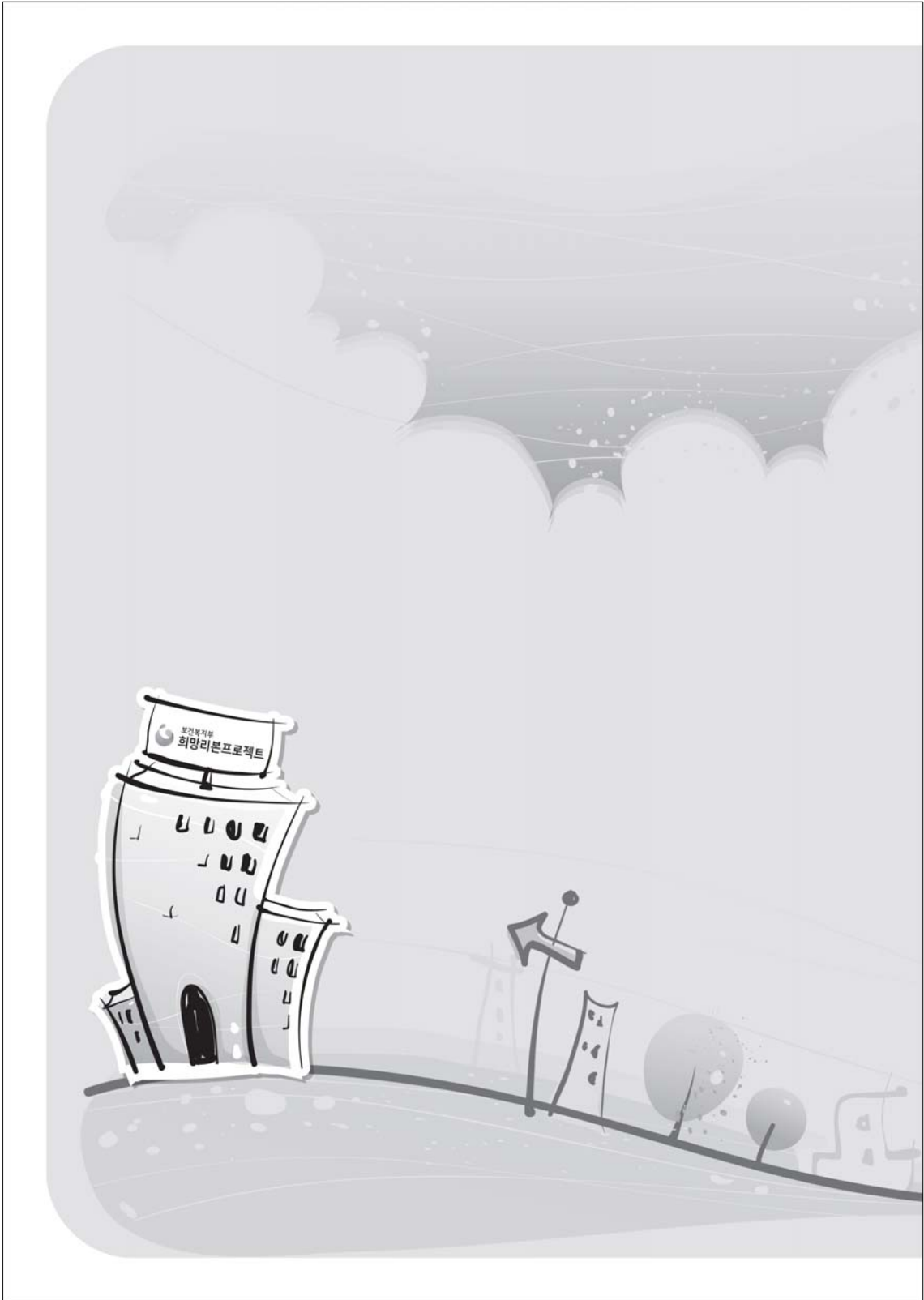
사회서비스 연계	구인구직만남의 날 '희망나눔day' 개최	문화연계사업 추진 가을나들이&영화감상	성공자 대회 개최
참여 대상자들의 근로여건개선 및 심리적, 경제적 지지를 위한 활발한 사회서비스 연계	인천희망리본부 대상자만을 위한 구인업체와의 작-간접 만남의 날 개최	참여대상자들과 가족간의 시간을 통한 심리적 지지를 위한 외부 활동	취업에 성공한 참여대상자들의 자립자활을 축하하기 위한 성공자 대회 개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참여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사회 서비스연계의 범위를 클라이언트와 가족 그리고 환경으로 확대 실시하여 참여 대상자의 주호소 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 또한 유관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고 개인회생, 심리진단, 아이돌봄 등 사회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대상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대상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희망리본대상자를 위한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마련하여 구인업체와의 특별면접 형태로 진행되어 대상자들의 취업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가을 나들이와 영화감상 등 취업 외 참여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심리-경서적 지지와 관심 등의 근로여건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취업과 자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시범사업 첫 해로 본사업의 성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본사업의 효과성을 홍보하는 계기로 '성공자 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취업자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에 대한 격려 및 정보공유 등 취업유지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2010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사업결과보고서

I. 추진계획평가



사업추진목표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고용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 인천지역 내 빈곤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및 기업체 MOU체결로 취업&복지의 통합서비스 체계구축
-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알선 및 복지-고용서비스제공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참여대상자들의 복합적 문제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구축

근로여건 조성을 통한 경제활동 유도

- 참여대상자들의 환경적, 경제적, 심리적 다양한 장애요인에 대한 장애요인 제거 및 가구여건에 따른 일할여건 조성
- 사회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통한 적극적 개입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 유도

참여자 유형별 1:1맞춤형 사례관리

-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개인별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자를 통해 일자리 알선 및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 근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위해 대상자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심리진단 및 치료,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직접서비스 제공

성과관리 자활시범사업의 정착화

- 성과관리자활시범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의 정착화를 위한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 및 1차년도 사업을 통한 복지-고용지원서비스의 효율성 검증 및 자기사업의 방향성 모색
-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틀마련

I. 기본사업계획

①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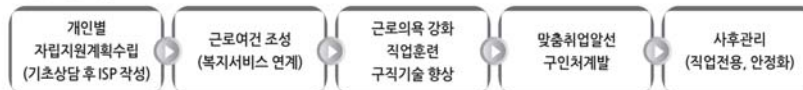
1. 사업 개요

참여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상담, 근로여건조성, 근로능력개발, 일자리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함.

2. 사업 참여 대상

인천지역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3. 사업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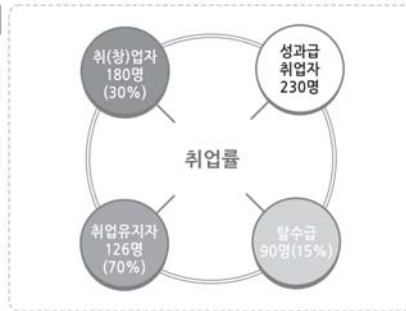
4. 서비스 지원 기간

개인상담	근로역량	맞춤취업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상담 -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수립(ISP) - 희망취업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지원 - 복지서비스 연계 - 기업맞춤교육 - 창업교육 - 희망취업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서, 면접클리닉 취업대비교육 - 지역내 민간, 공공 기관 일자리 알선 - 개인별 맞춤 취업 지원, 동행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적용관리 - 구인업체관리 - 재취업 연계 -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 업그레이드 교육 - 희망키움 통장연계

5. 사업 목표

참여대상자	내용
취(창)업자	180 명 (30%)
취업유지자	126 명 (70%)
탈수급	90 명 (15%)
일자리발굴	700건

<2010년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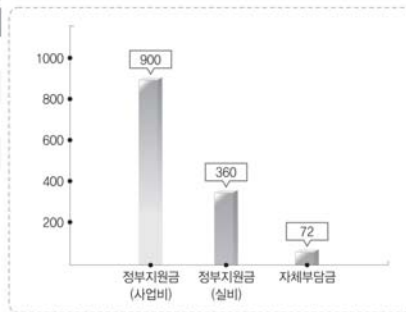


6.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비	예산구성	비고
정부지원금 (사업비)	900	
정부지원금 (실비)	360	
자체부담금	72	
합계	1,332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2010년도 사업예산>



01

추진계획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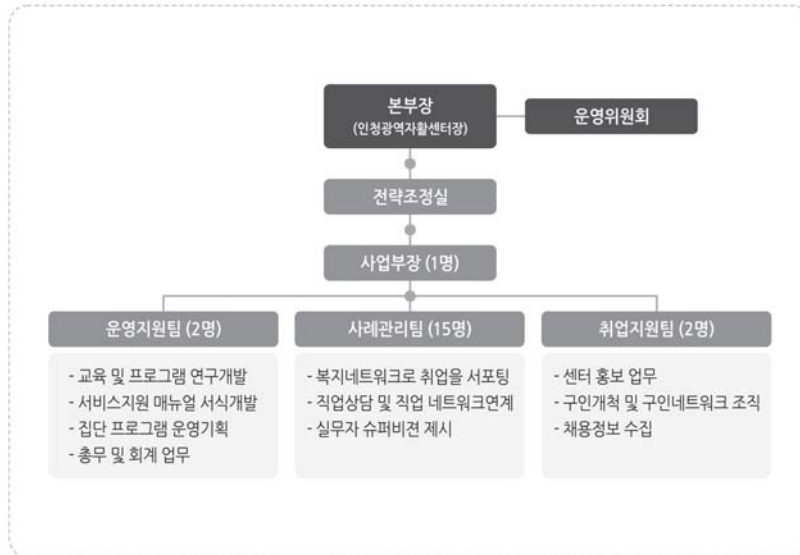
7. 조직구성: 운영위원회, 1본부, 1실, 1부, 3개팀(22명)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

연번	예산구성	예산구성	예산구성
1	인천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장	황수연
2	(새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인천지부	사무처장	지주현
3	소상공인지원협의회	회장	조광범
4	(주)범무법인 로시스	실장	박용만
5	다인세무회계사	세무사	박병규
6	(주)해밀 enc	대표	최윤경
7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본부장	최형수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본부장: 인천광역자치센터장 겸임(비상근)



8. 사업 추진 일정

(기준일시 : 2010. 03.)

내용 \ 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1월	2월
사업세부계획수립	■											
기초상담 및 개별 계획		■	■	■	■	■	■	■	■	■	■	■
사업홍보		■	■	■	■	■	■	■	■	■	■	■
취업자 간담회								■	■	■	■	■
구인업체 간담회											■	■
근로능력개발훈련		■	■	■	■	■	■	■	■	■	■	■
사후관리			■	■	■	■	■	■	■	■	■	■
유관기관네트워크		■	■	■	■	■	■	■	■	■	■	■
사업평가및회의			■	■	■	■	■	■	■	■	■	■
사업보고서 / 결과물작성												■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2010년도 사업추진일정>

9.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설치

4월 초 간석오거리 인근의 접근성이 용이한 사무실로 설치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6층)

01

추진계획평가

㉔ 변경사항

1. 변경 후 조직 체계



2. 변경 후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부지원금(사업비)	900	900	
정부지원금(실비)	360	360	
자체부담금	72	100	28↑
합계	1,332	1,360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2010년도 사업예산>

㉕ 추가사항

1. 가족 지원사업 ("가을나들이")

- * "가을나들이"행사의 경우 한부모 가정 및 취약계층 대부분이 경제활동 및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물론 함께 나들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자녀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이용하여 가족나들이 행사를 진행하였음. 이를 통해 참여대상자들이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평가됨.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1인가구 등 문화 활동이나 가족여행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단합 및 자활의지를 독려하는 기회가 됨.

2. 문화연계 지원사업 ("행복플러스:영화감상")

- * "영화감상"을 통해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즐거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함.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참여대상자들에게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및 친구와의 화합의 기회 및 기관에 대한 소속감 고취로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됨.

3.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희망플러스”)

- 희망리본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나 개인 및 환경적 장애요인으로 취업연계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하여,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자체 사회서비스 지원프로그램 및 지역유관기관 MOU체결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대상자가 적극 취업에 동참하고 구직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 희망플러스사회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은 인천희망리본대상자 중 개인회생 및 파산, 자녀돌봄, 심리진단 등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서비스 발생비용 지원
- 또한, 인천지역 내 복지기관, 상담기관, 치료기관 등 12개 유관 기관과 MOU 체결로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사회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II. 기본사업계획

①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

1. 월간/분기별 계획 및 집행내용

(기준일시 : 2011. 02. 28)

구분	세부추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대상자 발굴	대상자 모집												
	기초상담 및 심화상담												
상담	개별자립지원계획												
	맞춤취업설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회 서비스	사회서비스 기관연계												
	희망플러스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근로 능력 개발	근로교육중진 교육												
	근로여건조성 집단상담												
	직업훈련 교육												
	창업교육												
일자리 지원	구인처 발굴, (기업 MOU)												
	맞춤취업알선 및 연계												
	동행연결												
	구인구직만남의 날												
	취업적응관리												
사후 관리	구인업체관리												
	취업적응관리												
	구인업체관리												
	취업축하물품 지원												
기타	창업 사후관리												
	문화프로그램 지원												
	취업성공자 자조모임												
	취업성공자 대회												

<사업추진과정>

01

추진계획평가

②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1) 대상자 (모집방법/내용, 교육방법/내용, 대상자서비스요구 및 연계내용)

1. 모집방법: 인천광역시 참여자 선정 위탁 통보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근로능력 있는 자를 인천광역시에서 선정 후 수행기관에 위탁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기초조사 및 근로능력 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별
- 인천광역시 신규 대상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
신규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각 군·구별 담당자에 대한 사업설명회 및 업무교육을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하였음. 또한 본 사업 대상자인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자들에 대한 사업참여 유도 및 취업지원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회 진행.
- 총 모집인원 625명 중 24명에 대해 대상자 변경 요청이 있었으며, 1명은 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 2010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대상자는 총 600명으로 확정되어 시범사업이 시작됨.

① 모집시기별 확정인원



- 시범사업으로 2010년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면서 사업초기 대상자모집이 수월하게 진행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모집을 진행함으로 사업초기 279명의 대상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사업수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보이며, 또한 사업 목표인원 600명에 대해 조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부분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
- 시범사업초기 군·구동의 담당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사업진행의 혼선을 가져왔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상자 변경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며, 사업초기 1차 모집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대상자들이 몰려 사례관리 전달자들의 업무가 과부하를 초래하였음. 3차 모집이후 부터는 주단위로 순차적으로 모집하고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였음.

② 사업대상자 기초분석

* 거주지별 사업대상자 분류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명, %)

번호	거주지별	대상인원			
		인원	(%)	수급자	차상위
1	강화군	13명	2.2%	10명	3명
2	계양구	79명	13.2%	60명	19명
3	남 구	104명	17.3%	87명	17명
4	남동구	55명	9.2%	48명	7명
5	동 구	57명	9.5%	48명	9명
6	부평구	122명	20.3%	109명	13명
7	서 구	67명	11.2%	65명	2명
8	연수구	69명	11.5%	53명	16명
9	중 구	34명	5.6%	31명	3명
합계		600명	100%	511명 (85.2%)	89명 (14.8%)

〈거주지별 사업대상자 분류〉

- 2010년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참여대상자는 총 600명으로 2월~6월까지 시·군·구 담당자의 협조로 순조롭게 모집되었으며, 4주 이내 오리엔테이션 및 기초상담을 진행하는 등 참여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

* 거주지별 사업대상자 분류

(기준일시 : 2011. 02. 28)

구분	내용
성별	남(200명, 33.3%) / 여(400명, 66.7%)
연령	20대미만(2명, 0.3%) / 20대(106명, 17.7%) / 30대(101명, 16.8%) 40대(244명, 40.7%) / 50대(131명, 21.8%) / 60대(16명, 2.7%)
보호유형	일반수급(225명, 37.5%) / 조건부수급(272명, 45.3%) / 자활특례(9명, 1.5%) 차상위 (94명, 15.7%)
학력	초졸이하(36명, 6%) / 중졸이하(84명, 14%) / 고졸이하(391명, 65.2%) / 대졸이하(89명, 14.8%)
가구특성	1인가구(236명, 39.3%) / 2인가구(189명, 31.5%) / 3인가구(106명, 17.7%) 4인가구(47명, 7.8%) / 5인가구이상(22명, 3.7%)
근로경력	무경력(365명, 60.8%) / 1년이상~3년미만(109명, 18.2%) / 3년이상~5년미만(69명, 11.5%) 5년이상~9년미만(42명, 7%) / 10년이상(15명, 2.5%)
장애유무	장애 및 질환 107명 정신장애(3명, 2.8%) / 신체장애(35명, 32.7%) / 만성질환(69명, 64.5%)

<특성별 사업대상자 분류>

2. 교육방법

* 수급대상자 다수의 취업 직종별 직업훈련

- 취약계층 희망직종에 따른 직종별 업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고 취업 다수 직종의 직무를 맞춤형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실제적인 취업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함.

* 빈곤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자)에 대한 자활의식고취 교육 및 개인별 심층상담, 가족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심리·정서적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참여대상자 맞춤형 직업 훈련을 통한 근로능력 증진

- 참여대상자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실시해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 그들의 근로 능력을 증진하고자 함.
- 심층개별상담을 통해 참여자 개인의 적성과 흥미, 욕구에 부합하는 직업훈련을 계획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직업훈련 기관 연계.

* 자기계발을 위한 정보기초화 교육

-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대상자들의 취업 후 업무활용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참여자를 선별하여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였음.
- 업무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문서작성법, 인터넷 검색 방법, 한글작업 등 정보화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음.

* 구직기술 프로그램

- 근로의욕, 근로여건조성, 근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으로 실제 취업 전형에서 실제적인 구직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 되었음.

(2) 종사자 (모집방법/내용, 교육방법/내용)

1. 본부 종사자 모집 및 채용

- 공개채용을 통해 총 22명 채용하였으며, 본부장과 전략실장은 광역자활센터와 겸직하여 비상근직으로 함.
- 본부장 1명, 전략실장 1명, 사업부장 1명, 팀장 3명, 실무직원 18명 총 22명 구성
- 인력의 구성은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민간취업컨설팅 유경험자, 자활사업 경험자들로 구성되어 복지-고용 서비스의 운영에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됨.
- 본부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22명의 인원에서 하반기에 취업지원업무 1명, 교육전담인력 1명 총 2명이 총원되어 현재 24명으로 구성되었음.

2. 본부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 인천지역에서의 시범사업 초기단계에서 실무자들의 본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필수교육 및 영역별 역량 강화교육이 진행됨.

구분	내용
실무 교육	+ 회양리본 사업에 대한 이해 + 업무매뉴얼, 시스템교육, ISP작성교육 + 취약계층 전화응대 및 대면 상담 기법 교육 + 본부 내 업무서식활용 교육
집단프로그램 진행 기법 교육	+ 근로의욕증진을 위한 대상자교육(뉴드림프로그램 진행) + 자기탐색, 취업걸림돌 극복, 취업 목표 설정 + 한부모, 대인관계, 분노조절, 스트레스 대처 + 직업정보 탐색법,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등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상담기술향상을 위한 실무자상담교육 + 사례관리기술향상을 위한 실무자사례관리교육 + 재무관리 상담을 위한 재무관리교육 + 취업지원업무 실무교육 + 기타 외부교육 진행(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외)
수퍼 비전	+ 매월 첫 주 주간회의 시 각 팀별 사례발표를 통한 사례공유 + 사례회의를 통한 사례분석 및 다양한 사례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 수퍼비전 진행

〈실무자 교육내용〉

※ <붙임 1> 참조 (상-하반기 실무자교육)

- 직원상호간의 팀워크를 강화하고 유대감을 높이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상-하반기 본부 내 직원워크숍을 총 2회 진행하였음.



③ 성과목표의 부합성

1. 내부목표설정여부 및 적합여부 검토

2010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인천의 경우 내부목표설정은 인천광역시와의 수행기관 이행 계약사항에 준하여 설정하였음. 총 600명 중 취업 180명, 6개월 126명, 탈수급 90명으로 당초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여 내부 목표설정 후 목표에 부합 되도록 2010년 사업을 이행하였음.

인천지역의 경우 시범사업 첫해로 신규사업의 부담을 안고 지역 내 구인처발굴 및 유관기관 홍보 등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복지-고용의 사업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조성을 조성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함. 2011년 2월 28일 현재 총 600명 중 취업경력자 354명, 취업유지자 248명, 이중 창업 4명으로 각 항목별로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또한 탈수급의 경우 2010년 12월 21일 현재 지자체 조사결과 57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추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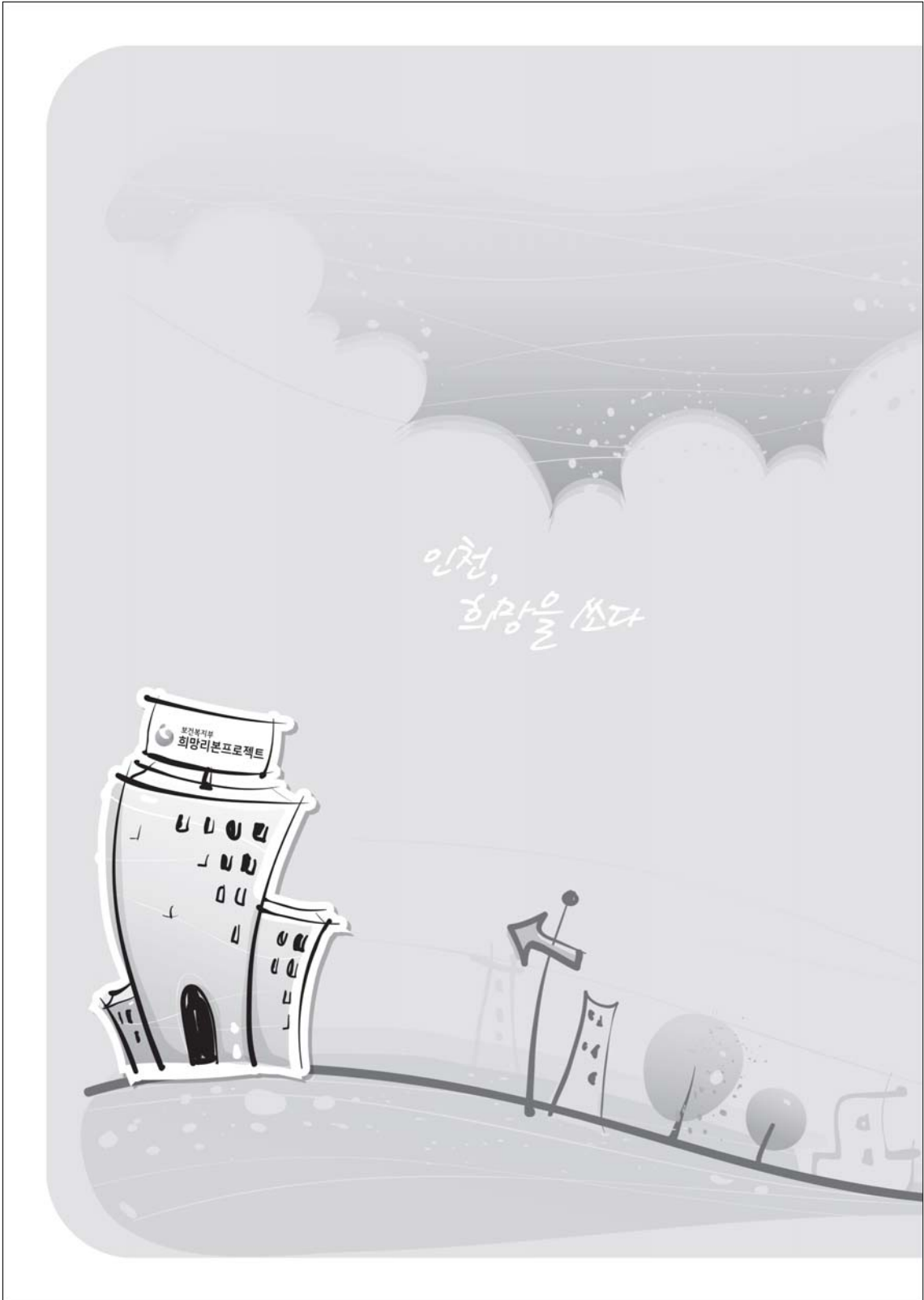
사업초기 참여대상자에 대한 파악 및 사업의 이해나 지역 내 본사업에 대한 홍보의 미흡, 본부 내 직원채용 등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2010년 6월에 추진됨에 따라 상반기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하반기 8월 이후 2011년 2월 28일까지 7개월여 동안 목표실적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음. 이는 실무자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 실무자의 동기부여가 작용하였으며, 체계적인 조직구성을 통해 본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취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또한 이와 아울러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차원에서의 밀착 사례관리, 교육, 사회서비스 지원 등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였던 것도 목표달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봄.

(기준일시: 2011. 02. 28 / 단위: 명)

구분	취(창)업 유지자			취(창)업 경험자	
	취업	창업	소계	취업	창업
최적임금이상	227	3	230	326	3
경과적	17	1	18	24	1
소계	244	4	248	350	4
총계		248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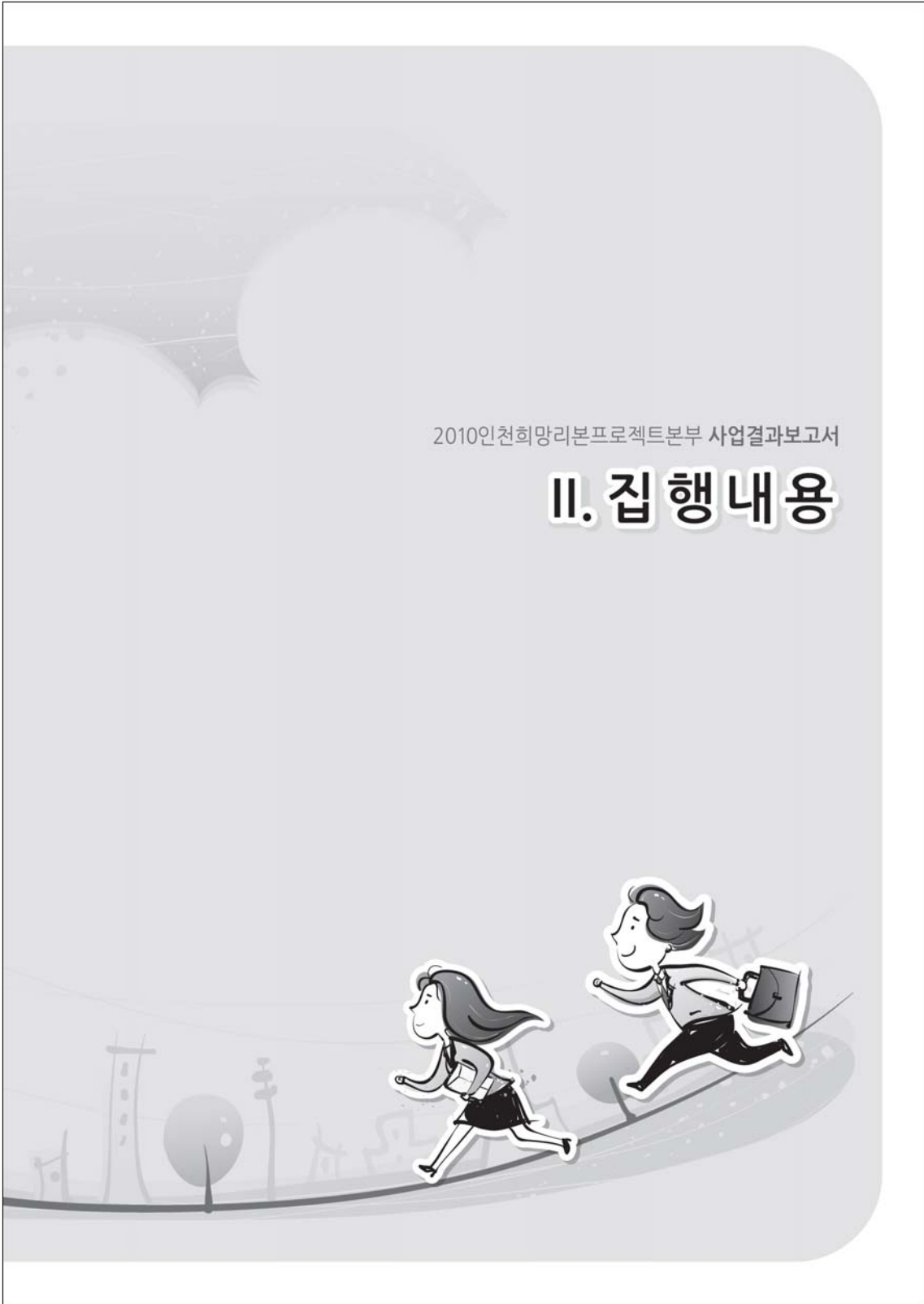
<취창업자 성과표>





2010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사업결과보고서

II. 집행내용



02

집행내용

I. 기본사업계획

① 취업지원 사례관리 업무

1. 업무인원

구분	인원수	담당 업무
총괄	1명	사업총괄
상담인원	15명	취업사례관리담당
행정인원	3명	회계총무담당, 교육담당, 본부운영 담당
취업지원인원	3명	업체발굴 담당, 구인구직만남의날, 홍보 및 협약담당
소계	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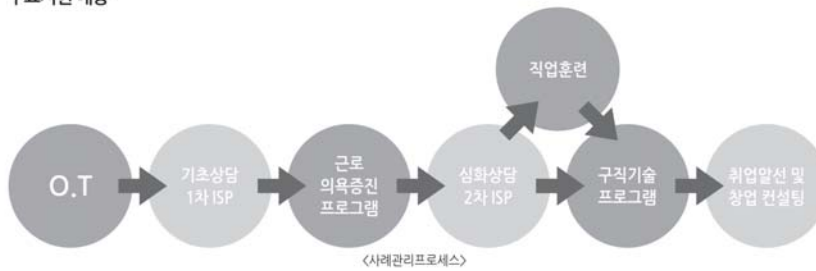
<담당업무별 인원구성>

2. 취업前·後지원내용 총괄표

구분	취업 前	취업 後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상담 및 심화상담 - 자립지원계획(ISP) - 맞춤취업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적응관리 - 희망키움통장, 행복키움통장 연계
사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유관기관 자원연계 - '희망플러스'지원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 근로의욕증진 교육(뉴드림) - 근로여건조성 집단상담 - 직업훈련 교육 - 창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교육 - 대상자 모니터링
취업 및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서 및 면접클리닉 - 일자리 발굴 - 취업알선 및 연계 - 동행면접 - 구인구직 행사 개최 - 창업교육 및 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인업체 관리 - 재취업연계 - 취업촉하물품 지원 - 창업 사후관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프로그램 (가을나들이, 무료영화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자 자조모임

<취업 전·후 지원내용>

2 취업 전 업무내용
주요지원 내용



1. 사례관리지원 업무

사례관리는 사례관리 전담자별 소수인원 대상의 질 높은 1:1 맞춤형 사례관리로 참여대상자의 심리 안정을 높이고, 대상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서비스와 근로여건조성을 위한 사회서비스(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통한 성공적인 자활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대상자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기초상담**

대상자 확정 후 2주 이내에 기초상담을 실시하여, 대상자와 맞춤 사례관리의 목표 수립을 위해 기초적 정보 파악 및 자립유형에 대한 사정과 희망취업상담을 실시함

***개별자립지원계획(ISP)**

기초상담 이후 4주 이내에 작성하며, 전담사례관리자의 1:1 상담을 통해 참여대상자 욕구 및 서비스 관련 분야를 설정하여, 대상자의 자립에 필요한 근로여건 파악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함.

***심화상담**

매월 심화상담을 통해 전담사례관리자와 참여대상자의 지속적인 라포 형성으로 참여대상자의 근로의욕, 근로여건, 근로능력 등에 대한 심층상담을 실시하여, 참여대상자에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함.

2.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주요지원 내용**

- 참여대상자 기초 및 심화 상담을 통해 파악된 취업장애 요인 중 참여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내의 자원 및 서비스 기관을 적절히 연계하여 대상자의 근로여건을 조성하였음.
- 사례관리 전담자는 지역복지서비스 자원에 관한 정보(인천사회복지가이드, 홍보물, 지자체 등) 확보 및 각 기관 담당자와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보하였음.
- 지역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연계 협조 요청을 위한 대상자 의뢰서와 희망리본 홍보물을 적극 활용해, 기관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후관리 시 사례관리 정보내용을 공유하여 대상자의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음.
-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자체 사회서비스지원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를 기획하여, 희망리본 대상자의 개인파산, 자녀돌봄, 심리진단 등의 서비스 발생비용 지원으로 발생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였음.
- 또한, 인천지역 내 복지기관, 상담기관, 치료기관 등 10개 유관기관과 MOU 체결로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사회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였음.

02

집행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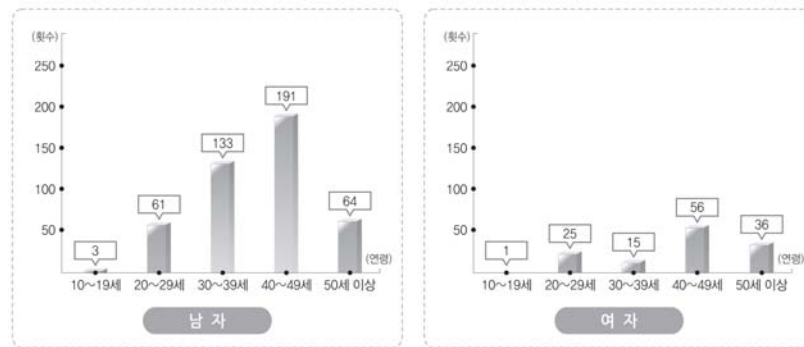
·사회서비스 업무 흐름도

사회서비스 지원방향은 참여대상자가 구직 시 느끼는 문제들을 '개인적 지원영역과 환경적 지원영역'의 문제로 분류하여 접근함으로써, 수시로 대상자의 애로요인 해소정도를 파악하고 연계기관과 서비스 수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한 지원된 서비스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함.



·사회서비스 연령대 및 성별 분포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총 600명 중 585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연계했고,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42%로 절반 가까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했으며, 30~39세가 25%, 50세 이상이 17%의 순으로 이용했고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사회서비스 이용횟수가 600명 중 452명으로 근로여건 조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희망리본 사업의 취지가 "취업&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이라고 한다면 대상자의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연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음.



·사회서비스 연계 내용 분포

사회서비스의 연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참여대상자의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문화>학습>심리정서상담>양육>신용회복' 순으로 연계 및 지원하였음. 근로여건 조성으로 취업의욕을 높여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참여대상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며 겪는 심리적 육체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

- 신용회복을 통해 신용불량 대상자의 신용회복의 기회 제공으로 취업 독려하였고, 학습지원 및 기관연계를 통해 참여 대상자의 전문적 지식획득의 기회 마련하였음.
- 양육서비스와 시설연계를 통해 양육문제와 노부모의 부양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취업 기회 확대하였음.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근로여건에 따라 맞춤 사회서비스 연계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취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명, %)

구분	이용횟수(명)	퍼센트(%)
고용	1	0.2
양육	45	7.7
문화	264	45.1
정신건강	18	3.1
생계지원	4	0.7
시설연계	8	1.4
학습	111	19
법률	2	0.3
부채	2	0.3
심리정서상담	89	15.2
신용회복	22	3.8
의료	4	0.7
기타	15	2.6
총계	585	100

<사회서비스 연계 실적>

·사회서비스 "희망플러스"

인천희망리본에서 실시한 [사회서비스 지원 '희망플러스']는 희망리본 참여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나 개인 및 환경적 장애요인으로 취업연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취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구직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을 조성하고자 운영되었음.

- 신용회복 지원: 신용불량 대상자의 신용회복의 기회제공
-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참여대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취업유지율 증가
- 장애진단 및 심리진단 지원: 심리적 문제로 정기적 정신과적 치료 및 상담을 요하는 참여대상자의 심리진단 실시
- 지원 내용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건)

구분	자녀돌봄	개인파산	심리검사	합계
연계횟수	2	19	1	32
제공횟수	2	7	5	14

<희망플러스 지원내용>

3. 교육

내부교육

·개요

- 대상자 교육은 자신감과 구직의욕 및 기술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별로 초기상담내용을 기초로 수립된 ISP유형에 따라 맞춤형 교육에 참석할 수 있게 운영하였음.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은 대상자 개인의 유형 특성에 따라 '근로교육증진프로그램, 근로여건조성프로그램, 직업훈련(창업교육 포함)' 등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맞춤형 교육내용으로 운영하여 구직의욕을 한단계 높이고자 하였음.
- 또한,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대상자를 위하여 '기관파견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교육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하였음.

·내용

- 근로교육증진프로그램 (뉴드림: New Dream)
전체 희망리본 대상자의 근로교육진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고, 참여 후에도 근로의욕이 부족한 대상자는 심리상담집단프로그램 및 심리치료를 연계하였음.
- 근로여건조성프로그램
뉴드림 교육 참여 후에도 근로의욕이 부족한 대상자를 위해 집단상담을 활용하여 심층적인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가족세우기, 대인관계증진, 분노스트레스관리, 신용회복특강, 저존감향상, 재무관리특강, 한부모교육' 등으로 진행하였음.
- 직업훈련
근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자격취득과정과 근로여건증진 및 근로교육증진과정 이후 취·창업 전형에 필요한 실제적인 구직기술 및 창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음.
직업훈련 연계 및 외부 위탁: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정보화교육
자체프로그램: 구직기술, 구직기술심화, 창업교육

·결과

-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에서 운영된 자체 교육은 크게 근로교육증진, 근로여건조성, 직업훈련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고, 전체 교육-목표 달성률은 76%이며, 만족도 평균은 4.2점(5점 척도)의 만족도(매우만족) 결과를 보였음.
- '근로교육증진교육'의 경우 전체 목표 기준으로 80%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고, 만족도 조사결과 4.2점(5점 척도)의 만족도(매우만족)를 나타냈음.
- '근로여건조성교육'은 전체 목표 대비 71%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고, 만족도 조사결과 4.2점(5점 척도)의 만족도(매우만족)를 보였음.
'직업훈련'의 경우 전체 목표 기준으로 76%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4.2점(5점 척도)의 만족도(매우만족)를 보였음.

(기준일시: 2011. 02. 28 /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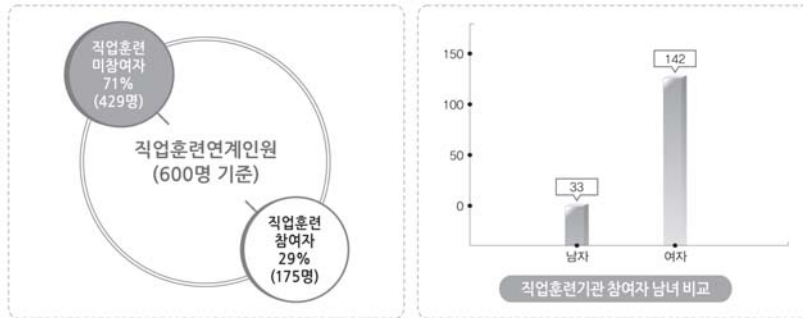
사업구분	대상	목표		추진결과					만족도	
		건수	연인원	건수	회수	신청인원	실인원	연인원		
근로교육증진	뉴드림	전체	30회	600명	24건	48회	406명	333명	659명	4.2점
근로여건조성교육	한부모교육	2유형	5회	60명	5건	20회	62명	55명	191명	4.2점
	자존감 향상교육		5회	60명	5건	20회	65명	55명	180명	4.3점
	분노스트레스관리교육		8회	90명	5건	5회	51명	37명	37명	4.0점
	대인관계 증진교육		5회	60명	4건	16회	52명	49명	168명	4.2점
	가족세우기		3회	30명	1건	1회	9명	9명	9명	-
재무관리교육	5회	60명	2건	2회	20명	17명	17명	4.3점		
직업훈련	직업훈련	3유형	9회	145명	4건	73회	39명	22명	434명	-
	구직기술교육	4유형	10회	200명	9건	9회	219명	155명	155명	4.3점
	구직기술 심화교육	4유형	6회	60명	6건	12회	55명	40명	77명	4.3점
	소자본 창업교육	3-4유형	1회	20명	1건	4회	14명	9명	36명	4.1점
합계					66건	210회	992명	781명	1,963명	4.2점

<2010년 내부교육 추진 실적>

직업훈련연계현황

• 개요

- (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는 참여자에게 단순한 취업알선이 아닌 사례관리자의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그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취업 알선함.
- 기술 및 경력이 부족한 참여자에게 부족한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자신감 향상 및 기술향상을 도와드리고 원활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훈련과정 이용 시 지불되는 수강료는 수업이 종료된 후 지급되며 선 지급 될 경우 선지급 이행을 작성하여 80% 이상 출석할 것을 약속받았음. 모든 참여자는 80%이상의 출석률을 이수하여야만 수료자로 인정하고, 수강료를 지원함.



<2010년도 참여자 직업훈련 이용 현황>

- 총 600명의 참여자 중 175명이 직업훈련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 중 남성은 33명, 여성은 142명이 직업훈련을 이용함.

• **직업훈련 수료현황**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명)

구분	수료건	미수료건	총계
남자	35	2	37
여자	166	21	187
총계	201	23	224

<2010년 직업훈련 수료 현황>

- 직업훈련과정을 이용한 175명의 참여자가 224건의 직업훈련과정을 진행하였고, 이 중 남성 37건, 여성 187건의 훈련과정을 수료함.

02

집행내용

·과정별 수료 현황 및 취업현황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명)

구분	수강인원	수료	취업	관련분야취업	구분	수강인원	수료	취업	관련분야취업
건축물 관리	1	1	0	0	요리	32	30	12	4
경영, 금융	4	2	1	0	운전	15	15	7	4
공예	2	1	0	0	이미용	19	15	5	4
돌봄 (요양, 산모)	10	10	5	3	자동차 (특수기술)	1	1	1	1
디자인	8	7	1	2	재봉, 수선	5	5	0	0
보건, 의료	4	4	2	3	전산	64	54	20	12
보육, 강사	2	2	1	2	기타	17	15	5	2
상담	21	20	7	3	창업교육	19	19	4	1
총계						224	201	71	37

<직업훈련 과정별 취업현황>

- 600명의 참여대상자 중 175명의 참여자가 총 224건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용함.
- 참여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훈련과정은 ①전산 ②요리 ③상담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전문직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대상자의 직업훈련과정 수료현황은 8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직업훈련연계과정을 수료한 대상자 201명 중 7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수료한 교육과 관련한 직종에 취업한 인원도 37명으로 확인됨.
- 훈련과정을 이용한 175명의 대상자 중 6명이 경력적 일자리 취업에 성공하였고, 그 중 2명이 관련분야에서 일함.
- 경력적일자리 취업을 포함한 전체 총 취업인원은 78명임.

4. 취(창)업 지원

대상자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취·창업 정보제공, 구인업체 직종이나 경력에 맞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업체 동행면접 지원 등으로 개인별 맞춤 일자리를 지원 함

·대상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

1차년도에는 총 2,014건의 일자리가 발굴되었고, 인천광역시 최대 공단지역이 자리하고 있는 남동구에서 442건의 가장 많은 일자리가 발굴되었고, 구인업종으로는 사무직이 364건으로 가장 높은 구인요청 현황을 보임.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건)

구분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운전직	미화직	생산직	식당관련	간호병양	단순노무	합계
강화군	1	1	2	3	3	1	2	2	4	4	4	27
계양구	11	14	27	25	8	5	8	18	15	4	8	143
남구	29	26	69	21	14	9	16	45	18	16	15	278
남동구	27	46	80	32	15	39	19	96	39	15	34	442
동구	3	12	15	4	10	8	16	17	4	4	5	98
부평구	22	31	43	30	16	15	11	56	36	13	21	294
서구	22	32	45	13	3	16	10	59	23	10	21	254
연수구	20	16	36	20	16	6	23	6	27	4	7	181
중구	26	25	31	23	5	16	17	6	25	3	17	194
기타	10	11	16	23	11	4	6	11	1	1	9	103
합계	161	203	348	171	90	115	122	305	191	73	132	1,911

<2010년 군구별 일자리발굴 현황>

•동행면접

면접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참여대상자의 경우 동행면접을 통해 참여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업체 현장견학 및 면접을 통한 취업성공률을 높이고자 총 962 건의 동행면접을 지원 함

•구인구직만남의날 '희망나눔DAY' 운영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및 면접장소 제공, 참여자에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의 기회를 제공 함으로 참여대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만남의날 '희망나눔DAY'를 4회 운영 함

(기준일시: 2011. 02. 28.)

구분	행사일자	참가업체 수	취업자 수
1차	05월 14일	6개	11명
2차	06월 09일	8개	16명
3차	09월 29일	11개	26명
4차	10월 30일	13개	11명

< '희망나눔DAY' 운영 현황 >

③ 취업 후 업무내용

주요지원 내용

1. 취업적응상담 진행

참여대상자들이 취업 후 직장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새로 발생한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 및 방문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취업적응상담을 실시함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자 하였음. 또한, 직장 동료와의 관계 형성이나 업무적응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

2. 안부문자 서비스

매주 1회 안부문자 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지원 및 관계형성을 하고자 노력함.

3. 희망키움통장 및 행복키움통장 서비스 연계

탈수급 후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및 행복키움통장 신청기간 안내 및 연계.

4. 재취업 알선



우리사업을 통해 취업 후 퇴사 또는 이직을 희망하시는 경우 이직 및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취업처를 알선함. 또한 경과적 일자리에 취업한 대상자들에 대해 안정된 일자리 알선 및 일자리정보 제공함.

5. 대상자 취업축하물품 전달



취업을 유지한 대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적응을 돕고 독려하기 위해서 취업유지 1개월, 100일, 6개월 축하물품을 지원함.

(기준일시: 2011. 02. 28. / 단위: 회)

축하물품	간식(명)	우산 (1개월)	손목시계 (3개월)	계리시강상품권 (10만원)
지원 개수	205	208	128	48

6. 포스코 건설 (송도에스이) 취업자 자조모임 (주차관리 및 미화직 종사)

자조모임은 동일 취업처의 선임자, 후임자 간의 업무상 애로사항을 나누고 조언해주는 등 서로 독려의 시간으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통한 인생의 비전 수립과 자조 모임내 활동을 계획하는 등 취업자들의 대화의 장으로 활용함.



(기준일시: 2011. 02. 28. :)

차수	1차 자조모임	2차 자조모임	3차 자조모임	4차 자조모임	5차 자조모임
일시	10. 10. 30(토)	10. 11. 27(토)	10. 12. 28(토)	11. 01. 29(토)	11. 02. 19(토)
참가인원	총 16명	총 12명	총 11명	총 14명	총 12명

<송도SE 자조모임 내역>

7. 인천의료원 취업자 자조모임

인천의료원 취업자들과 사례관리자들 간의 자조모임을 통해 업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나눔.

(기준일시: 2011. 02. 28.)

일시	1차 10. 10. 26	1. 근무여건에 대한 논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참가인원	총 6명	2.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나누기

<인천의료원 자조모임 내역>

II. 사업비

① 사업비 집행 및 실적(율)

1. 사업비 집행 총괄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원)

구분	집행계획	집행실적	집행율(%)
사업비	1,000,000,000	1,000,000,000	100%
실비	360,000,000	266,495,100	74%
총계	1,360,000,000	1,000,000,000	93%

<사업비 집행 총괄 실적>

2. 반기별 집행실적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원)

구분	항	상반기	하반기	소계	집행율(%)
기본급	인건비	334,780,400	238,061,580	572,841,980	100%
	운영비	205,194,510	42,318,180	247,512,690	100%
	사업비	44,701,720	134,943,610	179,645,330	100%
참여자 실비		96,692,600	169,802,500	266,495,100	74%
총계		681,369,230	585,125,870	1,266,495,100	93%

<반기별 예산 집행실적>

② 예산활용적정성

- 1차년도 사업비 중 기본급 예산은 인건비 57%, 운영비 25%, 사업비 18%로 편성하고, 사업목적에 맞춰 100% 집행하였음.
- 반기별 집행현황으로 상반기에는 사무실 세팅에 따라 운영비 중 83%를 조기집행 하였으며, 대상자 모집이 완료 된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하반기에 사업비를 주로 집행 함.
- 그리고 참여자실비의 경우는 내방상담 교통비, 교육참가 교통비, 교육비, 취업촉하금 등으로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게 지급하였음. 그러나 취업의지가 없고 참여도가 낮은 대상자의 미지급 실비 반납금이 발생 함.

Ⅲ. 홍보

① 방식 및 횟수

1. 방식 및 횟수 총괄

(기준일시 : 2011. 02. 28.)

구분	홍보캠페인	외부광고	홍보물 제작	동영상 제작	가이드 제작	언론홍보		
						TV	라디오	신문
누계	45회(5,840명)	2회	13회	1회	1회	5건	4건	43건

<홍보 실적>

2. 중요홍보

·MOU체결을 통한 구인처 발굴 및 지역사회 홍보

기업체와 일자리 나눔을 위한 「희망나눔캠페인」을 추진하여, 총 4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현판을 제작 배부하는 등 안정적인 구인업체 발굴에 주력하였음. 특히, 2010년 7월 20일(화)에는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여, 총 28개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나눔의 중요성을 기업인들에게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음.

·대중교통(인천지하철/버스) 외부광고 시행

이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인천지하철 및 버스)을 이용하여, 희망리본프로젝트 홍보 및 구인처 발굴을 위한 외부광고를 시행하였음. 인천지하철은 1일 이용객이 약 350천명으로, 전동차 25량에 각 3개씩 모서리광고를 게재하고, 시내버스는 공단지역을 경유하는 3개 노선에 각 1대씩, 6월부터 2개월간 홍보를 시행함.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개

(기준일시 : 2011. 02. 28)

구분	일자	내용	비고
신문	10.01.06	저소득층 희망리본 프로젝트 전개	인천일보
	10.02.03	더 커지는 일자리 희망리본... 내달부터 인천 등4곳 실시	경인일보
	10.03.25	인천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희망리본프로젝트 가동	인천newswire
	10.07.22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협약	인천일보
	10.07.21	인천시 지역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박차	기호일보
	10.07.22	인천시, 소외계층 일자리 지원 위해 기업들과 협약 체결	중부일보
	10.07.21	인천시, 저소득 일자리 지원 협약 체결	매일경제
	10.07.22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 28개 기업체	현대일보
	10.07.21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28개 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수도권일보
	10.07.22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한뫼'	전국매일
	10.07.21	기업체 28곳과 업무협약 체결	아주경제
	10.07.21	인천시, 저소득 일자리 지원 협약 체결	연합뉴스
	10.07.21	인천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나서	한국경제TV
	10.07.21	인천시, 저소득 일자리 지원 협약 체결	아시아뉴스통신
	10.07.21	인천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기업체 업무협약 체결	일간연예스포츠
	10.07.21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협약 체결	아시아일보
	10.07.21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위해 기업체 28곳과 업무협약 체결	오늘신문
	10.07.21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업체 28곳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인터넷뉴스
	10.08.01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업무협약	연합기독뉴스
	10.10.25	인천희망리본본부 '가을나들이'행사	경인종합일보
	10.10.26	가을맞이 나들이 행사 진행	현대일보
	10.11.05	취업취약층에 주유소 연계	한국주유소협회신문
	10.11.09	성공취업으로 다시 태어나다, 희망리본프로젝트	할인전시장 홍보책자
	10.10.12	이젠 일자리가 보여요	인천광역시
	10.10.12	인천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위해, 인천희망리본 사업 실시	기호일보
	10.10.12	인천시 희망리본 참여자 모집	아시아뉴스통신
	10.10.12	인천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뉴스와이어
	10.12.21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 '희망리본'... 참가자 모집	인천신문
	10.12.21	직업훈련 일자리제공 프로젝트	경인일보
	10.12.31	새 일자리 새인생, 당수도 할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
	11.01.11	복지부, 희망리본프로젝트 7개 시·도로 확대	헬스코리아뉴스
	11.01.11	'희망리본'사업지 7개 시·도로 확대	뉴스시스
	11.01.11	보건복지부,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뉴스와이어
	11.01.11	'희망리본프로젝트' 7개 시·도로 확대	메디컬투데이
	11.01.11	저소득층 일자리 서비스 '희망리본프로젝트' 7개 시·도로 확대	인천뉴스
	11.01.12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 성공자대회 개최!	인천광역시
	11.01.12	맞춤형 일자리제공 '희망리본프로젝트' 7개 시·도로 확대	에니스트뉴스
	11.01.14	진수회 장관, 10년 희망리본프로젝트 성공자대회 참석	보건복지부
	11.01.16	인천시 희망기움 성공자 대회 가계	기호일보
	11.01.16	희망리본 프로젝트 성공자 대회	인천일보
11.01.17	인천시장 표창-송도엑스이 '착한기업' 자리매김	인천일보	
11.01.17	'돈대신 공을 지워준 희망'	경인일보	
11.01.19	'취업보다 자존감 회복이 우선'	경인일보	
10.07.29	'희망나눔캠페인' 홍보 인터뷰	ITVFM(경인방송)	
10.07.30	'희망나눔캠페인' 홍보 인터뷰	ITVFM(경인방송)	
10.11.05	가을나들이 홍보 인터뷰	ITVFM(경인방송)	
10.12.23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 인터뷰	경인방송	
10.12.29	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열매(2회)	YTN뉴스	
10.12.30	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열매(2회)	YTN뉴스	
10.01.14	새로 찾은 인생...희망리본프로젝트	OBS	

<홍보 실적 내용>

Ⅲ. 홍보

① 주요항목

1. 전체규모 및 사업항목별 예산의 적정성

- **잘된점** - 2010년도 보건복지부 계획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사무실 임대 및 사무실 조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하였으며, 특히 모기관인 광역자활센터의 교육장무료임대를 통해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결과를 얻었음. 또한 사례관리의 특성업무에 맞추어 차량구입과 사업홍보, 대상자 및 실무자교육, 홍보물제작, 사회서비스 등 사업비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고자 하였음.

2. 업체 및 대상자 홍보의 적정성

- **잘된점** - 사업초기 신규 사업에 대한 홍보로 지하철 버스를 이용한 홍보와 광역시 차원에서 시·군·구 및 동주민센터 홍보, 지역정보지와 인터넷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업체 및 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해 지역 내 업체홍보와 구인처개발의 이중효과를 보게되었음. 특히 지역 소상공인협의회를 통한자원발굴의 효과가 있었으며, 반상회보를 통한 인천전지역의 홍보에 큰 효과가 있었음. 또한 지자체 담당과의 긴밀한 사업보고 및 협조를 통한 군·구에 업무매뉴얼 배포로 사업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었음.
- **미흡점** - 본 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인식전환이 미흡했다고 판단됨.

3. 사업추진체계 형태의 적정성

- **잘된점** -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광역시의 수행기관 선정으로 인천광역자활센터의 경험적 근거인 Winstart사업의 효과성을 통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또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실시하고자 지자체와 계약체결을 맺고 복지부와 중앙자활의 평가와 모니터링등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 중앙자활센터에서의 필요한 요청에 적극협조하였음. 수행기관으로서 사업수행에 따른 실적보고 및 예산집행 등 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 본부 설치에 있어 실무자들의 경우 본 사업과 관련분야에 자격을 갖춘 유경험자들로 22명의 직원을 신규채용 하였으며, 직원들의 본사업 이해를 위해 직원교육 및 워크샵 등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업무능력향상을 지원하였음. 본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관리팀, 취업지원팀, 운영지원팀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됨.
- **미흡점** - 수행기관으로서 시범사업 초기 사업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의 제시가 부족하여 사업의 혼선을 가져왔으며, 상부기관에서의 본 사업에 대한 좋은 모델링역할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4. 성과급지급방식의 규모의 적정성

- **잘된점** - 성과급지급 방식이나 규모는 적정하였다고 보여짐.
- **미흡점** - 성과급 지급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지급방식에 있어 하반기에 한꺼번에 지불하게 되는 것에 대한 대인이 필요하다 판단됨.

5. 유사사업과의 중복이나 관계성

- **잘된점** - 고용노동부(경인지방노동청)과 2010년도에는 사업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고 대상자가 다르다는 설명을 미리하고, 계좌제를 167건을 연계하여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성을 나타내었음.
- **미흡점** - 자활에서 복지고용, 인큐베이터사업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또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취업사업(노인, 여성, 청년)등 유사사업이 지역에 혼재하여 나타나는 부분 또한 하나의 과제임.

6. 사업진행정도의 적정성

- **잘된점** - 사업초기에 약간 늦은 부분, 컨소시엄형태에서 광역자활 자체로 사업을 받은 것에 대한 지연, 취업사례전담인력을 늦게 배치하여 4월 말경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전담자를 비롯해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현장경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음.
- **미흡점** - 사업초기의 전체적인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막연함과 충분한 사업설명용 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사업진행이 성과 부분에 작용한 점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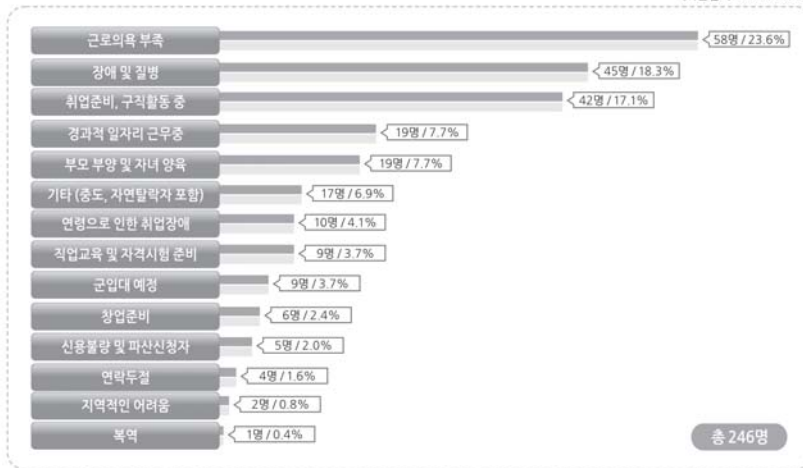
7. 사업취지 및 시범사업 대상자의 적정성

- **잘된점** - 대상자들을 또다른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취업분야에 집중하여 수급권을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은 큰 의미를 둘 수 있음.
- **미흡점** - 대상자를 고르다가 보다 대상자들이 명확히 취업사업 임을 알고 있음에도 본인들이 회피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근로의욕 증진과 근로여건조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봄.

8. 미취업자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

- **미취업자 통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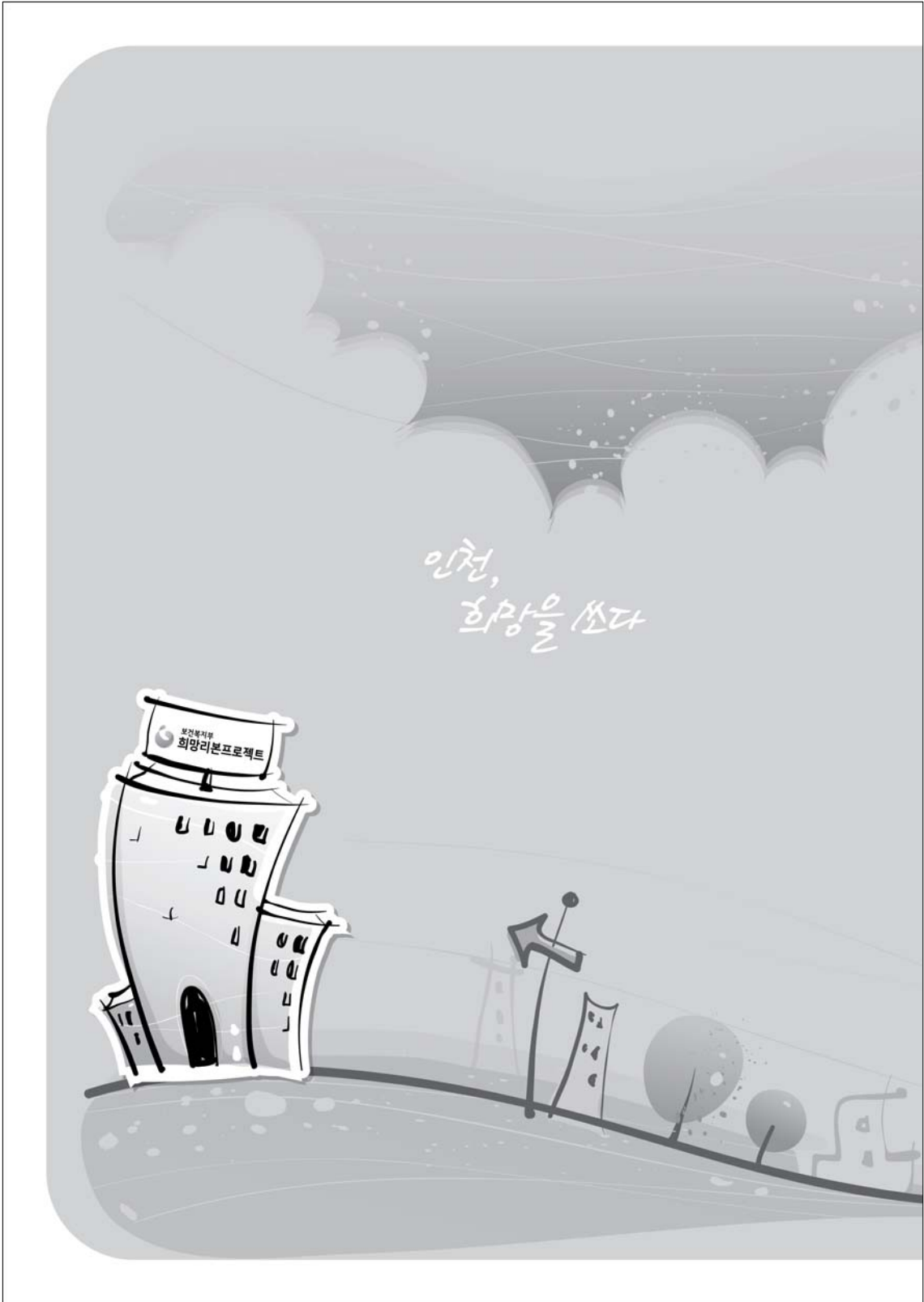
(기준일시 : 2011. 02. 28)



<미취업 사유>

위의 표에서 보여지 듯이 총 미취업자 246명 중 근로의욕부족으로 인한 미취업자는 58명(23.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외에 장애 및 질병(45명, 18.3%),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 중(42명, 17.1%)의 순으로 나타남.

- **잘된점** - 미취업자에 대한 욕구분석과 희망하는 직종을 파악하여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고 장기적인 취업계획을 세우고, 취업분야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대상자 능력에 걸 맞는 취업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미흡점** - 대상자가 요구하는 장기적인 교육이나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아예 취업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대상자들이 매우 어려운 사례였다고 보여짐. 종합평가에 이야기 했듯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비전제시를 위한 상담이 요구되어짐.



2010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사업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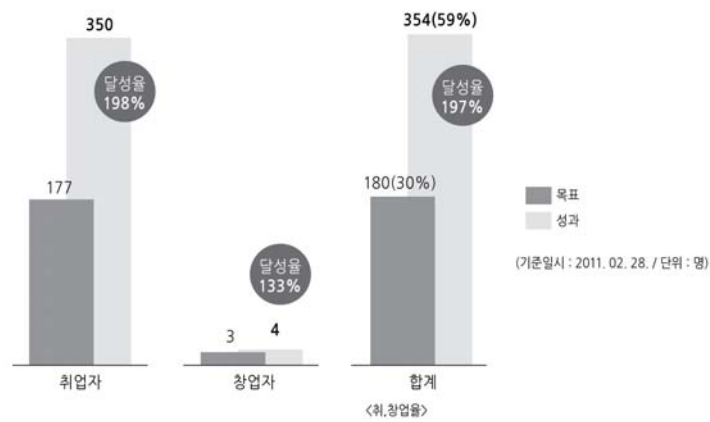
III.성과



03 성과

I. 기본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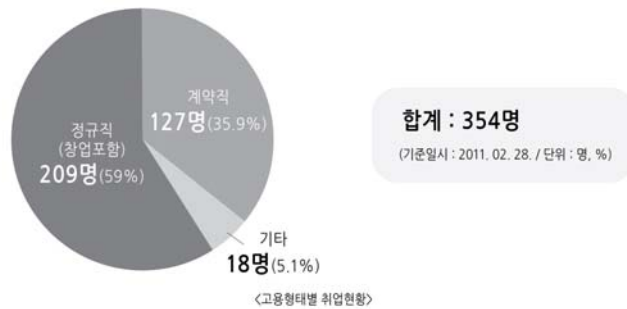
① 취업률 · 취업현황



2011. 2월말기준 취(창)업자는 354명으로 사업목표인 180명(30%)보다 2배가량 많은 196.7%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 중 창업자는 4명으로 목표대비 133% 성과를 달성하였음.

1. 고용형태

취업자의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59%, 계약직이 35.9%이며 임시직 같은 기타의 분류는 5.1%로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로 취업이 됨.



2. 임금분포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명, %)

급여구분	취(창)업자 수	비율
859000원~90만원미만(창업포함)	28	8.7
9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창업포함)	58	18.7
100만원이상~ 110만원 미만	71	22.1
110만원이상~ 120만원 미만	26	8.1
120이상~ 130만원 미만	50	12.6
130이상~ 140만원 미만	22	6.9
140이상~ 150만원 미만	22	6.9
150만원이상~ 160만원미만	22	6.9
160만원이상	22	6.9
미입력	33	-
합 계	354	100%
평균 급여	1,119,027	

<취업자 급여분석>

임금의 분포로는 90~130만원사이의 소득이 발생하는 대상자가 61.5%에 해당하며, 160만원 이상의 비교적 고소득자도 22명으로 6.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3. 업종구분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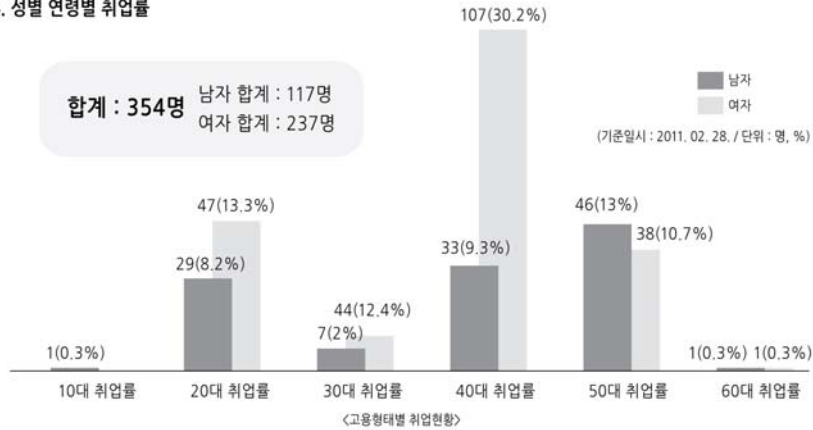
직종 분류	취(창)업자 수	비율
1.관리자	11	3.1
2.사무종사자	40	11.3
3.판매종사자	18	5.1
4.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	6.2
5.서비스 종사자	48	13.6
6.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23	6.5
7.장치, 기계 조작원 및 조립 종사자	23	6.5
8. 농업 및 어업관련 종사자	0	0
9.단순노무종사자	140	39.5
10. 기타	29	8.2
합 계	354	100%

<취업자 업종분류>

취업자 354명 중 단순 노무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무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순노무종사자 중에서는 청소 및 경비, 제조업에 가장 큰 분포를 보였으며, 서비스 직종에서는 음식에 관련된 직종의 비율이 높았고 사무 직종에서는 회계나 상담직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03 성과

4. 성별 연령별 취업률



여성 참여대상자 중에서는 40대의 취업률이 30.2%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는 50대(13%)가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음. 가장 취업률이 낮은 연령대는 10대와 60대로 나타남.

5. 수급유형별 취업률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명, %)

보유유형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		자활특례		차상위		합계	
	취업	창업	취업	창업	취업	창업	취업	창업	취업	창업
개수	123	1	166	3	8	0	53	0	350	4
비율(%)	35.1	25	47.4	75	2.3	0	15.1	0	100	100

〈수급유형별 취업률〉

조건부 수급자들의 취창업 성공률이 취업 166명(47.4%) 창업 3명(75%)로 참여대상자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② 취업유지율

1. 수급유형별 취업률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명)

구분	취업1개월유지자	취업6개월유지자
목표	-	126(21%)
성과	230(38.2%)	63(10.5%)
달성율	-	50%

〈수급유형별 취업률〉

최저임금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취업을 1개월 유지한 자는 2011년 2월 28일 기준으로 230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취업유지율 6개월 이상한 취업자의 인원도 63명 으로 취업6개월 유지목표의 50%를 달성함.

2. 임금분포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명, %)

급 여	계(명)	비율(%)
85.9만원미만	18	7%
85.9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	18	7%
9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45	18%
100만원 이상 ~ 110만원 미만	42	17%
11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25	10%
120만원 이상 ~ 130만원 미만	43	17%
130만원 이상 ~ 140만원 미만	12	5%
14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9	4%
15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11	4%
160만원 이상 ~	25	10%
합 계	248	100%

〈취업유지자 급여분석〉

취업유지자의 임금의 분포도 취업자의 임금분포와 비슷하게 90~130만원사이의 소득이 발생하는 대상자가 62%에 해당하며, 160만원 이상의 비교적 고소득자도 11명으로 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3. 업종구분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명)

직종 분류	취(창)업자 수	비율
1. 관리자	11	4.4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2	8.9
3. 사무 종사자	40	16.1
4. 서비스 종사자	49	19.8
5. 판매종사자	17	6.9
6. 농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0	0.0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3	9.3
8. 장차, 기계 조작원 및 조립 종사자	22	8.9
9. 단순 노무 종사자	57	23.0
10. 미입력 취(창)업자 수	7	2.8
합 계	248	100%

〈취업유지자 업종분류〉

취업자 248명 중 단순 노무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그다음 높은 비율로 나타남. 서비스 종사자로 취업을 유지한 경우도 22명(8.9%)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03 성과

4. 수급유형별 취업률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명,%)

보유유형 구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		자활특례		차상위		미입력		합계	
	취업	창업	취업	창업	취업	창업	취업	창업	취업	창업	취업	창업
인원수	83	1	116	3	5	0	38	0	2	0	244	4
비율(%)	34	25	47	75	2	0	16	0	1	0	100	100

조건부 수급자들의 취창업 성공률이 취업 116명(47.4%) 창업 3명(75%)로 참여대상자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③ 탈수급율/소득상향

1. 대상자 관련 변동내용



현재 참여대상자 600명 중 취업자 244명, 창업자 4명으로 총 248명임. 그 중 탈수급 인원은 5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대상자 중 9.5%의 탈수급율 나타냄.

④ 취업 후 희망키움통장 또는 행복키움통장 개설한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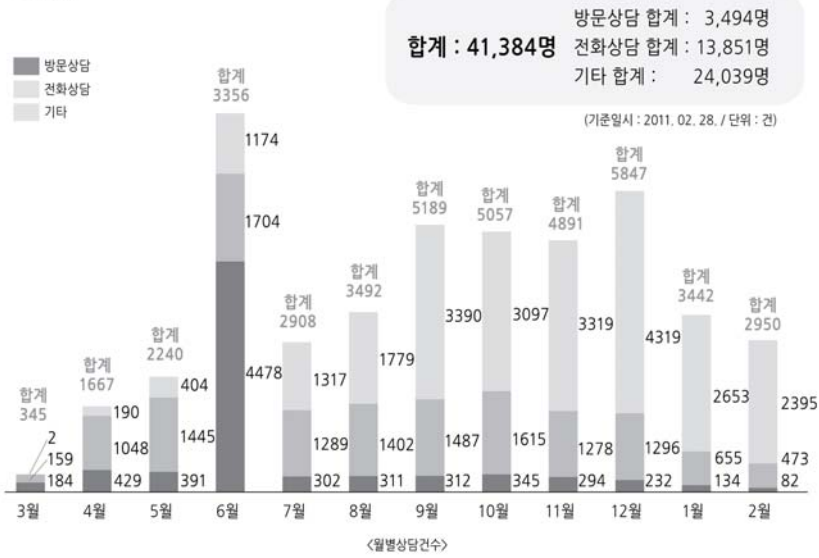
1. 대상자 관련 변동내용



- 희망키움통장을 개설한 취업자는 총 248명 중 80명으로 32.2%의 비율.
- 행복키움통장을 개설한 취업자는 조사결과 총 248명 중 9명으로 3.6%의 비율.
- 조사 결과 희망키움통장을 개설한 취업자가 행복키움통장을 개설한 취업자보다 비율이 높았음.

II. 확인성과

① 상담횟수



방문상담은 크게 업체방문, 가정방문, 동행면접, 기관방문 등을 통하여서 다각도로 참여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전화상담은 주1~2회 전화 상담을 통하여서 사례관리 전담자와 참여 대상자간의 소통의 통로로 이용되며 기타상담은 온라인상으로 이메일 지원 서비스 및 대상자들의 생일축하 문자, 격려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대상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03 성과

② 1인당 서비스 제공횟수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건)

구분	상담	교육훈련(자체)	사회서비스연계	구인처연계	실비이외비용보조	외부위탁교육
2010년 03월	0.6	-	0.001	0.015	-	-
2010년 04월	2.8	0.4	0.013	0.158	-	-
2010년 05월	3.7	0.5	0.048	0.291	-	0.1
2010년 06월	5.6	0.4	0.026	0.518	-	0.2
2010년 07월	4.9	0.2	0.06	0.395	-	-
2010년 08월	5.8	0.2	0.115	0.498	-	-
2010년 09월	8.7	0.2	0.03	0.39	-	-
2010년 10월	8.4	0.3	0.035	0.641	0.001	-
2010년 11월	8.2	0.2	0.05	0.455	0.005	0.1
2010년 12월	9.8	0.2	0.048	0.471	0.01	-
2011년 01월	5.7	-	0.008	0.175	0.005	-
2011년 02월	4.9	-	0.016	0.146	0.001	-
합계	69.1	2.6	0.465	4.153	0.022	0.4

<1인당 서비스제공횟수>

- 월별 1인당 서비스 제공 건수를 조사한 결과 합계는 69.1건으로 나타남.
- 사회 서비스 연계 건수는 총 0.465건, 구인처 연계는 퇴직 후 재취업 알선한 사후관리에 대한 건수도 포함된 것으로 4.153건으로 나타남.

③ 취업연계 활동

1. 이력서작성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건)

월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이력서작성건수	1	31	61	119	89	131	120	196	153	116	37	30	1084
1인당제공건수	0.002	0.052	0.102	0.198	0.148	0.218	0.200	0.327	0.255	0.193	0.062	0.050	0.151

<월별 이력서 작성 건수>

사업이 안정화된 6월부터는 평균 100여건이상의 이력서작성을 통한 취업알선지원을 진행하였으며 1인당 0.151의 제공건수를 보임.

2. 동행면접

(기준일시 : 2011. 02. 28. / 단위 : 건)

건수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동행면접건수	8	42	86	101	57	110	101	140	112	92	59	54	962
1인당제공건수	0.013	0.07	0.143	0.168	0.095	0.183	0.168	0.233	0.187	0.153	0.098	0.090	1.603

<월별 동행면접 건수>

동행면접의 건수는 총 962건으로 심리격지지가 필요하거나, 단체면접일 경우 진행되었으며, 1인당 0.134건의 평균을 보임.

3. 노동부계좌제 활용



<노동부계좌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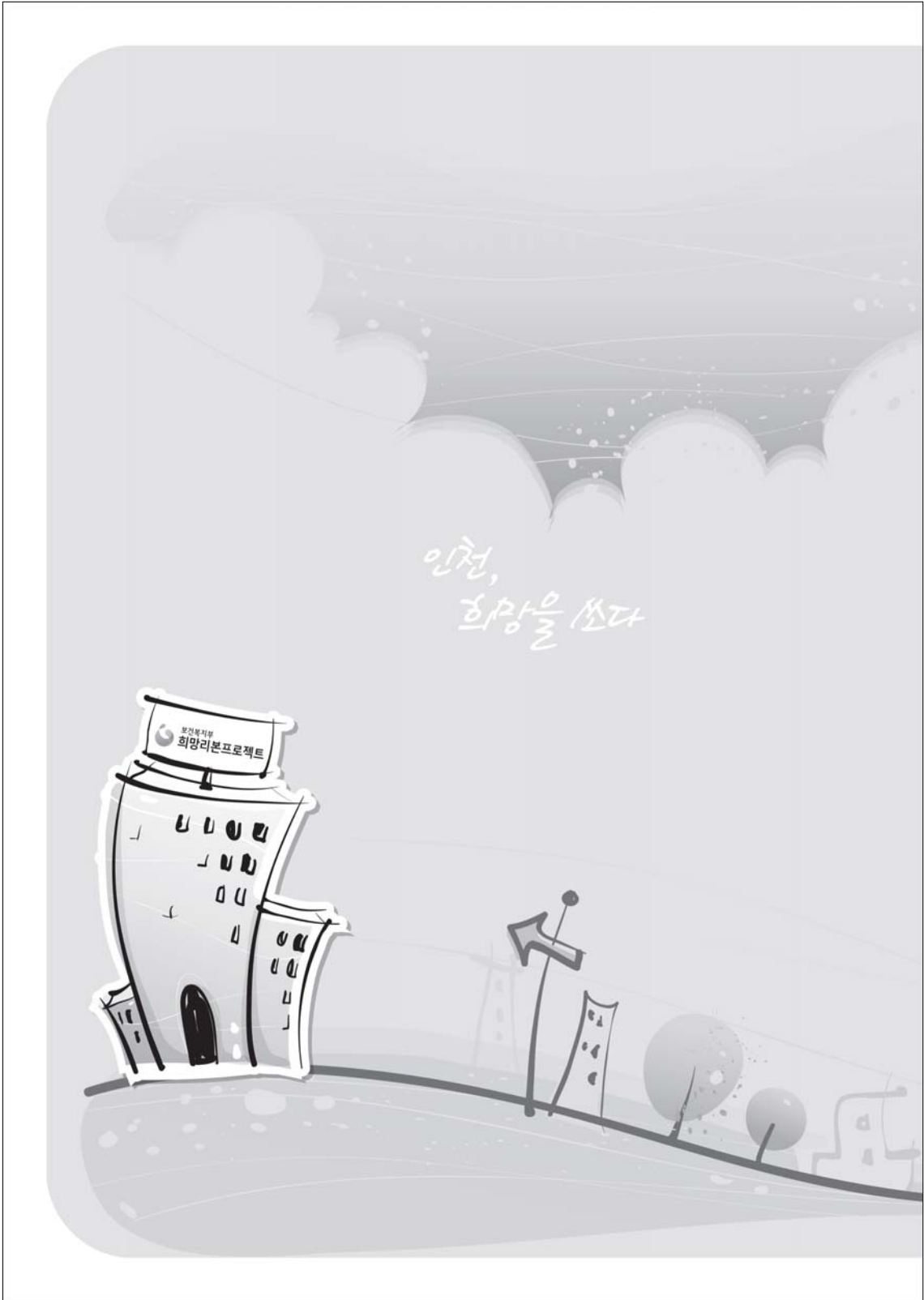
- 대상자 중 계좌계카드를 발급 받아 직업훈련을 등록한 건수는 1분기 42건, 2분기 97건, 3분기 27건, 4분기 1건으로 총 167건.
- 직업훈련을 이용한 건수는 224건이며 이중 57건은 희망리본에서 교육연계 한 창업교육, 1종보통-대형면허과정, 요양보호사 과정을 이용한 건 임.
- 계좌계카드 이용건수(167건) 중 144건이 수료 됨.

4. 구인처발굴활동



<구인업체발굴현황에 따른 구인처연계 VS 취업자>

- 구인업체발굴이 2,014건으로 발굴된 구인업체에 참여대상자의 구인처연계가 2,492건으로 평균 1.2개의 업체에 지원하여 취업에 성공한 참여대상자가 354명으로 취업연계율이 14.2%로 나타남.
- 업체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하철 역세권이나 참여대상자의 거주지역 근접공단에 구인처를 연계하였을 때 참여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음.
- 참여대상자의 취업유지를 위해 참여대상자가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이 편한 지역이나 도보로 이동이 가능 지역으로 생활권 주변에서 구인처를 우선 연계함.
-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따라 구인처발굴 및 참여대상자의 취업연계 결과가 차이를 보임.



2010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사업결과보고서

IV. 종합평가



04 종합평가

I. 종합평가 서술식

1.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는 2009. 11. 30일 보건복지부 성과관리형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천시와 전라북도가 확정됨. 2009. 12. 28일 공모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식으로 수행사업자 선정공고를 통해 인천광역시활성센터가 사업수행자로 최종 선정되었음. 2010년도 3월 15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천시 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 고용에 대한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음. 본격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초기 시범사업의 홍보 및 접근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남동구 간석동 한국교육원공제회관 6층에 본부를 설치하여 총 600명의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게 되었음.
2. 인천광역시의 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상자모집 과정에서 군·구, 동주민센터 담당자들의 순차적 교육과 홍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목표인원 600명을 모집하였으며, 일부 설치 후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취업 처 발굴 등 본부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또한 사례관리전담자들의 역량강화 및 본사업에 대한 비전제시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최상의 1:1맞춤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판단됨.
3. 인천희망리본의 경우 취업희망자는 2010. 1. 13일부터 6. 3일까지 총 600명 선정을 완료하여 취업 180명, 취업6개월 유지 126명, 탈수급 90명을 목표로 본사업을 실시. 이에 2011년 2월 28일 현재 구인처 발굴 2,014건, 취업성공 354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쉽게도 106명이 중도 퇴사하는 아픔도 겪었으나 현재 248명이 취업이후 계속하여 직장을 유지하고 있음. 또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55명(2010.12.21현재)은 탈수급까지 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고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조직구성원에 대해 전문자격과 유경험자들을 선별하여 채용하였으며 두 번째로, 신규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실무자들이 전문 상담요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의 시행착오를 용납하였던 부분과 세 번째로, 주별, 월별, 반기별, 연도별, 개인&팀별&과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어려운 사례에 대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또한 네 번째로, 지속적인 수행인력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여 사례관리 전담자 1인이 대상자 44을 전담하기에는 적은 인원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맞춤형 밀착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차기 사업진행 시 적정인원에 대해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4. 기본사업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 평가를 살펴보면
 - 첫 번째** - 우선 본 사업은 기존 자활사업의 새로운 시도로 봄. 무엇보다 인천지역 내 기초수급대상자들을 취업시킴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일반시장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틀마련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 두 번째** - 접근성이 타 지역에 비해 취업지원연계로 이어질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함. 인천지역의 경우 특성상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한 접근성을 갖고 있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취업연계 및 사례관리가 용이한 점이 있음.
 - 세 번째** - 사례관리에 있어 사전사후관리 지속성 유지에 전념하였음. 신규 시범사업으로 일부대상자들의 경우 참여초기 취업기피 현상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관리와 밀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고 취업의지를 고취시킴과 동시에 근로여건을 조성하여 포기하지 않고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사후관리가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봄.
 - 네 번째** - 대상자들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대상자에 맞는 맞춤지원서비스를 차별하여 진행하였음. 대상자별로 자립지원계획(ISP)을 통해 개인의 적성, 경제상황, 가족문제 등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대상자에 맞는 교육과 지원을 연계해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음. 무엇보다 심리-정서적문제에 대한 지원 및 치료는 물론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 문화활동지원 등 취업과 자립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맞춤지원을 하였다고 평가됨.
 - 다섯 번째** - 지역 내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봄. 지역 내 유관기관 및 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해 MOU를 체결하고 본 사업에 홍보와 취업처 연계 등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근로유인기제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2011년도부터 진행되는 채용기관의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정책 및 제언

첫 번째 - 사업내용의 중복으로 인한 사업진행의 어려움

노동부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초기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동주민센터의 취업담당자 배치 및 지역자활센터의 취업인력 배치 등 사업의 중복성의 문제는 차기 사업진행 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파악됨.

두 번째 - 실적관리에서의 정성적인 평가관리

대상자 600 Case에 대한 각각의 사례에 대해 취업지원 뿐 아니라 밀착사례관리에 있어 다양한 접근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성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세 번째 -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1년이라는 사례관리 기간이 적지 않으나 사업종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의 취지대로 자립 및 자활 후 탈수급에 이를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 사후관리 및 대상자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참여대상자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효율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관리 및 지속적으로 취업유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후관리 차원에서의 중장기플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0년 상반기 실무자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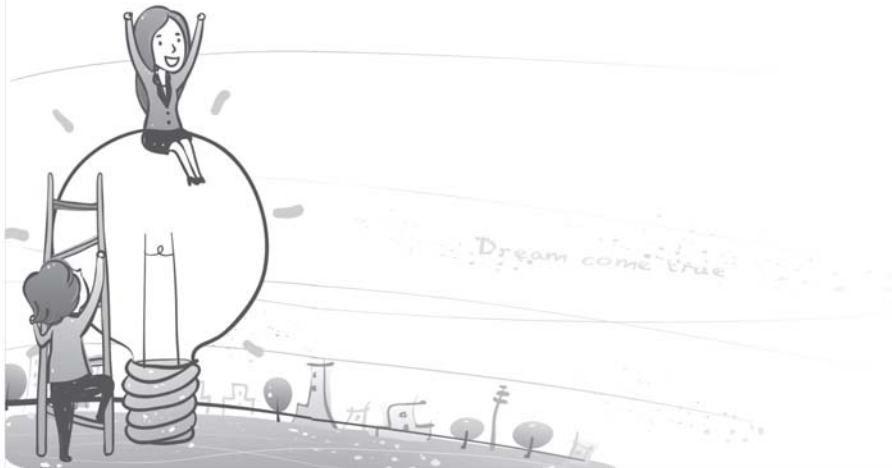
회차	일자 및 시간	교육명	참여인원 / 계
1회차	2010-03-22 / 2시간	업무지원시스템교육	6명
2회차	2010-04-09 / 2시간	행복키움통장 교육	9명
3회차	2010-04-16 / 4시간	뉴드림프로그램진행교육	2명
4회차	2010-04-26 / 2시간	뉴드림프로그램진행교육	10명
5회차	2010-05-01 / 3시간	뉴드림프로그램진행교육	8명
6회차	2010-05-07 / 1시간30분	직업심리검사 교육	15명
7회차	2010-05-14 / 1시간	문서 서식 교육	18명
8회차	2010-05-14 / 2시간	업무지원시스템교육	19명
9회차	2010-05-17 / 1시간	ISP서식 교육	15명
10회차	2010-06-18 / 1시간	업무지원시스템교육	17명
11회차	2010-06-24 / 3시간 30분	사례관리 슈퍼비전	14명
12회차	2010-07-07 / 3시간 30분	사례관리 슈퍼비전	11명
13회차	2010-07-14 / 3시간 30분	사례관리 슈퍼비전	10명
14회차	2010-07-19 / 2시간	성희롱예방교육	19명
15회차	2010-07-20 / 6시간	실무자 상담교육	8명
16회차	2010-07-22 / 6시간	실무자 상담교육	9명
17회차	2010-07-27 / 3시간	실무자 상담교육	9명
18회차	2010-07-29 / 3시간	실무자 상담교육	9명
19회차	2010-08-10 / 3시간	실무자 상담교육	7명
20회차	2010-08-12 / 3시간	실무자 상담교육	8명
21회차	2010-08-17 / 3시간	실무자 상담교육	6명
22회차	2010-08-19 / 3시간	실무자 상담교육	11명
합계	22회 / 62시간		240명

04 종합평가

2010년 하반기 실무자교육

(기준일시: 2011. 02. 28.)

회차	일자 및 시간	교육명	참여인원 / 계
1회차	2010-09-16 / 2시간	실무자 사례관리교육	22명
2회차	2010-09-28 / 2시간 30분	실무자 업무관련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22명
3회차	2010-09-30 / 2시간	실무자 사례관리교육	22명
4회차	2010-10-07 / 2시간	실무자 사례관리교육	22명
5회차	2010-10-11 / 2시간	실무자소양교육 (의사소통 및 예절교육)	22명
6회차	2010-10-14 / 3시간	실무자 사례관리교육	22명
7회차	2010-10-21 / 2시간	실무자 사례관리교육	22명
8회차	2010-10-28 / 2시간	실무자 사례관리교육	22명
9회차	2010-11-16 / 2시간	실무자 재무관리상담 교육	22명
10회차	2010-11-23 / 2시간	실무자 재무관리상담교육	22명
11회차	2010-12-02 / 2시간	실무자 재무관리상담교육	22명
12회차	2010-12-14 / 2시간	실무자 재무관리상담교육	22명
13회차	2010-12-07 / 1시간 30분	실무자 취업지원교육	22명
합계	13회 / 27시간		286명



II. 취업성공 사례보고

자립!! 새롭게 세워갈 목표.

성명 : 차○○ (남, 67년생, 중졸, 인천거주)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중퇴 나쁜길로 들어서면서 인생의 반은 교정시설에서 보냈고 성인이 된 후 예도 조직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교도소생활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마약복용으로 복역하게 되었다고 한다. 출소 후에는 자활 일을 하다 동료와의 다툼이 있어 그만두었고, 2000년엔 카드 빚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이기도 하다. 일반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나 20여년 간 교도소 생활을 한 경력이 있는 관계로 일반기업에는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업지원

대상자와 협의 하에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 본부 내 취업지원팀과 연계하여 업체정보 수집 후 우선 업체에 대해 신뢰를 형성 대상자에 대해선 이해를 시작으로 사회적응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한 취업 이전에 대상자가 원활한 사회적응이 되기위해 감정조절 및 대인관계증진을 위해 심층상담을 하였으며, 자신감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지지와 밀착상담을 진행한 결과 사례관리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음.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취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면접기술이나 이력서 작성,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 등 모든 면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음.

사후관리 지원

2010년 10월 1일 원하던 일반기업(창명특수강)에 취업하였음. 업체와 관계형성을 위해 취업 후 1개월이 되었을 때 작은 다과를 마련하여 동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하였고 3개월 유지하였을 때는 사회적응능력이 향상된 것을 지지하기 위해 본부에서 마련한 선물을 제공 지속적인 관리와 지지상담을 진행하였음. 그 결과 현재 운전배송사원으로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기쁘고 즐겁게 성실히 일하고 있음.

희망리본 사례관리자를 통해 오랫동안 장기 복역하고 사회에 부적응한 대상자들도 충분히 지지해주고 지원해준다면 어려운 현실을 딛고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관리자 : 김미란

Ⅲ. 사회서비스 사례보고

희망리본의 등불이 켜지고...

성명 : ○○○ (여, 50년생, 초졸, 인천거주)

56세인 배우자와 결혼해 2녀를 두고 있다. 23세 큰 자녀는 85kg인 체중으로 인해 실업상태에 있고 중1 둘째 자녀는 아직 돌봄이 필요함. 배우자는 2005년 사업실패로 5000만원 부채 중 2500만원이 파산 신청된 상태로 사업실패 후 술과 폭력을 일삼았고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한 상황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할 때 얻은 고혈압과 혈액순환 이상, 신장 부종으로 병원과 한의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받고있는 상황임. 취업을 해도 머리가 어지럽고 경신이 뭉롱해 유지가 힘든 상태이지만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외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보충금 200만원에 매달 20만원을 부담하는 지하방에는 최악의 환경 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했으나 보충금이 부족한 형편이라 함.

사회서비스 지원내용

- 23세인 자녀가 과체중으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생겨 부평구청신보건센터 심리상담 연계 했으나 자녀가 상담을 거부함.
- 치질수술 후 회복단계로 생활비가 없어 전기세, 수도세 3개월 미납된 부분을 상동 예비교회 생계비지원 300,000원과 명절선물을 2011. 2. 1 가정방문해 지원함.
- 뉴드림 교육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병원치료 후 10월부터 구직활동 계획 수립.
- 파산신청 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은 사실상 힘든 상황으로 취업 후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통해 이사를 계획하도록 상담지원 하였음.
- 거주지와 가까운 곳 주방, 주방보조 일자리 연계로 11월에 취업해 1월 3일까지 근무했으나 치질수술로 당분간 쉬고 있음.

처음에는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으로 희망리본에 대해 불참의사를 밝혔으나 지속적 상담을 통해 리포형성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자녀들에 대한 상담, 일자리 상담 등 모든 일을 의논하는 멘토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상담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사례였다.

사례관리자 : 구분심

IV. 교육 참여자 사례보고

확인 시켜줄 수 있었던 엄마의 사랑

성명 : 김○○ (여, 64년생, 초대졸, 인천거주)

2006년 이혼 후 현재 15세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하여 미용실에서 근무하였으나 가족과 생활하기에 적은 급여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근무형태 상 늦은 퇴근으로 아이가 혼자 집에 방치되는 것에 대한 자녀양육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였다. 특히 아이의 심리·정서적 문제로 인해 계속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미해결된 상태로는 취업으로 연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지원 내용

정기적인 심화상담을 통해 자신감 회복 및 부모자녀간의 친밀감을 형성을 위해 본부 내 자존감향상 프로그램과 한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으로 문화바우처를 연계하여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였음. 또한 심리적 안정은 물론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좀 더 전문적이고 나이가 들어도 다닐 수 있는 직장에 대한 부담으로 스스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긴밀한 관계유지를 통해 밀착사례관리를 진행하였음.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육교사로 일하기를 희망하여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고 현재 2010년 11월에 사이버교육원에 등록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취득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음.

교육지원 후 소감

2010년 12월 1일 참여자가 희망하던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취업(도래모아 어린이집 보조교사) 급여는 비록 많지 않지만,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며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일을 통해 무엇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과의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 아이에게 엄마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에 대해 고마워하였고 희망리본에 참여하면서 불안했던 미래에 대해 누군가 의논해 주고 해결점을 찾아주어 혼자 힘들었던 미래가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된 부분이 참 고맙고, 또한 가장 우려했던 아이의 정서문제도 함께 해결이 되어 희망리본 참여로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통해 3년 뒤 수급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자립자금으로는 참여자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어린이집을 창업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할 수 있어 희망리본 사업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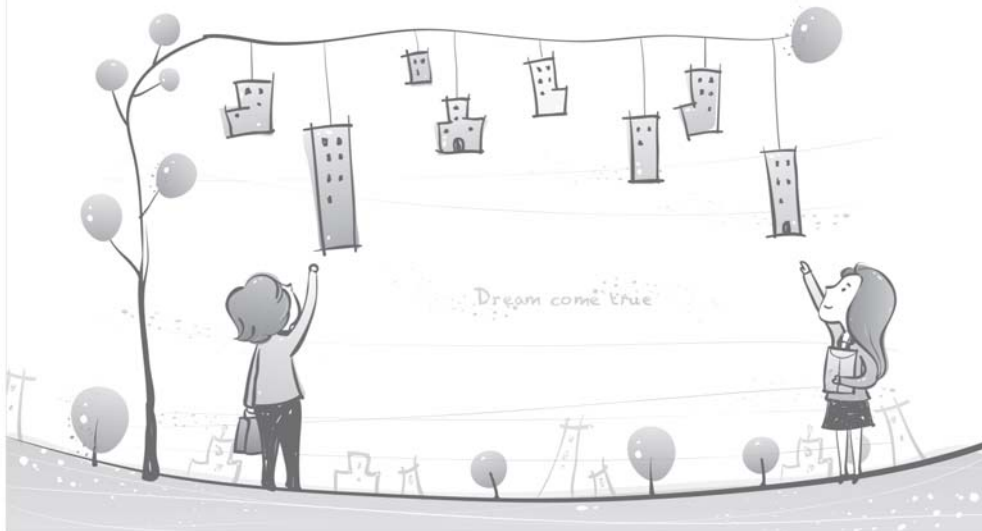
희망리본에 참여하면서 불안했던 미래에 대해 누군가 함께 의논해주고 해결점을 찾아주어 혼자서 힘들었던 미래가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된 부분이 참 고맙고, 또한 가장 우려했던 아이의 정서문제도 함께 해결이 되어 희망리본참여로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통해 3년 뒤 탈수급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자립자금으로는 참여자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어린이집을 창업하겠다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까지 사력을 다해 진행해 왔던 상담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다. 이를 계기로 자립을 하고 자립을 통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분으로 거듭나길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본다.

사례관리자 : 현성자

04 종합평가

사회서비스 협약기관

기관명	지원내용
한국아동발달센터인천센터(구월점)	심리검사, 아동및성인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하늘마음한의원	한방진료, 아토피전문
법무법인로시스	법률무료상담, 개인회생 및 파산
연수구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상담, 치료프로그램
새희망병원	심리진단, 정신과적상담 및 치료
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인천지역 내 사회복지관 서비스이용
남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상담, 치료프로그램
인천알코올상담센터	인천전지역관할, 알코올상담, 새누리센터운영(치료공동체), 알코올치료긴급지원비
솔샘나우리아동복지종합센터	심리검사, 아동 및 성인놀이치료, 미술치료
연수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교육,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사례관리



2차년도 지역별 성과 보고



2010년 희망리본프로젝트 결과보고서

2011년 3월

▶▶▶ 황 주 태 | 전북광역자활센터장

2010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최종결과보고서

I. 추진계획 평가

1. 기본사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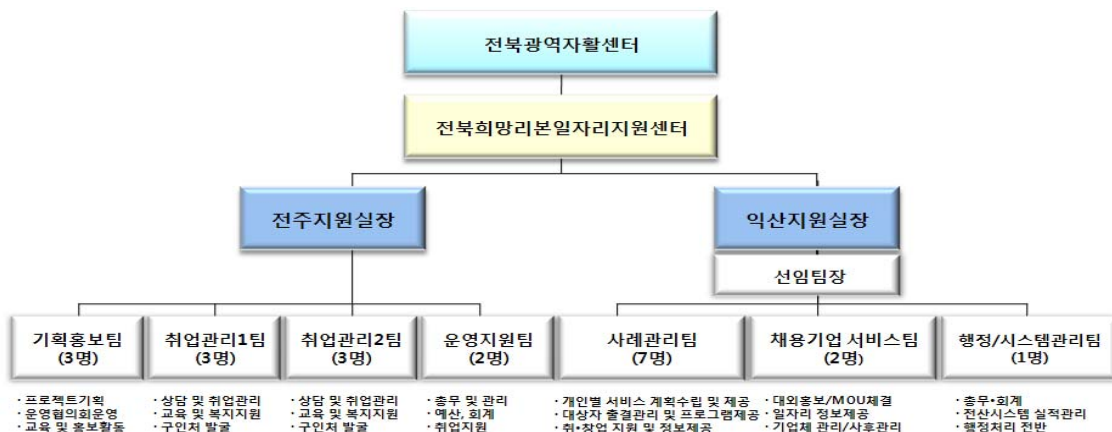
1) 요약

(1) 컨소시엄 : 사)전북광역자활센터 & 인지어스(유) 컨소시엄



(2) 조직도

- 조직구성 : 1센터 2지원실 7팀
- 인 력 : 25명 (본부장, 실장 2, 팀장 7, 직원 15)
- 조 직 도



(3)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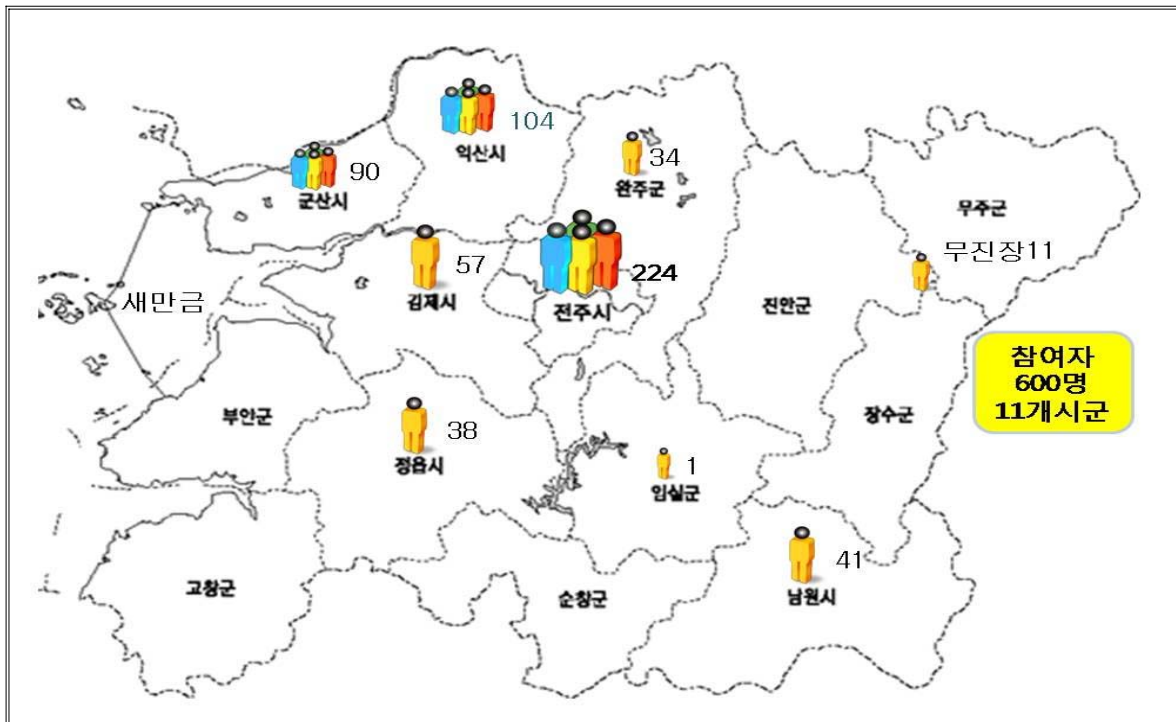
○ 취(창)업 목표

구분	계약목표		수행기관목표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참여자	600	100	600	100
취(창)업	180	30.0	240	40.0
6개월이상 유지율	126	70.0	168	70.0
탈수급율	90	15.0	120	20.0

○ 참여자 600명에 대한 취(창)업 계약목표는 180명(30%)

○ 수행기관은 255명(42.5%)를 달성하였음.

(4) 사업수행지역 및 인원 (도내 11개시군, 600명)



(5) 예산집행계획

①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예산항목	총소요예산	정부지원금	자체부담금	비율(%)	비고
합 계	1,330	1,260	70	100	
기 본 급	소계	970	900	70	100
	인건비	658	623	35	68
	운영비	126	110	16	13
	시설비	137	127	10	14
	사업비	49	40	9	5
실 비	소계	360	360	-	100
	실비	360	360	-	100

○ 예산집행계획 (전주지원실)

(단위 : 백만원)

예산항목	총소요예산	정부지원금	자체부담금	비율(%)	비고
합 계	630	630	-	100	
기 본 급	소계	450	450	-	100
	인건비	297	297	-	66
	운영비	76	76	-	17
	시설비	57	57	-	13
	사업비	20	20	-	4
실 비	소계	180	180	-	100
	실비	180	180	-	100

○ 예산집행계획 (익산지원실)

(단위 : 백만원)

예산항목	총소요예산	정부지원금	자체부담금	비율(%)	비고
합 계	700	630	70	100	
기 본 급	소계	520	450	70	87
	인건비	361	326	35	72
	운영비	50	34	16	10
	시설비	80	70	10	206
	사업비	29	20	9	29
실 비	소계	180	180	-	100
	실비	180	180	-	100

② 예산집행변경계획

○ 예산집행계획 변경사항

(단위 : 백만원)

예산항목	총소요예산	정부지원금	자체부담금	비율(%)	비고
합 계	1,330	1,260	70	100	
기 본 급	소계	970	900	70	100
	인건비	50	615	35	67
	운영비	126	110	16	13
	시설비	137	127	10	14
	사업비	58	49	9	6
실 비	소계	360	360	-	100
	실비	360	360	-	100

○ 예산집행계획 변경사항 (전주지원실)

(단위 : 백만원)

예산항목	총소요예산	정부지원금	자체부담금	비율(%)	비고
합 계	630	630	-	100	
기 본 급	소계	450	450	-	100
	인건비	289	289	-	64
	운영비	76	76	-	17
	시설비	57	57	-	13
	사업비	29	29	-	6
실 비	소계	180	180	-	100
	실비	180	180	-	100

○ 예산집행계획 변경사항 (익산지원실)

(단위 : 백만원)

예산항목	총소요예산	정부지원금	자체부담금	비율(%)	비고
합 계	700	630	70	100	
기 본 급	소계	520	450	70	100
	인건비	361	326	35	69
	운영비	50	34	16	10
	시설비	80	70	10	15
	사업비	29	20	9	6
실 비	소계	180	180	-	100
	실비	180	180	-	100

2. 추진과정

1) 월간/분기별 계획 및 집행내용

(목표/성과)

구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0 3월	4월	5월	계	6월	7월	8월	계	9월	10월	11월	계	12 월	'11. 1월	2월
협약식	1회	1	1/1														
직원 교육	23회	4	4/4				1/2	1/1	1/2		1/2	1/3	1/3		1/1	1/3	1/2
참여자 모집	600명	230	125	105		370	370										
사업 설명회	16회	5			5/5	11	10/11										
본부 교육	2,753회	373	50/61	100/135	100/177	1,764	100/210	500/1,264	200/290	527	75/100	100/223	100/229	89	50/55	20/27	0/7
교육 연계	217건	29	0/1	10/12	10/16	80	10/20	10/27	10/33	101	10/34	10/31	10/36	7	0/3	0/2	0/2
구인처 개발	619건	104		30/44	33/60	239	30/72	30/84	30/83	173	30/33	30/68	30/72	103	30/37	30/38	30/28
복지 연계	2,546건	189	10/19	50/101	50/69	1,015	50/153	464/50	398/50	494	50/67	50/255	50/172	848	50/173	50/549	50/126
사례 회의	24건	3		1/1	1/2	7	1/1	1/2	1/4	7	1/2	1/3	1/2	7	1/4	1/2	1/1
업체 초청	41社	-				30			25/30	11		10/11					
소식지 발송	1,800통	-				-				900	300	300	300	900	300	30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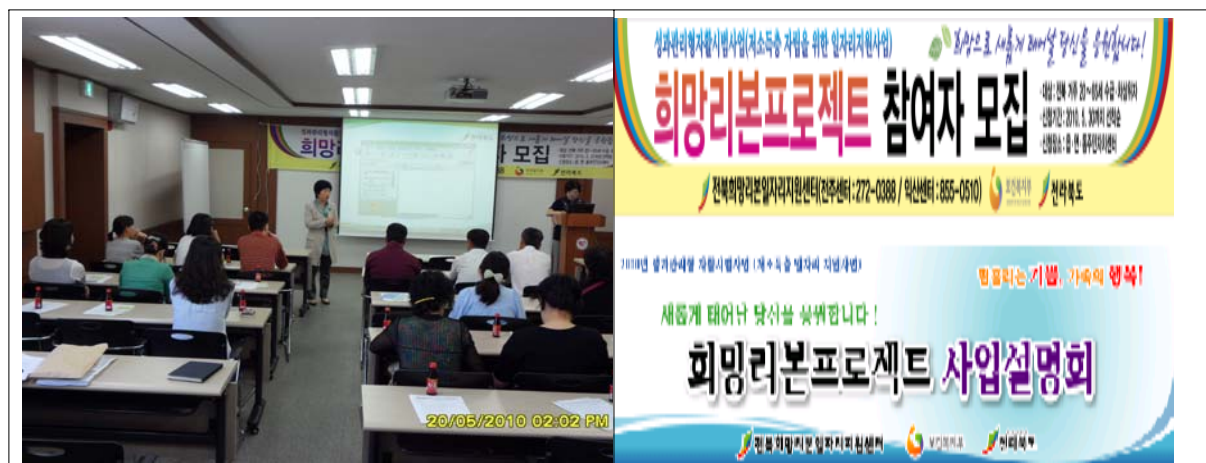
2) 참여자 모집방법 및 내용

(1) 참여자 모집인원

계	3월	4월	6월	비고
600명 (100.0%)	125명 (20.8%)	105명 (17.5%)	370명 (61.7%)	

(2) 참여자 모집방법 및 내용

모집방법	건수	내용	비고
사업설명회	16	주민센터 방문 순회설명회 16회 개최	
TV방송보도	2	전주MBC 등 방송사 참여자모집 뉴스 보도	
신문보도	25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등 모집관련 집중 보도	
생활정보신문	30	교차로 등 생활정보신문 1개월 이상 홍보	
리플렛	8,000	읍·면·동 리플렛 배포	
우편발송	1,000	전주시 관내 수급자 밀집지역 사업안내지 우편발송	
현수막	20	사업거점지역 현수막 게첨	



3) 참여자 교육방법 및 내용

(1) 교육방법

- ① 참여자 600명에게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시행.
- ② 배정단계부터 환영식을 통한 신속한 변화관리 유도 및, 참여자 개인별 경력목표를 도출을 통한 5단계 유형별 교육 실시

(2)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 횟수	시간	주요내용
환영미팅		10	20	사업소개 및 참여자 소개, 공동체 게임/ 직업빙고/ 사업에 대한 기대
활성화단계	기초교육	11	22	참여자 중심의 구직능력향상교육 및 구직스킬 교육
동기화단계	기초교육	11	22	참여자 중심의 구직동기향상 교육운영
활성화단계	면접 및 직장적응	9	18	면접 및 직장적응 강의
창업 단계	창업지원	9	18	창업강좌
동기화단계	소그룹	7	14	직업탐색 및 직업정보
계		57	114	57회 114 시간





(3) 거점센터 운영

지역	교육횟수	시간	비고
군산	7	14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정읍	8	17	정읍지역자활센터
남원	8	32	남원시평생학습센터
무주, 진안, 장수	6	12	진안문화의집
계	29회 75시간		

(4) 기타 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횟수	시간	목표
계	14	28	
컴맹탈출	4	8	컴퓨터 기초 과정
O A 과정	6	12	워드프로세서, 문서작성실기, 타자 연습
보건소 특강	1	2	보건소 연계 건강관리 특강 실시
초청특강	1	2	나만의 칼라를 찾아라
초청특강	1	2	웃음으로 나를 경영하라 (웃음치료특강)
정신보건특강	1	2	정신보건센터의 우울증방지와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정신건강을 측정



(5) 사례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일정	교육 주제 및 내용	비고
6월 24일	우수사례발표1	워크숍
	외부 초청 특강 실시	
7월 8일	희망리본 프로젝트 4개 수행기관 및 보건복지부 연합 워크숍 개최로 통합운영	워크숍
8월 6일	분야별 사례발표	
9월 10일	참여자의 동기 부여를 위한 상담 기법 강의	
	직종별 노동시장 특성 발표	
10월 8일	상담 및 사례관리 기법 강의	
	상담 기법과 운영 기법 워크숍	
11월 12일	사업 평가 워크숍 사업평가 및 교육설문 실시	
12월 23일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및 의견 반영 및 평가회	



3) 참여자 서비스 요구 및 연계내용

상위목표	하위목표	서비스내용	자원연계
자립동기강화	동기고취	기초, 심화상담을 통한 자립 동기 부여	
자립동기강화	문화지원	문화, 스포츠 바우처 연계, 문화행사 안내	한국문화복지의회
자립동기강화	건강지원	체력증진 및 만성질환 해소를 위한 건강지원	보건소
자립동기강화	정신*심리지원	정신질환 및 아동 청소년 상담 연계, 심리치료 지원	정신보건센터
자립동기강화	알코올치료지원	알코올 전문치료 지원	알코올상담센터
자립동기강화	대인관계지원	대인관계 향상 지원(미술치료, 웃음치료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립동기강화	문해력 해소	문해력 해소 교육 지원(한글기초 등)	평생학습센터
자립동기강화	가족관계	가족상담 및 가족상담 전문기관 연계 및 상담	가정법률사무소
자립여건조성	의료지원	긴급지원(의료) 등 관련제도 안내 및 상담	주소지동주민센터
자립여건조성	생계지원	국기법, 생업자금 및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 전반 상담	민생경제연구소
자립여건조성	재정설계지원	희망키움통장을 연계한 취업이후 재정설계지원	보건복지부
자립여건조성	돌봄지원	아이돌보미 및 노인돌보미 연계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립여건조성	돌봄지원	아이돌보미 및 노인돌보미 연계지원	노인돌봄기관
자립여건조성	자녀지원	방과후교실 및 아동 청소년캠프 안내 및 상담	지역아동센터
자립여건조성	채무조정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 연계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자립여건조성	채무조정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 연계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립여건조성	주거지원	주택지원 및 주거자금지원 안내 및 상담	주거복지센터
자립여건조성	주거지원	주택지원 및 주거자금지원 안내 및 상담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립여건조성	법률지원	주택 및 상가계약, 파산/면책 등 무료법률상담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립여건조성	가사지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연계 및 상담	사회서비스센터

상위목표	하위목표	서비스내용	자원연계
자립능력강화	구직기술지원	고용지원센터 등 연계 직업정보상담(구직등록)	고용센터
자립능력강화	구직탐색교육	일자리 탐색 방법 교육	
자립능력강화	실직자교육지원	실직자를 위한 교육 연계 지원	고용센터
자립능력강화	내일배움카드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제 연계 자격증취득지원	고용센터
자립능력강화	기업맞춤교육	채용 직종별 맞춤형 서비스 교육 및 지원	
자립능력강화	자격증취득지원	자격증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안내	여성교육문화센터
자립능력강화	자격증취득지원	자격증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안내	여성인력개발센터
자립능력강화	이미지메이킹	이미지 메이킹 및 면접 기술 지원	
자립능력강화	전산기초교육	컴퓨터 기본교육(한글 기초 등)	
자립능력강화	현장실습지원	취업처 현장 방문 및 실습 지원	
취업지원	취업처 지원	취업처 사후 관리 (취업자 근태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	
취업지원	취업서류지원	이력서*자기소개서등교육및이력서대행접수	
취업지원	채용전 지원	채용 예정 업체 혜택 안내 및 상담 (고용촉진지원금 등)	고용센터
취업지원	취업직접지원	구인처 알선 및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	
취업지원	직장적응지원	직업적응 및 사후관리	
취업지원	자산관리지원	구직에 따른 희망키움통장 가입 안내 및 자산관리상담	
취업지원	임파워먼트	취업 후 근로역량강화 위한 교육 연계	
취업지원	근로자능력개발	고용센터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연계 자격증 취득지원	고용센터
창업지원	창업아이템탐색	창업관련 기본 정보 제공	
창업지원	창업교육	창업관련 기관 연계 및 상담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지원	사업설계지원	창업 관련 구체적 설계 지원	
창업지원	자금지원	창업자금 지원 안내 및 상담	미소금융 햇살론
창업지원	경영지원	경영컨설팅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4) 종사자 (모집방법/내용, 교육방법/내용)

(1) 선발 절차

구분	일정	내용
모집공고 서류접수	'10. 2. 22 ~ 3. 3	· 도청 홈페이지 등 채용사이트 공고
채용의 날	'10. 3. 5	· 그룹활동을 통한 다면적 인성평가
개별면접	'10. 3. 8	· 인사위원회 5명 위원 구성 · 6개 심사항목 - 업무수행능력 - 사업이해도 -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 조직생활적합성 - 의사발표 정확성 및 논리성 - 용모 태도 성실성 등
채용확정	'10. 3. 10	· 결과 통보 및 근로계약서 체결
업무개시	'10. 3. 15	· 임명장 수여
초기교육	'10. 3.15 ~ 3. 18	· 직원 오리엔테이션 - 근로연계복지 개요, 희망리본프로젝트 개요 - 참여자의 특성, 일의 의미와 사례관리사 역할 - 구직장애 극복요령 역할극 - ISP 수립, 성과관리, 고용서비스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일자리 찾기 - 시스템교육, 면접 시뮬레이션, 직장에티켓 등
직원교육	매월 1회 이상	· 사례회의 (우수, 애로사례 해결) · 도내 고용시장 분석 따른 일자리 발굴 ·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워크숍 등



(2)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 분야	주요 업무	인원
프로젝트매니저	사업 전반	2
사례관리사	참여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준비, 일자리지원	15
대외협력	채용기업 발굴,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3
회계 / 총무	회계, 총무 업무	2
안내·업무지원	접견, 사례관리사 지원 및 총무업무 지원	2

5) 내무목표 설정 및 적합여부

(1) 2010년 수행기관 취(창)업 목표인원

기관목표	
인원 (명)	비율 (%)
600	100
240	40.0
168	취(창)업자의 70.0
120	20.0

(2) 서비스 목표

(단위 : 건)

서비스	목표	비고
서비스 제공	10,000	상담(내방, 방문, 상담 등)
사업 홍보	10,000	신문, 방송, 리플렛 등
참여자 교육	2,000	자체교육 + 연계교육
복지서비스연계	2,000	복지서비스 연계
구인업체 발굴	500	업체 발굴 횟수

(3) 적합여부 검토

수행기관에서는 전라북도와의 계약목표 취(창)업 성공률 30%를 훨씬 웃도는 40%를 기관 자체 목표로 설정하여, 타 수행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 평균수급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은 전북지역 저소득층의 자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



통합워크샵



직원교육



2010. 9. 18. 상암월드컵경기장 평화의광장, 자활나눔축제



2010. 11. 4 국회도서관, 자활지원제도 10년 과거, 현재, 미래

II. 집행 내용

1. 취업지원 사례관리 업무

1) 업무인원

(단위 : 명)

직무	계	사례관리사	행정업무
계	25	16	9
전주지원실	13	8	5
익산지원실	12	8	4



전주지원실



익산지원실

2) 취업 前 업무내용

(1) 주요지원 내용

- ① 기본사항 - 초기상담과 개인별활동계획 완료


전라북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저소득층 참여자 600명에게 사례관리


사를 배정하여, 초기상담 600건을 3차에 걸쳐 실시. 참여자 기초상담은 사업 지침상, 명기되어 있는 2주 이내에 상담을 완료.

참여자 근로능력역량평가를 통하여 4분류(동기화, 진전화, 활성화, 집중화)로 유형별 분류를 완료하고, 참여자들에게 개인별 욕구, 상황, 능력에 맞는 개인별활동계획(ISP) 수립을 완료, 참여자 특성에 맞는 근로 능력을 강화를 통한 고용지원 및 근로여건조성을 위한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

② 특이사항 - 신용회복 중점

2010년 전북지역의 참여자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또는 부채가 있는 참여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와 도내 민생경제연구소 같은 민간기관을 연결하여,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지원 서비스와 이후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수행기관이 참여자들에게 구직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데 역점을 두어 실시 한 것임.

<p>● 신용회복 중점지원</p>	<p>■ 민생경제연구소</p>
<p>참여자 중,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또는 파산·면책 등 신용회복을 중점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에 대한 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캠프 (자체서비스)
<p>하절기 참여자 자녀들의 여름방학 기간에 영어캠프를 개최하였고, 타 기관과의 연계로 학습지를 기증받아 배포하여 자녀들의 학습 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한 사례.</p>	

3) 취업後 업무내용

(1) 주요지원 내용

○ 기본사항

참여자들이 직장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에서는 사후관리를 실시. 자산관리와 직장생활 적응 및 의사소통 등의 기법을 교육하였으며, 정기적인 업체방문 또는 참여자 연락을 통하여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지 않거나, 처음 시작하는 참여자들이 직장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주력 하여, 고용 유지율에 역점을 두었음.

○ 특이사항

전라북도는 2010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전국 1위의 성과(1,108명)를 거두었음.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취(창)업 후, 희망키움통장을 가입 시켜, 자활특례 적용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음. 또한 2010년 하반기에 취업하여 부득이 미가입한 참여자들에게 2011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우선 가입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협의하였음.



2. 사업비

1) 사업비 집행 및 실적

(1) 월간/분기별 계획 및 실적

① 기본급 집행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분기 소계	10.3월	4월	5월	2분기 소계	6월	7월	8월	3분기 소계	9월	10월	11월	4분기 소계	12월	11.1월	2월
합계	970	335	195	70	70	210	70	70	70	210	70	70	70	214	70	71	73
인건비	659	164	55	55	55	164	55	55	55	164	55	55	55	166	55	55	56
운영비	126	31	10	10	10	31	10	10	10	31	10	10	10	33	10	10	12
시설비	137	128	126	1	1	3	1	1	1	3	1	1	1	3	1	1	1
사업비	48	12	4	4	4	12	4	4	4	12	4	4	4	13	4	5	4

○ 월간 분기별 집행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분기 소계	10.3월	4월	5월	2분기 소계	6월	7월	8월	3분기 소계	9월	10월	11월	4분기 소계	12월	11.1월	2월
합계	965	214	-	140	74	172	54	53	65	213	84	66	62	269	66	95	109
인건비	645	145	19	72	55	137	45	41	51	166	57	58	52	198	46	69	83
운영비	127	23	2	12	9	28	8	9	11	34	16	8	10	43	14	15	14
시설비	137	126	70	55	2	-	-	-	-	8	7	-	1	3	-	-	3
사업비	57	12	2	2	9	8	1	4	4	6	5	0		25	6	11	9

기본급반납액 : 7,250천원, ※이자수입발생 : 102.6천원

② 실비 집행 및 실적

○ 월간 분기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분기 소계	10.3월	4월	5월	2분기 소계	6월	7월	8월	3분기 소계	9월	10월	11월	4분기 소계	12월	11.1월	2월
실비	360	90	30	30	30	90	30	30	30	90	30	30	30	90	30	30	30

○ 월간 분기별 집행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분기 소계	10.3월	4월	5월	2분기 소계	6월	7월	8월	3분기 소계	9월	10월	11월	4분기 소계	12월	11.1월	2월
실비	287	15	-	3	12	83	13	36	34	96	35	28	33	92	32	41	19

※ 실비반납액 : 3,200천원, ※이자수입 : 96.8천원 발생

③ 기본급 집행 및 실적율 (전주지원실)

○ 월간 분기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분기 소계	10.3월	4월	5월	2분기 소계	6월	7월	8월	3분기 소계	9월	10월	11월	4분기 소계	12월	11.1월	2월
합계	450	155	90	33	33	98	33	33	33	98	33	33	33	98	33	33	33
인건비	298	74	25	25	25	74	25	25	25	74	25	25	25	74	25	25	25
운영비	76	19	6	6	6	19	6	6	6	19	6	6	6	19	6	6	6
시설비	57	57	57	-	-	-	-	-	-	-	-	-	-	-	-	-	-
사업비	19	5	2	2	2	5	2	2	2	5	2	2	2	5	2	2	2

○ 월간 분기별 집행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분기 소계	10.3월	4월	5월	2분기 소계	6월	7월	8월	3분기 소계	9월	10월	11월	4분기 소계	12월	11.1월	2월
합계	449	142	-	108	34	93	29	30	33	106	35	30	41	110	40	36	34
인건비	287	69	-	43	26	70	23	23	25	77	29	24	24	71	24	24	22
운영비	77	13	-	9	4	20	6	6	7	21	5	6	10	24	10	8	6
시설비	57	56	-	55	2	-	-	-	-	1	-	-	1	-	-	-	-
사업비	29	3	-	1	3	3	0	1	1	7	1	0	6	15	5	5	6

※ 기본급반납액 1,250천원, 이자수입발생 : 93천원

④ 실비 집행 및 실적

○ 월간 분기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분기 소계	10.3월	10.4월	5월	2분기 소계	6월	7월	8월	3분기 소계	9월	10월	11월	4분기 소계	12월	11.1월	2월
실비	180	45	15	15	15	45	15	15	15	45	15	15	15	45	15	15	15

○ 월간 분기별 집행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분기 소계	10.3월	4월	5월	2분기 소계	6월	7월	8월	3분기 소계	9월	10월	11월	4분기 소계	12월	11.1월	2월
실비	156	6	0	3	4	46	4	22	20	52	19	12	21	51	24	22	5
※ 실비 반납액 800천원, ※이자수입 46천원 발생																	

⑤ 기본급 집행 및 실적 (익산지원실)

○ 월간 분기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분기 소계	10.3월	4월	5월	2분기 소계	6월	7월	8월	3분기 소계	9월	10월	11월	4분기 소계	12월	11.1월	2월
합계	520	180	106	37	37	112	37	37	37	112	37	37	37	116	37	38	41
인건비	361	90	30	30	30	90	30	30	30	90	30	30	30	91	30	30	31
운영비	50	12	4	4	4	12	4	4	4	12	4	4	4	13.9	4	4	5.9
시설비	80	71	69	1	1	3	1	1	1	3	1	1	1	3	1	1	1
사업비	29	7	2	2	2	7	2	2	2	7	2	2	2	8	2	3	3

○ 월간 분기별 집행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분기 소계	10.3 월	4월	5월	2분기 소계	6월	7월	8월	3분기 소계	9월	10월	11월	4분기 소계	12월	11.1 월	2월
합계	516	72	-	32	40	80	24	23	32	113	49	36	28	160	27	58	75
인 건 비	358	76	19	29	29	66	22	18	27	89	27	34	28	127	22	45	61
운 영 비	50	10	2	3	5	8	2	3	3	13	11	2	0	19	4	7	8
시 설 비	80	70	70	-	-	-	-	-	-	7	7	-	-	3	-	-	3
사 업 비	29	9	2	1	6	5	1	2	2	4	4	0	0	10	1	6	3
※ 기본급 반납액 6,000천원, ※이자수입발생 : 9.6천원																	

⑥ 실비 집행 및 실적

○ 월간 분기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분기 소계	10.3월	4월	5월	2분기 소계	6월	7월	8월	3분기 소계	9월	10월	11월	4분기 소계	12월	11.1월	2월
실비	180	45	15	15	15	45	15	15	15	45	15	15	15	45	15	15	15

○ 월간 분기별 집행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분기 소계	10.3월	4월	5월	2분기 소계	6월	7월	8월	3분기 소계	9월	10월	11월	4분기 소계	12월	11.1월	2월
실비	131	9	0	-	9	37	9	14	14	45	16	16	12	41	7	20	14
※ 실비반납액 2,400천원, ※이자수입 3.8천원 발생																	

2) 예산 활용 적정성

- 전북광역자활센터에서는 도내 자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구성 및 사업 추진계획, 예산으로 계획 수립
- 정부지원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인건비와 사업시작시점에 시설비 및 재산조성비 부분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예산편성을 하였고 전북지역의 컨소시엄 특성상 인zier스와의 사업비의 교육비와 홍보비를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
- 컨소시엄형태에서 사업비를 공동집행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배정과 시행기관의 사업방향이 다를 수 있고 더 좋은 홍보나 교육방법이 있어도 지역과 시행기관의 형태가 달라서 효과적으로 사업추진을 함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을 수행함에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은 여러 단계의 결제와 잦은 업무협의 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사업비 집행이 다를 수밖에 없어 많은 사업추진 및 예산운용에 비효율성과 어려움이 발생.
- 특히 컨소시엄의 총괄보고를 수행하는 기관은 모든 성과 및 예산을 취합하고 통계하는 과정과 보고하는 과정에서 총괄하지 않는 기관에 비해 많은 인력 및 시간이 낭비되어 상대적으로 본 사업에 충실 할 수 없었음.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일반적으로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실비로 적극적으로 활용.
- 성과급 예산은 참여자 배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성과급 발생시점도 지연되었음. 모니터링기관에 성과급 신청 후, 15일 이내 모니터링을 끝내고 지급하여야 하나 한번도 정확히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사업수행기관 종사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로 적극적인 개선 요망

3. 홍보

1) 방식 및 횟수

(단위 : 건)

연도	TV보도	신문보도	생활정보	소식지	리플렛	서한문
계	12	125	90	1,800	19,000	200
2010년	8	107	30	1,200	11,000	-
2011년	4	18	60	600	6,000	200
비고	KBS MBC JTV 등	전북일보 새전북신문 전북도민일보	교차로 번영로 팔달로	매월 300통	기업용 참여자용	취업처 감사용

		
KBS전주 뉴스방영 희망리본프로젝트 우수사례	전주MBC 뉴스방영 자활성공사례	T-broad전주방송 '인터뷰人' 황주태 센터장 인터뷰
		
T-broad 뉴스 방영 희망리본프로젝트 우수사례	전주MBC 뉴스방영 사례관리사 업무 전반 조명	전주MBC 시청자게시판 방영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4. 사업방식의 효율성(자체평가)

1) 주요항목

(1) 잘 된 점

- 전북희망리본일자리본부는 도내 저소득층 6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먼저, 예산 집행 부분에서 2월 28일까지 기본급에 관하여 100%집행 및 감사를 완료.
- 둘째, 사업 홍보의 경우 지역 밀착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방송 4社, 일간지, 인터넷뉴스, 생활정보신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또한 참여자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취업·교육·복지 정보 등을 수록한 월별 소식지 발송을 하였음. 또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산·관 파트너십 형성으로 지역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였음.
- 셋째, 참여자들에게 정부 추진 일자리 사업에 원칙적으로 불참하게 하였으나, 타 기관 추진 교육사업을 연계하여 수행기관의 자원 연계.
- 넷째, 참여자 모집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활성공률 40%를 상회하는 우수한 성과 거양.
- 다섯째, 참여자 600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79%로, 사업취지에 부합하게 추진을 하였음.
- 끝으로, 미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근로동기강화 교육과 근로여건조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근로 가능한 분들에 관하여 특별 관리 및 전담자 교체 등으로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1) 전체 규모 및 사업항목별 예산의 적정성

- 전라북도 희망리본프로젝트는 11개 시군에서, 총 600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음. 전북의 경우, 총 사업비는 1,260백만원(기본급900백만원 + 실비360백만원)이며, 컨소시엄이 기관이 각 630백만원을 배정받아 사업비를 편성.
- 양 센터에서는, 조직 고유의 특성을 살려 예산 집행. 기본급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실비는 참여자의 취(창)업 촉진 위한 지원금 집행, 예산편성은 기관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편성하였다고 사료.
- 실비의 경우, 참여자가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참하거나, 구인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실비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실비 반납은 자연 및 중도탈락 같은 사유로 반납.

(2) 업체 및 참여자 홍보의 적정성

- 수행기관의 업체 홍보 적정성은 TV방송 12건과 신문보도 125건, 생활정보신문 게재 90건, 소식지 1,800건 발송, 리플렛 배포 11,000건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에게 본 사업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
- 또한, 전북수행기관은 시·군과의 협조를 통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하여 민·산·관이 함께하는 낙후된 전북지역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에 총력.

(3) 사업추진체계 형태의 적정성

- 전북지역은 '사)전북광역자활센터(이하 전북광역)'와 '인지어스 유한회사(이하 인지어스)'의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북광역은 전북지역의 자활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리본프로젝트에 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인지어스는 1989년 호주에서 출범하여, 2008년 한국법인을 설립. 공공 고용지원서비스를 보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컨소시엄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
- 전북광역은 신문·방송 및 다양한 홍보방법을 전략적으로 구사, 월 평균 10여회를 상회하는 보도성파로 컨소시엄에서 담당하는 홍보 업무에 만전을 다하였음.
- 사업추진 지역으로는 도내 총 11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남원, 정읍, 김제, 무주, 진안, 장수, 임실)을 대상으로 300명의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창)업률 42.5%의 성과도출. 낙후 된 전북지역의 산업기반과 초년도 사업 수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
- 인지어스는 고유의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도내 시·군(군산, 익산, 정읍, 김제, 무주, 진안, 장수)에 있는 참여자 3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

(4) 성과급 지급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

- 전주지원실은, 성과급은 발전기금과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으로 구분. 발전기금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집행 예정.
- 직원 성과급의 경우, 실적 비례 인센티브 부여로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익산지원실의 경우, 직원 채용 및 재계약시 연봉제를 채택하여, 별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고, 전액은 인지어스 유한회사로 귀속, 실적이 높은 직원 1명은 영국지사의 선진 사업장에 견학 등의 인센티브 제공.

(5) 유사사업과의 중복이나 관계성

- 참여자가 자활사업 참여,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 여성부의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침상, 사업 중복 불가의 원칙에 따라 모집에서 제외.

-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구직등록, 계좌제 활용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여성인력개발센터, 전북노인취업지원센터 등 유사 취업지원기관의 교육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6) 사업진행정도의 적정성

- 먼저, 참여자 모집에 관하여, 총 모집 대상 600명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초기 진행이 매우 어려웠음. 전라북도로부터 3월 16일 125명, 4월15일 105명, 6월14일 370명의 명단을 받아, 7월에는 사례관리사들이 한꺼번에 많은 수의 참여자들에 대한 초기상담 및 ISP수립을 실행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어 사업 진행 애로. 그러나 센터 직원들이 단합하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었음.
- 이후, 사업 참여자에 대한 취(창)업 알선, 사전 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등으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사업에 만전을 다할 수 있었음.

(7) 사업취지 및 본 사업 참여자의 적정성

- 참여자의 적정성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체 600명의 참여자 중, 79%인 474명을 차지하여 수급자 비율이 매우 높아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게 모집. 일반수급자의 경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보인 분들이 많아, 사업 취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수행.
- 그리고, 총 600명 중, 남성은 161명, 여성 439명으로 구성되어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40~50대의 저소득층 한부모
가장들이 많아서,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취지 부합

구분	인원(명)	비율(%)	비고
계	600	100.0	
일반수급자	233	(38.3)	
조건부수급자	236	(39.3)	
자활특례자	5	(0.8)	
차상위(120%)	126	(21.0)	30%미만

(8) 미취업자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

- 수립여부 : 2010년 하반기부터 미취업자에 관한 관리 부분으로 심화 교육 진행, 센터 내·외부 교육을 통하여 참여자에 대한 근로의지 강화와 근로능력 향상을 견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

또한, 12월 중, 참여자들 중에서 충분히 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 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에, 전담사례관리사 교체를 통해 1~2월 중, 20여명을 취업시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였음.

끝으로, 사업종료 시점인 '11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취업자에게 관리종결을 하였으며,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미흡한점

2010년 전라북도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신규 사업으로, 외부적으로 성과도출과 내부적으로는 사업수행 체계를 동시에 갖춰야 하는 과업 존재. 따라서, 사업수행 초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전국 최하위권 산업기반을 배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애로사항.

아울러, 타 사업수행기관과는 다르게, 원거리 지역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지역(남원, 무주, 진안, 장수 등)에서는 참여자 1~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왕복 5~6시간 정도의 소요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의 정기적 제공 매우 어려움.

또한, 이 지역들은 구인처 개발, 복지서비스 연계, 외부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1인당 서비스제공이 市단위 지역보다 1인당 서비스제공 총량이 낮을 수밖에 없었음.

Ⅲ. 성 과

1. 기본성과 (※ 시스템 발체)

1) 취업률 (자활성공률, 2011. 2. 28 현재) 취업자 255명 (42.5%)

2) 유지율 (고용유지율, 2011. 2. 28 현재) 유지자 196명 (32.7%)

(1) 고용형태

고용형태	취업자	유지자	비고
계	255	196	
정규직	62	55	
비정규-상용직	160	120	
비정규-일용직	10	7	
비정규-임시직	23	14	

(2) 임금분포

임금	취업자	유지자	비고
계	255	196	
200만원 이상	2	2	
170만원 이상	7	6	
150만원 이상	9	7	
130만원 이상	25	19	
110만원 이상	57	43	
100만원 이상	51	45	
90만원 이상	75	54	
85.9만원 이상	29	20	



(3) 업종구분

업종	취업자	유지자
계	255	196
제조업	64	50
숙박 및 음식점업	44	32
도매 및 소매업	34	2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	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	14
금융 및 보험업	10	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교육 서비스업	13	9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	8
건설업	7	4
농업, 임업 및 어업	4	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3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3
운수업	4	3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	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0

(4) 직종구분

직종	취업자	유지자
계	255	196
서비스 종사자	67	55
단순노무 종사자	66	48
사무종사자	34	28
판매종사자	27	2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	1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20	12
장치, 기계 조작원 및 조립종사자	15	11
관리자	4	2
농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1	1



(5) 탈수급률 (보장탈피/소득상향)

-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로 탈수급 예정자 101명
- 희망키움통장 가입으로 탈수급 예정자 111명

2. 확인 성과 (※ 수행기관별 작성)

1) 상담횟수 - 내방, 방문 다양한 방법으로 총 19,480건의 상담을 진행

합계	내방	방문	전화 발신	온라인 발신	온라인 수신	문자 발신	문자 수신	기타
19,480	1,823	8,287	1,962	333	74	5,130	240	1,631



(1) 교육훈련 (내부/외부) 총 2,954건

월별	내부교육	외부교육	비고
계	2,737	217	
'10년 3월	61	1	
4월	135	12	
5월	177	16	
6월	196	19	
7월	1,248	27	
8월	303	33	
9월	75	34	
10월	223	31	
11월	230	36	
12월	55	4	
'11년 1월	27	2	
2월	7	2	



(2) 사회서비스연계

(단위 : 성과/목표)

복지 연계	'10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년 1월	2월
2,546	19 /10	101 /50	69 /50	153 /50	464 /50	398 /50	67 /50	255 /50	172 /50	173 /50	549 /50	126 /50

(3) 실비이의 비용보조 : 해당 없음.

2) 취업연계 활동

(1) 이력서 작성

이력서 작성	'10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년 1월	2월
1,656	-	135	60	54	79	67	403	728	55	33	20	21

(2) 동행 면접

동행 면접	'10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년 1월	2월
1,256	-	30	26	38	75	64	327	561	54	35	24	22

(3) 경과적일자리 제공

경과적 일자리	'10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년 1월	2월
40	-	2	3	3	7	10	2	6	2	2	1	2

(4) 외부자원 활용교육

외부 자원 활용	'10.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 1월	2월
70	-	10	12	10	18	19	-	-	-	1	-	-

(5) 내일배움카드 활용 등

내일 배움 카드	'10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년 1월	2월
69	1	2	4	9	9	10	8	15	8	2	1	-

(6) 희망키움통장 가입

2010년 가입자	2011년 가입예정자	비고
111	71	

희망키움통장이란? 당신의 미래 미래를 담아드립니다.

저축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저축 습관을 만들어 드립니다. (개인 가족기준)

월부 저축액 (최소 20만원)은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본인이나 가족의 교육에 사용된 경우 소득세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저축액의 4%가 연금저축액으로 인정되어 연금에 적용되는 저축액에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보다 많은 수익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저축한 저축액은 저축기간 동안 저축액에 이 복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 절차

1. 저축을 위한 특별예약을 드립니다.
 * 1인당 1회, 1인당 1회, 1인당 1회
 * 2인 이상 1회, 1인당 1회, 1인당 1회
 * 2인 이상 1회, 1인당 1회, 1인당 1회

2. 신용위험 및 금융교육, 노후 설계 교육
 * 한국 FPI협회, 금융감독원 등 국민연금공단 후원
 * 금융위험 교육, 노후 설계교육 등
 * 노후 설계 교육, 노후 설계교육 등

3. 월부저축액 납입
 * 2년 후 대상자 및 저축액 납입자에 대한 월부저축액
 * 저축액 납입 30만원



3) 구인처 발굴 활동

월	'10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년 1월	2월
구인처 개발 619	-	44	60	72	84	83	33	68	72	37	38	28
제공 1,214	51	100	93	149	134	129	67	109	147	111	60	64
연계 횟수 313	3	9	12	41	36	49	27	36	38	21	21	20

(1) 업무협력체계마련

구 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0. 3월	4월	5월	계	6월	7월	8월	계	9월	10월	11월	계	12월	'11. 1월
민·산· 관 협력	9회 64처	2회 23처	1회 15처	1회 8처	4회 34처		1회 8처	3회 26처	6회 41처	2회 26처		4회 15처	1회 7처	2회 8처	1회	1회
업체 초청	41 社	-			30			30	11		11					



南原新聞

남원시는 권북광역개발센터와 함께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만명을 대상으로 2010년 희망리본프로젝트 성과관련성 자발 사업사업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사업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대표 간담회를 24일 시청2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희망리본프로젝트 성과관련성 자발사업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실업 현상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인·구직시스템으로 경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층 앞장서도록 좋은 결과를 받고 있으며 이날 남원시와 권북광역개발센터에서는 각 기업체 대표들에게 기초소득의 취업지원에 더욱 힘써 주기를 당부하며 기업체 박자를 겨우겨우 보였다.

윤승호 남원시장은 "국가사업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기업체 대표들은 기초소득층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종합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초소득이 받는 실업고용을 줄이고 지역적 고용활성화를 높이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취업지원 구축과 고용지원서비스 구축의 기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10. 8. 24
센터 주최 남원시 기업인 간담회

전북도민일보

2010년 10월 29일 금요일
“일자리 있습니다 - 일하고 싶습니다”
희망리본일자리지원센터, 기업체-취업희망자 만남의 장 마련

“일자리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구인구직의 열매 소풍이 이루어졌다.

권북광역개발센터(센터장 윤승호) 희망리본일자리지원센터는 29일 권 북서회관에서 기업체와 취업희망자의 만남의 장을 가졌다. 기업은 구인난을 해결하고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는 양방향 소통 기반을 구축했다.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장려를 유도하고 기업은 채용정보와 인사서류를 확보해 지속적적인 인력수급 토대를 마련했다.

저소득계층에게 일자리 지원사업 을 지원하는 권북광역개발센터(센터장 윤승호)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동시에 초 청해 구인정보와 취업욕구를 맞춤형 으로 연결했다.

스팩이 없음에도 내게 꼭 맞는 일 더, 지원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100여 명이 상환을 위해 취업의 문에 단번에 다가섰다.

취업이길 희망당당자와 인연들이 만남 현장에서 만남을 지리 신속한 채용을 희망하고 파산과 망의 등을 필요안 인력관리 담당자 등 수요기업에 위

권북광역개발센터 희망리본일자리지원센터는 29일 권북서회관에서 기업체와 취업희망자의 만남의 장을 가졌다.

F. 대한주택관리(주), 코한광업 등 10여 기업이 참여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어서 정부를 사단 운영 등 취업과 일시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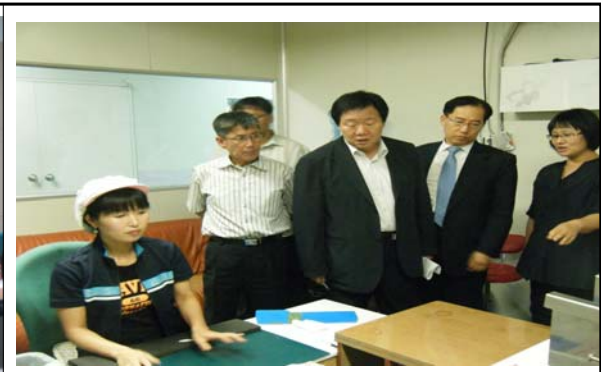
희망리본일자리지원센터는 고용과 복 지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으로 전폭도와 보건, 복지자가 지원하 고 권북광역개발센터가 수행하는 국 가 사회사업이다.

김영삼 기자 kskim@

2010. 10. 28
센터 주최 구인구직 만남의날



희망리본프로젝트
도·유관기관·업체 간담회



기업체 방문 간담회 - 현장방문

IV. 종합평가

1. 긍정적 평가

전라북도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전라북도와 수행기관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600명의 저소득층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

도내,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 중 49.2%에 해당하는 295명(경과적일자리 40명 포함)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큰 성과를 이루었음. 이는 전라북도의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열악한 산업기반과 사회서비스 기반이 매우 취약한 제반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성과.

이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여건 조성을 위하여, 상담 약20,000건(1인 평균 33.3건), 교육 약3,000건(1인 평균 5건), 복지연계 약2,600건(1인 평균 4.3건) 등의 지원으로 가능.

또한, 컨소시엄의 주체인 전주지원실은 사업 홍보를 위하여 TV방송 약 10여건, 신문보도 약 130건 등의 다각적인 홍보활동 역점적 수행.

인지어스 (유)가 담당한 익산센터는 참여자 교육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 특히 인지어스 고용지원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을 희망리본프로젝트에 도입시켜, 참여자들에게 근로동기강화, 근로능력강화 등의 측면에서 효과.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지원과 더불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가 높은 성과를 견인.

2. 한 계 점

전라북도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사업 첫 해, 40%가 넘는 성과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점이 있었음. 2차년도 사업 수행기관 4개시도 중 가장 열악한 인프라로 인하여 고용시장 규모와 복지와 교육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특히 동부산악권(무주, 진안, 장수, 임실)과 같은 郡 단위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로 서비스 제공 총량이 매우 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수행기관의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

사업 초기, 참여자 모집이 되지 않아, 수행기관의 서비스가 7월부터 제공되어, 실질적인 사업수행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 또한, 지자체의 자활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연속성이 저하되어 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 이 밖에 유사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이 많아 참여자들을 사업 참여 전념시키기 어려웠음.

또한, 참여자들이 생계비 지급중지에 대한 두려움을 완벽하게 극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음. 참여자들에게 희망키움통장과 실비지급을 통하여 사업 참여 독려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특히 차상위자의 경우, 실비 이외의 혜택이 없어,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사례관리사의 임과워먼트 이외 별다른 영향요인이 존재하지 않음.

참여자 모집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 지연으로, 교육 총량이 충분하지 못하였음. 먼저 참여자 교육의 경우 양 지원실이 별개의 교육방법을 통하여 시간 배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음. 또한 종사자 교육의 경우, 월1회 정기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미흡하였음.

끝으로, 사례관리 매뉴얼이 수행 중 발간되어,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표준화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음. 그리고 수행기관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행착오가 불가피.

3. 개선사항

전북지역의 경우, 2010년 사업을 처음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업부분에서 시행착오 및 부족한 부분이 있어 2011년도 사업을 위한 개선사항이 있음.

먼저,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행 이전과 실행 도중,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 대한 워크샵 등이 필요함.

참여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차년도의 기초적인 종사자 교육의 수준을 상회하는 사례관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할 것임. 그 내용으로, 관련 법·제도 이해 향상, 직업상담기술, 구인처 개발, 사례관리 기술, 노무관리, 신용회복 등으로 구성 예정.

참여자들의 근로동기향상과 근로능력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더 많은 참여자들이 희망리본프로젝트를 통하여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임.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지역의 경우 매우 열악한 지역자원을 갖고 있음. 이에 취업처개발, 교육자원, 복지자원 등이 매우 부족한 형편임. 지자체, 기업 및 센터가 연계하여 취업처발굴, 교육기관 확보, 복지연계 자원 확보를 추가로 구축하여 서비스 부족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4. 결론 및 제언 (합의와 시사점)

2010년 전라북도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와 취업을 통해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음.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사업의 성과를 위하여 사례관리 시스템의 강화, 자활사업 참여자의 다층적 수용가능성 모색, 구인처 인센티브를 필요로 함.

□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참여자는 대부분, 장기 실업상태이거나, 근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임. 또한, 참여자들은 구직활동 전반에서 구직정보, 구직기술, 복지정보 등의 부분에서 자원 접근성이 현격이 낮은 경우가 많음. 이러한 참여자들에게 근로 동기를 향상시키고, 근로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연결해 주기 위한 희망리본프로젝트의 핵심서비스는 사례관리서비스임. 특히, 참여자들에게 고용과 복지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사례관리사들의 역할이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참여자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서비스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해야 함. 전북지역의 경우, 2010년의 성공적인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참여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따라서, 참여자에 대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근로여건 조성 강화, 종사자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증대, 내·외부 수퍼비전 강화 등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탈수급을 견인하도록 사례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임.

□ 자활사업 참여자 다층적 수용 가능성 모색

전라북도의 경우,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중반이 되어서야 모집을 마감할 수 있었음. 짧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총원 600명중 경과적 일자리 포함 290여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나머지 300여명에 대하여 관리 종결이 되어,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게 되었음. 따라서 미취업인원의 경우 지역자활센터로 연계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또한, 지역자활의 경우 3년간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이후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하여 희망리본프로젝트로 이관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함.

일각에서는 희망리본프로젝트가 지역자활센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나,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다층적 자활시스템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데 한 축을 담당 할 만큼 성숙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공공근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과 공동체, 희망리본(Re-born) 프로젝트, 아울러 희망키움통장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자활시스템을 통한 참여자들의 탈수급을 도모하는 선순환체계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므로, 참여자에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수행기관과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 교류를 통하여, 참여자의 욕구, 상황 및 근로능력 여하 등을 고려하여,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구인처 인센티브 필요

'10년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취약점은 외부자원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구인처에 대한 혜택이 전무하였음. 금년부터는, 고용촉진 지원금제도가 완화되어 '11년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부터는 활용이 가능하나, 타 부처와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비하여 구인처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으로 업체를 설득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특히, 도내의 경우 대기업이 매우 적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체가 구인처의 대부분임. 따라서 지원금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현실임. 그러므로, 업체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함.

□ 결론

전북지역의 2010년 희망리본프로젝트는 도내 600명의 참여자들에게 근로를 통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특히 1차년도 사업 수행의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 참여자의 약42%인 250여명을 취(창)업과 경과적일자리 40명을 포함하면 사업 참여 인원 중, 절반의 참여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였음.

이와 같은 결과는, 전북지역의 낙후된 산업기반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이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1차년도 사업수행에 따른 교육체계, 구인처개발, 복지지원 체계를 추가·보완하여, 향후 2011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수행시 최소 성과 이행을 사업중반에 뛰어넘고, 고용유지율이 높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특히, 저소득층 비율이 매우 많은 도내 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는 타 수행지역 보다 전라북도에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임.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더 많은 참여자들에게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임.

주제발표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1년 3월

▶▶▶ 서 광 국 |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팀장

I. 개요

1. 목적

- 자활사업 참여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조건부과등에서 벗어나 있는 미취업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1:1 맞춤형 취업지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참여자 급여관리 능력 제고
 - 조건부과제외자, 유예자, 자활특례자 등 자활사업의 참여를 희망하지 않거나 다양한 일반노동시장 진입의 장애요인 때문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집중사례관리 체계 마련
 - 맞춤형 가구단위 복지서비스와 개인의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 영역의 발굴 및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 대상자의 탈락 방지 및 유지·관리,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탈수급·탈빈곤이라는 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명확한 민·관의 협력 프로세스 구축 지원을 위한 현장 점검 모니터링 진행
 - 참여자의 기취업, 서약서 미제출, 연락두절등의 사유로 참여초기에 탈락하거나 사망이나 이사, 질병등의 사유로 더 이상 서비스를 수혜받기 어려운 경우의 탈락자관리에 대한 방안 확인
 -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추정소득부과에 따른 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 확인과 더불어 사업내용 서비스에 대한 면밀한 민간서비스 지원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특히 사업수탁기관의 경우 지침이나 사업방식의 자율성 확보와는 별개로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의 이해도 제고와 효과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지원 필요
 - 예산의 투입과 관련된 기본금, 성과급에 대한 적절성과 이에 따른 내부 예산 투입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판단의 기초자료 생성
 - 기본서비스와 관련된 원가산출의 적절성과 향후 계약의 기간에 대한 다양한 방식과 관련된 서비스 질의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

- 1차 사업수행 지역 및 기관(경기, 부산)의 경우 성과주의 방식 채택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의 담보 수준과 2차년도 신규수행기관(인천, 전북)의 경우 성과급에 대한 적절성, 허위성을 보완하는 현장 중심의 사전, 사후적 문제해결(Solution Management)기능 및 내용 도출
 - 사업 2년차를 맞이하는 기관과 사업초년도를 맞이하는 기관의 사업관리 방식의 표준화 유도 및 사업에 대한 이해의 편차로 인한 사업불안정성 최소화
 - 수행기관의 다양한 솔루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지체계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조기 성과확대 방안 추진

2. 추진 경과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2차년도 사업 수행기관의 선정에 따른 사업진행의 표준화 유도
 - 1차년도(경기/부산)의 수행기관의 경우 사업계약의 연속성에 따른 성과목표에 대한 적절성 및 향후 확대방안 수준의 적절성 확인
 - 2차년도(인천/전북)지역의 경우 수행기관의 유효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주체들과의 정기적 커뮤니케이션 진행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2차년도 사업 수행기관의 참여자 관리 강화
 - 1차년도(경기/부산)의 수행기관의 경우 중도탈락자 처리에 대한 명확화 및 지자체의 관리 확대·강화 추진
 - 2차년도(인천/전북)지역의 경우 수행기관의 참여자 확보 및 관리에 대한 문제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지도·점검 진행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공통사용 사례관리 매뉴얼 마련
 - 1차년도(경기/부산)와 2차년도(인천/전북)지역의 수행기관의 다양한 사례관리 모듈을 수렴하여 사업취지와 맞는 사례관리 표준양식과 내용 체계 마련
 - 사업수행기관의 다양성과 특성을 인정하면서 보다 전문화된 지원이 가능토록 사례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공통사용 매뉴얼 업데이트 추진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수행기관의 상호 정보교류 확대
 - 1차년도(경기/부산)와 2차년도(인천/전북)지역의 수행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연찬회)와 향후 평가방향등 공유
 - 운영지침과 사례관리에 대한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상호 필요사항과 공유 될 내용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환류(feedback)진행 추진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수행기관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적정성 강화
 - 각년도별 수행기관의 경우 모니터링의 방식을 좀더 세분화하여 참여자(수급자/차상위), 연령대(젊은연령/중고령연령), 취업처(정규직/비정규직), 급여수준(최저임금 상회/평균임금 상회) 등 확인 진행
 - 사업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파킹의 가능성에 대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경우 사례관리자와 수행기관의 실무총괄 책임자에 대한 사유 확인 진행 추진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신규 수행 지역 확대 및 규모 관련 내용 검토
 - 성과관리형 사업 수행지역과 기관의 확대(대구, 강원, 광주)에 대하여 인력 규모 및 수행기관의 적정성 확인 진행
 - 성과관리형 2011년 사업지역의 수행기관에 필요한 사례관리자들의 전문화 교육지원과 그동안 사업 성과 공유 계기 마련

II. 2010년 모니터링 추진 방향

1. 모니터링 방향

- 1차년도 사업에 이어 지역의 확대(경기, 부산→인천, 전북 추가) 및 대상자의 확대(2,000명→3200명)에 따른 대상자의 관리 능력 제고 방안 확인
 - 사업대상자의 모집, 그리고 대상자의 이관과정 등 지자체와 수행기관간의 필요한 대상자 정보 교환에 대한 적절성 및 주요체크 사항 확인
 - 사업초기의 대상자의 탈락발생과 대상자 모집과정의 혼돈을 최소화함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진행기간의 적절성 확보)

- 자활사업 대상자 중 노동시장진입에 대한 다양한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 대하여 자활 경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1:1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화 도출
 - 육아·돌봄 등으로 일반노동시장 진입에 다양한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사회 서비스의 연계성에 대한 수행기관 제공 능력 및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마련
 - 조건 부과 제외자·유예자, 자활특례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 보다 대상 범주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 수급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능력 향상

- 본사업의 기본목표인 탈수급과 이를 수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취업유지율이 라는 성과목표에 따른 수행기관별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경쟁력 제고
 - 1차년에 비해 보다 취업유지율이 향상될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사업목표나 방향성 정립 유도, 특히 지자체와의 서비스 내용 교류를 통한 추정소득의 적절성 확보
 - 영리, 비영리 등 다양한 사업자와 단독, 컨서시엄등 사업자 연대의 다양성으로 인한 효과제고의 적정방식 도출과 지역별 특성과 서비스의 연계성에 대한 반영 검토

- 사업의 서비스 비용에 대한 명확한 원가분석이 가능토록 하는 기초서비스 이행 기준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합리적 예산투입 방식과 효과 극대화 방안 확보
 - 기본급에 대한 당초 원가의 적절성과 그에 맞는 서비스 이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본급에 대한 예산누수효과 차단과 향후 기본급의 적절성 확보 자료 생산
 - 현장의 실행내용과 성과의 도출에 대한 연계성을 확인하고 성과관리방식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적절한 집행여부와 참여자와 사례관리자의 서비스 인식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안 사전·사후적 현장 확인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대응

1) 1차년도 과정에서 대상자모집에 대한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역할 구분이 되지 않아 수행기관과 지자체와 혼선 초래, 특히 대상자에 대한 신청서 누락, 기취업중에 있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연락이 되지 않아 초기상담이 진행될수 없는 대상자가 발생, 2차년도에는 이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상자 교체에 대한 검토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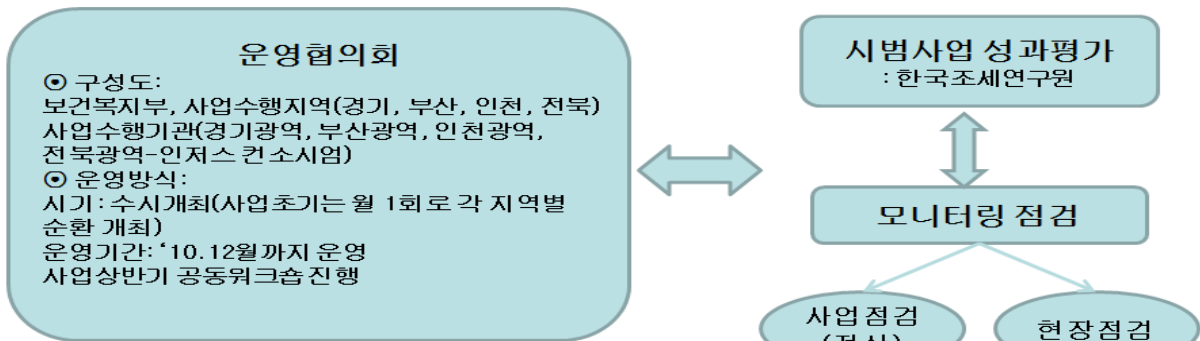
2. 세부 추진 내용

□ 기본방향('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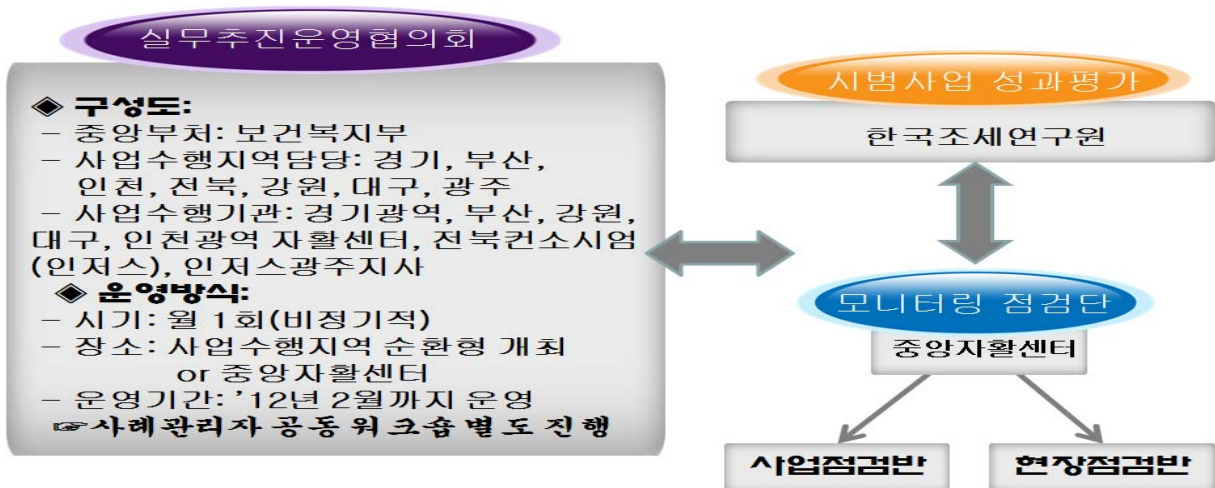
-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기존 및 신규 수행기관의 전산 및 실적 관리와 함께 수시 사업수행기관과의 의견수렴, 및 문제 해결 자문을 통한 사업지도·점검 모니터링
- 2차년도 성과평가지 시범사업의 미비점·보완점에 대한 현장 의견 확인 및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산출
- 시범사업의 실적에 대한 허위여부 및 대상자 서비스의 적절성 판단을 통한 비용지급과 환수 업무 수행

□ 모니터링 체계도

'10년)



'11년)



□ 세부 운영 체계

-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의체 형식의 ‘실무추진운영협의회’와 사업진행 전반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점검단’을 구성
 - 모니터링 과정과 비용지급의 현장확인을 병행하여야 하는 모니터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점검반」과 「사업점검(전산)」 형태로 진행

- 실무추진운영협의회는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지침해석(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의 지도·관리기관(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사업수행기관(경기광역자활센터, 부산광역자활센터, 인천광역자활센터, 전북광역자활센터&인저스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주기적 협의체 형식 운영
 - 주요 논의 내용: 지침해석, 사업수행의 현장애로사항, 모니터링 진행과정의 문제점 해소, 수행 기관들간의 협의 필요사안 등 현장 중심 문제해결 확보 하되 필요시 워크숍 등 공유의 장 마련
 - 지침 해석에 필요한 현장 의견 개진, 지침내의 개정 의견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4개 수행기관 향후 경영적 방식과 사업과의 불일치 여부 등

- 모니터링 점검반은 「현장점검반」과 「사업점검반(전산)」으로 분리하여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성과관리 조기 구축체계 마련을 진행하기 위하여 분기 or 월별 모니터링 진행
 - 사업점검반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전산적에 들어가 있는 초기 상담일지, 상담별 서비스 일지(서비스별), 성과관련 서류 증빙을 진행, 매월 주기적 교육, 구인개척, 사회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영역의 통계와 수행기관의 사례관리자가 성과를 위하여 대상자 파킹(Parking)하는지 여부 확인 병행
 - 현장점검반의 경우에는 분기별 형식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부산시, 경기도, 경기광역센터, 부산광역센터, 관련 연구자가 참여하며, 대상자 사례관리 및 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지도·자문 중심으로 운영하며, 해당지원에 현장 상시모니터링 요원(지역별 1명, 한시적 운영)과 중앙자활센터가 주도로 사업 대상자의 사례관리의 적절성, 연계성, 적시성 등 사업효과와 연관된 서비스 내용과 이에 따른 비용(기본급·실비·성과급) 지급 및 환수 점검을 진행

□ 모니터링 세부 추진 내용

- 수탁기관(사업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사례관리, 성과관련 데이터에 관한 실적을 전산 시스템상(붙임 3) 입력 조치 및 확인하는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
 - 초기 전산화되지 않는 자료는 추후 전산화가 된 후 입력토록 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한 실적 데이터 수시 분석을 통한 관리
 - 수탁기관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관리하고, 이를 통한 성과목표치 대비 월별·분기별 실적을 확인
- 수탁기관의 실적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 월별 실시를 통해 사업상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보완(실무추진운영협의회, 모니터링 점검반 운영)
 - 복지부, 해당자치단체와 수행기관, 중앙자활센터는 분기별 1회 수탁기관과의 정례적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상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
 - 수탁 수행기관과는 수시로 사업상의 애로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실시
- ①기본급②1차 성과급③2차 성과급④3차 성과급 지급, 전산 시스템에 연동하여 현장 확인 및 결과 보고(지자체)를 진행함
 - 수탁기관의 사례관리 계획에 맞춘 과정관리 및 기본급 지급 과정 확인과 더불어 취업지원서비스 비용산정을 위한 관련 회계자료의 확인과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확인 진행
 - 별도로 해당자치단체의 기본급 지급과 관련된 필요한 확인 요청 사항은 정기적 확인을 거친 후 수탁기관에 문서 확인 후 현장 확인 시행
 - 성과급 지급의 경우, 수행기관의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 진실성(허위여부 등), 적정성 확인을 거친 후 성과급을 지급
 - 다만 수행기관의 일괄 성과보고(매월 말)원칙과 지급업무(익월 전 15일)를 감안하여 중앙자활센터와 상시모니터링 요원은 서류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 충분한 진실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적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허위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는 기본급 또는 성과급 일부를 공제하거나 환수하는 것으로 지침상 규정

○ 모니터링 세부 항목 및 내용

구분	확인항목	세부내용	비고
대상자 서비스 내용	초기면접 및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ISP)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유무, 정도, 수행실적 등	
	참여자 수행기관의 서비스 (사회서비스 및 교육훈련 제공)	제공유형, 제공서비스 수준, 참여자 맞춤형성 등	
대상자 관리 및 유지	대상자 분류 및 이첩	지자체와 대상자 이첩 과정, 참여자 기본정보 확인 방법 등	
	대상자 중도탈락 및 대체	대상자의 자연 및 중도탈락 사유 확인, 대체자 진행 내용 및 적절성 확인(지자체와 문서 교환)	
	사후관리	사후관리 계획, 점검방안 등 확인	
비용지급 (기본급, 성과급, 실비)	서비스 비용 확인	비용의 적절성, 비용지급 항목 등 확인	
	성과급 지급	신청서류 확인, 현장 확인, 대상자(취업처) 확인, 성과 목표별 신청 서류 허위 여부 확인	
수행기관 운영 사후관리	사례관리자 관리	사례관리자와 관련된 등 제반사항 확인	
	참여자 관리	참여자과 관련된 데이터 및 서비스 관리 확인	
	회사경영	대표자 변경 등 회사의 내·외부 환경 변화 사항 확인	

※ 운영협의회와 지침 개선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예정

○ 모니터링 세부 체크 리스트

- 사례관리자용은 사례관리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그들이 관리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서비스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여 보고(붙임 1)
- 대상자용은 대상자의 기본 정보와 취업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그들의 욕구와 얼마나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고 (붙임 2)

○ 세부 사업진행 관련 지도점검시 세부 확인 사항

□ 지도·점검결과 확인사항

○ 사업 계획/진행 점검:

- 사업계획서(제출된)의 진행 정도 및 변경내용 확인
- 사업 종사자 관리 및 교육 내용 정도 확인
- 사업내용 및 지침 이해 정도 확인

○ 사업 대상자 사례관리 확인:

- 대상자 중 파킹(Parking) 유무 등 확인
- 우수사례관리(BP) 내용에 대한 공유 방식 확인
- 전산입력 내용의 적정성 확인(※중앙자활센터 사례관리자별 입력내용으로 점검)

○ 지자체 보고 및 연계 확인 :

- 취업성공자(경과적 일자리 등) 소득과약 보고 진행 확인
- 기초지자체와의 연계 내용 및 노력 확인 확인
- 사업 대상자 문제사항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확인

○ 일반적 경영 내용 확인 :

- 기본급·실비 지급 관련 서류 및 집행의 적정성 확인
- 종사자의 인사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확인
- 사업 예산 구조와 집행 내용의 적절성 확인

□ 특기사항

- 종사자 면담 진행 및 참여자 서비스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Ⅲ. 지역별 모니터링 진행 결과 분석

1. 추진 기간별 모니터링 확인 내용

□ 사업 초반기

- 시범사업과 신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자체와 수행기관의 선정과정, 그리고 대상자 이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계약자 선정, 대상자 모집 등)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 차원에 접근
 - 경기지역: 수행기관은 연속적으로 진행된 반면, 최소 사업성과기준을 확대하고, 검점센터로 이어지는 자체 구조에 대한 변경 여부 판단 요청(단, 기존 거점센터 조정시 '09년 대상자에 대한 이관문제 검토)
 - 부산지역: 수행기관은 작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상자 모집에 대한 협조와 수행기관의 사례관리자가 협력하는 방식에 대한 모델화 요청
 - 인천지역: 이미 기존의 유사한 사업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영리와 비영리 기관에 대한 공정한 판단 요청, 특히 인천광역자활센터와 인텍스루트코리아 등 상호 협력적 관계 설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확인
 - 전북지역: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는 매우 좋으나 기존사업경험이 전무하고 사례관리자의 교육등의 전문화 확보 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 의문제기(컨소시엄 적극 검토 예정)

- 경기와 부산등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한 담당공무원과 실무자는 사업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차년도 신규지정된 지역의 담당공무원과 실무자는 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사업방식에 대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경기·부산지역: 사업의 진행방식의 혼란이나 사례관리자들의 이해도 편차는 축소되었으나, 향후 사업의 비전이나 사업진행상의 자활사업과의 관계성등 보다 미래지향적 문제에 대한 접근 진행
 - 인천·전북지역: 1차년도에 발생했던 대상자 모집과 이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제, 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 사례관리자 모집과 편차축소를 위한 조직운영의 합리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업을 진행

□ 사업 중반기

- 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와 수행기관 담당자가 보다 명확한 지침이나 매뉴얼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방향성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적극적 요청이 진행되면서, 지침의 명확화, 매뉴얼화 검토 필요
 - 경기·부산지역: 이미 일정한 자체 매뉴얼을 보완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거점센터와 중앙센터와의 역할과 기능의 명확한 정립, 예산분배의 정리 등의 프레임과 관련된 문제와 서비스 문제에 대한 슈퍼비전의 제공방식, 서비스 수준에 대한 품질관리등의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까지 지침이나 매뉴얼화 요청
 - 인천·전북지역: 신규지역과 독특한 사업진행 구조(영리&비영리 컨소시엄)에 따른 지역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설정하는데 다소 지연, 특히 3차년도 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보완하면서 2차년도를 실험적 사업 진행 방식으로 검토하는 등 수행기관의 자율성확보와 사업취지에 대한 방향성 정립이 상호 혼재 예상
- 대상자 모집과 이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고, 유사사업(희망근로 등)에 대한 참여와 대상자의 관리유지와 관련된 문제 차단 적극 요청
 - 모든지역: 대상자 모집과정에서 연락두절, 행방불명, 기취업, 신청서 누락사유에 대해서 대상자 교체 진행
 - 자연(중도)탈락: 대상자가 더 이상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본인의 이유도 일정하게 가능토록 검토요청, 특히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가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사업의 대상자를 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하여 복지부차원의 대응 요청

□ 사업 종반기(향후 진행 예정)

- 2차년도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제도개선이나 지침보완사항 중심의 모니터링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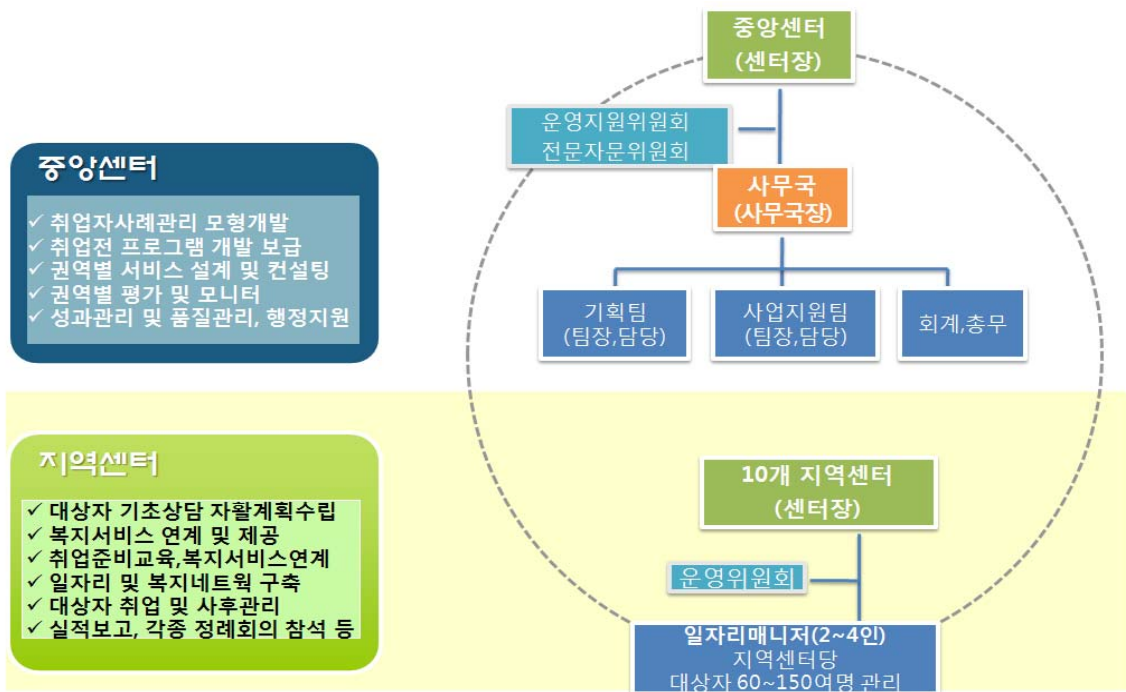
- 민관협력: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대상자 변화와 서비스 내용의 상호 피드백이 매우 중요, 이에 대한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협력방식과 내용에 대한 좋은 사례나 방식 도출을 위한 기본수행기관의 빈행방식 모니터링
 - 제도개선: 자활사업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향후 본사업의 전국화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제도개선 사항이나 법률적 검토사안들에 대한 현장의 문제를 최소화 할수 있는 시나리오별 접근방식 검토
- 모니터링 진행과 평가와의 연계성과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진행방식의 차별화 검토
- 1차년도 수행지역: 이미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편차가 낮다고 보고,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강화, 특히, 지역분리, 사례관리자, 임금, 연령 등 대상자, 사례관리자의 특성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 모니터링 진행, 분석
 - 신규 수행지역: 신규수행지역은 사업의 이해도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의 기초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례관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 특히 컨소시엄지역의 경우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서류확인을 필두로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강화와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을 수시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검토

2. 사업 추진 진행 지역별 모니터링 진행 내용

1) 지역별 사업 추진 체계

□ 경기도

- 사업추진체계 및 진행내용(※인력, 조직관련내용)
 - 1개 중앙센터, 10개 지역센터 운영
 - ※ 중앙센터(일자리개발, 프로그램·교육개발, 품질관리, 성과관리), 지역센터(대상자 취업알선, 복지서비스 제공,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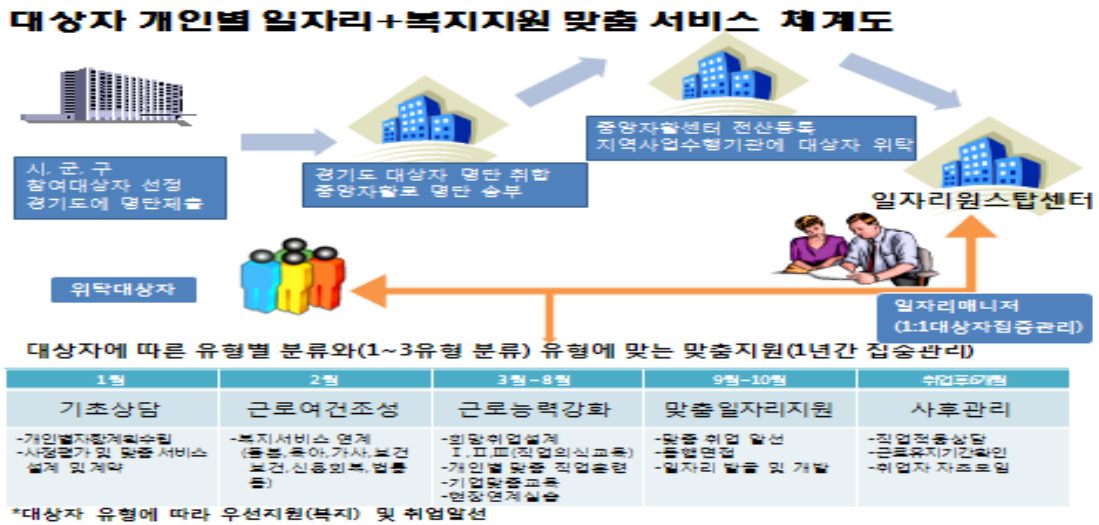


- 진행내용: 2010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계약체결(3.18)

- 인력

센터구분	담당지역	대상인원
남양주센터	구리, 남양주	70
성남센터	성남, 광주	145
수원센터	수원, 오산, 용인, 화성, 평택	145
시흥센터	시흥, 광명	70
부천센터	부천, 김포	145
안산센터	안산	145
안양군포센터	안양, 의왕	35
	군포	35
양주센터	양주, 의정부	70
고양파주센터	고양, 파주	70
평택센터	평택, 안성	70

○ 서비스체계 및 진행내용(※교육·훈련, 구인개척, 사회서비스연계등)



○ 대상자 관리 및 진행내용(※유형분석내용, ISP 수립내용 분석)

- 대상자 유형 분류 및 지원내용

- 대상자 기초 정보, 취업 기초 능력, 구직준비도, 근로저해요인, 서비스 욕구 등을 분석하여 1유형(근로동기 부족), 2유형(근로여건 부족), 3유형(근로역량 부족), 4유형(지지체계부족)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절차에 따라 지원 계획이 수립되며, 4월 중 완료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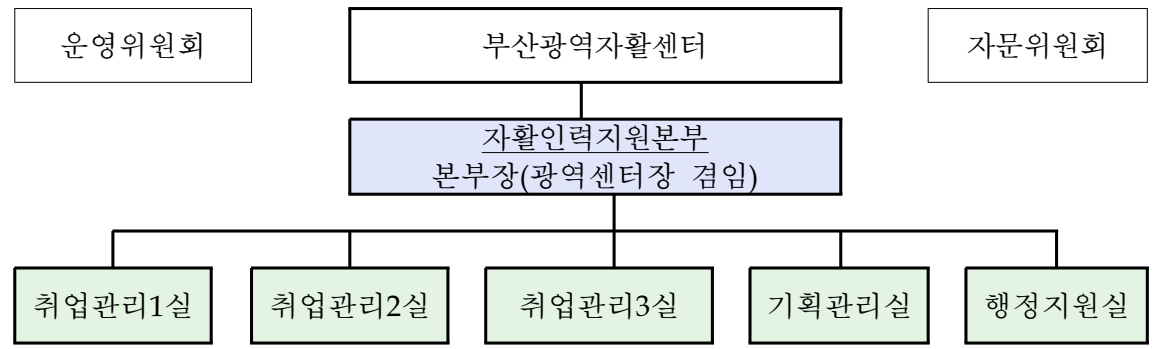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유형 분류 및 지원내용>	
1유형 (근로동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문제 개입 및 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기초능력향상을 위한 단계별 교육(희망설계 I, II, IV),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강화를 통합적으로 제공 · 기초 및 심화 상담 후 지속적인 실행 상담을 통해 활동을 촉진하고 점검 · 중간 점검을 통해 대상자 유형재분류 후 2유형 분류시 사회 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3유형 분류 시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4유형으로 분류될 경우 취업알선 · 첫 알선 후 3개월간 5회 취업알선 지속
2유형 (근로여건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서비스 제공과 교육(희망설계 I, II, III)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7개월 내 취업알선 · 연계 자원에 대한 지속적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여건 평가 및 구직 준비도 평가 · 취업 알선 후 3개월간 5회 취업알선 지속
3유형 (근로역량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희망설계 I, II, III)을 통한 역량강화와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소 7개월 내 취업알선 · 직업훈련실시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직능 향상 평가 · 직업훈련 후 취업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개인별 자활지원 계획 점검과 계획수정, 재계약 체결
4유형 (지지체계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서비스 제공과 교육(희망설계 II, III 또는 IV)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1개월 내 취업알선 · 첫 취업알선 후 3개월 간 지속적인 상담 및 취업알선 · 사업 초기 취업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구직기술향상 및 구직활동실행

공통특성 → 자신감부족, 집중력/자기통제부족
 대인관계, 일상생활관리 미흡, 대처능력/동시업무수행 능력부족,
 주택문제, 환자수발, 신용불량, 보육, 생계비 문제

□ 부산시

○ 사업추진체계 및 진행내용(※인력, 조직관련내용)

- 사업조직체계 및 인력 : 총43명



○ 서비스체계 및 진행내용(※교육·훈련, 구인개척, 사회서비스연계등)

- 사업조직체계 및 인력 : 총43명

- 자치구(군)을 전담하여 대상자 모집 및 취(창)업 추진
 - ※ 부산시 전역을 3개지역(북동부, 남부, 서부)으로 배분, 실 사례관리사별 자치구 주민센터 배분을 관리 효율 극대화
- 실장, 팀장 중심으로 사례관리 및 취업·창업 추진 및 취업실적에 따른 성과금도 실별로 지급
 - 취업관리실 사례관리사 1인이 참여대상자 40여명 전담사례관리
 - 가정·취업 현장 방문을 통한 대상자별 밀착형 전담사례관리, 맞춤형 교육 및 구인처 발굴 등 업무분담을 통한 성과극대화 추진
 - 지역 유관기관, 관련단체, 기업체, 복지기관 등 구인처와 업무협약 및 연계를 통한 참여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지역자활센터(18개)와 연계하여 취(창)업, 복지서비스 지원

□ 인천시

○ 사업추진체계 및 진행내용(※인력, 조직관련내용)

- 조직체계



□ 전라북도

○ 사업추진체계 및 진행내용

- 인력구성(전주센터와 익산센터 조직구성 상이)

· 동부권역(전주센터): 총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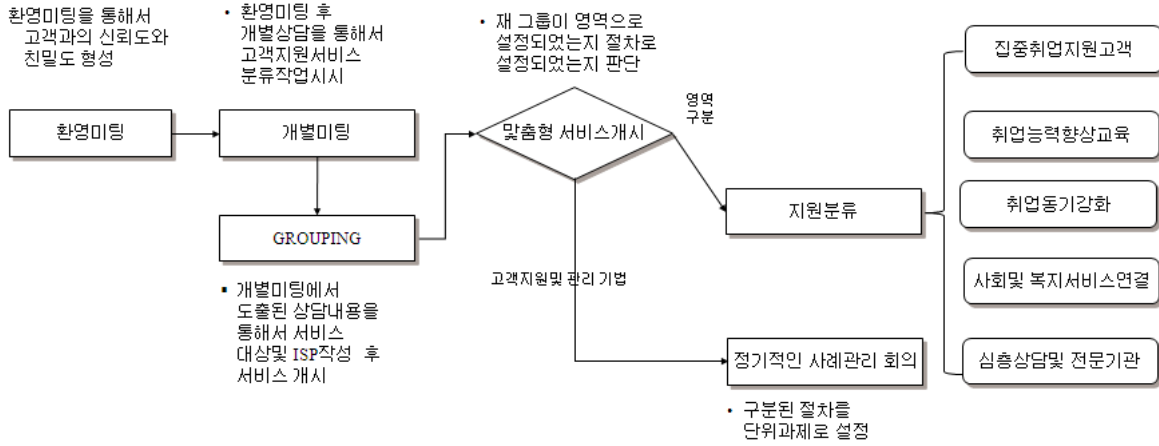
※PM(1), 총괄팀장(1), 총무/회계(1), 사례관리팀장(3), 사례관리사(6), 업무지원(1)

· 서부권역(익산센터): 총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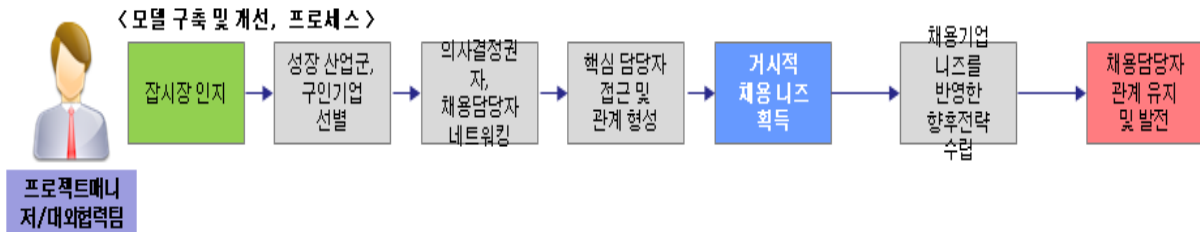
※ 총괄기획(1), PM(1), CM(1), 사례관리자(4), 대외협력(1), 총무/회계(1), 립세션리스트(1)

○ 서비스체계 및 진행내용(※교육·훈련, 구인개척, 사회서비스연계 등)

- 서비스체계



- 잡 개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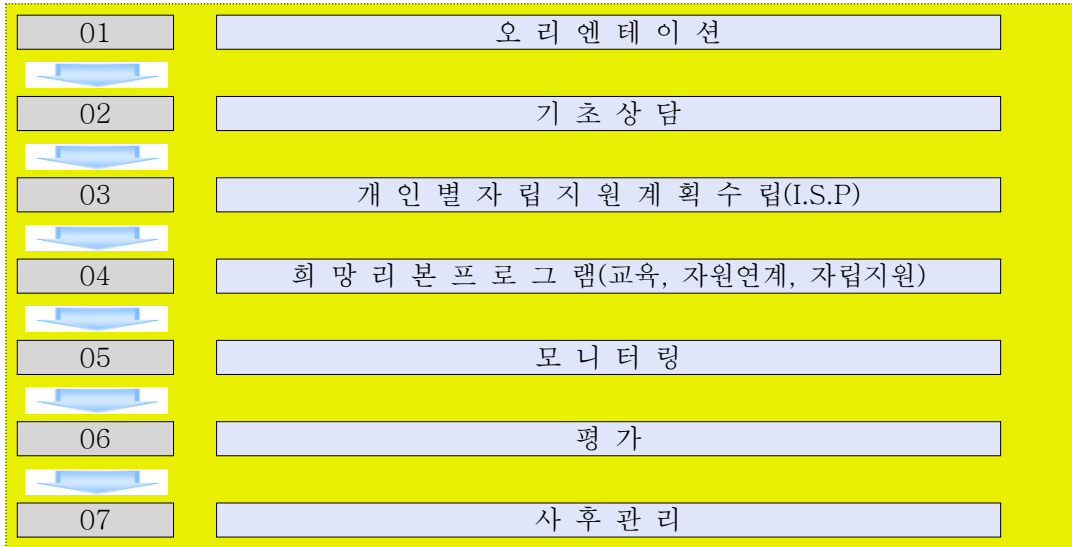
2) 지역별 사업 추진 진행 피드백 내용

□ 사업 초반기

- 사업초기임을 감안, 사업 추진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 및 협의사항 중심으로 논의 진행, 특히 각 지역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검토
 - 신규수행기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대상자 모집, 배정, 초기 상담진행 등에 대한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책무에 대한 사업 취지 및 지침 내용 설명에 초점
 - 경기·부산지역: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사업 추진관련 협의 사항에 초점을 맞춘 의견 교류 및 개선사항 요청 주력
- 이에 따라 대상자 모집 수행기관 참여 및 모집기간 서비스 제공 내용 배정전 서비스 진행기간 산입 요구에 대한 부분은 불인정하는 대신, 확정대상자 일부 변경3가지 요건(기취업, 신청서 누락, 연락두절)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해서는 수행기관과 지자체가 상호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 사업 중반기

- 사업의 실무종사자들의 사례관리 내용에 대하여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작업을 진행,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사례관리팀장이 모여 필요한 사례관리 매뉴얼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이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인



- 희망리본프로젝트 사례관리 서식 안내

사례관리	공통서식	선택양식	비고
오리엔테이션	- 희망리본 사업 안내서 - 교육프로그램 안내서 - 희망키움통장 안내서	- 각 센터별로 진행되는 희망리본사업 안내용 자료	각 센터 실정에 맞도록 사용 가능
초기상담	- 희망리본시스템 내의 초기 상담지 - 자립 역량 사정표	- 정부지원혜택 및 복지 현황 등 체크리스트	2주 이내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I.S.P)	ISP 계획수립	-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양식	초기상담이후 4주 이내
	사례관리회의	- 회의록	
희망리본 프로그램 (교육, 자원연계, 자립지원, 창업)	교육	- 교육훈련기관별 프로그램 및 대상자별 교육훈련 내역 등록	양식은 각 센터별 상황에 맞도록 수정가능
	자원연계		
	자립지원	- 업체별 구인내역 및 대상자별 취업내역 등록 - 대상자별 창업내역 프로그램 등록	
모니터링	- 상담스케줄 관리표		
평가	- 개인별 자립지원계획표 (최종결과보고 및 대상자 변화 부분만)	- 클라이언트 만족도 평가지	
사후관리		- 재무설계 자기 측정지	

- 전문가: 전문가들은 사업진행에 필요한 최소서비스 이행기준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사안별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 최소서비스 이행기준 : 권고사항 】

활동		활동 방법	활동발생 주기	최소기준의 예	추정소요시간	계
초기조사		1:1	첫 1개월 이내	1회	2시간	20시간
검사 및 측정			첫 3개월 이내	1회	1시간	
상담	심층상담		첫 3개월 이내	4회 ● 60분 이상 대면 상담: 1회 인정 ● 100분 이상 대면 상담: 2회 인정	4시간 (1시간*10회)	
	단순상담/ 사후관리		12개월	10회 ● 60분 미만 대면 상담: 1회 인정 ● 동행 면접: 1회 인정 ● 30분 이상 전화 상담: 1회 인정	5시간 (30분*10회)	
정보제공			12개월	24회 ● 이메일 문자, 전화 등 사용 ● 단순정보제공 ● 서비스 연계 활동 횟수 ● 네트워크 연결 활동 횟수	8시간 (20분*24회)	
교육 및 훈련 / 집단상담		집단 활동	12개월	6회	12시간 (2시간*6회)	12시간

□ 사업 종반기

- 2차년도 사업 평가와 더불어 사업 내용에 대한 기존 자활사업 및 1차년도 사업과, 유사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홍보 강화
 - 경기·부산지역: 1차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최종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진행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기회를 확보하고, 향후 최종결과에 대한 긍정적 방향의 홍보 및 사업 확대 사항 등 논의 진행
 - 인천·전북지역: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별 필요한 교육, 사례관리, 취업사전사후 서비스내용 등 사례관리의 체계화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방안논의
- 2차년도 사업이 완료에 따른 기관들의 최종평가 내용 및 ‘11년도 3차 사업 준비 사항에 대한 의견 교류 진행
 - 2차년도 수행지역(경기, 부산, 인천, 전북): 시범사업 시스템에 대한 보완사항 및 마지막년도 지침상 개정 내용 중심 의견 교환 및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참여자(수혜

자)에 대한 의무와 권리의 균형적 방식의 평가진행방식 검토

- 3차년도 수행지역(강원, 대구, 광주):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자체, 수행기관의 준비사항 독려 및 검토 사항 준비(지자체의 사업대상자 모집과정, 수행기관의 서비스 준비, 향후 사례관리 유형화의 적절성 등) 확인

3) 수행기관별 사업성과 및 성과급 지급 결과

□ 참여대상자 배정

- 전체 4개 수행기관의 대상자 배정프로세스 변화로²⁾중앙자활센터에서 전산입력과 동시에 배정하는 프로세스 진행

<표1-1> 지역별 참여자 배정 월별 분포

구분	1차월				2차월(누계)				3차월(누계)				4차월(누계)			
	경기	부산	인천	전북	경기	부산	인천	전북	경기	부산	인천	전북	경기	부산	인천	전북
배정 인원(명)	393	345	296	163	393	539	382	287	589	934	571	287	1000	1000	600	600

- 3월 초기에는 집체 배정에서 점차 주단위 배정단위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 최종대상자 모집 완료 확정기간 도입(최소서비스 이행기준 전(前))

□ 참여대상자1차 사업비 지급(기본급, 실비)

- 전체 4개 수행기관의 경우 보증보험료를 감안, 적절하게 사업비 지급을 분할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마감시점에 대한 검토 필요

<표1-2> 지역별 참여자 1차 사업비 지급 월별 분포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			
	경기	부산	인천	전북	경기	부산	인천	전북	경기	부산	인천	전북	경기	부산	인천	전북	경기	부산	인천	전북	경기	부산	인천	전북
지급 인원(명)	393	200	281	163	-	100	85	124	-	100	104	-	-	100	133	313	213	100	2	57	419	419	-	-

2) 기준은 지자체에서 수행기관으로 직접 배정 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중앙자활로 배정하고, 다시 수행기관으로 배정하는 다만, 행정상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동시에 배정진행

□ 수행기관의 추진 사업성과

- 전체 수행기관의 취업자수³⁾는 ‘11년 2월28일 기준 1,761명이며, 취업률은 50.5%에 달하고 있음. 창업자도 23명으로 작년에 비해 창업자도 일부증가 추세
- 성과급이 가능한 1개월 취업유지자수도 1,479명으로 단순 성과급 지급율⁴⁾을 계산하더라도 83.9%에 도달

<표 1-3> 지역별 자활시범사업 취업 현황('11.02.28 기준)

구분 수행기관	합계				
	경기	부산	인천	전북	총계
취업자수 ⁵⁾	529	647	328	256	1,760
취업자수누계 ⁶⁾	529	647	330	256	1,762
현재취업유지자수 ⁷⁾	368	532	230	203	1,333
취업탈락자수(1개월미만근무후퇴사자) ⁸⁾	108	92	177	19	396
취업탈락자수(1개월이상근무후퇴사자)	161	201	107	63	532
이직건수 ⁹⁾	63	163	32	21	279
재취업건수 ¹⁰⁾	84	115	4	14	217
구직,구인연계성공건수 ¹¹⁾	658	925	548	297	2,428
최저임금미만일자수(경과적일자리수)	127	40	36	29	232
1차성과급발생자수(1개월취창업유지자수)	450	591	225	213	1,479
2차성과급발생자수(6개월취창업유지)	110	242	63	56	471
3차성과급발생자수(탈수급 ¹²⁾)	44	138	0	0	182

3) 최저임금이상 취업(창업)한 사람수(재취업 포함)

4) 1개월 이상 취업유지자수/총취업자수

5) 최저임금이상 취(창)업한 사람 수 / ()는 창업자수

6) 취업자수 누계

7) 매월말 기준 현재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자

8) 1개월 미만/이상 근무후 퇴직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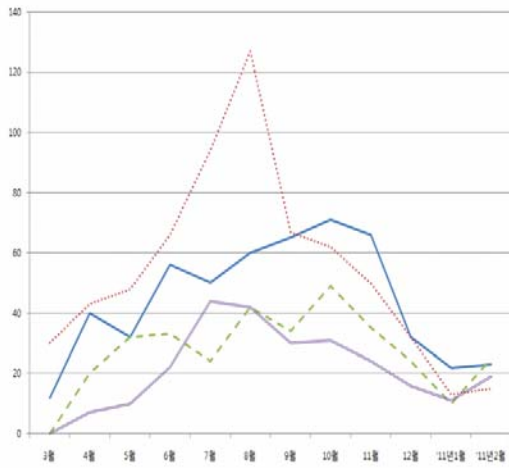
9) 퇴직후 14일 이내 재취업

10) 퇴직후 14일 경과후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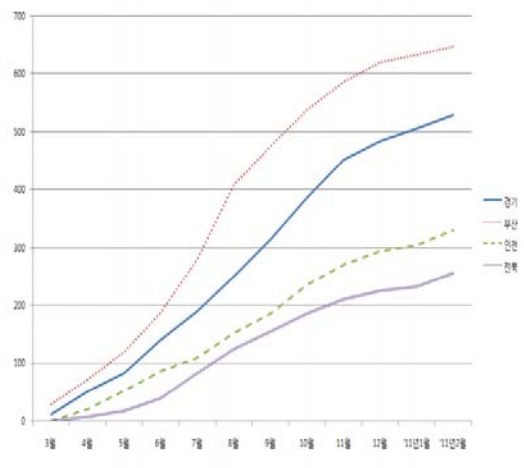
11) 구직·구인연계 성공건수(이직건수, 재취업 건수 포함)

12) 지침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가족수 등을 고려한 예상수치로 지자체 확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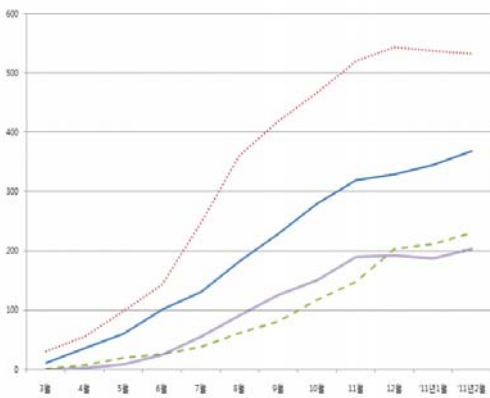
<그림 1-1> 지역별 자활시범사업 성과 월별 변화 추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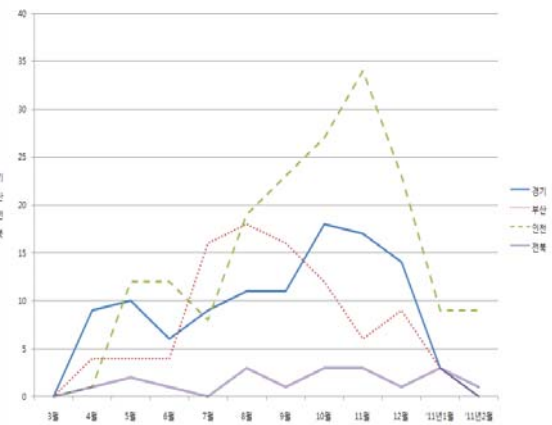
<그림1. 월별 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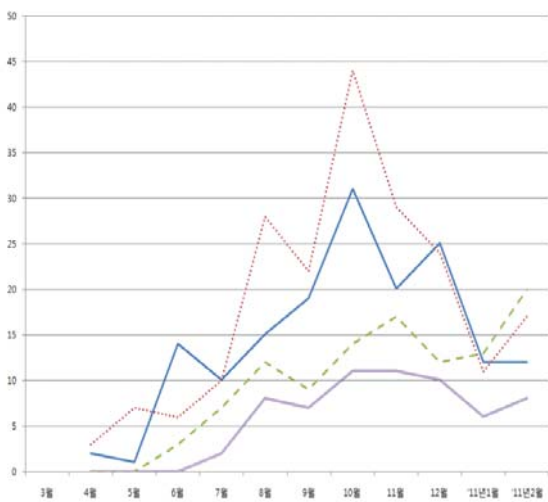
<그림2. 취업자수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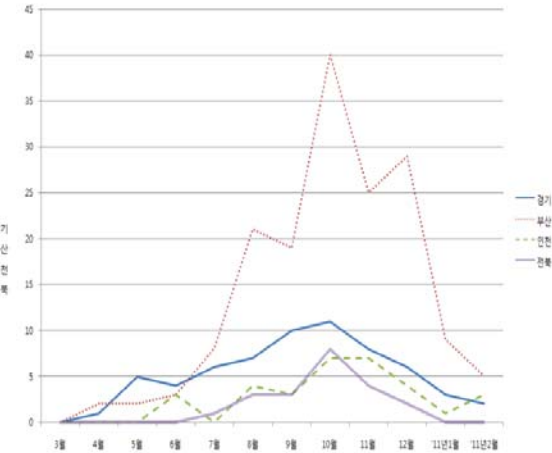
<그림3. 월별 취업유지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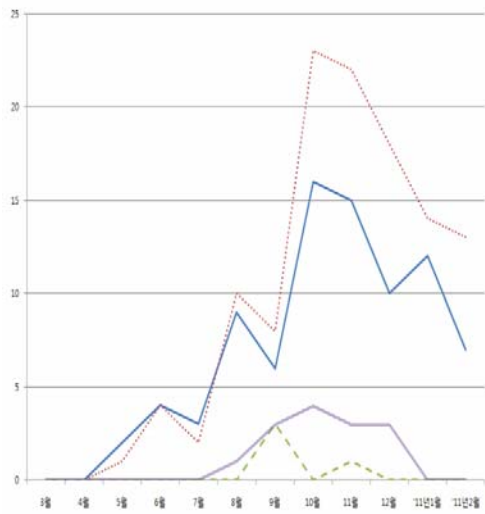
<그림4. 취업 후 1개월 미만 유지 후 퇴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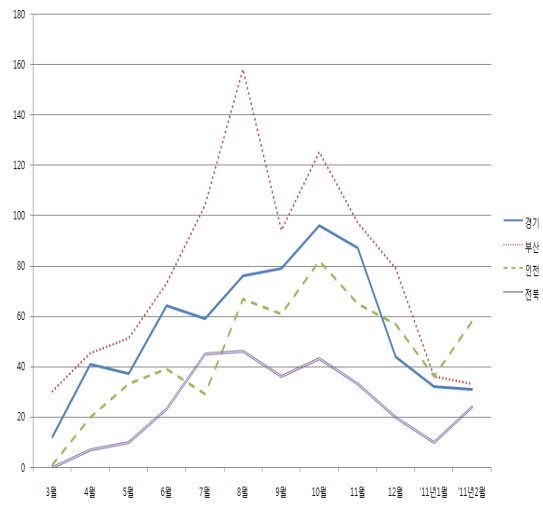
<그림5. 취업 후 1개월 이상 유지 후 퇴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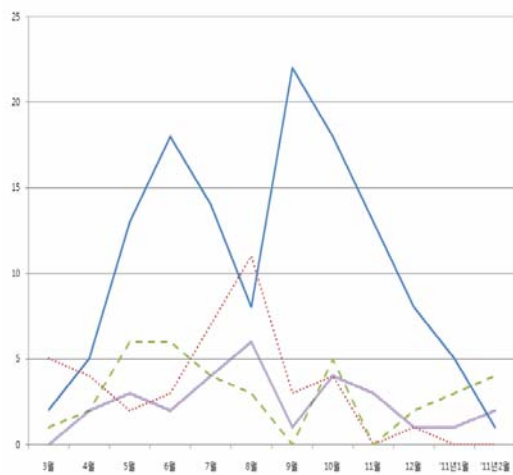
<그림6. 월별 이직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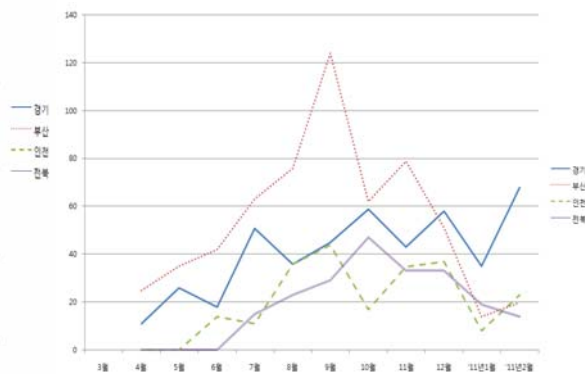
<그림7. 월별 재취업자수>



<그림8. 월별 구인구직 연계성공수>



<그림9. 월별 최저임금 미만 취업자수>



<그림10. 1차 성과급 발생자수>

- 서비스 내용과 관련하여 대상자 상담(27,745), 사회서비스 제공건수(44,575), 교육 훈련(15,172),일자리 지원건수(22,743) 진행됨으로써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5 배정도의 서비스 지원 실적 차이가 보임

- 경기의 주요서비스 지원 실적

서비스명	영역		'10년 대상자 누계	비고
기초상담	대상자상담		7,963	
	사회서비스		17,200	
	교육훈련		7,121	
	일자리지원		8,236	
근로여건조성	제공건수		807	
	제공시간		3,460	
	연계기관수		153	
근로능력강화	제공건수		1,307	
	제공시간		38,035	
	연계기관수		137	
일자리지원	취업지원	정보제공	2,387	
		서류전형	561	
		면접전형	1,039	
	창업지원	진단	3	
		아이템	0	
		준비	0	
		실행	0	
		오픈	0	
	사후관리	상담	제공건수	12,863
사회서비스		제공건수	122	
		제공시간	126	
		연계기관수	21	
교육훈련		제공건수	2	
		제공시간	24	
		연계기관수	2	

- 부산의 주요서비스 지원실적

서비스명	영역		'10년 대상자 누계	비고
기초상담	대상자상담		2,931	
	사회서비스		7,498	
	교육훈련		2,521	
	일자리지원		5,638	
근로여건조성	제공건수		3,349	
	제공시간		15,120	
	연계기관수		163	
근로능력강화	제공건수		2,136	
	제공시간		32,325	
	연계기관수		153	
일자리지원	취업지원	정보제공	2,098	
		서류전형	1,314	
		면접전형	1,348	
	창업지원	진단	0	
		아이템	0	
		준비	1	
		실행	1	
		오픈	3	
사후관리	상담	제공건수	10,204	
		제공시간	245	
	사회서비스	제공시간	361	
		연계기관수	17	
	교육훈련	제공건수	6	
		제공시간	54	
연계기관수		4		

- 인천의 주요서비스 지원실적

서비스명	영역		'10년 대상자 누계	비고	
기초상담	대상자상담		13,694		
	사회서비스		13,482		
	교육훈련		2,361		
	일자리지원		5,128		
근로여건조성	제공건수		271		
	제공시간		7,832		
	연계기관수		45		
근로능력강화	제공건수		967		
	제공시간		36,256		
	연계기관수		82		
일자리지원	취업지원	정보제공	2,494		
		서류전형	1,085		
		면접전형	974		
	창업지원	진단	1		
		아이템	0		
		준비	3		
		실행	3		
		오픈	3		
사후관리	상담	제공건수	6,809		
		사회서비스	제공건수	6	
			제공시간	67	
	연계기관수		6		
	교육훈련	제공건수	1		
		제공시간	13		
		연계기관수	1		

- 전북의 주요서비스 지원실적

서비스명	영역		'10년 대상자 누계	비고
기초상담	대상자상담		3,157	
	사회서비스		6,395	
	교육훈련		3,169	
	일자리지원		3,741	
근로여건조성	제공건수		2,427	
	제공시간		5,481	
	연계기관수		126	
근로능력강화	제공건수		2,884	
	제공시간		19,852	
	연계기관수		99	
일자리지원	취업지원	정보제공	1,014	
		서류전형	728	
		면접전형	714	
	창업지원	진단	1	
		아이템	2	
		준비	1	
		실행	3	
		오픈	3	
사후관리	상담	제공건수	4,411	
	사회서비스	제공건수	22	
		제공시간	71	
		연계기관수	5	
	교육훈련	제공건수	47	
		제공시간	51	
		연계기관수	2	

□ 성과급 지급 현황

<표 1-4> 각 성과급 지급 현황 월별 분포

○ 1차성과급 지급현황

구분	경기		부산		인천		전북		계	
	신청	지급	신청	지급	신청	지급	신청	지급	신청	지급
'10.4월	0	0	3	3	0	0	0	0	3	3
'10.5월	8	7	19	18	0	0	0	0	27	25
'10.6월	15	14	35	33	15	14	0	0	65	61
'10.7월	22	20	49	47	13	11	17	15	101	93
'10.8월	45	38	74	69	40	36	24	23	183	166
'10.9월	39	34	93	90	45	43	33	29	210	196
'10.10월	63	54	101	93	20	18	47	44	231	209
'10.11월	85	51	69	66	36	35	33	30	223	182
'10.12월	36	27	60	56	37	37	33	30	166	150
'11.1월	37	31	32	31	27	27	19	19	115	108
'11.2월	75	70	24	22	5	5	14	11	118	108
계	425	346	559	528	238	226	220	201	1,442	1,301

○ 2차성과급 지급현황

구분	경기		부산		인천		전북		계	
	신청	지급	신청	지급	신청	지급	신청	지급	신청	지급
'10.9월	0	0	2	2	0	0	0	0	2	2
'10.10월	5	5	13	13	0	0	0	0	18	18
'10.11월	11	11	34	34	21	21	6	6	72	72
'10.12월	9	9	42	39	9	9	2	2	62	59
'11.1월	16	16	43	43	16	16	14	14	89	89
'11.2월	28	28	59	59	17	16	36	36	140	139
계	69	69	193	190	63	62	58	58	383	379

※ 향후 추가 서류 확인후 성과급의 일부 추가 지급 될 예정임('11.2월말 서류 기준으로 확인)

4) 월별 주요 모니터링 세부 진행 내용 및 소견

□ 4월

○ 신규수행지역 인천, 전북 사업진행 점검: '10.4.8/4.20

- 인천지역 수행기관: 시범사업 진행 및 운용 관련 점검(사무실, 사례관리자 채용등), 사업 실행계획의 진행정도, 지자체와의 관계 진행내용 결과 및 대상자 관리 및 향후 계획등 확인
- 전북지역 수행기관: 익산, 전주센터의 사업협의 진행 방식 및 효율화 여부, 사업대상자 사례관리, 사례관리자 채용적정성, 사업진행 일정 등 확인

▶ 주요 확인 및 요청 사항:

- ◆ 전북지역의 경우 컨소시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업무협력 방안 조기정착화 필요
 - 익산센터, 전주센터 정기적 사업 실무 회의체 마련 및 지속화 필요
- ◆ 인천지역 수행기관 사업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 독려 강화
 - 대상자 확정과 사업준비 진행에 따른 불일치로 서비스 지연, 대상자 탈락 가능성 차단을 위한 적극적 사업 진행 속도 향상 요청

□ 5월

○ 3월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 진행: '10.5.1~5.15

- (경기) 안산, 부천, 수원, 파주, 안양, 평택, 고양, 의정부등 취업성공자 전담 사례관리자 및 성과급신청대상자 면담 진행
- (부산) 부산광역시활센터 취업성공자 전담 사례관리자 및 성과급신청대상자 면담, 해운대구등 취업처 현장방문

▶ 주요 확인 및 요청 사항:

- ◆ 2009년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등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2010년 대상자 배정에 의한 전년도 대상자의 사례관리가 다소 소홀하거나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경기, 부산)
- ◆ 2010년 대상자 모집에 대한 지자체·수행기관지원 강화 필요
 - 대상자 모집에 대한 수행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연계가 강화될 필요
 - ※ 지자체별로 사업참여자 모집에 대한 의지나 협력방식등의 차이가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사업독려 필요

□ 6월

○ 4,5월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 진행: '10.6.1~6.15

- (경기)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안산, 시흥, 군포, 양주, 평택, 포천 등 취업성공자 전담 사례관리자 및 성과급신청대상자 면담 진행
- (부산) 취업성공자 전담 사례관리자 및 성과급신청대상자 면담, 진구등 취업처 현장방문

▣ 주요 확인 및 요청 사항:

◆ '10년도 참여자 성과급 관련 세부기준 확인 필요

- 행정절차 지연등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성과급 대상자의 배정일과 취업일이 동일하거나 인접하는 일부 건수 처리방안 마련 검토

◆ 모니터링시 기퇴직 상태이거나 이직, 재취업한 경우 제출서류 확인등 모니터링 진행에 어려움, 성과급 신청시기의 적절성등 고려 필요

- 성과급 신청에 대한 확인시기와 시점을 분명히 하고 제출 요청, 물리적 시간의 지체에 따른 모니터링의 어려움 발생 가능성

□ 7월

○ 6월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 진행: '10.7.1~7.15

- 1,2차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09년도 및 '10년도 참여자)
- (인천) 1차 취업성과급신청(15명),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 방문 통한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취업후 사후관리 내용등 확인 및 성과급신청대상자 면담
- (부산) 부산광역자활센터 취업성공자 전담 사례관리자 면담 통한 사례관리내용 확인 및 창업현장방문 등 성과급신청대상자 면담

○ 성과급 지급

- '10년도 참여대상자 성과급 세부기준(배정일 및 ISP 수립시점, 취업일등 고려)협의로 인해 성과급 지급 보류, 8월중 지급예정임(부산의 경우 요청에 의해 4,5월 신청분 성과급 지급('09년도 참여자에 한함).

▣ 주요 확인 및 요청 사항:

- ◆ 기존 수행기관과 신규 수행기관간 사업성과 편차 확대 진행
 - 신규 수행기관 사례관리자에 대한 교육강화 및 기존 수행기관으로부터의 구인처 발굴 노하우 등 상호 Best Practice 가 공유될 필요
- ◆ 일부지역의 경우 특정 분야 위주로 취업 집중→향후 다양한 신규 구인처 발굴 노력 필요
- ◆ 초기 빠른 취업 성공자에 대한 사후 사례관리 강화 필요
 - 초기 취업에 성공자인 경우 보다 직장내 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화되고 특화된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전화상담 위주에서 탈피된 차별화된 사후 사례관리 필요

□ 8월

○ 7월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 진행: '10.8.1~8.15

- 1,2차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09년도 및 '10년도 참여자)
- (부산) 부산광역시활성센터 취업성공자 전담 사례관리자 면담 통한 사례관리내용 확인 및 창업현장방문 등 성과급신청대상자 면담
- (인천)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 방문 통한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취업후 사후관리 내용등 확인 및 취업처 방문등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
- (전북) 제1차 성과급신청(17명), 전북희망리본일자리지원센터(전주, 익산) 방문 통한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취업후 사후관리 내용등 확인 및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

▣ 주요 확인 및 요청 사항:

- ◆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취업에 대한 보다 강화된 취업처 기준 마련 검토 필요
 - 용역회사(경비등)나 아르바이트성 취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처 기준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 필요
- ◆ 성과급 기신청 관련 신규 수행기관의 이해도 제고 및 교육 필요
 - 신규 수행기관의 경우 증빙서류(급여명세서 등) 관련 참여자등으로부터 협조를 얻는데 어려움 호소. 증빙서류 확인 내용 및 프로세스의 명확화를 통한 업무부담의 경감 필요
 - 성과급 시스템(전산입력)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

□ 9월

○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 진행: '10.9.1~9.15

- 8월 성과급신청대상자(1·2차) 모니터링('09년도 및 '10년도 참여자)
- (경기) 일자리원스탑중앙센터 및 거점센터 방문, 취업성공자 전담 사례관리자 통한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내용 확인,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 진행
- (부산) 부산광역자활센터 취업성공자 전담 사례관리자 면담 통한 사례관리내용 확인 및 창업현장방문 등 성과급신청대상자 면담
- (인천)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 방문 통한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취업후 사후관리 내용등 확인 및 취업처 방문(송도에스이)등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
- (전북) 전북희망리본일자리지원센터(전주, 익산 센터) 방문하여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취업후 사후관리 내용 확인

▣ 주요 확인 및 요청 사항:

- ◆ 수행기관의 참여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니즈 파악 및 연계에 대한 중요성 제고, 참여자 대상 적극 홍보 필요
 - 취업지원외 사회서비스 연계에 대한 수행기관 홍보 및 참여자 인식 부족, 이에 대한 중요성 제고 및 참여자 대상 안내 강화 필요
- ◆ '10년 시범사업 사업성과 확대에 의한 원활한 모니터링 진행 어려움
 - 성과급신청대상자가 1차년도 대상자와 2차년도 대상자가 함께 진행, '10년 사업 참여자의 취업이 본격화되고 점차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 모니터링 방안 고민 필요
 - 조세연과의 모니터링 용역으로 대체할 내용과 복지부, 지자체, 중앙자활이 함께하는 사업점검 모니터링의 체계적 진행 검토 필요

□ 10월

○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 진행: '10.10.1~10.15

- 9월 성과급신청대상자(1·2차) 모니터링('09년도 및 '10년도 참여자)
- (경기) 일자리원스탑수원센터 방문, 취업성공자 전담 사례관리자 통한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내용 확인,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 진행
- (부산) 부산광역자활센터 취업성공자 전담사례관리자 면담 통한 사례관리 내용 확인 및 창업현장 방문등 성과급대상자 모니터링
- (인천)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 방문 통한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취업후 사후관리 내용등 확인 및 성과급신청대상자 취업처 모니터링

- (전북) 전북희망리본일자리지원센터(전주, 익산 센터) 방문하여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취업후 사후관리 내용 확인

▶ 주요 확인 및 요청 사항:

◆ 사례관리 내용의 적절성 판단기준 및 이에 대한 디센티브 방안 마련 필요

- 대상자 맞춤형 취업처 정보제공, 사회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적절성 판단기준 필요
- 대상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취업처로 연계받거나 본인이(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내용을 알지 못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대상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례관리자와 대상자간 라포형성이 원활하지 못하여 해당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 집중화·차별화된 방식의 모니터링 진행→모니터링요원의 일반적 모니터링과 별도로 모니터링시 지역, 연령, 급여수준, 보장구분, 사례관리자 등 중점사안별 집중 모니터링 진행 방식 전환

- 성과급신청대상자의 중점사안을 판단하여 지역별(ex. 전주/익산 구분), 연령별(ex. 20대/50대 이상 등 특정 연령대), 보장구분별(ex. 수급자/차상위), 사례관리자별(ex. 특정 사례관리자)로 진행함으로써 각 중점사안별 대상자의 의견 및 서비스니즈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11월

○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 진행: '10.11.1~11.15

- 10월 성과급신청대상자(1·2차) 모니터링('09년도 및 '10년도 참여자)
- (경기) 일자리원스탑중앙센터 및 안양군포센터 방문, 취업성공자 전담 사례관리자 통한 사례관리 내용 및 사후관리 진행 확인, 성과급신청대상자 및 창업현장(안양) 모니터링 진행
- (부산) 부산광역시활성센터 취업성공자 전담사례관리자 면담 통한 사례관리 내용 확인, 성과급신청대상자의 창업 및 취업처 현장방문 통한 모니터링 진행
- (인천)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 방문 통한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취업후 사후관리 내용등 확인 및 취업처 방문 통한 성과급대상자 모니터링
- (전북) 전북희망리본일자리지원센터(전주, 익산) 방문하여 사례관리자 면담 통한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취업후 사후관리 내용 확인 통한 성과급대상자 모니터링

▣ 주요 확인 및 요청 사항:

◆ 인터넷을 활용한 구인처 발굴 방식의 효율화 검토 필요

- 구인처 발굴시 인터넷 취업 정보 사이트 검색등 활용 → 쉽게 구인처를 발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보에 대한 정확도 취약
- 사례관리자의 취업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없이 인터넷에 올려진 단순 취업정보만으로 연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취업전 제공받은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수 있고 이에 따른 대상자의 불만 초래
- 한편, 취업사이트 활용이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제공으로 인해 서비스 만족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
- 사례관리자 개인의 역량에 의한 구인처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구인처 발굴 방식을 다양화하고 확인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

□ 12월

○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 진행: '10.12.1~12.15

- 경기, 부산, 인천, 전북 등 4개지역 11월 성과급신청대상자(1·2차) 모니터링(모두 '10년도 참여자)
- 현장모니터링 진행방식 :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취업성공자 전담사례관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례관리내용 및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사후관리 내용 확인, 취업처 및 창업처 방문 통한 성과급 대상자 현장 모니터링
- ※ 현장모니터링 진행 외 1차성과급대상자는 전화 및 자택, 취업처 근처 방문통해 면담, 2차성과급대상자는 취업처 전화 및 방문 통해 모니터링 진행

○ 수행기관 현장간담회 진행

- 일시 및 장소 :
 - 2010.12.16(목) 15:00~, 전북(전북희망리본일자리지원센터_익산센터),
 - 2010.12.20(월) 15:00~, 경기(일자리원스탑중앙센터)
 - 2010.12.22(수) 15:00~, 부산(자활인력지원본부)
- 참석자 : 총괄사업담당자, 사례관리자*, 조세연구원, 중앙자활센터 등 관계자
- 진행내용 :
 - 사업전반에 대한 간략 보고(성과와 진행사항)
 - 대상자 사례관리 진행 프로세스(사례관리자 면담 진행)
 - 상호 질의&응답
 - 향후 건의 사항(지침 및 제도개선 사항, 평가 및 모니터링 사항)

▣ 주요 확인 및 요청 사항:

◆ 취업처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취업연계 이후 취업처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및 정보전달 미흡 → 희망리본프로젝트 홍보 강화등 정보전달 필요
- 취업처관계자가 희망리본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 정보나 사례관리자와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대상자의 취업유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임
 - ※ 모니터링시 취업처관계자가 희망리본프로젝트 관련 기본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관심도 및 모니터링에 대한 호의도가 높았음
- 대상자가 업체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우 등 대상자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 방식보다는 (수행기관의) 희망리본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강화등을 통해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취업처 관계자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것이 주요할 것으로 보임

□ '11. 1월

○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 진행: '11.1.1~1.15

- 경기, 부산, 인천, 전북 등 4개지역 12월 성과급신청대상자(1:2차) 모니터링(모두 '10년도 참여자)
- 현장모니터링 진행방식 :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취업성공자 전담사례관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례관리내용 및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사후관리 내용 확인, 취업처 및 창업처 방문 통한 성과급 대상자 현장 모니터링
 - ※ 현장모니터링 진행 외 1차성과급대상자는 전화 및 자택, 취업처 근처 방문통해 면담, 2차성과급대상자는 취업처 전화 및 방문 통해 모니터링 진행

○ 2011년도 신규수행기관 지도점검

- 일시 및 장소 :
 - 2011.1.25(화) 14:00~, 광주(인지어스),
 - 2011.1.28(금) 13:00~, 강원(강원광역자활센터)
 - 2011.2.8(화) 14:00~, 대구(대구광역자활센터)
- 참석자 : 복지부, 중앙자활센터, 지자체담당자, 총괄사업담당자 등
- 진행내용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현황 점검
 - ※ 사무실 설비, 사례관리자 채용현황 및 교육계획, 참여자모집 현황 등 점검

▣ 주요 확인 및 요청 사항:

◆ ‘11년도 사업시작에 따른 ’10년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방안 필요

- ‘11년도 시범사업이 ’11.1월에 시작됨에 따라 ’10년도 사업기간과 중복→‘11년도 참여자 모집 협조 등 ’11년도 사업준비로 인해 ‘10년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어려움 발생 개연성 증가
- ‘11.2월말까지의 ‘10년 대상자 사례관리 철저 및 ’11.2월 사업기간 종료후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1차년도의 경우 사업종료 후 특히 미취업대상자 관리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음. 사업 참여 기간에 상관없이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 사례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부분에 대한 수행기관별 대응책등 확인 필요

□ ‘11. 2월

○ 성과급신청대상자 모니터링 진행: ‘11.2.1~2.15

- 경기, 부산, 인천, 전북 등 4개지역 1월 성과급신청대상자(1,2차) 모니터링(모두 ‘10년도 참여자)
- 현장모니터링 진행방식 :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취업성공자 전담사례관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례관리내용 및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사후관리 내용 확인, 취업처 및 창업처 방문 통한 성과급 대상자 현장 모니터링
- ※ 현장모니터링 진행 외 1차성과급대상자는 전화 및 자택, 취업처 근처 방문통해 면담, 2차성과급대상자는 취업처 전화 및 방문 통해 모니터링 진행

○ 2011년 신규수행기관 대상 희망리본 업무지원시스템 교육

- 2011.2.10(목) 광주(인지어스)
- 2011.2.15(화) 강원(강원광역자활센터)
- 2011.2.17(목) 대구(대구광역자활센터)

○ 1차 운영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1.2.11(금) 15:00~18:00, 중앙자활센터
- 참석자 : 보건복지부, 7개 지자체 및 수행기관(경기, 부산, 인천, 전북, 강원, 광주, 대구), 조세연구원, 중앙자활센터 등
- 진행내용
 - 희망리본프로젝트 제2차 시범사업 성과 연구용역 관련 협조요청(조세연)
 - 대상자 모집 및 성과급 지급기준 등 주요안건 공유
 - 사업 추진 관련 지자체 애로사항 청취 및 기타 관련내용 논의

등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고, 취업확인서에 단순히 해당 기업의 정보만 기재하여, 정확한 성과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 지시등을 통해 점차 취업확인의 노하우가 정착화되도록 진행됨.

- 기존지역 수행기관: 역시 우선 수행기관의 미비한 서류에 대한 보완등을 통해 진행하되, 취업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나 판단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방식으로 진행, 이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운영협의회가 진행될수 있도록 검토.
- 2010년 대상자와 2011년 대상자 모집과정에서의 모니터링 혼란 최소화: 2011년 대상자 모집과 사업시행기간을 1월1일로 당겨질 경우 이에 따른 대상자의 파킹 현상이나 기존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누락 차단과 더불어 신규사업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할 경우 일정하게 수행기관에게 대한 지도가 필요한 사항, 이에 대한 모니터링기관과 평가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초기 셋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진행, 추가로 사업이 확장되는 지역의 경우 필요하다면 모니터링기관에서 교육이나 사업의 준비과정에 대한 워크숍등을 조기에 진행하여 사업의 불필요한 소모현상을 최소화할 필요,
- 사업점검 모니터링 : 현재 운영중인 운영협의회의 진행과 방식을 분리하여 이원화하는 방안 검토, 수행기관의 문제가 될수 있는 사안을 협의하는 협의회와 향후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협의회를 이중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우선적으로 확인되고 진행주체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 최소화 검토.
- 전산화 확인 모니터링: '11년에는 전산화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및 보완을 통해 실적보고도 전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특히 '10년도에 사업진행 초기에 전산입력의 착오나 대상자 교체나 중도탈락등의 조치로 인한 전산화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설계를 보완해서 수행기관의 편의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 검토.

□ 향후 중점 고려 사항

- 초기 사업성과급 비용에 대한 분석을 보다 면밀히 하기 위해 2차년도 수행을 진행한 경기와 부산, 인천 전북지역에 대한 원가 분석을 통해 재조정 검토
- 지역의 확장과 대상자의 확대로 인한 기존수행기관과 신규수행기관의 편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매뉴얼 작업을 완성시킬 필요, 다만, 기존의 수행기관의 장

점이 줄어들지 않도록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인정하고, 영리, 비영리 구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의 취지나 목적, 방향성에 맞는 사례관리 매뉴얼화 완성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품질관리 진행

- 기존자활사업과의 대상자 분리여부와 유사사업인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델화 조기 마련, 특히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부분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복지요구가 많은 대상자를 위주로 하는 취업지원사례관리라는 프로그램의 특징을 부각, 필요시 이를 특성화하는 프로세스화 방안도 마련하여 진행
- 향후 사업의 확장모델에 대한 검토시 자활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조기 결정을 통해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사업진행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점 도출, 특히 현재의 광역인프라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자활인프라로 고정화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수행기관을 단독으로 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자활수행기관에 취업지원서비스를 구분하여 역할을 나누고 그에 따른 비용도 나누는 협력모델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추가적으로 검토 필요, 또한 이러한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전면적인 수정 대안모델도 마련하여 현장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 하기 위한 추가적으로 2년정도의 시범사업을 연장하여 진행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사회서비스 연계 有·無
- ※ 사회서비스 연계 내용 및 특징

○ 참여자 취업 후 사후 관리:

- 사후 관리 방법: 【전화()/방문·면담()】
- 취업후 사례관리 횟수: ()회

- 회차별 조치사항

- 취업 확인 관련 별도 서류 비치 및 내용:

□ 모니터링 결과

실시자	년 월 일	확인자	년 월 일
	(인)		(인)

- 서비스 제공 내용:

취업유지 성과급 지급 시 관련 확인 사항:

○ 취업처 확인자: (인)

○ 대상자의 업무적응도:

- 업무 적응도:

⑤ ④ ③ ② ①

○ 취업처 담당자 만족도

- 취업처 대상자 만족도:

⑤ ④ ③ ② ①

○ 취업 유지기간: 월 일 ~ 월 일

○ 취업 유지기간 동안 특이사항:

모니터링 결과

실시자	년 월 일	확인자	년 월 일
	(인)		(인)

□ 창업 후 영업이익 : 월 만원

○ 매출액, 인건비, 기타비용(사회비용포함)

※ 확인서류 : 매출장부(), 카드매출전표(), 고객서비스명단() 등

□ 창업자 주요 요구서비스 내용 및 연계 유무:

□ 만족도

○ 지원서비스 만족도:

⑤ ④ ③ ② ①

○ 창업내역 만족도:

⑤ ④ ③ ② ①

□ 모니터링 결과:

실시자	년 월 일	확인자	년 월 일
	(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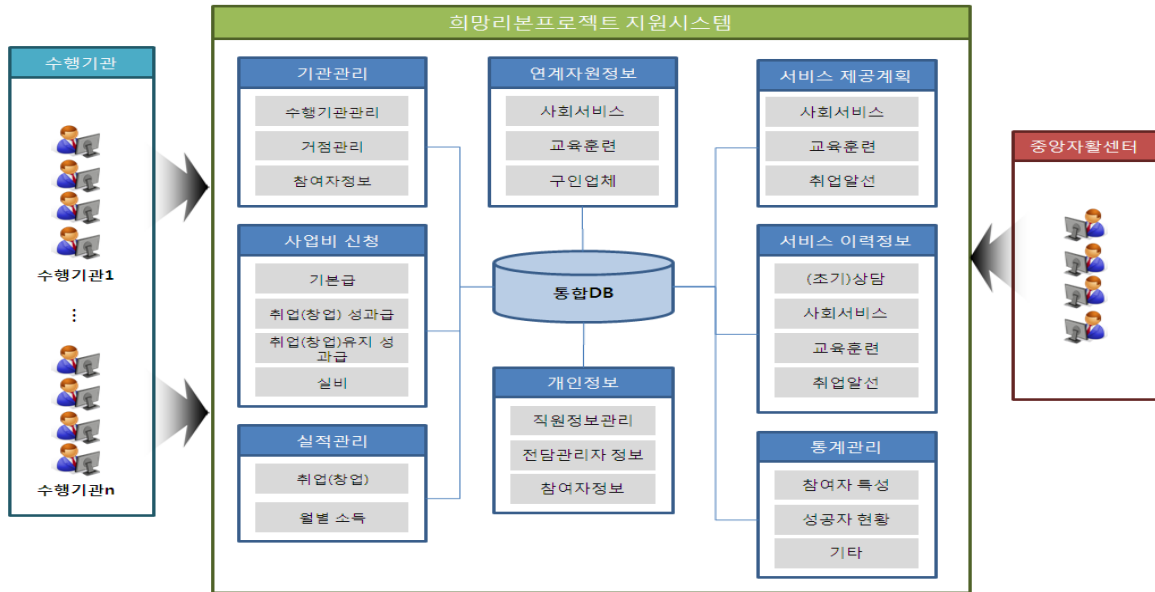
담당기관: () 사례 관리자: ()

창업 6개월 유지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업장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 (핸드폰)	
창업일시				창업유형	공동() 개인()
업종		업태		1차성과급 신청월	년 월
월매출액 (확인금액)	일자	매출액	지출액	수입 (본인인건비 포함)	비고 (※제출증빙서류: 간판장부사본 또는 세무서신고서류, 카드매출확 인서등)
	년 월				제출증빙서류 기재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비고 (지원서비스내용)	창업前 서비스내용	구체적 기술(있는 경우 관련서류 첨부)			
	창업後 서비스내용	구체적 기술(있는 경우 관련서류 첨부)			
창업유지현 장사진	가장 최근 사진으로 첨부(사진에 날짜표시)				

확인자(해당창업자) : (인)

담당자(사례관리자) : (인)

(붙임 3 희망리본 프로젝트 시스템 변화 개요도)



csf - [대상자별 초기상담 및 서비스계획 등록]

중앙자활센터

대상자별 초기상담 및 서비스계획 등록

사업년도: 2011 | 사업수행기관: | 거점: 전체 | 조회

전담관리자: | 대상자: |

초기상담관리 | 개인정보서비스계획

NO	거점	전담관리자	대상자	성별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	차수	등록일
133		권	이	여자	19-07-09	604-8		1	2011-02-25
134			김	여자	19-12-26	604-7		1	2011-02-15
135			김	여자	19-06-05	604-8		1	2011-02-28
136			김	여자	19-06-17	604-7		1	2011-02-01
137			김	여자	19-04-13	604-7		1	2011-02-28
138		권	남자	19-01-07	604-7			1	2011-02-04
139			남자	19-09-17	604-8			1	2011-03-05
140			남자	19-01-09	604-8			1	2011-02-15
141			남자	19-04-21	604-8			1	2011-02-28
142		권	남자	19-02-17	604-8			1	2011-02-15
143			여자	19-02-06	604-8			1	2011-02-25
144			남자	19-03-16	604-7			1	2011-02-01
145		김	남자	19-03-20	606-7			1	2011-02-23
146		권	여자	19-09-10	602-0			0	
147			남자	19-12-03				0	
148		김	남자	19-01-12	606-0			0	
149			남자	19-09-02	606-0			1	2011-02-18
150			남자	19-11-09	602-8			0	
151			여자	19-12-10	606-7			0	
152			남자	19-01-08	602-8			1	2011-03-02
153			여자	19-04-14	606-0			0	
154			여자	19-12-06				0	
155			여자	19-01-25	602-8			0	
156			여자	19-03-01	602-0			1	2011-01-26
157			남자	19-01-21				0	
158			남자	19-06-17	606-7			0	
159			남자	19-03-27	606-7			1	2011-01-21
160			남자	19-04-29	602-8			0	
161			여자	19-10-07	606-7			0	
162		변	여자	19-05-16	606-7			1	2011-01-28

• 개인별 서비스 계획(ISP) 작성을 위한 대상자 목록

cssf - [사업비요청]

시범사업 권한 사용자수정

사업비요청

사업년도 2011 사업비요청년월 2011 03 사업수행기관 거점 전체 마감일자 조회 요청

기본급+실배 취업(합업) 0 유지성과급(전체) 0 요청일자 2011-11

유지성과급(2개월) 0 유지성과급(3개월) 0 유지성과급(4개월) 0 유지성과급(5개월) 0 유지성과급(6개월) 0 반관급 0 특수급(소속) 0

기본급(1차)/실배 기본급(2차) 취업(합업)성과급 유지성과급(2개월) 유지성과급(3개월) 유지성과급(4개월) 유지성과급(5개월) 유지성과급(6개월) 특수급(소속) Excel

NO	거점	담당관리자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참여사작일	기본급(1차)	실배	지급여부	비고
1	강	김	김	19-12-10	2011-02-	00,000	00,000	지급요청	
2			유	19-02-03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3			이	19-12-02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4	강	김	김	19-10-16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5			박	19-10-20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6			정	19-09-20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7			정	19-01-01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8	강	김	김	19-10-12	2011-02-	00,000	00,000	지급요청	
9			김	19-04-05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10			김	19-12-14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11			김	19-02-18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12			김	19-05-09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13			김	19-11-05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14			김	19-11-05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15			김	19-06-09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16			김	19-11-09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17			김	19-08-16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18			김	19-07-19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19			김	19-06-17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20			김	19-03-16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21	김	김	김	19-05-16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22			김	19-03-14	2011-01-	00,000	00,000	지급요청	
합계(기본급+실배)						기본급(1차)	실배		
						0,000,000	0,000,000		

1. 사업수행기관의 대상자등록을 하셔야 기본급을 등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2011 지침변경에 따라 기본급 1회⇒2회, 유지성과급 1회⇒5회 변경

cssf - [월별 실적보고 총괄]

시범사업 권한 사용자수정

월별 실적보고 총괄

사업년도 2011 년월 2011 03 사업수행기관 거점 전체 조회

* [활동계획및실적] > [취업] 혹은 [합업] 업에 입력한 데이터의 인원수 Excel

분류	구분	항목	합계	
미취-성업자			95	
취-합업			220	
취-합업	취업	취업인원	203	
		유지자수	17	
	합업	취업인원	0	
		유지자수	0	
	합업성공(희망)	취업	취업자수	213
			취업인원	0
		합업	급여상방자수	197
			유지자수	16
			취업인원	0
			급여상방자수	0
결과적일자리	취업	유지자수	7	
		취업인원	0	
	합업	급여상방자수	6	
		유지자수	1	
합업성공 유지	취업	취업인원	0	
		급여상방자수	0	
		유지자수	0	
		풀업자수	0	
		1개월	51	
		2개월	5	
		3개월	0	
4개월	0			
5개월	0			
6개월	0			
1개월	0			

• 월별실적보고 - 총괄

주제발표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성과분석

2011년 3월

▶▶▶ 송헌재 · 전병힐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I. 도입	249
II. 시범사업 참여자의 특성	253
1.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의 특성	253
가.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 현황	253
나.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 현황	253
2. 취업난이도 조정 점수	256
가. 새로운 근로능력 평가 지표 도입 필요성	256
나. 근로능력 표준점수	256
다. 근로능력 순위점수	257
3.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 집단 비교 분석	259
가. 2차년도 시범사업 지역별 참여자 현황	259
나. 2차년도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	262
III.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행태	268
1. 서비스 제공 결정요인	268
가. 분석 대상	268
나. 서비스 제공 실태	268
다. 서비스 제공 결정요인 분석	270
라. 지역별 서비스 제공 결정요인 비교 분석	272
IV. 시범사업의 성과	278
1.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지표 달성 요인	278
가.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 (최종)	278
나. 2차년도 시범사업 성과 (잠정)	292
2. 시범사업의 효과	308
가. 성과평가 자료	308
나. 취창업률	310
다. 재정적 효과	320
V. 결론	337

표목차

<표 II-1> 시범사업 참여자 기초 통계량	254
<표 II-2> 2차년도 사업 참여자 지역별 기초 통계량	260
<표 II-3> 지역별·연도별 근로능력 표준점수	263
<표 II-4> 2차년도 사업 지역별 근로능력 표준점수	264
<표 II-5> 지역별 근로능력 순위점수	265
<표 II-6> 2차년도 사업 지역별 근로능력 순위점수	266
<표 III-1> 서비스 제공 비율	269
<표 III-2> 지역별 서비스 제공 비율	269
<표 III-3> 서비스 제공 결정요인 프로빗 분석	271
<표 III-4> 면담횟수 상위 결정요인 지역별 차이 분석	273
<표 III-5> 취업면접서비스 제공 결정요인 지역별 차이 분석	274
<표 III-6>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결정 요인 지역별 차이 분석	275
<표 III-7> 사회서비스 제공 결정 요인 지역별 차이 분석	276
<표 IV-1> 1차년도 성과급 지급 실적	279
<표 IV-2> 1차년도 성과급 실적 달성률 (조건부)	280
<표 IV-3> 취업 및 취업지속 달성 요인 분석	284
<표 IV-4> 3차성과급 및 탈수급	286
<표 IV-5> 주요 서비스와 1차·3차성과 요건 달성 간의 상관계수	289
<표 IV-6> 취창업 및 탈수급 요인 분석 (서비스 고려)	291
<표 IV-7> 취창업률	293
<표 IV-8> 수급유형별 취창업률	295
<표 IV-9> 수급유형별 취창업률	296
<표 IV-10> 월급여 분포	296
<표 IV-11> 직종분포	297
<표 IV-12> 4대보험 가입률	297

<표 IV-13> 취업 결정 요인 프로빗 분석	300
<표 IV-14> 최저임금 30일 이상 취업 달성 조건부 180일 이상 취업 결정 분석	303
<표 IV-15> 2차년도 최종 실적 (진도비 방식)	305
<표 IV-16> 취업지속기간 생존분석	306
<표 IV-17> 2차년도 최종 실적 (생존분석 방식)	307
<표 IV-1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취창업률	311
<표 IV-19> 2010년 사업별 참여자 기초 통계량	313
<표 IV-20> 2010년 사업별 참여자 근로능력 순위점수	315
<표 IV-21> 2010년 사업별 취창업률 (2011년 1월 31일 현재)	316
<표 IV-22> 사업별 취창업률 프로빗 분석 결과 (최저임금, 취창업 30일 이상)	319
<표 IV-23> 기존 연구의 주요 가정들	322
<표 IV-24> 취업유지율 추정결과	323
<표 IV-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가구원 수 비중, 현금급여기준, 소득인정액, 급여액	325
<표 IV-26> 1차년도 시범사업 소요 비용	326
<표 IV-27> 지역자활센터 현재 모델 원가계산 결과	327
<표 IV-28> 수급자 급여 감소분	328
<표 IV-29>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급여 감소분 기대값	335

그림목차

[그림 II-1] 연도별 사업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	255
[그림 II-2] 연도별 참여자들의 자격증 수 분포 비율	255
[그림 II-3] 2차년도 사업 지역별 참여자 연령 분포	261
[그림 II-4] 2차년도 사업 지역별 참여자 교육수준 분포	261
[그림 IV-1] 순위점수별 성과급 달성 확률	282
[그림 IV-2] 순위점수별 조건부 성과급 달성 확률	283
[그림 IV-3] 시범사업 참가자 취업률	292
[그림 IV-4] 취업지속 기간	294
[그림 IV-5] 근로능력 순위점수에 따른 최저임금 30일 이상 취업확률	301
[그림 IV-6] 근로능력 순위점수에 따른 최저임금 180일 이상 취업확률	302
[그림 IV-7] 2010년 사업별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	314
[그림 IV-8] 2010년 사업별 참여자들의 교육수준 분포	314
[그림 IV-9] 2010년 근로능력 순위점수에 따른 최저임금	317
[그림 IV-10] 근로능력 순위점수에 따른 최저임금, 30일 지속 요건을 만족하는 취업확률 (사업별, 지역별)	318
[그림 IV-11] 재정절감효과 계산 모델	320

I. 도 입

- 기존의 자활사업이 취약계층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실제로 취창업하고, 이를 통해 가구소득 증대 혹은 탈수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흡족할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옴
 - 2009년 자활사업 취창업률은 17%, 탈수급률은 7.7%에 그침

-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빈곤층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자활사업의 낮은 성과가 더욱 부각됨에 따라 2009년부터 취창업과 탈수급을 직접적인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이들 성과지표에 부합하는 유인체계를 계약구조에 반영하여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취창업과 탈수급 성과를 제고하게끔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2009년 부산과 경기 2개 지역 2,000명의 자활사업 대상자들로 실시된 1차년도 시범사업은 최종적으로 취업률 31.8%(635명), 탈수급 및 차차상위 진입한 비율 8.8% (175명)이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이 수치는 기존 자활사업에 비해 개선된 실적임
 - 취업률은 1차성과급 요건, 즉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를 30일 이상 유지한다는 요건을 만족하는 취창업만을 대상으로 산정되었기에 실제 취업률은 이보다 높음

- 2차년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사업지역 외에 새롭게 인천과 전북을 사업지역으로 선정하고, 기존 사업규모에 1,200명을 추가한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1년 2월말 현재까지 취업률 48.6%라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48.6%의 취업률은 1차년도 시범사업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개선된 수치이고, 현재 추세에 따르면 취업유지 및 탈수급 성과도 1차년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성과 달성이란 기준에서 성과관리형시범사업이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형시범사업이 정착되기 위해 점검하고 개선되어야 사항은 여전히 존재함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적절한 유인체계 설계를 통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적절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요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업시행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전략적 행동 가능성이 내재해 있음
 - 취업률 혹은 일자리 개수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과관리형시범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음
 - 시범사업을 통해 제고된 취창업률이 실제로 가구소득 증가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탈수급률을 상승시켜, 기존 자활사업에 비해 고비용 구조인 시범사업의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지는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음

-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에서는 성과달성에 유리한 대상자들을 위주로 사업대상자를 모집하는 크리밍(creaming) 문제와 서비스를 집중시키는 파킹(parking) 문제가 존재하나, 지자체에서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현재 시범사업방식에서 전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나, 사업자가 대상자들에 어떠한 식으로 서비스를 분배하는지는 주요한 점검 대상임

-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편중되어 있고, 안정적인 고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하였음
 - 2차년도 시범사업에서 얻어진 일자리는 1차년도 시범사업과 비교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더 좋아진 결과를 가져왔으나, 추가적인 개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음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 사업의 순수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주어진 자료의 한계로 인해 기존 자활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잠

정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그쳤으며, 기존 연구의 재정절감 모형에 1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진 잠정적 결과를 이용해 대략적인 수준에서 재정에 대한 효과를 도출하였음

- 시범사업의 순수한 효과는 적절하게 설계된 실험 상황, 혹은 준실험적 상황에서 도출가능하나 시범사업 참여자 집단과 비교적 유사하다고 믿어지는 대상자들의 취창업 및 탈수급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였음
- 이런 제약을 인식하고 기존 자활사업, 특히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의 주요 성과와 단순 비교하는 방식을 차용하였으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혼동요인이 통제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년도 시범사업 DB를 이용하여 상기한 3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1차년도 시범사업 최종적 성과와 2011년 2월말 현재 2차년도 시범사업의 잠정적 성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 기본적인 분석은 참여자 집단, 서비스, 성과지표 3가지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 이들 분석대상에서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 이들 요인과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다시 말해, 다음이 분석 대상이 됨
 - 사업참여자들의 지역적 혹은 1차년도 v.s. 2차년도 간의 이질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패턴의 차이를 통해 파킹 여부 등을 점검하고
 - 주요 성과에서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이 차이가 참여자의 이질성, 서비스 이질성, 다른 요인 중 어느 것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보려함

□ 지차체를 통해 수집한 2009년 시범사업, 2009년과 2010년 시장진입형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의 취창업 상태 및 수급상태 정보를 시범사업 DB 자료와 결합하여 성과관리형 시범사업의 순수한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음

- 원칙적으로 이들 대상자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하였으나 조사실패로 인한 무응답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응답편의가 존재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시범사업의 재정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첫째로 1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취창업 등 주요 성과달성에 따라 실제 회계적으로 감소한 급여분을 시산하였고, 둘째로 일정한 가정 아래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자 조사자료와 1차년도 시범사업 DB로부터 모수를 추출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방식을 통해 두 사업 업 참여시 수급자가 향후 받게 되는 각종 급여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추정치의 범위를 제시하였음
- 본 원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2장에서는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 간 참여자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점검할 것임
 - 3장에서는 시범사업 사업체가 참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태에 대해 분석할 것임
 - 4장에서는 2차에 걸친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취창업 여부와 탈수급 등 주요 성과지표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고, 다른 유형의 사업 참여자에게서 동일한 시기에 관측되는 취창업률 및 탈수급률과의 비교를 통해 시범사업이 가져온 효과를 분석하려 함
 - 5장은 요약 및 결론임

Ⅱ. 시범사업 참여자의 특성

1.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의 특성

가.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 현황

-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에는 부산, 경기, 인천, 전북 지역에서 모두 3,261명이 참여하였음
 - 부산과 경기는 1차년도 시범사업에 이어 새로운 참여자들(부산 1,045명, 경기 1,010명)을 대상으로 2차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음
 - 인천과 전북은 2차년도 시범사업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으로 각각 603명과 601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음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사업 특성에 비추어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특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볼 수 있음

나.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 현황

- <표 II-1>은 2차년도 자활시범사업 참여자들 가운데 교육수준 관련 변수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2명을 제외한 총 3,259명의 인적 특성을 1차년도 사업참여자(2,000명)와 비교하여 요약하였음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참여자들 중에 여성 참여자들의 비중은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2차년도 사업 참여자들의 연령이 평균 2.4세 어린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젊은 층의 비율이 상승하였음
 - 연령에 반하여 질병유무로 판단한 2차년도 참여자들의 건강 수준은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비율이 1차년도 참여자들에 비하여 7.3%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건강수준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2차년도 참여자들의 교육수준에서는 전반적으로 향상된 모습이 관찰됨
 - 고졸 미만 참여자들의 비율이 33%에 머물러 1차년도에 비하여 10% 가깝게 하락한 반면 대졸 이상 학력소유자의 비율은 5% 이상 상승하여 고학력자의 참여비율이 14% 수준을 보였음
 - 참여자들 학력수준의 향상은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평가과제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임
 - 고학력 참여자의 증가는 1차년도 사업의 성과가 이들을 새롭게 참여하도록 유도할 만큼 좋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음
 - 그러나 1차년도 사업수행경험이 있는 수행기관들이 취업이라는 성과를 내기가 비교적 용이한 고학력자들의 참여를 선호한 결과일 수도 있음
- 자격증 소유자의 비율도 15% 가까운 높아져 교육 수준의 향상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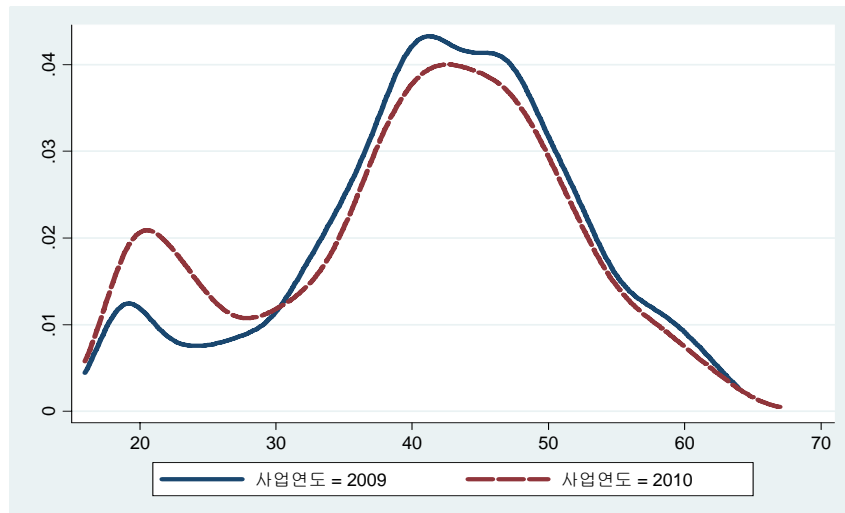
<표 II-1> 시범사업 참여자 기초 통계량

구분	1차년도 참여자	2차년도 참여자
여성 (%)	68.6	68.8
연령 (세)	41.68 (10.23)	39.95 (11.24)
장애 (%)	6.5	6.17
질병 (%)	31.8	23.9
교육 수준 (%)		
중학교 졸업이하	30.1	25.2
고등학교 재학·중퇴	12.6	7.82
고등학교 졸업	44.2	48.5
(전문) 대학교 재학·중퇴	4.05	4.48
(전문) 대학교 졸업 이상	9.0	14.1
자격증 (%)	21.6	36.6
표본 수 (N)	2000	3259

주: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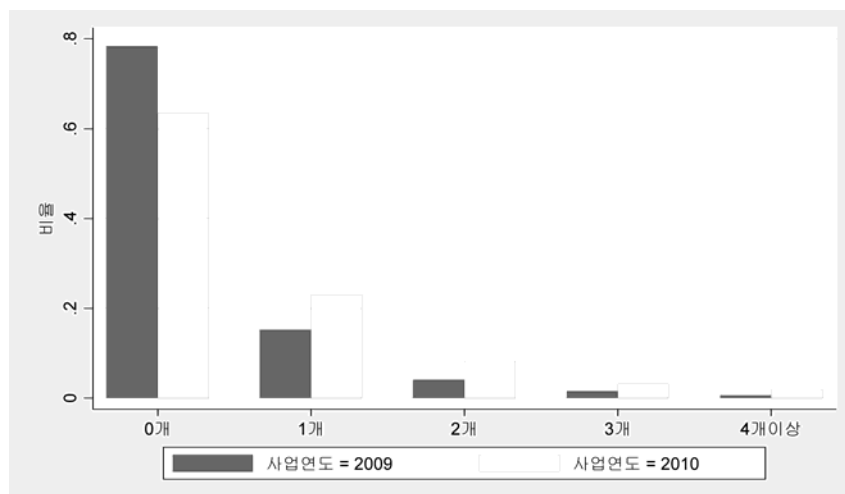
- [그림 II-1]은 사업연도별 사업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를 보여주는데 2차년도 사업에서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이 낮아진 것이 20대의 참여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임을 설명해 줌

[그림 II-1] 연도별 사업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



- [그림 II-2]는 사업연도별로 참여자들의 자격증 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2차년도 참여자들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참여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II-2] 연도별 참여자들의 자격증 수 분포 비율



2. 취업난이도 조정 점수

가. 새로운 근로능력 평가 지표 도입 필요성

-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자활사업의 대상자 분류에 사용되는 근로능력점수의 한계를 고려한 새로운 지표 도입
 - 기존의 근로능력점수는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및 학력 기준에 따라 기준별 점수를 정하고 이의 단순 합으로 이루어짐
 - 기준요인별 단위와 분산의 크기가 다르고 기준별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된 근로능력점수만으로 참여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나. 근로능력 표준점수

- 근로능력점수의 요인별 단위와 분산의 크기가 다르고 기준별 가중치가 다른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
 - 근로능력점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점수를 구성하는 각 기준(j)별로 참여자(i)의 점수(X_{ij})를 이용하여 평균($\mu_{x_{ij}}$)과 표준편차($\sigma_{x_{ij}}$)를 계산
 - 다음의 산식으로 참여자(i)들의 기준별 표준점수(S_{ij})를 구하고 기준별 표준점수를 합산하여 근로능력 표준점수(S_i) 산출

$$S_{ij} = \frac{(X_{ij} - \mu_{x_{ij}})}{\sigma_{x_{ij}}},$$

$$S_i = \sum_j S_{ij}$$

(j =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및 학력)

- 연령이 40세이고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고졸학력에 자격증이 없는 참여자 A
 - 연령점수 20점, 건강점수 25점, 직업이력 및 학력 점수 15점으로 근로능력점수는 60점
 - 전체 참여자들에 대하여 다음의 가정이 성립한다면 A의 표준점수는 -0.1328
 - 가정 1: 연령점수의 평균은 22점이고 표준편차는 5.5
 - 가정 2: 건강점수의 평균은 21점이고 표준편차는 6.5
 - 가정 3: 직업이력 및 학력 점수의 평균은 17점이고 표준편차는 5.2

1. 연령 표준점수: $\frac{(20-22)}{5.5} = -0.3636$

2. 건강 표준점수: $\frac{(25-21)}{6.5} = 0.6154$

3. 직업이력 및 학력 표준점수: $\frac{(15-17)}{5.2} = -0.3846$

4. 근로능력 표준점수: $-0.3636 + 0.6154 - 0.3846 = -0.1328$

다. 근로능력 순위점수

- 전체 참여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인들에 대한 개별 참여자의 백분위 순위를 정하고 이를 근로능력 지표로 사용
 - 순위 점수는 다음 같은 방식으로 결정
 - 연령이 낮을수록 순위가 올라가도록 조정
 - 장애등급이 높아질수록 순위가 내려가도록 조정(장애가 없는 경우 가장 높은 순위)
 - 질병이 없는 경우 순위가 올라가도록 조정
 -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순위가 올라가도록 조정
 - 자격증 수가 많아질수록 순위가 올라가도록 조정

- 다음의 산식으로 참여자(i)의 요인(j)별 순위점수(R_{ij})를 구하고 요인별 순위점수의 산술평균을 구하여 참여자(i)의 근로능력 순위점수(R_i) 산출

$$R_{ij} = \frac{\text{rank}(X_{ij})}{N} \times 100,$$

(N = 전체 참여자 수)

$$R_i = \frac{1}{5} \sum_j R_{ij}$$

(j = 연령, 장애유무 및 장애등급, 질병유무, 학력수준, 자격증 수)

- 연령이 40세이고 질병과 장애가 없으며 고졸학력에 자격증이 없는 참여자 B
- 전체 참여자들에 대하여 다음의 가정이 성립한다면 B의 순위점수는 64.748
 - 가정 1: 전체 참여자의 수는 5000명
 - 가정 2: B의 연령순위가 2875
 - 가정 3: B의 질병유무 순위가 3580
 - 가정 4: B의 장애유무 및 등급 순위가 4620
 - 가정 5: B의 학력수준 순위가 2737
 - 가정 6: B의 자격증 순위가 3375

1. 연령 순위점수: $\frac{2875}{5000} \times 100 = 57.5$

2. 질병유무 순위점수: $\frac{3580}{5000} \times 100 = 71.6$

3. 장애유무 및 장애등급 순위점수: $\frac{4620}{5000} \times 100 = 92.4$

4. 학력수준 순위점수: $\frac{2737}{5000} \times 100 = 54.74$

5. 자격증 수 순위점수: $\frac{3375}{5000} \times 100 = 67.5$

6. 근로능력 순위점수:

$$\frac{1}{5}(57.5 + 71.6 + 92.4 + 54.74 + 67.5) = 68.748$$

3.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 집단 비교 분석

가. 2차년도 시범사업 지역별 참여자 현황

- <표 II-2>는 2차년도 자활시범사업 참여자들의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표 II-1>의 내용을 재구성한 결과임
- 참여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경기와 전북에서 여성참여자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부산의 참여자의 여성비율은 전체평균(68.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61.5%)을 기록하였음
- 평균연령에서는 부산 참여자들이 37.25세로 가장 젊었고 인천(39.28세), 경기(41.74세), 전북(43.31세)의 순으로 평균 연령이 상승하였음
- 장애를 갖고 있는 참여자의 비율에서는 지역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질병을 보유한 참여자들의 비중은 경기와 전북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 참여자들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지역간 차이가 발견되는데 부산참여자들의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참여자의 비율이 21.2%로 경기지역의 해당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두 배 이상의 차이가 관찰됨
- 참여자들의 자격증 보유비율에서는 지역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보면, 부산과 인천 지역 사업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평균적인 학력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와 전북지역 참여자들은 평균연령이 높고 건강 수준과 학력 수준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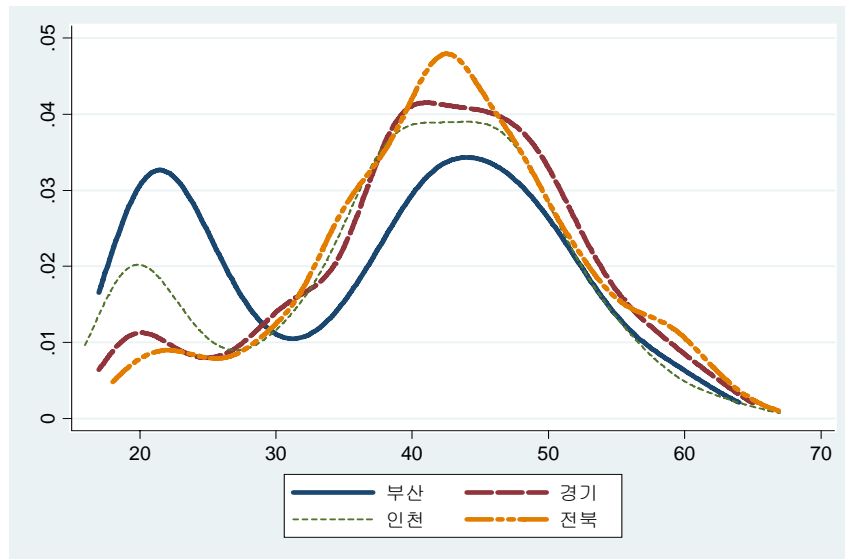
<표 II-2> 2차년도 사업 참여자 지역별 기초 통계량

	부산	경기	인천	전북
여성 (%)	61.5	75.1	66.4	73.2
연령 (세)	37.25	41.74	39.28	42.31
	(12.40)	(10.22)	(11.11)	(9.72)
장애 (%)	5.36	6.94	6.29	6.16
질병 (%)	17.4	32.6	11.1	33.3
교육 수준 (%)				
중학교 졸업이하	20.3	29.1	20.2	32.1
고등학교 재학·중퇴	4.40	8.33	14.9	5.82
고등학교 졸업	48.1	50.1	50.0	44.6
(전문) 대학교 재학·중퇴	5.93	3.07	4.64	4.16
(전문) 대학교 졸업 이상	21.2	9.32	10.3	13.3
자격증 (%)	34.1	35.3	40.6	39.1
표본 수 (N)	1045	1009	604	601

주: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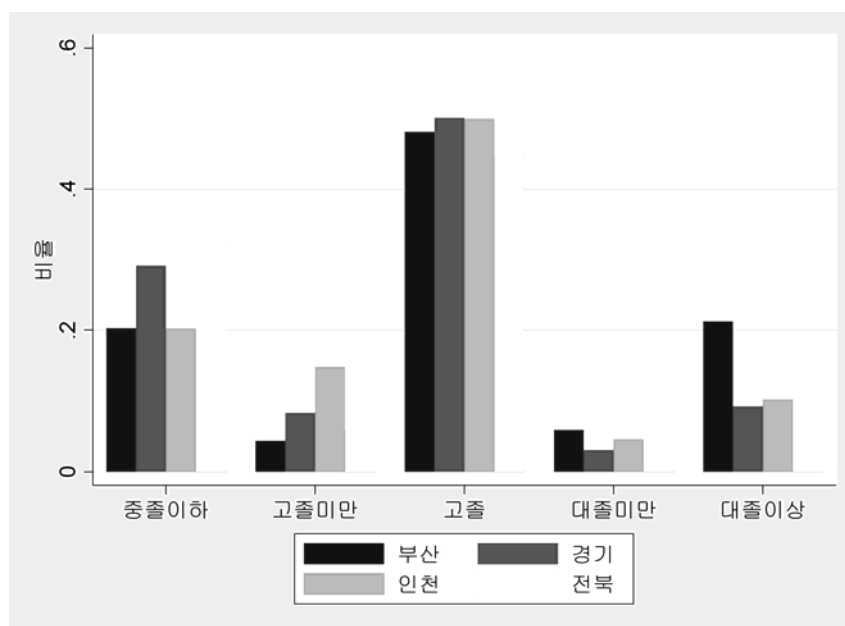
- [그림 II-3]은 2차년도 사업 참여자들의 지역별 연령 분포를 보여주는데 2차년도 부산에서 20대의 참여비율이 타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40대 이상 참여자의 비율은 이와 반대로 타지역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II-3] 2차년도 사업 지역별 참여자 연령 분포



□ [그림 II-4]는 2차년도 사업 참여자들의 지역별 교육 수준 분포를 보여주는데 부산참여자들 가운데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 분포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4] 2차년도 사업 지역별 참여자 교육수준 분포



나. 2차년도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

- 1차 사업 참여자와 2차 사업 참여자들 간의 특성 비교
 - 1차와 2차 시범사업에 모두 참여한 부산과 경기의 경우 1차 사업 참여자와 2차 사업 참여자들 간의 특성을 비교하여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수행 경험에 비추어 2차년도 사업 참여자들을 선발할 때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차이점을 두었는지 비교평가

 - 계속사업 지역과 신규사업 지역 비교
 - 1차와 2차 시범사업에 모두 참여한 부산·경기지역과 2차 사업에 처음 참여한 인천·전북지역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사업수행경험에 따라 참여자들의 특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근로능력 표준점수와 근로능력 순위점수를 이용한 분석을 시도
- 1) 근로능력 표준점수를 이용한 분석
- 근로능력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산에서는 2차년도 사업 참여자들의 근로능력이 전년도 참여자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에서는 1차년도 참여자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 <표 II-3>에서 1차년도 참여자와 2차년도 참여자를 모두 합(pooling)하여 근로능력 표준점수를 산출한 후에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근로능력 표준점수를 1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와 비교하였음
 - 부산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보다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에서는 오직 직업이력 및 학력점수에서만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P-value=0.0023)

<표 II-3> 지역별 · 연도별 근로능력 표준점수

구분	부산		경기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연령점수	-0.101 (1.021)	0.266 (1.052)	-0.0592 (0.930)	-0.0871 (0.954)
건강상태점수	-0.0357 (1.019)	0.192 (0.897)	-0.142 (1.023)	-0.117 (1.035)
직업이력 및 학력점수	-0.0802 (1.009)	0.272 (1.015)	-0.191 (0.991)	-0.0587 (0.948)
근로능력 표준점수	-0.217 (1.873)	0.730 (2.062)	-0.392 (1.872)	-0.263 (1.916)
표본 수(N)	1000	1045	1000	1009

주: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 <표 II-4>에서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표준 점수를 재산출하고 지역별로 비교해본 결과 부산, 인천, 전북, 경기의 순으로 표준점수가 높았으나 근로능력점수의 경우에서와 같이 전북과 경기의 순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P-value=0.3638)
 - 부산지역 참여자들의 경우 세 가지 요인 모두 양(+)의 표준 점수를 나타내 타 지역에 비해 근로능력이 높은 참여자들의 비율이 높았음
 - 인천지역 참여자들의 표준점수는 연령과 건강상태요인에서 평균적으로 양(+)의 값을 나타냈으나 직업이력 및 학력에서 음(-)의 표준점수를 가진 참여자들의 비중이 높아서 부산지역에 비해 근로능력 표준점수 평균이 낮게 나타났음
 - 경기와 전북지역 참여자들의 표준점수는 세 가지 요인 모두 평균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냈음

<표 II-4> 2차년도 사업 지역별 근로능력 표준점수

	부산	경기	인천	전북
연령점수	0.214 (1.040)	-0.135 (0.944)	0.0327 (0.968)	-0.175 (0.981)
건강상태점수	0.140 (0.913)	-0.175 (1.053)	0.188 (0.963)	-0.137 (1.021)
직업이력 및 학력점수	0.191 (1.025)	-0.143 (0.958)	-0.0463 (0.917)	-0.0455 (1.054)
근로능력 표준점수	0.269 (1.025)	-0.224 (0.952)	0.0850 (0.886)	-0.178 (1.020)
표본 수(N)	1045	1009	604	601

주: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2) 근로능력 순위점수를 이용한 분석

- 근로능력 순위점수를 이용한 분석결과 부산과 경기 모두에서 2차년도 사업 참여자들의 근로능력이 전년도 참여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표 II-5>에서 1차년도 참여자와 2차년도 참여자를 모두 함(pooling)하여 근로능력 순위점수를 산출한 후에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순위점수를 1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와 비교하였음
 - 부산에서는 장애유무 및 등급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1차년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2차년도 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하였고 총 점에서의 연도별 차이도 크게 나타났음
 - 경기에서는 연령과 장애유무 및 등급 및 질병 유무에서는 1차년도 사업 참여자 그룹과 2차년도 사업 참여자 그룹의 순위점수가 매우 유사하였으나 학력 수준과 자격증 수 순위점수는 2차년도 참여자의 순위점수가 높게 나타나 순위점수 총점이 같다는 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였음(P-value=0.0002)

<표 II-5> 지역별 근로능력 순위점수

구분	부산		경기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연령	46.76 (29.10)	56.95 (30.98)	48.64 (26.79)	47.47 (28.02)
장애유무 및 등급	50.49 (11.35)	50.51 (11.23)	49.36 (13.24)	49.71 (12.69)
질병 유무	48.68 (22.84)	54.77 (18.98)	46.48 (23.71)	47.17 (23.46)
학력 수준	49.78 (27.44)	58.15 (27.46)	43.45 (25.12)	48.15 (26.12)
자격증 수	43.76 (19.52)	51.71 (24.26)	46.62 (21.29)	52.23 (24.32)
근로능력 순위점수	47.90 (11.78)	54.42 (13.21)	46.91 (11.51)	48.95 (12.67)
표본 수(N)	1000	1045	1000	1009

주: 1.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2. 순위가 동일일 경우 평균값을 적용

□ <표 II-6>에서 2차년도에 시범사업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순위점수를 재산출하고 지역별로 비교해본 결과 부산, 인천, 전북, 경기의 순으로 순위점수가 높았으나 부산과 인천의 차이(P-value=0.1172)와 전북과 경기의 차이(P-value=0.379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지역 참여자들의 경우 질병유무와 자격증 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인별 순위점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음
- 경기지역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가장 높고 학력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인천지역 참여자들 가운데 질병이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전북지역과 경기지역 참여자들의 경우 개별 요인별 순위점수에서도 비

슷한 수준을 보였음

- 순위점수로 평가한 <표 II-6>의 결과는 표준점수로 평가한 결과와 질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없으나 통계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 방식에 의존하는가에 따라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표 II-6> 2차년도 사업 지역별 근로능력 순위점수

구분	부산	경기	인천	전북
연령	55.58 (30.67)	46.05 (27.46)	51.99 (28.45)	45.25 (26.49)
장애유무 및 등급	50.46 (11.24)	49.67 (12.70)	49.94 (12.33)	50.06 (11.99)
질병 유무	53.28 (18.98)	45.68 (23.46)	56.45 (15.72)	45.35 (23.59)
학력 수준	56.12 (27.41)	46.05 (25.73)	48.94 (24.82)	47.14 (28.00)
자격증 수	48.76 (24.27)	49.26 (24.29)	51.84 (24.94)	51.85 (25.79)
근로능력 순위점수	52.84 (13.17)	47.34 (12.55)	51.83 (11.54)	47.93 (13.74)
표본 수(N)	1045	1009	604	601

주: 1.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2. 순위가 동일일 경우 평균값을 적용

□ 2차년도 시업사업 참여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 있음

- 1차와 2차 모두 사업이 시행된 부산과 경기지역만을 놓고 사업연도간 참여자들을 비교해본 결과 부산에서는 2차년도 사업 참여자들의 근로능력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에서는 2차년도 사업 참여자들의 근로능력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경기지역의 경우 근로능력 순위점수 지표에 따르면 통계적인 의미에서 근로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음
- 2차년도에 시범사업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산, 인천, 전북, 경기의 순으로 근로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 또한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순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관찰되었음
- 이상의 분석결과 근로능력 순위점수는 기존의 근로능력점수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으면서 근로능력점수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이 지표를 사용할 것임

Ⅲ.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행태

1. 서비스 제공 결정요인

가. 분석 대상

- 2차년도 시업사업 참여자들에게 제공된 총 네 가지의 서비스에 대한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프로빗 분석을 시행하였음
 - 기존의 자활사업 참여자와 비교하여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되는 관리자와의 면담을 결정하는 요인 분석
 -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접과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취업면접 서비스 제공 결정요인 분석
 -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 결정요인 분석
 - 취업 장애 요소 제거에 초점을 맞춘 사회서비스 제공 결정요인 분석

나. 서비스 제공 실태

- 제공된 서비스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교육훈련서비스 제공비율(79.8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면접서비스 제공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관리자와의 면담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가 한 번 이상의 면담을 하였기 때문에 전체 참여자들 중에서 면담횟수가 평균(48회) 이상인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참여자를 구분하였음

<표 III-1> 서비스 제공 비율

(단위: 명, %)

면담횟수 상위	취업면접서비스 제공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1495	2058	2504	2006
(47.66)	(65.60)	(79.82)	(63.95)

주: ()는 전체 참여자중 해당 비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각 지역마다 집중적으로 제공한 서비스에서 다소간 차이가 발생하였음
 - 부산은 관리자와의 면담횟수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취업면접서비스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됨
 - 경기와 인천은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은 상대적으로 취업면접서비스 제공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표 III-2> 지역별 서비스 제공 비율

(단위: 명, %)

구분	면담횟수 상위	취업면접서비스 제공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부산	183 (18.64)	702 (71.49)	868 (88.39)	945 (96.33)
경기	650 (66.19)	610 (62.12)	617 (62.83)	362 (36.86)
인천	526 (90.85)	392 (67.70)	500 (86.36)	168 (29.02)
전북	458 (77.10)	354 (59.60)	519 (87.37)	531 (89.39)

주: ()는 비율 지역별 전체 참여자중 해당 비율

다. 서비스 제공 결정요인 분석

- 아래의 <표 III-3>은 네 가지 서비스 제공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빗 분석을 시행한 결과임
 - 위의 <표 III-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였음
 - 면담횟수와 취업면접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근로능력 순위점수가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교육훈련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음
 - 근로능력 순위점수에 영향을 받은 경우 특히 순위 점수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점수를 구성하는 각 세부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참여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을 근거 집단(reference group)으로 간주하여 생략하고, 나머지 두 그룹에 대하여 더미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였음
 - 또한 참여자의 학력을 기준으로 연령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음
 - 참여자가 질병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더미변수를 만들어 설명변수에 포함하였음
 - 근로능력 순위점수를 결정하는 각 세부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 참여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면담횟수가 평균 이상이고 취업면접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음
 - 참여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취업면접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반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병이 있는 참여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장애여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참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참여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의 참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III-3> 서비스 제공 결정요인 프로빗 분석

	면담횟수 상위		취업면접서비스 제공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1)	(2)	(3)	(4)	(5)	(6)	(7)	(8)
경기	1.349*** (0.228)	1.355*** (0.229)	-0.175 (0.314)	-0.178 (0.317)	-0.865*** (0.220)	-0.872*** (0.221)	-2.099*** (0.230)	-2.185*** (0.223)
인천	2.239*** (0.248)	2.268*** (0.250)	-0.0993 (0.314)	-0.120 (0.317)	-0.0982 (0.195)	-0.105 (0.193)	-2.330*** (0.256)	-2.355*** (0.260)
전북	0.182 (0.276)	0.189 (0.276)	-0.251 (0.326)	-0.253 (0.330)	-0.0488 (0.243)	-0.0603 (0.246)	-0.517 (0.423)	-0.587 (0.422)
근로능력 순위점수	0.00619** (0.00251)		0.0166*** (0.00204)		0.000398 (0.00266)		0.00278 (0.00273)	
연령 (36~55세)		-0.208*** (0.0706)		-0.191*** (0.0669)		-0.0374 (0.0848)		0.0571 (0.0638)
연령 (55세 이상)		-0.246* (0.127)		-0.416*** (0.112)		0.0354 (0.130)		0.0929 (0.133)
장애 있음		-0.0952 (0.118)		-0.237** (0.0958)		0.0774 (0.131)		-0.145 (0.0977)
질병 있음		0.0654 (0.0840)		-0.266*** (0.0695)		0.0121 (0.0892)		0.250** (0.111)
고등학교 졸업		0.0838 (0.0747)		0.0316 (0.0525)		-0.0550 (0.0672)		0.206*** (0.0795)
대학교 졸업		0.0600 (0.0976)		0.0677 (0.0878)		-0.0241 (0.0997)		0.0595 (0.101)
자격증 보유		0.0445 (0.0771)		0.268*** (0.0529)		0.0786 (0.0660)		0.174** (0.0796)
상수항	-1.222*** (0.213)	-0.851*** (0.174)	-0.298 (0.345)	0.646** (0.286)	1.174*** (0.262)	1.218*** (0.148)	1.632*** (0.196)	1.546*** (0.158)
표본수	3137	3137	3137	3137	3137	3137	3137	3137

주: 1. *** p<0.01, ** p<0.05, * p<0.1

2.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동일한 관리자가 여러 대상을 관리하는 것을 고려하기위하여 관리자 id로 clustering 하였음.

라. 지역별 서비스 제공 결정요인 비교 분석

- 지역 간 서비스 제공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사업 참여자의 이질성에 따른 것인지 지역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취한 결과인지 살펴보고자 함
 - 근로능력 순위점수를 설명변수로 프로빗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외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효과의 평균값인 상수항(intercept)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도록 허용
 - 오직 사업 참여자의 이질성에 따른 결과라면 근로능력 순위점수가 서비스 제공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어야 함
 -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취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음

- 각각의 분석 대상 서비스 제공 결정요인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내리려 함

1) 면담 횟수

- 부산과 인천 지역에서는 참여자의 근로능력 순위점수가 상승할수록 평균 이상의 면담횟수를 기록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

- 모든 지역에서 근로능력 순위점수의 영향이 같다는 가설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서(P-value=0.0302) 면담회수 결정에 있어 지역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부산과 전북의 연령이 높은 참여자들의 면담 횟수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음
 - 인천은 장애가 있는 참여자들의 면담 횟수는 상대적으로 작고 자격증을 보유한 참여자들의 면담횟수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표 III-4> 면담횟수 상위 결정요인 지역별 차이 분석

		부산	경기	인천	전북
모형 (1)	근로능력 순위점수	0.0095** (0.0044)	0.0053 (0.0037)	0.0188*** (0.0049)	-0.0024 (0.0056)
모형 (2)	연령 (36~55세)	-0.389*** (0.123)	-0.0568 (0.0979)	0.0579 (0.213)	-0.253* (0.146)
	연령 (55세 이상)	-0.441 (0.302)	-0.115 (0.163)	0.433 (0.379)	-0.437* (0.257)
	장애 있음	0.209 (0.200)	-0.0412 (0.151)	-0.858*** (0.272)	-0.0208 (0.196)
	질병 있음	-0.0644 (0.142)	0.0594 (0.151)	-0.210 (0.188)	0.199 (0.134)
	고등학교 졸업	-0.154 (0.135)	0.262* (0.139)	0.0573 (0.110)	0.0322 (0.0838)
	대학교 졸업	-0.0122 (0.171)	-0.0220 (0.173)	-0.107 (0.294)	0.0628 (0.140)
	자격증 보유	0.111 (0.119)	0.0384 (0.134)	0.557*** (0.152)	-0.324* (0.173)
표본 수(N)		982	982	579	594

주: 1. *** p<0.01, ** p<0.05, * p<0.1

2.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동일한 관리자가 여러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리자 id로 clustering 하였음.

2) 취업면접서비스

- 모든 지역에서 참여자의 근로능력 순위점수가 상승할수록 취업면접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추정계수의 크기는 부산과 전북이 경기와 인천보다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근로능력 순위점수의 영향이 같다는 가설은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 않아서(P-value=0.4061) 취업면접서비스 제공 결정에 있어서는 지역서비스 제공자가 비슷한 방식의 접근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표 III-5> 취업면접서비스 제공 결정요인 지역별 차이 분석

		부산	경기	인천	전북
모형 (1)	근로능력 순위점수	0.0197*** (0.0034)	0.0139*** (0.0038)	0.0122*** (0.0042)	0.0195*** (0.0042)
모형 (2)	연령 (36~55세)	-0.427*** (0.080)	-0.003 (0.091)	-0.135 (0.175)	-0.122 (0.106)
	연령 (55세 이상)	-0.324* (0.168)	-0.324* (0.192)	-0.353 (0.242)	-0.567** (0.264)
	장애 있음	-0.197 (0.210)	-0.0494 (0.161)	-0.152 (0.237)	-0.734*** (0.136)
	질병 있음	-0.370*** (0.0966)	-0.348*** (0.120)	-0.103 (0.176)	-0.0732 (0.165)
	고등학교 졸업	0.0563 (0.0954)	-0.0192 (0.0872)	0.139 (0.138)	-0.0008 (0.104)
	대학교 졸업	0.0673 (0.133)	-0.0573 (0.136)	0.123 (0.270)	0.0957 (0.230)
	자격증 보유	0.185** (0.0837)	0.313*** (0.101)	0.229** (0.113)	0.353** (0.140)
표본 수(N)		982	982	579	594

주: 1. *** p<0.01, ** p<0.05, * p<0.1

2.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동일한 관리자가 여러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리자 id로 clustering 하였음.

3) 교육훈련서비스

- 부산은 참여자의 근로능력 순위점수가 상승할수록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경기도는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음
 - 특히 참여자의 연령요인에서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상반되게 나타났음
- 모든 지역에서 근로능력 순위점수의 영향이 같다는 가설은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P-value=0.0000)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결정에 있어 지역 수행기관 간에 차이가 관찰되었음

<표 III-6>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결정 요인 지역별 차이 분석

		부산	경기	인천	전북
모형 (1)	근로능력 순위점수	0.0149*** (0.0040)	-0.0098*** (0.0030)	-0.0001 (0.0057)	0.0024 (0.0075)
모형 (2)	연령 (36~55세)	-0.433*** (0.131)	0.0687 (0.0945)	0.334** (0.137)	0.0781 (0.153)
	연령 (55세 이상)	-0.476*** (0.146)	0.461** (0.202)	-0.155 (0.227)	0.0467 (0.271)
	장애 있음	0.108 (0.283)	0.145 (0.212)	-0.177 (0.246)	0.150 (0.297)
	질병 있음	-0.113 (0.130)	0.126 (0.122)	0.0497 (0.185)	-0.144 (0.261)
	고등학교 졸업	-0.0590 (0.167)	-0.139 (0.0919)	-0.0482 (0.180)	0.150 (0.130)
	대학교 졸업	0.205 (0.268)	-0.234 (0.175)	-0.130 (0.275)	-0.0734 (0.173)
	자격증 보유	0.134 (0.139)	0.0373 (0.0903)	0.0323 (0.147)	0.0944 (0.189)
표본 수(N)		982	982	579	594

주: 1. *** p<0.01, ** p<0.05, * p<0.1

2.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동일한 관리자가 여러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리자 id로 clustering 하였음.

4) 사회서비스 연계

- 인천은 참여자의 근로능력 순위점수가 상승할수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
- 모든 지역에서 근로능력 순위점수의 영향이 같다는 가설은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 않아서(P-value=0.1953)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결정에 있어 지역 수행기관 간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표 III-7> 사회서비스 제공 결정 요인 지역별 차이 분석

		부산	경기	인천	전북
모형 (1)	근로능력 순위점수	-0.0022 (0.0035)	0.0027 (0.0049)	0.0102** (0.0049)	-0.001 (0.0045)
모형 (2)	연령 (36~55세)	0.0572 (0.102)	0.0465 (0.114)	0.0563 (0.105)	0.114 (0.211)
	연령 (55세 이상)	0.404 (0.420)	0.162 (0.205)	-0.516* (0.275)	0.362 (0.327)
	장애 있음	-0.298 (0.296)	-0.0412 (0.151)	-0.195 (0.191)	-0.311** (0.152)
	질병 있음	0.583*** (0.175)	0.431*** (0.157)	-0.246 (0.242)	-0.0074 (0.200)
	고등학교 졸업	0.146 (0.114)	0.410*** (0.144)	-0.0083 (0.134)	0.0584 (0.0615)
	대학교 졸업	0.0482 (0.165)	0.185 (0.214)	0.0135 (0.193)	0.0229 (0.154)
	자격증 보유	0.0918 (0.110)	0.278** (0.117)	0.128 (0.174)	-0.0483 (0.102)
표본 수(N)		982	982	579	594

주: 1. *** p<0.01, ** p<0.05, * p<0.1

2.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동일한 관리자가 여러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리자 id로 clustering 하였음.

5) 소결

-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서비스 제공 결정에 있어서 참여자의 근로능력 순위점으로 환산한 참여자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지역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지역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방식의 차이가 참여자의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취업결정요인 분석에 있어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IV. 시범사업의 성과

1.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지표 달성 요인

가.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 (최종)

1) 최종성과 달성 현황

- 2010년 2월 말 시점의 DB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1차년도 성과관리형시범사업은 525명이 최저임금수준을 만족하며 30일 이상 취창업 유지(1차 성과급 달성요건) 하였으며, 이 중 233명이 6개월 이상 취창업을 유지(1차 성과급 달성요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었음¹³⁾
 - 탈수급(3차 성과급 요건)이 실현되기에는 일정기간이 더 소요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1차년도 평가 시점에서는 판단을 유보하였으나, 다만 이 시점 현재 경기 77명, 부산 67명이 탈수급 성과급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예측함
- 2010년 2월을 기준 시점으로 할 때도 이 수치는 계약서 상 최소 성과목표로 명시된 주요 요건에 상당히 근접한 실적이라 할 수 있음
 - 계약서 상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취창업율 : 20% (200명)
 - 6개월 이상 취창업유지율: 60% (120명)
 - 탈수급율: 10%
- 성과관리형시범사업의 성과급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창업을 유지하고 (2차성과급), 탈수급(3차성과급)에 대한 요건을 부과하는 까닭에 시범사업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들

13) 취창업 실적은 DB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 시점에 각 지역에서 보고한 수치와는 차이를 보임.

요건을 만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구조를 가짐

- 일부 최종실적을 잠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이는 제약적인 가정 아래서의 예측이란 한계를 가짐
- 2010년 2월말까지 보고된 1차년도 DB 자료를 통해 생존분석한 결과는 1차 성과급 달성자 중 2차 성과급 달성자의 비율, 즉 6개월 이상 취창업 유지율이 약 72.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함¹⁴⁾

□ 따라서, 1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종합하고, 취창업 및 탈수급 관련한 주요 성과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존재함

□ (2010년 11월말 현재) 최종적으로 확인된 1차년도 시범사업의 성과급 지급 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음

- 전체 참여자의 31.8%에 해당하는 635명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30일 이상 유지하였고,
- 16.4%의 참여자, 즉 327명이 이들 일자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하였고,
- 8.8%에 해당하는 175명이 탈수급하거나 차차상위 계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정되어, 3차 성과급 요건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1> 1차년도 성과급 지급 실적

(단위: 명, %)

구분	1차 성과급	2차 성과급	3차 성과급
전체	635 (31.8)	327 (16.4)	175 (8.8)
부산	250 (25.0)	147 (14.7)	99 (9.9)
경기	385 (38.5)	180 (18.0)	76 (7.6)

주: 1) 2010년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됨.
2) ()안의 수는 인원 대비 비율을 나타냄.

14) 박노욱 외(2010)

- 최소성과달성목표와 비교해 볼 때 취창업 인원은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탈수급 인원은 목표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차 성과목표인 취창업 인원은 단순한 비교로 충분.
 - 부산과 경기 모두 200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취창업함
 - 2차 성과목표 달성여부는 판단이 요구됨.
 - 취창업자에 대비할 때 부산은 55.8%, 경기는 46.8%로 취창업유지율이 60%에 미달함
 - 그러나, 계약서 상에 요구되었던 인원 120명은 두 지역 모두 초과하여 달성하였음
 - 3차 성과급 요건인 탈수급은 사업 참여시 수급자만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수급자 대비 탈수급 인원을 계산하면 부산은 10.7%로 요건을 달성하였으나, 경기는 5.9%로 이 수치에 도달하지 못함
 - 전체적인 탈수급률은 8.5%에 머물렀음

<표 IV-2> 1차년도 성과급 실적 달성률 (조건부)

(단위: 명, %)

구분	2차 성과급	3차 성과급
전체	51.5%	8.5% (132명)
부산	58.8%	10.7% (91명)
경기	46.8%	5.9% (41명)

주: 1) 2010년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됨.

2) ()안의 수는 1차성과 달성자 및 수급자 대비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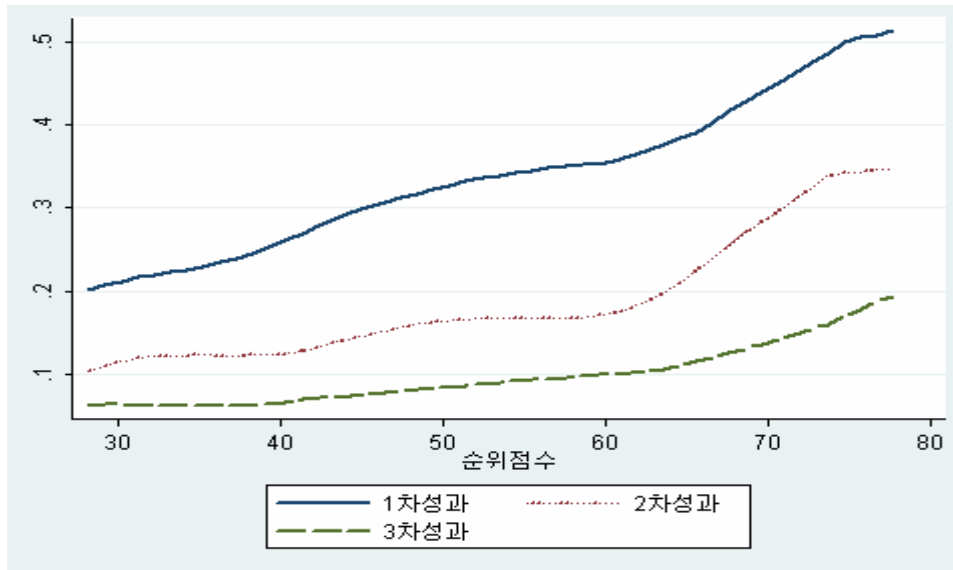
- 2차 성과급 요건 설정 및 달성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
 - 탈수급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으로써 취창업 유지하는 인원 수 확보라는 시각에서는 120명이라는 절대적인 수치가 의미를 가짐
 - 취창업한 인원들에 대해 해당하는 일자리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의도라면 취창업 요건을 만족한 사람들에 대비한 비율, 즉 60%라는 상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두 시각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따라 계약서 상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취업유지에 대한 최소 이행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취창업 및 탈수급 요인 분석

- 여기서는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최종적인 취창업 및 탈수급 성과와 이들에 영향을 준다고 믿어지는 여러 요인들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사업참여자의 특성, 서비스 차이 등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
 - 1차년도 보고서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이질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지역간에 관측되는 성과 차이가 존재하며, 이 지역간 격차의 상당한 부분은 서비스 제공 차이에서 야기된다는 사실을 관측하였음
 - 이러한 사실이 최종적인 성과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려 함
-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는 연령, 건강상태, 교육수준, 자격증 등의 요인이 사전적인 취창업 난이도가 주요 성과와 사전적으로 기대했던 방향의 연관을 가지고 있음
- 앞에서 도출하였던 순위별 점수에 따라 각 단계별 성과급 달성확률은 순위별 점수가 증가할수록 성과지표 달성 확률이 대략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가로축은 순위별 분위기를 의미하며, 세로축은 (조건부) 성과급 요건 달성 확률을 나타냄
 - 곡선은 순위에 따른 국지적 평균(local mean)을 보여주므로, 순위에 따른 대략적인 달성확률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면 됨.
 - 본문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에 따라 구분한 그래프에 따르면, 순위 상승에 따른 달성확률 증가라는 추세는 상당부분 부산지역 참여자로부터 얻어진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경기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계가 상당히 약하게 나타남.

[그림 IV-1] 순위점수별 성과급 달성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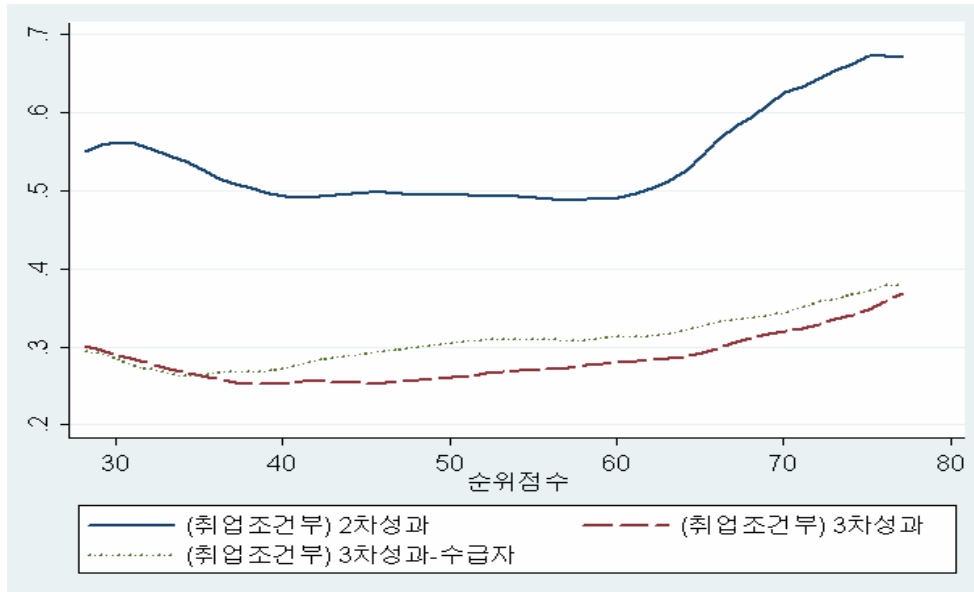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순위점수에 따른 분위, 세로축은 확률을 나타냄.

- 1차 성과급 달성자로 한정되었을 때 순위별 점수가 모든 구간에서 순위별 점수와 각 성과급에 양(+)의 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음
 - 특히 1차 성과 달성 조건부 2차 성과 달성여부, 즉 취업지속 달성률은 30~40분위보다 40분위 이상에서 오히려 감소하고, 65분위 이상에서 급격하게 상승함
 - 이는 앞서 그림에서 (무조건부) 1~3차 성과에 대하여 능력별 분위가 모든 구간에서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과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임

- 이 사실은 1차년도 시범사업의 경우 취업유지율이 60%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능력별 점수에 따라 조건부 취업유지율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들 구간에서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에 기인하며, 차후 사업에서 이들 구간에서 취업유지율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함

[그림 IV-2] 순위점수별 조건부 성과급 달성 확률



주: 가로축은 순위점수에 따른 분위, 세로축은 확률을 나타냄.

- 1단계와 2단계 성과급 지급 요건인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에) 30일 이상 취업 여부와 6개월 이상 취업 지속 여부 달성에 대하여 프로빗 (probit) 분석을 실시함
 - 분석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제공된 19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다만 1차 성과급 요건 달성 조건부 6개월 지속 여부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 모형 (5)와 (6)은 1차 성과급 요건을 달성한 631명으로 한정하여 분석함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1단계 달성여부는 모형 (1)과 (2)에서, 취창업 6개월 달성 여부는 모형 (3)과 (4)에서 분석함
 - 모형 (5)와 (6)에서 분석한 6개월 이상 지속 여부는 1단계를 달성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취업 30일 유지를 만족하였다는 조건 아래 6개월 지속을 달성할 조건부 확률에 대한 분석임
 - 분석은 성별, 지역, 가구주를 기본변수로 하여 능력점수 순위를 이용하여 직접 취업난이도에 대한 요인을 통제하는 방식과 순위별 능력점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2가지로 추정하였음

<표 IV-3> 취업 및 취업지속 달성 요인 분석

	취창업 (30일)		취창업 6개월 유지		(취업 조건부) 취창업 6개월 유지	
	(1)	(2)	(3)	(4)	(5)	(6)
상수항	-1.225 ^{***} (0.152)	0.127 (0.161)	-1.752 ^{***} (0.174)	-0.779 ^{***} (0.184)	-0.259 (0.261)	-0.483 [*] (0.275)
능력점수(분위)	0.022 ^{***} (0.003)		0.017 ^{***} (0.003)		0.000 (0.005)	
여성	-0.227 ^{***} (0.065)	-0.241 ^{***} (0.066)	-0.090 (0.075)	-0.101 (0.076)	0.164 (0.110)	0.156 (0.111)
가구주	-0.003 (0.069)	0.018 (0.070)	0.101 (0.079)	0.105 (0.080)	0.197 ^{***} (0.112)	0.168 (0.114)
지역	-0.415 ^{***} (0.068)	-0.461 ^{***} (0.070)	-0.202 ^{***} (0.076)	-0.217 ^{***} (0.079)	0.234 ^{**} (0.114)	0.284 ^{**} (0.121)
연령		-0.010 ^{***} (0.003)		-0.007 ^{***} (0.003)		0.004 (0.005)
고등학교 졸업		0.324 ^{***} (0.067)		0.236 (0.077)		-0.026 (0.115)
대학교 졸업		0.296 ^{***} (0.113)		0.225 (0.128)		-0.039 (0.195)
자격증 보유		0.274 ^{***} (0.072)		0.328 ^{***} (0.079)		0.252 ^{**} (0.116)
장애요인		-0.211 [*] (0.125)		-0.140 (0.146)		0.015 (0.225)
질병요인		-0.120 [*] (0.065)		-0.052 (0.074)		0.032 (0.112)
표본 수	1988	1988	1988	1988	631	631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지역: 부산=1, 경기=0

3)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 모형 (1)과 (2)의 추정결과는 취창업 요건 달성 여부가 취업난이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변수들과 이를 종합한 순위별 능력점수와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순위별 능력점수에 따른 분위가 10분위 상승에 따라 취창업 확률이 약 7.7%p 높아짐

○ 이를 구성하는 학력 요인 및 자격증 보유 역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질병요인과 장애요인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연령이 10세 증가하면 취창업률이 약 3.6%p 낮아지고,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참여자에 대비하여 고등학교 졸

업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참여자는 각각 11.4%p와 10.0%p 높은 취창업률을 보임

- 자격증 보유는 약 10.0%p 높은 확률을 보임
- 질병을 가진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약 4.2%p 낮은 취창업률을 보이며, 장애요인을 가진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약 7.0%p 낮은 취업률을 보임

□ 6개월 이상 취창업유지 달성 여부와 관련한 모형 (3)과 (4)의 분석결과도 1차 성과 달성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순위별 능력점수에 따른 분위가 10분위 상승에 따라 취창업 6개월 유지 확률이 약 4.1%p 높아짐
- 능력점수를 구성하는 각 요인들의 효과에서는 앞서와 다소 차별적인 결과가 확인됨
 - 연령과 자격증 보유는 이전과 동일한 방향의 부호를 갖지만,
 - 학력과 건강 요인은 2차 성과급 달성과 관련하여 더 이상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는 경기 지역의 높은 1차, 2차 성과 달성실적이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줌

- 부산지역과 비교하여 경기지역의 취창업 달성률은 14.5~16.1%p 높고, 6개월 이상 취업 달성률은 4.9~5.2%p 높음

□ 취업하였다는 조건 아래서 6개월 취업 유지 여부를 분석한 모형 (5)와 (6)에서는 지역 간 실적, 능력점수의 영향에 대해 앞서 분석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무조건) 6개월 취업 유지 여부에서 경기가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실적을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1차 성과 달성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오히려 부산지역이 경기지역보다 9.3%p 높은 취업유지율을 가짐
- 능력 순위점수도 더 이상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으며, 순위점수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들 중 자격증 보유 여부만이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자격증을 보유한 참여자가 보유하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약 10.0%p 높은 취업유지율을 갖게 됨

□ 취창업으로 인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구의 경제상태가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는 3차성과 달성 여부에 의해 판정될 것이므로, 3차 성과급 요건 달성 여부와 전체 사업참여자 중 수급자에 한정하여 탈수급 여부에 대해 분석함

<표 IV-4> 3차성과급 및 탈수급

	3차 성과		탈수급	
	(1)	(2)	(3)	(4)
상수항	-2.148 ^{***} (0.207)	-1.073 ^{***} (0.215)	-2.395 ^{***} (0.245)	-1.124 ^{***} (0.241)
능력점수(분위)	0.016 ^{***} (0.004)		0.018 ^{***} (0.005)	
여성	-0.182 ^{**} (0.087)	-0.185 ^{**} (0.088)	-0.226 ^{**} (0.101)	-0.237 ^{**} (0.101)
가구주	0.067 (0.095)	0.070 (0.096)	0.098 (0.119)	0.107 (0.120)
지역	0.097 (0.090)	0.086 (0.094)	0.256 ^{**} (0.110)	0.237 ^{**} (0.115)
연령		-0.010 ^{**} (0.004)		-0.012 ^{***} (0.005)
고등학교 졸업		0.185 (0.092)		0.233 ^{**} (0.109)
대학교 졸업		0.222 (0.147)		0.245 (0.172)
자격증 보유		0.205 ^{**} (0.095)		0.210 [*] (0.110)
장애요인		0.041 (0.162)		0.022 (0.185)
질병요인		0.021 (0.087)		0.004 (0.100)
표본 수	1988	1988	1537	1537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지역: 부산=1, 경기=0

3)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 3차 성과 요건 달성과 관련하여 능력 순위 점수, 성별이 유의한 효과를 가지며, 지역변수, 가구주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갖지 않음
 - 순위점수가 10분위 상승하면 2.5%p 높은 3차 성과 달성률을 보임
 - 순위점수가 유의한 수준의 양의 값을 갖는 것은 연령과 자격증 보유에 기인하는 것임
 - 순위 점수를 구성하는 건강과 학력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갖지 않음
 - 자격증 보유하는 경우 3차 성과 달성확률은 3.4%p 높은 값을 갖게 됨
 - 연령이 10세 높은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와 비교하여 1.6%p 낮은 3차 성과달성률을 보임
 - 부산과 경기 두 지역간에 3차 성과 달성 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측되지 않음

- 1,537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탈수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순위점수가 높을수록 탈수급률이 증가하며,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이, 경기 지역과 비교하여 부산지역이 높은 탈수급률을 갖는다는 사실이 얻어짐
 - 순위별 능력점수가 10분위 상승하면 탈수급 확률은 약 2.7%p 정도 상승
 - 연령, 자격증 보유 여부, 고등학교 졸업 여부 더미 변수가 탈수급과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음
 -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약 3.5%p 정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며, 부산이 경기 지역에 비하여 3.7%p 높은 탈수급률을 보임

-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순위별 능력점수는 대부분의 경우 주요 성과 달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 조건부 6개월 유지와는 뚜렷한 관계를 갖지 않았음
 - 높은 순위점수가 높은 취업유지율과 연결되지 않음
 - 주요 성과지표와 순위점수와의 관계는 능력점수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 연령과 자격증 보유의 영향에 의해 주로 설명됨

- <표 IV-1>과 <표 IV-2>에서 제시된 두 지역 간 주요 성과 실적의 차별성은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취창업 달성과 6개월 취업 달성에서는 경기가 유의하게 높은 실적을 보였으나,
 - 취창업 달성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유지율과 탈수급에서는 오히려 부산이 더 높은 실적을 보였음
 - 3차 성과급 달성 여부에서는 지역적 차이가 관측되지 않음

- 주요 실적 달성 여부에서 보여진 두 지역간 차이는 차후 사업에서 두 지역이 각각 다른 부분의 성과 지표 달성에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을 암시함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지역간 차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요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적 요인들이 분석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간에 관측되는 차이가 사업자들의 차별적 성과로 해석하기는 곤란함
 - 지역간 성과 차이에 더하여 취창업 및 탈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적, 국지적 요인들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 변수가 성과지표에 미치는 효과가 지역 간에 서로 이질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 예를 들면, 지역적 고용현황 등의 요인들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음

- 지금까지 분석에서 확인된 지역 간 차이가 두 지역간의 다른 서비스 제공 패턴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함
 - 서비스 관련 변수로는 면담, 면접, 교육훈련, 사회서비스의 각 영역에서 제공된 서비스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영역에서 상위 50% 속하는지의 여부를 변수로 포함함

-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 중 면담횟수, 취업면접, 사회서비스 연계가 1차와 3차 성과 달성에 대해 유의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반하여 교육훈련서비스는 이들 성과 달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표 IV-5> 주요 서비스와 1차·3차성과 요건 달성 간의 상관계수

	직원과 면담	취업면접	교육훈련	사회서비스
1차 성과 달성	0.288 ^{***}	0.509 ^{***}	-0.004	0.079 ^{***}
3차 성과 달성	0.103 ^{***}	0.219 ^{***}	-0.033	0.069 ^{***}

주: 1) 각 숫자는 각 서비스 제공횟수와 1·3차 성과달성 여부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2)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 서비스 관련 변수를 추가하여도 기존에 포함하였던 변수들의 부호 및 유의성은 이전의 분석에서의 결과와 대략적으로 일치하였으나, 능력에 따른 순위점수의 효과는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였음
 - 특히 탈수급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모형에서는 순위 점수가 10분위 상승하면 2.7%p 유의한 수준으로 상승한다는 결과를 얻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비스 통제 이후에는 더 이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 취창업 여부에 대해서는 순위점수가 여전히 유의한 관계를 가지나 그 관계가 이전보다 감소하였음

- 1차년도 보고서에서 동일하게 서비스 포함 이후 지역 간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이 관측되었음
 - 취창업 여부(1차 성과 달성요건)는 서비스를 포함하기 이전 두 지역간 격차가 14.5~16.1%p였으나, 서비스를 통제 한 후에는 그 폭이 6.5~8.6%p로 줄어들었음
 - 탈수급 여부에서는 서비스를 통제하기 전 지역 간 격차는 3.4~3.7%p에서, 서비스 포함하였을 때는 3.1~3.4%p로 줄어들었음이 관측됨

- 4개 유형의 서비스 중 면담횟수와 취업면접만이 취창업과 탈수급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며, 교육훈련은 오히려 취창업 여부와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남
 - 취업면접 서비스의 효과 해석에는 주의가 요구됨

- 취업면접 서비스를 많이 받은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에 비하여 높은 취창업 및 탈수급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취업면접 기회 제공이 이들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으나,
- 동시에 취업이 용이한 참여자들에게 취업면접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됨
- 교육훈련 서비스가 음의 계수를 갖는다는 사실은 교육훈련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취창업 및 탈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앞서 취업난이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 가능성과 장기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 사회서비스 연계는 두 성과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음

<표 IV-6> 취창업 및 탈수급 요인 분석 (서비스 고려)

	취창업		탈수급	
	(1)	(2)	(3)	(4)
상수항	-2.338 ^{***} (0.211)	-1.448 ^{***} (0.223)	-3.082 ^{***} (0.304)	-2.533 ^{***} (0.331)
능력점수(분위)	0.015 ^{***} (0.004)		0.009 (0.005)	
여성	-0.255 ^{***} (0.085)	-0.259 ^{***} (0.086)	-0.187 (0.117)	-0.198 [*] (0.117)
가구주	-0.150 (0.092)	-0.114 (0.093)	0.071 (0.140)	0.072 (0.141)
지역	-0.238 ^{***} (0.093)	-0.317 ^{***} (0.096)	0.454 ^{***} (0.138)	0.414 ^{***} (0.143)
연령		-0.007 [*] (0.004)		-0.005 (0.005)
고등학교 졸업		0.380 ^{***} (0.087)		0.211 [*] (0.127)
대학교 졸업		0.317 ^{**} (0.146)		0.198 (0.200)
자격증 보유		-0.041 (0.093)		0.032 (0.126)
장애요인		-0.082 (0.167)		0.077 (0.212)
질병요인		-0.147 [*] (0.084)		0.010 (0.116)
면담 횟수 상위	0.348 ^{***} (0.084)	0.376 ^{***} (0.085)	0.171 (0.120)	0.180 (0.122)
취업면접 횟수 상위	2.239 ^{***} (0.088)	2.256 ^{***} (0.090)	1.521 ^{***} (0.149)	1.514 ^{***} (0.150)
교육훈련 횟수 상위	-0.178 [*] (0.093)	-0.206 ^{**} (0.095)	-0.157 (0.139)	-0.174 (0.142)
사회서비스 횟수 상위	0.043 (0.119)	0.056 (0.121)	0.051 (0.162)	0.046 (0.163)
표본수	1988	1988	1537	1537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지역: 부산=1, 경기=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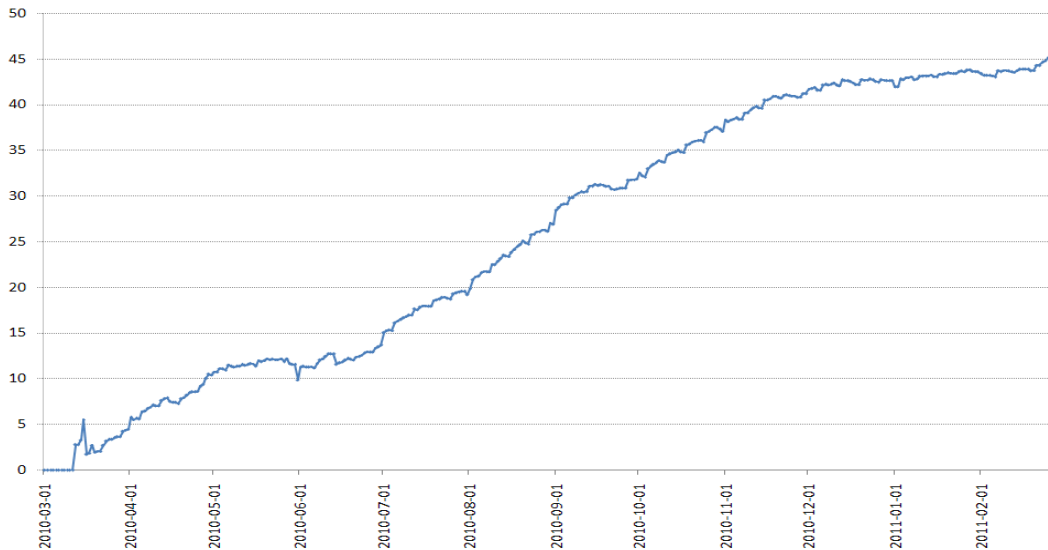
3) *** : p-value<0.01, ** : p-value<0.05, * : p-value<0.1

나. 2차년도 시범사업 성과 (잠정)

1) 2차년도 시범사업 주요 성과 현황 및 일자리 특성

- 1차년도에서와 같이 시범사업참가자들의 취업률이 사업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1월 이후 약 40%대를 유지하고 있음
- 단순 취창업률을 기준으로 하면 전년 대비하여 최종적으로 10%p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됨

[그림 IV-3] 시범사업 참가자 취업률



주: 세로축은 각 시점별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한 취업률을 나타냄.

-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 중 59.2%가 사업 참여 이후 한 번 이상 취창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5.0%의 참여자가 최저임금 요건을 만족하는 일자리에서 취창업하였음

<표 IV-7> 취창업률

(단위: %)

구분	전체	부산	경기	인천	전북
모든 취·창업	59.2	67.3	58.2	59.8	47.0
최저임금 이상	55.0	64.7	52.4	55.8	42.4
최저임금 이상, 30일 지속 (1차 성과급 요건)	48.6	60.0	46.4	43.5	38.6
최저임금 이상, 180일 지속 (2차 성과급 요건)	18.4	26.5	16.0	12.4	15.0

- 2011년 2월말 기준으로 1차 성과급 요건을 달성한 참여자는 48.6%이며, 2차 성과급 요건을 달성한 참여자는 18.4%에 해당함
 - 성과요건 달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시범사업의 성격 상 최종 실적은 이보다 높을 것임

- 1차년도 시범사업의 경우 2010년 2월말 기준으로 1차 성과급 달성 비율이 26.3%, 2차 성과급 달성 비율이 11.6%였음을 감안하면, 2차년도 실적은 1차년도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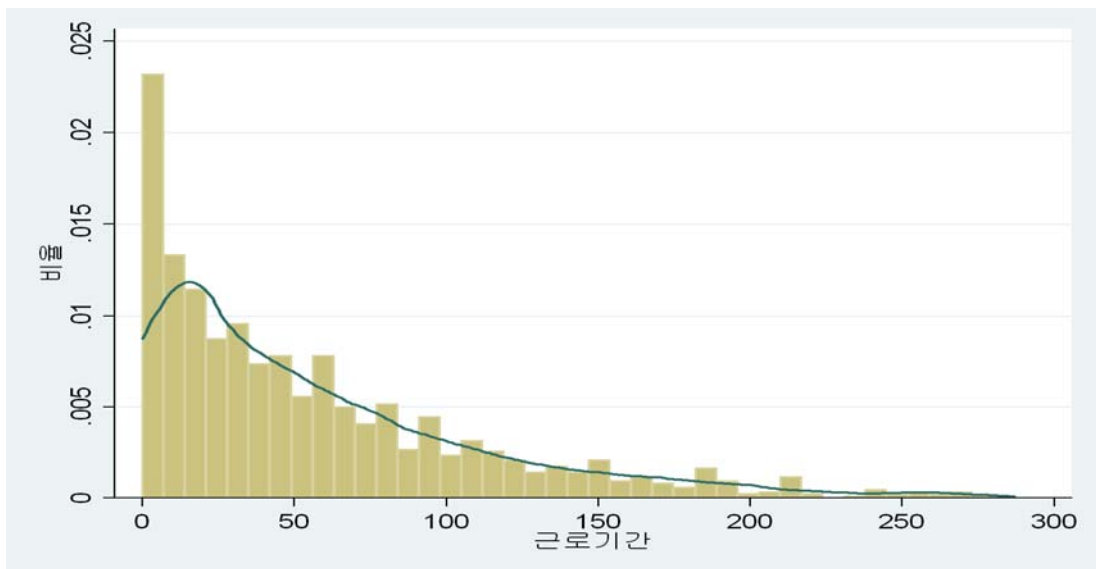
-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 지역의 취창업 실적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높다는 사실이 관측됨
 - 1차 성과급 요건, 즉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30일 이상 유지한 비율이 부산, 경기, 인천, 전북 순으로 나타남
 - 부산 참여자 중 1차 요건을 만족하는 비율은 60.0%로, 다음으로 높은 1차 성과 요건 달성을 보이는 경기와 비교할 때도 13.5%p 높음
 - 취업요건을 달리할 때도 유사할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취업상태가 완결된 1,117개의 모든 취창업에 대해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지속기간 증가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와 같이 성과급 요건 달성 직후 급격한 이탈확률이 관

측되지 않음

- 성과계약 구조로 인해 1개월, 6개월 일정한 취업기간을 만족한 후 급격히 이직하게 될 가능성이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 일부 우려로 지적되었으나,
- 2차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성과계약 구조에 따른 주기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므로, 2차년도에서 관측된 개선요인이 차후 시범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임

[그림 IV-4] 취업지속 기간



주: 취업이 종료된 1,117개 취·창업 지속 기간 분포를 구함

- 수급유형별로 취·창업률을 살펴보면, 차상위층의 취창업률을 53.3%, 수급층의 취창업률은 47.7%로 나타나서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와 같이 차상위층의 취창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자활특례자가 가장 높은 취창업률을 보이며, 다음으로는 차상위, 조건부수급, 일반수급 순을 따름

<표 IV-8> 수급유형별 취창업률

		전체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차상위	자활특례
전체	인원(명)	3138	952	1536	625	25
	취업률(%)	48.6	40.7	51.4	53.3	64.0
부산	인원(명)	982	204	660	110	8
	취업률(%)	60.0	51.5	62.3	61.8	62.5
경기	인원(명)	983	298	380	302	3
	취업률(%)	46.4	41.3	43.2	55.6	33.3
인천	인원(명)	579	221	261	88	9
	취업률(%)	43.5	36.2	46.0	51.1	77.8
전북	인원(명)	594	229	235	125	5
	취업률(%)	38.6	34.5	40.4	41.6	60.0

주: 30일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취창업만을 대상으로 함

- 2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진 일자리들의 고용형태는 아직까지도 정규직의 비율은 25.4%에 그침
 - 정규직 비율은 1차년도와 비슷하나, 상시적 고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정규직과 상용직의 비율은 1차년도의 74.8%에서 84.7%로 개선되었음
 - 가장 최근 통계에 의하면 취업한 수급자 중 상시고용자의 비율은 10.6%뿐이며, 자영업과 농수축산업까지 상시직으로 간주하여도 그 비율은 39.6%에 머무름¹⁵⁾
 - 일자리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수급자들이 취창업하는 일반적 일자리에 비해 개선된 결과이긴 하지만, 아직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15)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의 취업현황에서 저자가 계산하여 얻은 수치임.

<표 IV-9> 수급유형별 취창업률

(단위:%)

	전체	부산	경기	인천	전북
정규직	25.4	24.7	26.2	26.6	23.8
비정규직 - 상용직	59.5	68.0	50.9	55.6	62.9
비정규직 - 일용직	6.4	1.5	12.4	7.9	3.5
비정규직 - 임시직	8.7	5.9	10.5	10.0	9.9

주: 모든 취창업을 대상으로 함.

- 전체 취창업 중 9.1%만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이며, 100만원 이하의 월급여를 받는 일자리에 해당하는 취창업의 비율은 38.1%에 해당함
-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 모든 일자리 중 최저임금 이하 취창업 비율이 16.2%,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취창업 비율이 53.3%였던 것과 비교하면 취창업에서 얻어지는 급여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표 IV-10> 월급여 분포

(단위: %)

	전체	부산	경기	인천	전북
85.9만원 이하	9.1	4.3	17.6	11.1	8.9
85.9~100만원	29.0	26.8	29.6	26.1	37.1
100~120만원	28.8	31.0	29.3	25.7	26.3
120만원 이상	33.0	37.8	23.5	37.1	27.8

주: 모든 취창업을 대상으로 함.

- 1차년도와 동일하게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이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진 일자리의 5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부문의 편중도가 다소 완화되었음

<표 IV-11> 직종분포

(단위: %)

	전체	부산	경기	인천	전북
단순노무 종사자	30.0	25.6	37.5	28.4	27.2
서비스 종사자	22.1	21.1	19.9	23.7	27.8
관리자	1.8	1.3	1.9	2.8	1.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2	14.4	6.8	9.6	7.5
사무종사자	13.2	13.9	13.3	13.0	10.9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종사자	6.7	7.9	4.0	9.0	5.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5	6.4	6.8	5.6	7.7
판매종사자	9.4	9.5	9.6	8.0	11.2
농어업 종사자	0.2	0.1	0.3	0.0	0.3

주: 모든 취창업을 대상으로 함.

- 4대보험 가입 비율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가입률이 56.8%로 가장 높으며, 다른 4대보험들도 50% 이상의 가입률이 확인됨

<표 IV-12> 4대보험 가입률

(단위: %)

	전체	부산	경기	인천	전북
고용보험	56.8	60.0	47.0	67.4	53.0
건강보험	50.6	52.4	41.6	63.7	44.7
국민연금	51.2	52.7	42.1	64.8	45.9
산재보험	56.7	60.6	47.2	66.7	51.6

주: 모든 취창업을 대상으로 함.

- 지금까지 살펴본 2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진 일자리 특성을 1차년과 비교할 때, 취창업률 상승과 더불어 고용형태, 직종, 급여분포 등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까지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2) 취창업 결정 요인

- 2차년도 사업 참여자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빗 분석을 실행하였음
 - 취업의 질적인 면을 감안하기 위하여 모든 취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취업에 대해서만 그 요건을 만족하는 취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 사업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고 취업 기간이 30일 이상인 취업을 경험한 경우로 취업요건을 한정하여 이러한 일자리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 취업요건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에 180일 이상 취업을 지속한 경우로 한정하여 이러한 일자리의 취업 결정요인 추가 분석
- 모형 (1)과 모형 (4)는 참여자의 성별과 가구주 여부 및 지역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능력 순위점수가 각각 취업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근로능력 순위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요건을 만족하는 취업을 달성할 확률이 증가하였음
 - 다른 설명변수들의 평균 수준에서 근로능력 순위점수가 10점 증가하면 최저임금 30일 이상 취업을 달성할 확률은 7.4%p 증가하고 최저임금 180일 이상 취업을 달성할 확률은 3.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형 (2)와 (5)에서는 취업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여 시범사업 수행기관의 노력이 취업달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음
 - 취업면접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최저임금 30일 이상 취업확률과 최저임금 180일 이상 취업확률이 각각 72%p, 2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반면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취업확률이 취업요건에 따라 13%, 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에게 동 서비스가 집중되었을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교육훈련서비스의 영향은 시범사업 기간 중에 나타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서비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참여자들을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면담횟수와 사회서비스 제공여부는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서비스 제공여부를 설명변수에 추가한 후에는 지역 간 취업률 달성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부산지역에서 뚜렷하게 높은 취업률을 보임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방식의 차이가 이러한 지역 간 차이를 가져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모형 (2)와 (5)의 결과에 따르면 당장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업면접서비스의 제공이 단기간 취업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산의 경우 다른 서비스보다 취업면접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음
- 모형 (3)과 (6)에서는 근로능력 순위점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해하여 모두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살펴보았음
- 지역 변수와 서비스 관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질병유무와 학력, 그리고 자격증 유무가 취업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다른 설명변수들의 평균 수준에서 질병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30일 이상 취업을 달성할 확률이 5.6%p 감소하고 최저임금 180일 이상 취업을 달성할 확률은 3.5%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다른 설명변수들의 평균 수준에서 대학졸업 학력의 경우 고졸미만 학력에 비하여 최저임금 30일 이상 취업을 달성할 확률이 10%p 높고 최저임금 180일 이상 취업을 달성할 확률은 6%p 높은 것으로 추정됨
 - 다른 설명변수들의 평균 수준에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 30일 이상 취업을 달성할 확률이 4.4%p 높은 것으로 추정됨

<표 IV-13> 취업 결정 요인 프로빗 분석

	최저임금 30일 이상			최저임금 180일 이상		
	(1)	(2)	(3)	(4)	(5)	(6)
근로능력 순위점수	0.019*** (0.002)	0.012*** (0.003)		0.013*** (0.003)	0.007*** (0.003)	
여성	-0.127** (0.055)	-0.033 (0.067)	-0.0280 (0.070)	0.0026 (0.062)	0.064 (0.069)	0.062 (0.074)
가구주	0.003 (0.111)	-0.013 (0.122)	-0.017 (0.122)	-0.004 (0.121)	-0.013 (0.128)	-0.017 (0.126)
경기	-0.233 (0.314)	-0.430** (0.185)	-0.426** (0.185)	-0.302 (0.206)	-0.359** (0.149)	-0.330** (0.152)
인천	-0.404 (0.308)	-0.726*** (0.180)	-0.719*** (0.184)	-0.515** (0.204)	-0.497*** (0.155)	-0.479*** (0.157)
전북	-0.456 (0.322)	-0.565*** (0.200)	-0.563*** (0.199)	-0.355 (0.219)	-0.341** (0.136)	-0.312** (0.142)
면담횟수 상위		0.133 (0.098)	0.137 (0.010)		-0.087 (0.093)	-0.080 (0.096)
취업면접서비스 제공		2.881*** (0.115)	2.883*** (0.116)		1.921*** (0.170)	1.929*** (0.171)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0.348*** (0.095)	-0.346*** (0.095)		-0.450*** (0.091)	-0.453*** (0.090)
사회서비스 제공		-0.037 (0.079)	-0.032 (0.080)		0.083 (0.073)	0.098 (0.074)
연령 (36~55세)			-0.0629 (0.073)			0.00879 (0.0648)
연령 (55세 이상)			-0.117 (0.146)			0.0610 (0.130)
장애 있음			-0.155 (0.114)			-0.0550 (0.129)
질병 있음			-0.154** (0.067)			-0.213*** (0.0772)
고등학교 졸업			0.104 (0.072)			0.101 (0.0709)
대학교 졸업			0.265** (0.113)			0.293*** (0.0995)
자격증 보유			0.117* (0.065)			-0.00791 (0.0659)
표본 수	3137	3137	3137	3137	3137	3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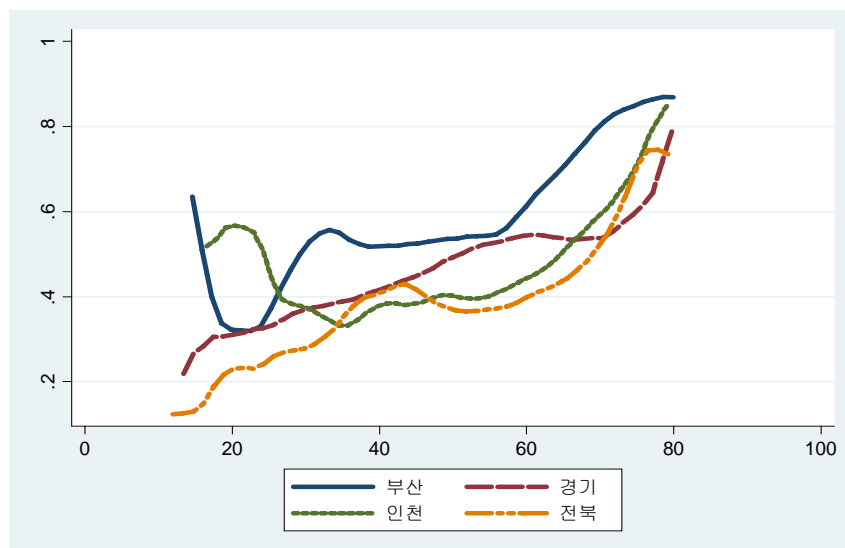
주: 1. *** p<0.01, ** p<0.05, * p<0.1

2.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동일한 관리자가 여러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리자 id로 clustering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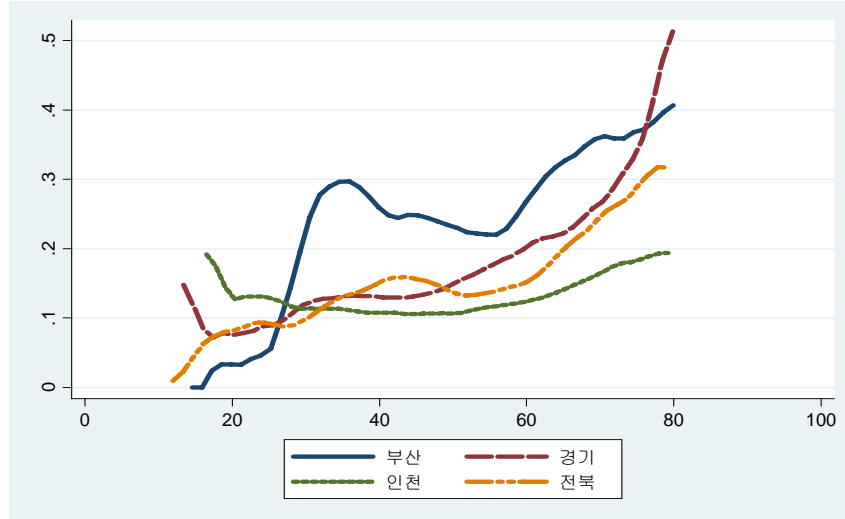
3. 상수항 추정치는 표에 포함하지 않았음.

- [그림 IV-5]와 [그림 IV-6]은 설명변수에 근로능력 순위점수만 포함시킨 경우 근로능력 순위점수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모수적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임
- 그림의 가로축은 근로능력 순위점수를 의미하고 세로축은 취업달성 확률을 의미함
 - 근로능력 순위점수 수준에 따라서 취업확률이 달라지고 두 변수 간에 비선형의 관계식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줌
 - 동일한 근로능력 순위점수를 가진 경우 전반적으로 부산에서 취업달성 확률이 높은 것을 보여줌
 -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대부분 95% 신뢰구간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취업달성비율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그렇지만 40점대의 순위점수 구간에서 부산에서의 최저임금 180일 이상 취업확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IV-5] 근로능력 순위점수에 따른 최저임금 30일 이상 취업확률



[그림 IV-6] 근로능력 순위점수에 따른 최저임금 180일 이상 취업확률



□ 아래의 <표 IV-14>는 최저임금이상 및 취업기간 30일 이상의 취업요건을 달성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의 취업요건을 만족시키는 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임

○ 모형 (1)에서 여성과 가구주 더미변수 및 지역 더미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능력 순위점수가 조건부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모형 (1)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조건부 취업확률에서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인천과 전북에서 부산 지역에 비하여 이러한 취업을 달성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설명변수에 추가한 모형 (2)의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근로능력 순위점수의 영향은 없으나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조건부 취업확률이 15%p 정도 유의미하게 낮아짐

- 이러한 추정 결과는 교육훈련 서비스의 경우 장기적인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또는 단기적인 취업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집중되는 경향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

- 모형 (3)에서는 근로능력 순위점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해하여 모두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살펴보았음
- 다른 설명변수들의 평균 수준에서 최저임금 30일 이상 취업을 경험한 참여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 180일 이상 취업을 유지할 확률은 7.4%p 낮게 추정된 반면 대학졸업자의 경우 고졸미만 취업자에 비하여 취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확률이 9.1%p 높게 추정되었음

<표 IV-14> 최저임금 30일 이상 취업 달성 조건부 180일 이상 취업 결정 분석

	(1)		(2)		(3)	
근로능력 순위점수	0.004	(0.003)	0.004	(0.003)		
여성	0.098	(0.077)	0.099	(0.080)	0.094	(0.084)
가구주	-0.009	(0.145)	-0.010	(0.149)	-0.016	(0.148)
경기	-0.250**	(0.102)	-0.256*	(0.143)	-0.223	(0.147)
인천	-0.419***	(0.114)	-0.277*	(0.146)	-0.257*	(0.150)
전북	-0.137	(0.120)	-0.141	(0.116)	-0.098	(0.128)
면담횟수 상위			-0.162*	(0.097)	-0.152	(0.100)
취업면접서비스 제공			-0.252	(0.358)	-0.243	(0.362)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0.398***	(0.096)	-0.407***	(0.096)
사회서비스 제공			0.112	(0.080)	0.128	(0.080)
연령 (36~55세)					0.028	(0.071)
연령 (55세 이상)					0.123	(0.154)
장애 있음					-0.020	(0.140)
질병 있음					-0.198**	(0.094)
고등학교 졸업					0.076	(0.084)
대학교 졸업					0.234**	(0.106)
자격증 보유					-0.071	(0.074)
표본 수	1526		1526		1526	

주: 1. *** p<0.01, ** p<0.05, * p<0.1

2.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동일한 관리자가 여러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리자 id로 clustering 하였음.

3) 2차년도 시범사업 최종 성과 예측

- 2011년 2월 말 기준으로 2차년도 시범사업의 1차 성과급 달성비율은 48.6%, 2차 성과급 달성비율은 18.4%이며, 이 수치는 성과급 지급요건이 취업지속기간에 결정되는 구조로 인하여 사업종료시점 이후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실적은 이보다 높게 됨
 - 1차년도 시범사업의 경우 종료시점 현재 1차와 2차 성과급 달성률이 각각 26.3%와 11.7%였으나, 최종적인 실적은 31.8%와 16.4%로 나타남

- 여기서는 2011년 2월말 까지 실현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2차년도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급 요건 달성률에 대해 대략적인 추정치를 제시하려 함
 - 2가지 방식에 의해 추정치를 계산할 것임
 - 진도비 방식
 - 2차년도 취업지속 기간 자료 이용한 생존분석 결과

- 진도비 방식은 사업 종료 이전과 이후 각 성과가 달성되는 비율이 매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2차년도 종료 시점 이후 추가로 달성되는 성과급 요건 만족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임
 -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 전체 성과 중 사업 종료 시점이후에 실현된 비율은 1차 성과급이 17.3%, 2차 성과급이 28.7%임
 - 2차년도에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사업 종료 이후 시점에 실현될 것이라고 전제하여 최종 실적을 추정하게 됨
 - 진도비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3차성과급의 경우, 2차 성과급 요건을 달성한 참여자 중 3차 성과급을 달성하는 비율이 1차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아래 추정함

- 진도비 방식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1,882명(58.8%)가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에서 30일 이상 취창업하고, 이들 831명(26.0%)가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444명이 탈수급 혹은 차차상위로 진입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됨
 - 차상위와 수급자의 3차 성과급 달성비율이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11.2%(359명)의 탈수급률 예상됨

<표 IV-15> 2차년도 최종 실적 (진도비 방식)

	1차 성과	2차 성과	3차 성과
전체	1882 (58.8)	831 (26.0)	444 (13.9)
부산	725 (72.5)	373 (37.3)	200 (20.0)
경기	561 (56.1)	225 (22.5)	120 (12.0)
인천	316 (52.6)	105 (17.5)	56 (9.4)
전북	280 (46.6)	127 (21.1)	68 (11.3)

- 진도비 방식에 의한 추정결과는 기본적으로 1차년도 취창업 실적에 의존하게 되나 2차년도 주요 실적을 결정하는 구직 및 취업지속기간이 1차년도는 다른 양상을 갖고 있음이 확인됨
- 우선, 1차년도와 비교하여 2차년도 취창업의 지속기간이 길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함.
- 이는 현재의 일자리에서 취창업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1차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일자리에서 2차, 3차성과를 달성할 확률 역시 증가하게 됨
 - 그렇다면 진도비 방식을 사용한 1번 방식은 과소추정될 우려가 존재
- 두 번째 접근방식에서는 취업지속요건에 관련된 1차, 2차 요건 달성 여부를 생존분석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현재 일자리에서 30일 및 180일 지속하여 취업을 유지할 확률을 예측함.
- 다시 말해, 현재 취업지속기간이 30일 (혹은 180일) 이상인 경우 1의 확률로 이들 요건이 달성되었다고 하고,
 - 현재 취업지속기간이 성과급 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 이 요건을 달성할 확률을 생존분석 결과로부터 계산함
 - 즉, 현재 일자리에서의 취업기간 t_i 이고, 기준 시점에서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180일 이상 취업을 유지할 확률 P_i 은 $\Pr(T_i \geq 180 | T \geq t_i)$ 로 정의되고,

- 확률 P_i 에 대한 추정치 \hat{P}_i 을 개인 i 가 요건을 달성할 확률로 정의함
- 이렇게 구해진 확률의 평균값이 각 성과급 달성률에 대한 기댓값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여기서는 최저임금이상을 만족하는 취창업 지속 기간에 대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위험률이 웨이블 함수 형태를 따른다고 가정함
 - $h(t)$: 위험률¹⁶⁾
 - 모형 : $h(t) = \lambda p t^{p-1}$
- 주어진 모형 아래서 시점 t 까지 취창업이 지속될 확률, 즉 $\Pr(T \geq t)$ 를 $S(t)$ 라고 하면, $S(t)$ 는 다음의 식과 같아짐
 - $S(t) = \exp(-\lambda t^p)$
- 취창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절단(censored)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주어진 가정 아래 생존분석을 실시하였음
 - 위험률이 참여자의 특성을 포함한 다른 요인에 영향받지 않는 단순한 모형을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IV-16> 취업지속기간 생존분석

변수	추정치
λ'	-3.773 ^{***} (0.090)
p	0.659 ^{***} (0.017)

주: 1) ()안의 수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2) λ' 은 $\lambda' = \ln \lambda$ 를 만족하도록 변환된 모수임.
 3)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 생존분석에서 얻어진 취업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과정에 대한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2011년 2월 28일 현재 기준 취업지속요건(30일 혹은 180일)을

16) 위험률은 시점 t 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 시점 t 에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정의됨. 즉, $h(t) = \frac{f(t)}{1-F(t)}$. 여기서 $f(\cdot)$ 과 $F(\cdot)$ 은 각각 사건 발생시간 T 의 확률밀도함수와 분포함수를 나타냄.

만족하지 못하나, 해당 시점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 취업 요건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들에 대해 각 요건 달성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종 실적치를 도출한 결과가 다음과 같음

- 단, 3차 성과급 달성비율은 이전과 같이 1차년도 사업결과를 통해 얻어진 2차성과급 달성자 중 3차 성과급을 달성한 참여자들의 비율이 2차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 아래 도출함

<표 IV-17> 2차년도 최종 실적 (생존분석 방식)

	1차 성과	2차 성과	3차 성과
전체	1610 (50.3)	1185 (37.0)	633 (19.8)
부산	601 (60.1)	486 (48.6)	260 (26.0)
경기	479 (47.9)	336 (33.6)	180 (18.0)
인천	282 (47.0)	190 (31.6)	101 (16.9)
전북	248 (41.3)	173 (28.9)	93 (15.5)

- 생존분석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최종적으로 1,610명(50.3%)가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에서 30일 이상 취창업하고, 이들 1,185명(37.0%)가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633명이 탈수급 혹은 차차상위로 진입하게 된다는 결과를 얻게 됨

- 차상위와 수급자의 3차 성과급 달성비율이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20.5%(359명)의 탈수급률 예상됨

- 지금까지의 최종실적 결과로부터 6개월 취업유지율을 계산해보면 가정에 따라 44.1~73.6%의 범위에 위치할 것으로 생각됨

- 생존 분석 모형으로부터 6개월 취업유지율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음

$$- \frac{\Pr(T \geq 180)}{\Pr(T \geq 30)} = \frac{S(180)}{S(30)} = \exp(-\lambda(30^p - 180^p))$$

- 모수들에 대한 추정치를 이 식에 대입하면 6개월 취업유지율은 61.4%로 예상됨
- 이 추정치는 (최저임금을 만족하며 30일 이상 지속된) 모든 취창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6개월 지속 요건이 각 일자리에 대해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실제 최소이행요건으로 언급된 취업유지율을 과소 추정할 수 있음
- 참여자가 30일 이상 취업기간을 갖는 여러 개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자리에서 비록 6개월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일자리에서 6개월 유지하는 경우 6개월 유지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임
- 2가지 최종 실적 결과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계산해보면 진도비 방식에서 얻어진 6개월 취업유지율은 44.1%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나, 생존분석에 의한 결과는 73.6%로 목표치를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옴
 - 진도비 방식에 의한 결과가 취업지속에서 저조한 수치를 가져오는 이유는 암묵적으로 취업지속에 대한 (이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전년도와 동일한 취업지속기간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임
 - 현재까지 얻어진 2차년도 시범사업 결과가 사업종료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진도비 방식보다는 생존 분석에 기초한 유지율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2차년도 시범사업 실적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조건 아래 최종적으로 계약서 상 최소이행요건을 넘어서는 취창업률, 취창업유지율, 탈수급율을 얻을 것으로 기대됨

2. 시범사업의 효과

가. 성과평가 자료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참여자들이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알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동일한 개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황 중 오직 한 가지만 관측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시범사업 참여자들과 유사한 집단으로 구성된 비교집단이 있고 이들과의 성과를 비교하여야 함

1) 비교집단 선정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를 위하여 기존의 시장진입형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집단으로 구성된 비교집단을 구성하였음
-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들이 사전적으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참여자들과 매우 유사한 집단이어야 함

2) 자료수집

- 원칙적으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참여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동일한 시범사업기간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에 참여한 인원 전부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사업 참여 전·후에 대한 자료가 모두 필요함
- 2차년도(2010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평가를 위하여 부산, 경기, 인천, 전북지역에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 시범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각각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시점의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변수와 평가시점인 2011년 1월 31일 현재의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변수를 모두 추적 조사하였음
-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았으며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음

3) 한계

- 원칙적으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구비되어야 하지만 시장진입형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온전한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DB로부터 얻어진 자료로부터 얻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석에 포함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이 전체 참여자 집단을 어느 정도 잘 대표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함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집단에 대해 충분한 표본이 얻어지지 못하였을 우려 존재함
 - 향후 시범사업 참여자 DB와 취업성공패키지 DB를 결합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은 취창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2가지 사업과 차이를 가지므로, 시장진입형 사업과의 취창업률 비교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인식하고 앞으로 분석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임

나. 취창업률

1) 기존 자활사업과의 단순 비교: 수급자 취창업률

- 우선 2차년도 시범사업에서 얻어진 수급자들의 취창업률을 기존의 자활사업의 취창업률과 단순하게 지역별로 비교해 보기로 함

- 기존 자활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2010년 12월 4사분기까지의 취창

업한 누적비율은 지역에 따라 7.3~10.6% 수준이며, 시장진입형으로 한정하여도 이 수치는 4.6~10.4% 수준에 그침

-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들의 취창업률 역시 비교시점이 되는 2010년 말로 한정하여, 이때까지 누적 취창업률을 다시 계산해 보면, 누적 취창업률이 35.2~57.6%로 기존 자활사업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시범사업의 취창업률은 최저임금 이상, 30일 이상 2010년 12월 31일 까지 30일 이상 지속되었으며, 최저임금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음
 - 기존 자활사업이 연초에 시작되고, 2차년도 시범사업은 3월에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두 사업과의 실제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표 IV-1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

		복지부 자활사업				
		시범사업 ①	모든 유형		①-②	①-③
			②	시장진입형 ③		
취업률	부산	55.2	13.1	10.4	42.1	44.8
	경기	36.3	18.6	9.2	17.7	27.1
	인천	36.9	7.3	4.6	29.6	32.3
	전북	33.7	10.6	7.0	23.1	26.7

주: 취업률은 2010년 4사분기까지의 누적실적이며, 시범사업 취업률은 최소임금을 만족하며, 30일 이상 지속된 취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출처: 복지부 내부자료, 시범사업 DB

2) 유사 사업과의 비교

- 수급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로 기존 자활사업과 시범사업간의 취창업률 간의 비교만으로는 실제로 시범사업이 취창업률에서 개선된 성과를 가져오는 충분한 근거로 간주하기 어려움
 - 취창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통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분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를 통해 얻어진 유사한 사업 참여자들의 취창업률을 참여자들의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비교하려 함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하의 분석은 수집된 자료가 각 사업에 참여한 전수자료가 아니며, 지역별로 수집된 과정에서 표본 선정 및 응답과정에서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가) 2차년도(2010년) 사업별 참여자

- 이 기간 동안 같은 지역에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참여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비교집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
 - 2차년도(2010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에는 부산, 경기 지역에 더하여 인천과 전북에서 모두 3261명이 참여하였음
 - 비교집단은 2010년 같은 지역에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에 참여한 2111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292명으로 구성
- <표 IV-19>는 2010년 사업 참여자들 가운데 연령변수와 장애유무 등의 건강관련 변수 및 교육수준 등의 취업관련 변수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279명을 제외한 총 5,385명의 인적 특성을 사업별로 비교하여 요약하였음
 -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에서 여성 참여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임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상당히 낮게 나타났음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참여자들이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자들보다 평균 4.5세 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9년에 비하여 연령차이가 더 커졌음
 - 1차년도 성과관리형 시범사업 참여자들에 비하여 2차년도 해당 사업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이 낮아진 것이 원인임
 -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과 장애를 가진 비율은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참여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참여자들의 건강 수준은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집단에서 가장 떨어지고 취업성공패키 사업 참여자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자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성과관리형 자활사업과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2009년 1차년도와 달리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자들 사이에서 교육 수준의 뚜렷한 차이가 발견됨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대졸이상 참여자들의 비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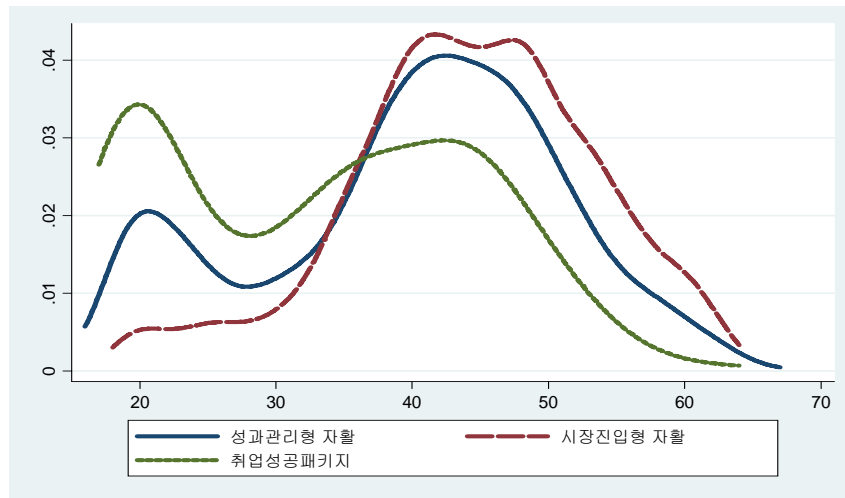
<표 IV-19> 2010년 사업별 참여자 기초 통계량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여성 (%)	69.5	77.6	72.5
연령 (세)	39.87 (11.12)	44.20 (9.20)	33.49 (11.48)
장애 (%)	6.06	4.53	2.56
질병 (%)	23.7	12.0	10.3
교육 수준 (%)			
중학교 졸업이하	24.6	35.5	8.42
고등학교 재학·중퇴	7.84	2.79	3.66
고등학교 졸업	49.0	50.0	69.6
(전문) 대학교 재학·중퇴	4.45	2.69	4.03
(전문) 대학교 졸업 이상	14.1	9.05	14.3
표본 수 (N)	3101	2011	273

주: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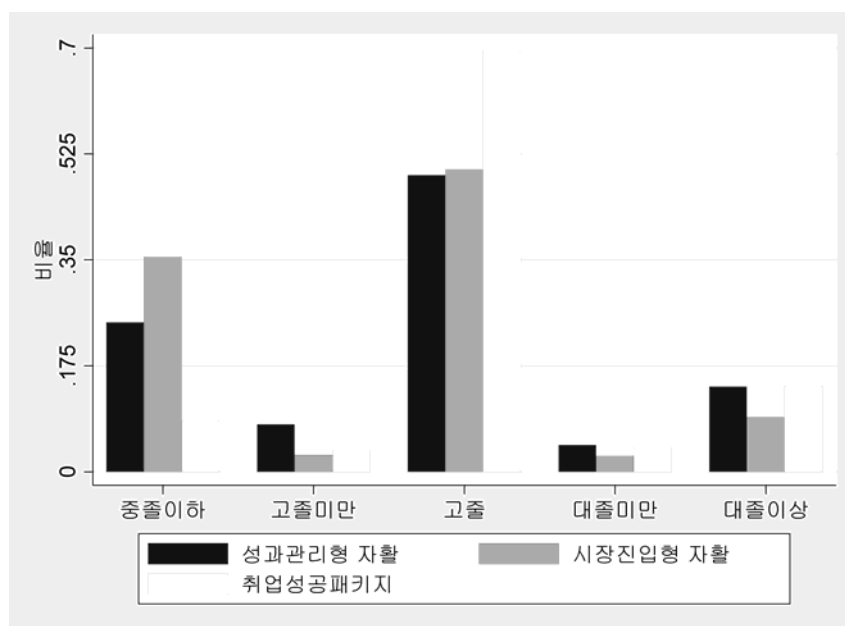
- [그림 IV-7]은 2010년 사업별 사업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를 보여주는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는 20~30대 참여자의 비율이 높아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이 다른 두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에서도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20~30대의 참여비율이 높아서 평균 연령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그림 IV-7] 2010년 사업별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



□ [그림 IV-8]은 2010년 사업별 참여자들의 교육 수준 분포를 보여주는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들의 학력수준이 가장 높고 또한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교육수준이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자들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IV-8] 2010년 사업별 참여자들의 교육수준 분포



- <표 IV-20>에서 2010년 사업별 참여자들의 근로능력 순위점수를 계산한 결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들의 근로능력 순위점수 평균은 56.48을 기록하였고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과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능력점수의 평균은 각각 51.80과 46.47을 기록하였음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근로능력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비하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과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자들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고(P-value=0.0000) 그 크기의 차이(5.43)도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 1차년도 참여자들과는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임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참여자들의 근로능력이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능력보다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능력 수준이 1차년도 보다 높아진 결과임

<표 IV-20> 2010년 사업별 참여자 근로능력 순위점수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연령	53.19 (28.96)	42.57 (26.83)	68.63 (27.03)
장애유무 및 등급	49.64 (11.91)	50.39 (10.45)	51.38 (7.909)
질병 유무	52.54 (21.28)	46.69 (16.27)	45.80 (15.20)
학력 수준	51.83 (26.90)	45.84 (27.00)	60.13 (19.98)
근로능력 순위점수	51.80 (12.04)	46.37 (12.39)	56.48 (8.728)
표본 수(N)	3101	2011	273

주: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나) 사업별 취업성과 비교

- 취창업에서 탈수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2010년도 자료들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취창업률만을 대상으로 함
- 시범사업의 취창업률이 다양한 기준에서 다른 두 가지 사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 취창업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대상으로 할 때, 1차 성과급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이상 30일 지속 요건을 만족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대상자의 비율은 시범사업이 39.6%,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이 5.7%, 취업성공패키지가 16.6%임
 - 지자체 조사를 통해 얻어진 시장진입형 참여자 자료 중 15.7%(332명)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2.7%(8명)의 결측치가 얻어져 이들 사업들에서 취창업률은 미응답에 따라 부정확한 결과가 얻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함
 - 이런 점을 감안해 취업에 대한 정보가 결측된 모든 자료를 취창업 3의 요건(즉, 최저임금 이상 30일 지속)을 만족한다고 가정해도 시장진입형의 취창업률은 20.5%이고,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창업률은 18.8%이란 결과가 얻어져 시범사업의 취창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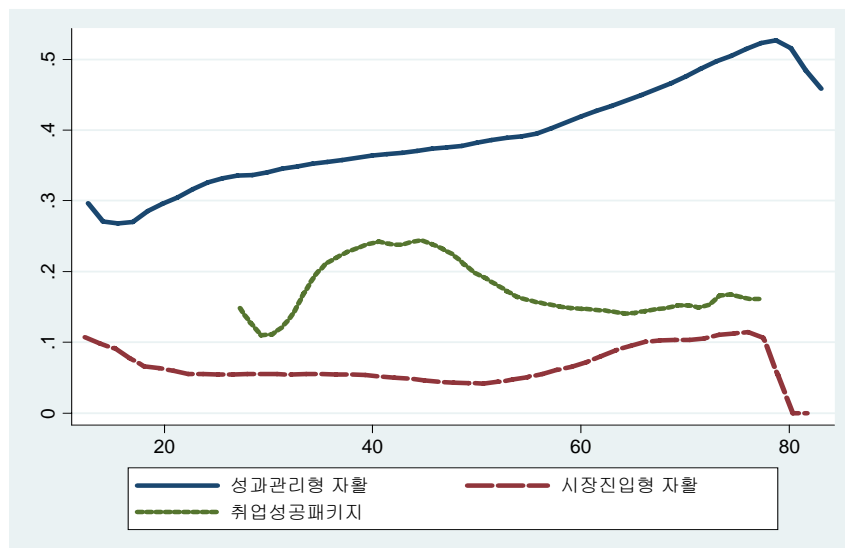
<표 IV-21> 2010년 사업별 취창업률 (2011년 1월 31일 현재)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취창업1	1,369 (43.63)	313 (17.45)	80 (28.17)
취창업2	1,244 (39.64)	103 (5.78)	47 (16.55)
취창업3	1,244 (39.64)	101 (5.68)	47 (16.55)
N	3,138	1,779	284

주: 1) 취창업 여부에 대한 정보가 있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취창업률을 계산함
 2) 취창업 1은 모든 취창업, 취창업2는 최저임금 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취창업, 취창업 3은 최저임금 요건에 30일 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취창업을 만족하는 비율임.

- [그림 IV-9]은 각 사업별로 근로능력 순위점수가 일정한 취업조건을 달성할 확률을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묘사한 결과임
 - 최저임금 30일 이상 취업 달성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됨
 - 동일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참여자들의 취업달성 확률이 다른 두 사업 참여자들보다 높게 나타났음
 -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의 경우 참여자들의 근로능력 순위점수가 취업달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역시 참여자들의 근로능력이 취업달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참여자들의 근로능력이 올라갈수록 취업달성 확률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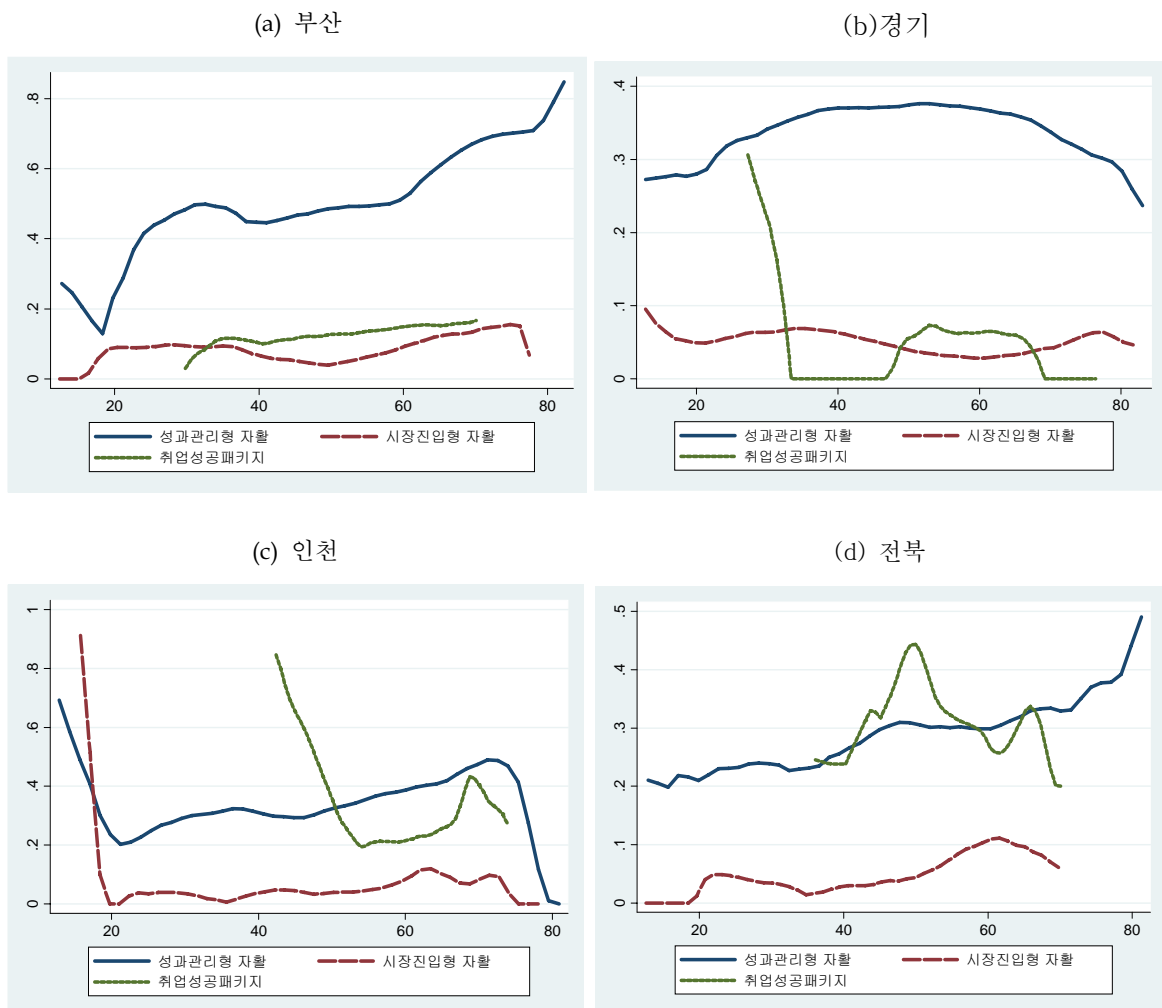
[그림 IV-9] 2010년 근로능력 순위점수에 따른 최저임금 30일 이상 취업확률



- [그림 IV-10]은 지역별로 [그림 IV-9]를 재구성한 것임
 - 부산의 경우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취업달성 확률이 타 사업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달성 확률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의 경우 또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취업달성 확률이 타 사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근로능력이 증가에 따른 취업달성 확률 증가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음
- 인천과 전북에서는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취업달성 확률이 시장 진입형 자활사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는 일률적인 비교가 어려움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경우 참여자들의 근로능력 순위점수가 증가할 수록 오히려 취업달성 확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회귀분석에 포함된 표본 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임

[그림 IV-10] 근로능력 순위점수에 따른 최저임금, 30일 지속 요건을 만족하는 취업확률 (사업별, 지역별)



- 현재 일자리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며, 이 일자리에서 3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프로빗분석한 결과는 분석에 포함된 대상으로 한정하였을 때 사업별 참여자들의 이질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시범사업의 취창업률이 시장진입형 자활사업과 취업성공 패키지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줌
 - [그림 IV-9]에서 관측되는 차이가 다른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유의한 수준의 차이임
 - 연령, 건강, 학력을 포함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및 30일 요건 여부를 만족하는 시범사업의 취창업률이 시장진입형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에 비해 각각 34.0%p, 23.1% 높았으나,
 - 취업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한 이후에는 그 폭이 각각 32.6~32.7%p와 15.8~16.7%p로 줄어들었으나 시범사업의 성과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음

<표 IV-22> 사업별 취창업률 프로빗 분석 결과 (최저임금, 취창업 30일 이상)

	(1)		(2)	
상수항	-0.376 ^{***}	(0.128)	0.136	(0.117)
능력점수(백분위)	0.006 ^{***}	(0.002)		
여성	0.046	(0.045)	-0.005	(0.047)
가구주	0.065	(0.045)	0.094	(0.069)
지역1	-0.393 ^{***}	(0.052)	-0.318 ^{***}	(0.053)
지역2	-0.342 ^{***}	(0.060)	-0.320 ^{***}	(0.060)
지역3	-0.486 ^{***}	(0.061)	-0.417 ^{***}	(0.062)
시장진입형자활	-1.313 ^{***}	(0.057)	-1.321 ^{***}	(0.057)
취업성공패키지	-0.693 ^{***}	(0.097)	-0.757 ^{***}	(0.098)
연령			-0.007 ^{***}	(0.002)
고등학교 졸업			0.086 [*]	(0.047)
대학 졸업			0.310 ^{***}	(0.068)
질병 보유			-0.167 [*]	(0.094)
장애 보유			-0.220 ^{***}	(0.054)
표본수	5078		5078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지역1: 경기=1, 다른지역=0, 지역2: 인천=1, 다른지역=0, 지역3:전북=1, 다른지역=0

3) *** : p-value<0.01, ** : p-value<0.05, * : p-value<0.1

다. 재정적 효과

1) 기존 연구 및 모수 설정 문제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통해 달성된 주요 성과지표, 즉 취창업 및 탈수급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급여 지출을 절감시켜 정부 재정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¹⁷⁾
 - 갈랩ABC(2008)은 자활사업에 따라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취창업 및 탈수급 각각에 따라 단기(1년) 및 장기로 구분함
 - 사업참여자의 수급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수급자의 경우에는 취업 및 탈수급으로 인한 여러 급여 절감 효과가 명시적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하여, 차상위 계층에 속한 참여자의 경우 사업 참여시점에 급여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취창업으로 인해 각종 급여가 즉시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즉시적이지는 않음
 - 그러나, 가구소득이 유지됨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될 확률을 낮추는 경로를 통해서 소요재정이 절감될 수 있음

[그림 IV-11] 재정절감효과 계산 모델

	단기효과(1년)	장기효과
취업으로 인한 효과	재정유입액 생계급여 절감액	평균취업 유지기간 → 취업기간 생계급여 절감액 순재정유입액의 현재가치(NPV)
탈수급으로 인한 효과	재정유입액 제 급여 절감액	기대수급기간, 재수급률 → 생애주기 제 급여 절감액 순재정유입액의 현재가치(NPV)

출처: 갈랩ABC(2008), “자활분야 사회서비스 원가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도 아래서 수급권자는 7종의 급여(자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을 받고 있고, 이들 급여가 취업 및 탈수급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됨.

- 갈렙ABC(2008)과 박노욱 외(2010)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위해 사용한 주요 모수들은 1. 취창업률 및 취업지속 기간, 2. 탈수급률 및 재수급까지의 기간임
 -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된 취창업률 및 탈수급률이 실제로 급여를 절감시키는 폭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됨
 - 기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취창업률 (혹은 탈수급률)과의 차이
 - 기존 사업 참여시 얻게 되는 수급기간과의 차이
 - 직관적으로 살펴볼 때, 아래와 같은 경우 재정절감 효과가 줄어들 것임
 - 기존 사업과 비교하여 취창업률 증가폭이 미미하거나
 - 상승된 취창업률 효과가 지속기간이 짧거나
 -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도 취창업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져 급여를 받지 않게 될 때

- 갈렙ABC(2008)과 박노욱 외(2010)은 이들 모수에 대하여 일정한 가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재정절감 효과를 도출하였음
 - 차상위계층에 속한 참여자의 수급확률을 낮춤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 절감분에 대해서는 두 연구 모두 고려하지 않음
 - 갈렙ABC(2008) 연구에서는 취업인원 200명, 박노욱 외(2010)은 취업인원 465명을 가정하고 있음
 -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갈렙ABC(2008)은 사업대상자 2000명 모두 수급자라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사용하는데 반하여, 박노욱 외(2010)은 실제 수급자 인원 1550명이란 정보를 사용함
 - 이러한 사실때문에 갈렙ABC(2008)의 결과를 1차년도 시범사업 기대 효과에 산출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
 - 탈수급자에 대해서는 갈렙 ABC(2008)은 200명, 박노욱 외(2010)은 41.85명 이란 가정을 사용함

<표 IV-23> 기존 연구의 주요 가정들

갈렙ABC(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률 : 24.7% • 1년 취업유지율: 70% • 이후 취업유지율은 최초 취업유지율에서 매년 15%p 낮아짐 • 탈수급률 : 10% • 기대수급기간 - 평균 수급대상기간:14년, 기간별 수급률: 46% • 재수급률 : 낙관적(30%), 보통(50%), 비관적(70%)
박노욱 외(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률 : 30% • 1년 취업유지율: 59% • 탈수급률: 10% • 평균 취업유지기간: 3.5년 • 평균 기대수급기간: 6.5년

- 이들 연구는 시범사업으로부터 9.76~42.87억의 재정절감 효과가 얻어진다는 시산 결과를 얻음
- 이러한 재정절감효과는 갈렙ABC(2008)에 의하면 두가지 요인에 기인함
 - 시범사업이 기존 자활사업보다 높은 취창업률 및 탈수급률을 보임
 - 추가적인 취업이 3,523만원 (단기:843만원, 장기:2,480만원), 추가적인 탈수급이 614만원(단기:248만원, 장기:366만원)의 급여 절감을 가져옴
- 1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지표가 대부분 실현되었다는 가정 아래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주요 가정들을 점검할 수 있고, 실현된 성과지표 아래서 새로이 재정절감 효과를 시산할 수 있음
-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들 연구에서 차용한 가정과 비교하면
- 1차년도 시범사업으로부터의 취창업률은 31.8%로 갈렙ABC(2008)와 박노욱 외(2010) 보다는 높은 수치임
 - 1년 취업유지율은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 즉 갈렙ABC(2008)의 70%, 박노욱 외(2010)의 59%보다 낮은 수준임
 - 취창업 자 635명 중

- 266명 1년 이상 취업 유지 성공 (41.9%)
 - 244명 1년 이하 취업 종료 (38.4%)
 - 66명 1년 이하 취업 지속 (10.4%)
 - 59명 취업기간 결측 (9.3%)
- 따라서, 1년 이상 취업 유지율은 최소 41.9%에서 최대 61.6% 범위에 위치
 - 이러한 차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6개월 취업유지율이 1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한 것에 기인¹⁸⁾
 - 1차년도 취업자료를 생존분석에 따라 추정된 결과 12개월 취업유지율은 63.1%로 나타나, 두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의 중간에 위치함

<표 IV-24> 취업유지율 추정결과

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취업유지율	89.1%	79.5%	70.8%	63.1%

주: 1차년도 취업지속기간 자료로부터 위험률(hazard rate)이 웨이블(weibull)함수 형태를 따른다는 가정 아래 생존분석을 통해 추정된 생존확률임

- 1차년도 시범사업으로부터의 탈수급 인원은 132명으로, 탈수급률은 8.5% 수준에 머물러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보다 낮음
 - 기존 연구에서 평균 3.5년의 취업유지기간을 가정하였으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생존분석은 약 2.1년의 평균 취업유지기간이 예상됨
 - 3년 이상 취업 유지자 비율은 24.7%로 예상됨
- 이상의 결과는 취업률을 제외한 다른 모수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므로, 기존 연구의 예상 절감분이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냄

18) 6개월 기준으로 하면, 취업자 중 66.3%에 해당하는 421명이 6개월 이상 취업 유지 성공하였다는 결과가 얻어짐. 취창업 지속기간이 결측되어 있는 59명(9.3%)를 고려하면, 6개월 취업유지율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이하에서는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이용하여 직접 재정에 대한 효과를 시산하려 함
 - 소요 비용
 - (회계적 기준) 2010년 급여 감소분 계산
 - (시뮬레이션) 재정절감

-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따르는 특징이 있음
 - 취창업관련 모수는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로부터 도출
 - 일정한 시점의 취업률은 전기에 직업이 없다는 조건 아래 구직확률과 전기에 취업하였다는 조건 아래 이직확률에 따라 결정됨을 감안해, 이 모수들을 1차년 DB로부터 추정
 - 기존 사업의 취업률은 2010년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자의 2011년 취업률로부터 도출함
 - 엄밀하게 고안된 실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기존 사업 취업률이 계산되어야 하나, 현재 그러한 자료는 물론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에 취업상태 동학에 대한 연구결과 자체가 부재한 상황임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한 가정 아래 취업률을 결정하는 2가지 모수를 계산해냄
 - 이러한 접근이 갖는 한계로 인해 자료가 구비되거나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차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최저임금을 만족하는 일자리에 취창업하는 경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급여들은 특례자로 분류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3년 이상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다른 급여 수혜에서 제외된다고 함
 - 보수적으로 재정절감분을 계산하기 위함임
 - 갈렙ABC(2008)와 박노욱 외(2010)에서 취업에 따라 매월 702,149원이 절감된다고 하였으나, 2009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를 통해 계산된 평균적인 급여절감분은 333,015원인 것으로 나타남
 - 현금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의 평균을 차감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합에 해당하며

- 이를 가구원 수 비중에 따라 평균을 구하면 333,015원이 평균값으로 얻어짐
- 소득 인정액 중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취업에 따라 절감되는 급여 항목, 즉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분의 하한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이를 감안하여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지 않은 현금급여 기준의 가중평균값 576,940원을 절감되는 급여의 상한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재정절감분을 보수적으로 시산한다는 입장에서 새롭게 구한 평균 절감분을 사용하나, 상한으로 간주되는 576,940원에 대한 결과도 보완적으로 제시하기로 함

<표 IV-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가구원 수 비중, 현금급여기준, 소득인정액, 급여액

(단위: 원,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이상
비중	62.1	18.7	11.5	5.4	1.7	0.4	0.2
현금급여 기준 (A)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1,721,810
소득인정액 (B)	132,517	299,588	468,609	608,990	773,125	898,215	1,048,864
생계급여 + 주거급여 (A)-(B)	273,364	395,019	431,439	496,498	537,803	618,154	672,946

주: 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으로부터 저자가 재구성하여 계산

2)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타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없는 경우 수급자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합에 해당함

2) 1차년도 시범사업의 소요 비용

- 1차년도 시범사업 최종적인 성과급 지급에 따라 소요된 비용은 전체 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52.1억원 정도이며, 수급자들로 한정하면 약 39.3억원이 소요되었음

- 1인 기준으로 평균 260.5만원에 해당하며,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약 255.7만원에 해당함

<표 IV-26> 1차년도 시범사업 소요 비용

(단위: 명,만원)

구분	전체		수급자	
	대상자	금액	대상자	금액
기본급+실비	2000	420,000	1538	323,000
1차성과급	635	54,000	431	36,600
2차성과급	327	27,800	225	19,100
3차성과급	175	19,300	132	14,500
합계		521,000		393,300
1인당 평균		260.5		255.7

- 기존 자활사업과의 직접적으로 비용을 비교하기는 무리가 따르지만, 갈렙 ABC(2008)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참여자 1인당 평균 비용이 최저 111.3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사후적으로 판단할 때 1차년도에서는 시범사업이 기존 자활사업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최대 149.2만원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표준형과 비교한 149.2만원을 추가적인 소요비용으로 간주하여 이하의 논의를 진행하려 함
 - 갈렙ABC 연구결과는 직원 1인당 참여자수가 증가할수록 참여자 1인당 서비스 단가가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직원 1인당 참여자 수가 11.8명인 기본형의 경우 시범사업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
 - 이러한 사실은 비용 비교에서 광역수준이 아닌 각 지역자활센터 수준에서 직원 1인당 참여자 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비교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1인당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비용 변화분을 고려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존재함

<표 IV-27> 지역자활센터 현재 모델 원가계산 결과

구분	종합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참여자수	122.7명	165명	152.7명	35.5명
직원1인당참여자수	29.6명	33명	35.2명	11.8명
사업지원직원수	4.1명	5명	4.3명	3명
센터운영지원직원수	2명	2명	2명	2명
참여자1인당서비스단가	1,339,575원	1,172,283원	1,113,191원	3,577,465원

주: 갈렙ABC(2009)로부터 인용.

3) 1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의 급여 감소분

□ 여기서는 시범사업 참여자 중 수급자들로 한정하여 시범사업 참여 이후 취창업 상태 및 수급상태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2011년 11월까지의 급여 변동분을 계산해보려 함

○ 기본적인 가정은 앞에서 언급한 가정에 의존함

○ 취업 이후 2010년 11월까지의 취업에 따른 실제 생계급여 감소분 계산

- 일정 시점 이후 추적 곤란한 경우에는 취업 지속 기간의 기대치로 대체하고, 실제 취업일을 고려하여 취업기간과 급여 감소기간이 취업 일로부터 기준시점 2011년 11월 30일 사이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의함

- 즉, 결측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취업기간을 정의함

- t_0 시점에 취업하고, t_1 시점까지 취업유지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취업기간 T_i 는 결측됨

- 원칙적으로 취업지속기간 T_i 는 이 값의 조건부 기대치 즉, $E[T_i | T_i \geq t_1 - t_0]$ 로 대체하나

- 기준시점 2011년 11월 30일을 t_2 라 하면, 이 값이 $t_2 - t_0$ 보다 큰 경우 이 값 대신 $t_2 - t_0$ 을 취업기간으로 사용함

- 따라서, 취업지속기간은 $\min(E(T_i|T_i \geq t_1 - t_0), t_2 - t_0)$ 로 정의됨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들은 특례수급자에 분류되어 최대 3년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수적인 가정 아래 이들 급여에서의 재정감소분을 여기서는 포함하지 않음
- 취창업을 통해 얻는 급여에 따라 즉시 급여가 조정된다는 가정 아래 가정 1(월평균 급여액:33.3만원)의 경우 지금까지 14.1억원의 급여액이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며, 현금급여 기준 상한의 가중 평균을 이용한 가정2와 기존 연구의 가정3 아래서는 급여 감소분이 24.4억원과 30.1억원이란 결과가 얻어짐
 - 급여 증가분이 생계급여에 반영되는 시점이 증가할수록 현재까지 실현된 급여 감소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면 가정에 따라 6.8~14.7억원으로 급여 감소폭이 줄어들게 됨

<표 IV-28> 수급자 급여 감소분

구분	생계· 주거급여액 (월)	0개월	3개월	6개월
가정 1	333,015원	14.1억원	10.2억원	6.8억원
가정 2	576,940원	24.4억원	17.7억원	11.8억원
가정 3	713,581원	30.1억원	21.8억원	14.7억원

주: 첫 번째 행의 개월은 급여가 소득인정액 조사에 반영되기까지의 소요시점을 의미함.

- 단순한 회계적인 기준에서 가장 보수적인 가정 1 아래 수급자들에 소요된 39.3억원 중 17.3~35.9%에 해당하는 비용이 회수된 것으로 파악됨
 - 현금급여 상한 평균액 즉, 가정 2 아래서는 이 수치가 30.0~62.1%로 증가함

- 여기서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해석 과정에서 주의가 요구됨
 - 우선 이 수치는 회계적인 기준에서 이전과 비교하여 지급되던 급여분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경제적인 의미의 급여 감소를 뜻하지 않음
 - 시간에 따른 할인율은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현재가치로 환산된 감소분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에 대한 효과이므로 이에 따른 오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수급자 가구원 수에 따른 비중과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 취창업에 대상으로 하였음을 감안하면 30%의 소득공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취창업에 따라 생계 및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 성과급 해당 요건이 되는 일자리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급여 감소분만을 포함한 것이고, 이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취창업에 따른 급여 감소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제 감소분은 더욱 증가하였을 수 있음

4)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수급자 1인당 급여 감소 기대치

- 여기서 관심있는 모수는 특정한 개인 i 가 남은 생애동안 받게 되는 급여 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며, 이 값이 시범사업을 참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려 함
 - 개인 i 가 받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Y_i 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Y_i = \sum_{s=0}^l \frac{y_{i,t+s}}{(1+r)^s}$$

- t : 현재기
- l : 잔여수명
- $y_{i,t}$: t 시점에 개인 i 가 받게 되는 급여
- r : 할인율

- 시범사업을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급여 흐름 $\{y_{i,t}\}$ 는 사업 참여 후 취창업률 및 탈수급률이 변하게 되어 급여흐름이 $\{y_{i,t}'\}$ 로 변화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함
 - $\{y_{i,t}\}$ 와 $\{y_{i,t}'\}$ 에 대응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각각 Y_i 와 Y_i' 으로 적기로 함
 - 그러면, $E[Y_i' - Y_i | \text{시범사업대상자}]$ 가 시범사업참여에 따라 기대되는 급여 감소분의 현재가치에 해당함
- 급여 감소분의 기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실현되는 각각의 취업상태, 소득흐름, 수급상태의 경로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나 현재 필요한 정보가 없는 상태임
-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범사업 실시과정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을 선정하고, 이들의 취창업률 및 탈수급률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실험적 접근 방식임
 - 시범사업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해, 유사하다고 믿어지는 집단에서 실현되는 구직률, 이직률, 탈수급률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비교해야만 하는 상황임
 - 시범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기초적 정보, 즉 취업과 미취업간의 이행확률은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이용하나, 일반적인 수급자들의 이행확률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된 연구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강신욱 외(2006)이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 적용하기 곤란함
- 여기서는 앞 절에서 소개하였던 기본적인 가정을 받아들이고 대략적이거나 시범사업 참여하는 경우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급여 변화분을 도출하고자 함

- 취업상태 이행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추가로 도입함
 - 가정 1. 이번 기의 취업상태는 전기 취업상태에만 의존하며, 전기 취업상태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 기간 독립적이고 동일한 확률과정에 따라 결정됨
 - 가정 2. 시범사업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참여자들의 구직확률을 높이며, 실직확률을 낮춤

- 앞 절에서 수급상태는 취업상태에 따라 부수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영향 받는 급여 분의 크기는 전적으로 두 집단의 취업상태 이행 확률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

- 우선 가정 1을 살펴보면, 가정 1은 이번 기의 취업상태가 전기를 제외한 다른 기의 취업경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 현재 상태에서 시범사업 DB가 제공하는 정보 수준에서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이행확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이 가정 아래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취업과 미취업 간의 이행확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I_t : t기 취업여부 지시변수, 즉 취업하였으면 $I_t=1$, 취업하지 않았으면 $I_t=0$
 - 전기에 미취업 상태에서 다음 기에 취업할 확률을 q , 미취업 상태로 남아있을 확률을 $1-q$
 - 전기에 취업 상태에서 다음 기에 역시 취업할 확률을 $1-p$, 미취업상태가 될 확률을 p

		시점 t+1	
		취업 ($I_{t+1}=1$)	미취업($I_{t+1}=0$)
시점 t	취업 ($I_t=1$)	$1-p$	p
	미취업 ($I_t=0$)	q	$1-q$

- 일반적으로 현재 취업 경력이 미래의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이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성과관리형 시범사업에 추가적으로 달성한 취업 및 탈수급은 현재에 대한 영향 외에도 미래의 탈수급 기간을 증가시키고, 수급기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점에서 매 기간 취업 여부가 바로 직전 기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만 결정된다는 가정 1은 상당히 제약적이라 할 수 있음

□ 가정 2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얻어짐

- 시범사업 효과가 사업참여일부터 k 개월간 작용한다면,
- 이 기간에 시범사업참여자의 전기 미취업 조건부 구직확률 q' , 전기 취업 조건부 실직확률 p'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가정, $c > 1$
 - $q' = c \times q$
 - $p' = q/c$
 - 일정한 상수에 비례하도록 구직확률 증가시키고, 반비례하도록 이직확률을 감소시킴¹⁹⁾
- 사업참여자의 이행확률이 주어져 있다면 가정 2는 사업비참여자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급자들의 취업이행확률을 하나의 모수 c 에 의해 간략하게 결정되도록 함

□ 구체적인 과정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음

- 우선 1차년도 시범사업참여자 DB로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취창업까지의 소요기간을 계산한 후, 위험률이 지수함수를 따른다는 가정 아래 생존분석을 실시하여 매월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전환될 확률을 계산함²⁰⁾. 1개월을 분석의 단위로 하였을 때, 시범사업 참여자들이 전월 미취업상태에서 이번기에 취업상태로 전환할 확률은 4.27% ($q' = 0.0427$)

19) 시범사업참여에 따라 구직확률 변화와 실직확률변화가 일정한 상수에 비례 혹은 반비례하도록한 가정은 기술적인 이유에서 사용된 것임. 현재 정보에서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구직 및 실직확률에 대한 모수 p' 과 q' 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의 이행과정을 묘사하는 모수 p 와 q 에 대한 정보는 부재함. 한 가지 방안은 모수 p 와 q 에 대해 다양한 값을 가정하여 이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이 때 어떤 값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양한 결과에서 어떤 해석을 내려야 하는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 여기서는 가정 2를 이용하여 시범사업 비참여자들의 취업상태 이행확률 과정을 모수 c 에 의해 묘사되도록 하고, 이 값은 조사를 통해 얻어진 2009년도 경기·부산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참여자들의 2011년 1월 현재 취업률을 이용하여 도출하는 접근방식을 택함.

20) 위험률이 지수함수를 따르는 경우 매 기간 이탈확률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도록 되어 가정 1에 일치함.

- 최저임금이상의 직장에 취창업한 경우 취창업지속기간을 같은 방식으로 생존하여 전월 취창업상태에서 이번기에 실직상태로 전환될 확률은 계산하였을 때, 그 값은 3.83% ($p'=0.0383$)
- 2010년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11년 1월말 현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장에 있는 비율, 즉 취업률이 14.8%라는 수치를 확인함.
-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참여자들이 2010년 3월에 참여했다는 가정 아래 14.8%라는 취업률은 사업 참여 후 23개월 시점의 취업률로 간주함²¹⁾
 - 그러면, 가정 1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가 얻어짐

$$p_{t+1} = \Pr(I_t = 1) \times \Pr(I_{t+1} = 1 | I_t = 1) + \Pr(I_t = 0) \times \Pr(I_{t+1} = 1 | I_t = 0) \\ = p_t \times (1 - q) + (1 - p_t) \times p$$

- p_t : t 기에 취업할 확률, 즉 $\Pr(I_t = 1)$
- 위의 식을 축차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참여 시점에 미취업하였다는 초기조건, 즉 $p_0 = 0$ 을 이용하면, p_t 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음

$$p_t = \sum_{s=0}^{t-1} p \times (1 - p - q)^s$$

- 이제 가정 2를 적용하여, 2011년 1월 현재 취업률에 일치하도록 모수 c 를 조정하여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참여자들의 이행과정에 대한 모수를 구하면, 구직확률(p)은 1.74%, 실직확률(q)은 9.38%
- 이렇게 구해진 모수들 p, q, p', q' 을 이용하여 가상적인 개인이 (1) 성과관리형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10년간 받게 되는 급여의 현재가치와 (2) 성과관리형시범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향후 10년간 받게 되는 급여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비교함

□ 미래 급여 수준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매해 조정된다고 가정하고,

21) 2010년 3~6월 현재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대상자들에 대해 조사하였음. 이 가정 제약적으로 차후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됨.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참여자가 연초에 모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참여자에 대해 23개월 이상의 시점이 지나간 것으로 판단됨.

현재 가치환산을 위해 3% 이자율을 감안함

- 시범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k)은 12개월 혹은 24개월 지속되는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함
 - 12개월은 계약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기간임
 - 24개월은 취업지속요건에 영향받게되는 2차, 3차 성과급으로 인해 사업자가 사업종료일 이후에도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시범사업의 효과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감안함. 더불어 현재 취업이 경력에 미치는 효과로 인해 미래의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이 가정들에서 따라 시범사업 및 기존 사업 참여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취창업 및 급여 수준에 대해 각각 10만번 반복 추출하여 기댓값을 구하고, 둘 간의 차이를 다음의 표에서 제시함

- 이상의 결과는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된 취창업률의 효과 지속기간 및 일자리를 통해 얻어진 급여가 실제 생계 및 주거급여에 반영되는 시차에 따라 전체 급여 감소폭이 넓은 구간에서 변동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효과 지속기간이 길수록, 급여 반영시차가 짧을수록 시범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향상된 성과의 지속기간이 급여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임

- 가정 1(취창업에 따라 생계 및 주거급여가 약 33.3만원 절감)에서 시범사업의 효과가 12개월간 지속된다면 새로운 일자리 취업에 따라 해당 급여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경우 약 104만원, 3개월 이후에 반영되는 경우 약 86만원의 급여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얻어짐
 - 24개월만일 시범사업의 효과가 24개월 지속되면 급여 감소폭은 191~219만원으로 증가하게 됨

- 가정 2(취창업에 따라 생계 및 주거급여가 약 57.7만원 절감) 아래서는 각종 급여 절감폭은 148.8~379.6만원으로 가정 1과 비교하여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됨

<표 IV-29>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급여 감소분 기대값

구분		k=12	k=24
Δ취업기간 (월)		3.2	6.8
가정 1 (월급여 절감액:33.3만원)	Δ급여1 (만원)	104.8	219.1
	Δ급여2 (만원)	85.9	191.4
가정 2 (월급여 절감액:57.7만원)	Δ급여1 (만원)	181.6	379.6
	Δ급여2 (만원)	148.8	331.6

주: 1) 각 열은 시범사업의 미취업시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2) 취업기간은 시범사업참여로 인해 증가한 취업기간, Δ급여1은 취업에 따른 소득이 즉시 생계급여에 반응된다는 가정 아래 감소하게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급여, Δ급여2는 취업에 따른 소득이 3개월 후에 생계급여에 반응된다는 가정 아래 감소하게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급여를 의미함.

5) 소결

- 앞서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 실현된 취업률과 탈수급률을 상정한 상태에서 시범사업은 기존 자활사업과 비교하여 수급자 1인당 약 149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동시에 급여 감소분은 시범사업 효과 지속기간, 각종 급여 절감분, 급여 반영까지의 시차에 따라 약 86~380만원의 범위에 위치함
- 이 결과는 시범사업의 효과가 12개월간만 지속되면 추가적으로 투입된 비용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24개월간 지속되면 회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줌
 - 기존 자활사업에 비하여 개선된 취창업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시뮬레이션 결과는 현재 주어진 정보들만으로는 시범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확정적인 결과를 낼 수 없음을 보여주지만, 현재 추정결과는 보수적인 가정아래 얻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 각종 급여감소분 및 경제성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결과보다는 개선된 결과가 얻어질 것으로 예상됨
 - 다음과 같은 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진 높은 취창업률과 탈수급률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임
 - 특례를 감안하여 생계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 감소는 3년 이후에야 실현된다고 가정함
 - 현재 취업이 경력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취업 및 소득 유지에 도움을 주며, 수급상태로부터의 탈출이 이전 수급경력에 의존한다는 등의 경로의존적 효과를 감안하지 않음

- 1차년도 취창업 결과에서 얻어진 시뮬레이션 결과는 시범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대략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데에는 충분하지만, 보다 확정적인 결론은 시범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일반적인 수급자) 관련 모수들을 결정하는 확률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얻어진 이후로 유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V. 결론

- 2차에 걸쳐 실시된 성과관리형 시범사업을 통해 취창업률과 탈수급률 제고라는 측면에서 기존 자활사업을 뛰어넘는 성과가 얻어졌음
 - 1차년도 시범사업은 최종적으로 31.8%의 취창업률 (635명), 8.8%의 탈수급 및 차차상위 진입율을 보였음
 - 2차년도 시범사업은 2011년 2월말 현재 48.6%라는 취창업률이 얻어졌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보고됨에 따라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종적인 성과가 얻어질 것임

- 2차년도 시범사업의 취창업률은 1차년도와 비교하여 상당한 폭으로 상회한 수준이며, 실현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 사업년도 말(2009년 12월말) 현재 약 30%의 취창업률을 보였으나, 2차년도에도 2010년 12월 말 현재 40%를 넘어서는 취창업률이 보고되었음²²⁾
 -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진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1차년도에 대비하여 정규직 비율이 상승하고, 단순 노무직 및 서비스직 비율은 감소하고, 급여 수준도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등의 요인이 관측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1차와 2차년도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지표와 이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참여자 특성, 서비스 내역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 DB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2차년도 시범사업 대상자들은 1차년도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연령이 낮고, 학력 및 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질병 보유자 비율은 오히

22) 모든 취창업을 대상으로 함.

려 높아져서 취업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각 연도별 사업대상자의 취업난이도에 대한 상대적 비교는 일치된 결과를 주지 않음

- 1차년도와 비교하여 2차년도 참여자 집단은 20대와 대졸 학력 이상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성과달성에 유리한 대상자들로 모집하였거나 1차년도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두드러진 성과로 인해 취창업에 보다 유리한 참여자들의 참여가 늘어났을 수 있다는 2가지 가능성이 존재함
- 근로능력 순위점수와 근로능력 표준점수 2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부산과 경기지역의 참여자집단을 사업연도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하면, 2차년도 참여자 집단이 1차년도 비하여 보다 취업이 용이한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능력 순위점수와 근로능력 표준점수 2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을 때, 2차년도 참여자 집단의 취업난이도에 있어서 지역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취업면접서비스는 4개 지역의 사업자 모두 취업이 용이한 참여자에게 더욱 집중되는 경향이 관측되었음
- 그러나, 다른 3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각 지역의 사업자들에서 다른 행태가 관측됨
 - 예를 들어, 부산지역의 경우 취업이 용이한 사람이 더욱 많은 교육훈련 서비스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경기 지역은 이러한 사람의 교육훈련을 받는 빈도가 줄어들고, 다른 2개 지역에서는 교육훈련과 취업난이도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았음

□ 통제되는 변수와 모형에 따라 구체적인 추정치의 크기가 변하기는 하지만, 1차년도와 2차년도 시범사업의 성과급 요건들과 근로능력 순위점수간에는 유의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능력 순위점수로 평가된 순위가 증가할수록 취창업확률, 180일 이상 달성률, 탈수급률 등이 상승하는 관계를 갖고 있음
- 이에 반하여 또 다른 주요 관심변수라 할 수 있는 취업조건부 180일

취업유지율의 경우 근로능력 순위점수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됨

- 이는 근로능력 순위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취업난이도가 취창업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함
- 그럼에도 2차와 3차 성과급이 순위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이 두가지 성과가 1차 성과(취창업) 달성을 선결요건으로 하기 때문임

□ 1차년도와 2차년도 시범사업의 성과 달성여부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 집단의 이질성 및 서비스 차별성 등을 고려한 후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간 차이는 여전히 유의하게 남아 있음

-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지역간 차이가 서비스 제공 영역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지역간 수행기관의 차별성에서 기인하는지 혹은 경기 상황 등의 지역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취업면접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확률이 증가하나, 교육훈련서비스 제공은 오히려 취업여부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연계는 취창업과 유의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취업여부에 대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성과 달성 여부를 판정하나, 실제 교육훈련서비스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실현된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추정결과가 모형 및 통제되는 변수들에 따라 상이해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연령, 학력, 질병, 장애, 자격증 등의 요인이 주요한 성과지표와 갖는 관계는 사전적인 기대와 일치함

□ 2차에 걸친 시범사업의 성과를 시장진입형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와 비교하면, 취창업률에서는 이들 사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가져왔

다고 볼 수 있지만, 탈수급률에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시범사업의 순수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2010년 시범사업,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의 2011년 1월말 기준 주요 경제상태변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음

- 단, 2011년 시범사업 참여자의 경제상태는 시범사업 DB 자료를 이용

○ 이 사업별 참여자들의 취업난이도를 평가하면, 대략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사업,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의 순으로 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 이들 사업참여자 집단별 취업난이도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임

○ 2010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할 때, 시범사업 39.6%, 취업성공패키지 16.6%,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5.8%의 취창업률이 확인됨

- 이러한 차이는 참여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한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음

□ 성과관리형 시범사업은 유인체계에 따른 성과급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기존 자활사업과 비교하여 더 높은 비용이 들게 되나,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진 취창업률 및 탈수급률의 개선이 일정한 정도의 각종 급여 절감 효과를 오는 효과가 존재하게 됨

○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 대상자 1인당 평균적으로 약 261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추가적으로 최대 145만원의 비용이 사용된 것임

- 실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비용은 52.1억 정도임

○ 1차년도 시범사업 실적치를 이용하여 사업 참여자들의 취창업으로 인해 2010년 11월까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 절감분 규모는 6.8~30.1억원 범위에 위치함

- 이용되는 모수의 현실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인 규모는 6.8~24.4 억원으로 축소되어야 함

- 이 추정치는 회계적 관점에서 비용임에 주의해야 함

○ 통계적 가정 아래 시범사업 참여자들과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구직률과 이직률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후, 이로부터 수급자 1인이 각 사

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급여의 차이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비해 85.9~379.6만원 정도의 급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급여 감소 폭은 취업에 따라 절감되는 급여의 크기, 취창업에 따라 생계 급여 등이 조정되기까지의 시차, 시범사업에 따라 높아진 취창업률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결정됨

-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시범사업의 급여절감분을 시범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비교할 때, 시범사업의 경제성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비용 및 편익 추정에서 가급적 보수적인 방식을 유지했음을 감안하면 시범사업의 편익이 비용을 넘어서는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성과관리형시범사업의 순수한 효과 및 경제성 평가 결과는 현재 가용한 자료가 갖는 제한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다 단정적인 평가는 추가적인 정보가 완비된 이후로 이루어야 할 것임

- 특정 사업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설계된 실험적 상황이나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집단에 대한 특성 및 성과정보가 요구됨

- 성과관리형시범사업에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료는 DB를 통해 참여자 정보, 서비스 내용, 성과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그러나,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정보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음

- 현재 비교적 유사한 사업이라 간주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정보를 연계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임

- 또한, 시범사업 종료 이후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는 더 이상 DB를 통해 관리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임

- 이 문제는 수급자들의 동태가 관리되지 못한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됨

- 본 연구에서는 취창업 및 탈수급에 미친 시범사업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기위해 지자체를 통해 시범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나, 추적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주요 추정 과정에서 편의(bias)가 존재할 우려가 있음
 -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절감분도 기본적으로 이 조사로부터 얻어진 취창업률을 이용해 모수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본고에서 얻은 분석결과는 비용-편익이란 기준에서 볼 때, 성과관리형시범사업을 통해 제고된 취창업률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함
- 회계적 관점에서 감소한 급여절감분을 시산한 결과는 시범사업 종료 1년 내에 회수되는 비용은 전체 비용에 미치지 못하므로, 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 절감분이 감소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줌
 - 시뮬레이션 결과 역시 기존 자활사업 대비한 급여절감분 크기가 시범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가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음
 - 시범사업이 단기적으로 취창업률을 상승시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실제로 취창업 인원이 장기적으로 취업을 유지하고, 탈수급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임
 - 장기적으로 비용이 회수되는 사업의 성격 상 사업 종료 시점 이후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범사업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이런 이유에서 시범사업 참여자는 물론 일반 수급자들의 주요 경제적 상태를 추적하는 자료 생산과 유지가 필요함
- 시범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보다 엄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참여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일반 수급자들의 수급상태, 취창업상태를 포함한 주요 경제변수에 대한 동학적 정보가 요구됨

주제발표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

2011년 3월

▶▶▶ 박 노 욱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I.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도입 배경과 목적	347
II.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주요 쟁점과 2차년도 시범사업 평가	352
1. 서비스 제공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354
2. 정부와 민간의 위험 분담의 적정성	356
3. 서비스 제공자의 유효 경쟁 유지 문제	358
4. 사업 추진 및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중앙 기능 확보 문제	359
5. 기타 쟁점	360
III.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발전 방향	362
1. 2차년도 시범사업의 성과	362
2. 재정절감 효과 추정	365
3.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개선 및 발전 방향	365

표목차

<표 Ⅲ-1> 1차년도 성과급 지급 실적	362
<표 Ⅲ-2> 1차년도 성과급 실적 달성률 (조건부)	363
<표 Ⅲ-3> 2차년도 취창업률	363
<표 Ⅲ-4> 월급여 분포	364

I.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도입 배경과 목적

- 2000년에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과 더불어 자활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자활사업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더불어 도입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사업에의 참여 의무가 부과된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 희망자들이 사업에 참여하였음
 -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은 사업 참여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을 목표로 운영되어오고 있음
 - 자활사업의 제공은 각 시군구에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하고, 민간조직인 지역자활센터에 일정액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활서비스 제공
 - 자활사업을 통하여 사업 참여자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공동체에의 참여를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근로 능력 유지, 소득창출 등의 일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한편,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사업 참여자들에게 근로 및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지만,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탈수급율은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음
- 자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명시적인 재정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시도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시도하게 되었음
 - 전통적으로 국가에서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보조를 하는 복지 모형에서,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는 취업을 통한 사회복지 (Workfare)로의 전환이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사업이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은 정책 방향의 전환에 있어서, 민간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명시적 유인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수준 향상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자활사업이 민간조직인 지역자활센터에 의해 제공되는 있었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역자활센터의 재원이 정부의 정액제에 가까운 사업비 제공이라는 형태로 조달되고 있으므로 완전한 민간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반면에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공모에서부터 경쟁과정이 도입되었으며, 사업비의 제공도 고정급과 더불어 상당한 비중의 명시적인 성과급 요소를 도입하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성과급 제공의 기준이 되는 성과지표가 취업과 경제적 자립이 주된 초점이 됨으로 인해,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 결과가 명확해졌음

□ OECD 국가들 중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을 추진한 국가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 수혜기간의 제한
 - 평생 수급할 수 있는 소득 보조의 수혜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 유인 강화
- 소득보조 수혜자의 의무 강화
 - 소득 보조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준의 근로 의무나 취업서비스 등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

- 취업연계 서비스의 질 향상
 - 민영화 또는 성과계약을 통하여 취업연계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취업연계 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산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정책 방향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 개편
 - 소득보조(복지행정, 실업급여) 관련 행정과 취업관련 행정의 통합
 -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인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강화
 - 준시장적인 기제 도입을 통해, 사업운영방식은 사업제공자에게 위임하고 결과중심의 성과관리 추진

-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독려가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은 상기의 다양한 변화 요소 중 일부만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수급자들의 취업이나 탈수급 유인을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시도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수급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수급에 따르는 혜택의 수준이 상당하여 탈수급이 될 정도의 경제활동을 추구할 유인이 미약함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취업 및 탈수급 유인이 강하지 않은 가운데, 사업 제공자에게 유인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겠다는 시도를 담고 있음
 - ※ 이러한 한계는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대상자 중 수급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임

- 성과계약을 통하여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정책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시도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2차년도 시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자 함

- 2010년에 이루어진 1차 연도 시범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운영의 적정성에 있어서 일부 한계 속에서도 잠정적으로 기대를 상회하는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취창업율과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에서는 기대 수준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음
 - ※ 취창업율은 40%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6개월 이상 취업유지자의 비율도 60% 이상으로 추계되었음.
 -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있어서도 기회주의적 행동이 뚜렷이 관찰되지는 않았으며, 이는 시범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취업의 질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시에 사업수행기관에서의 데이터 관리 문제가 객관적인 평가의 장애요인으로 논의되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에 포함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요약하고,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1차 연도 시범사업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웠던,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과 탈수급율에 대한 1차적인 평가를 내리며, 동시에 취업률 데이터도 1차 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완결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 수행
 - 1차 연도 시범사업에서는 비교 대상 집단의 선정이 곤란하여, 사업의 효과성 크기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어려웠으나, 2차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자활사업의 시장진입형 참여자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시도함

- 사업대상 지역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특성이 사업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함
- 재정절감효과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엄밀한 방법으로 절감효과 추정 시도

II.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주요 쟁점과 2차년도 시범사업 평가

□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서 성과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임

○ 재정절감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 민간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경쟁과 성과계약을 통해 강한 유인 제공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정부와 민간 간의 위험 분담

- 적절한 성과계약을 통해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위험을 정부와 민간 사이에 나눌 수 있음

○ 해당 사회 서비스 분야를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로 육성 가능

- 외국의 경우, 사회 서비스 제공을 영리 민간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시장 형성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제공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 성과계약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게 되므로, 계약 조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피함
- 이러한 전략적 행동 중 대표적으로 행태가 사업 대상자 중 취업 난이도가 낮은 집단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계약 조건의 설정과 모니터링의 강화를 꾀할 수 있음

- 정부와 민간의 사업 상 위험 분담의 적정성
 - 사업의 중요한 성과 판단 기준인 취업률, 취업 유지율, 탈수급율과 같은 주요 성과지표들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의 존재로 인해 사업의 위험 요인이 존재함
 - 이러한 사업의 위험 요인을 정부와 민간이 어느 수준으로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임
 - 이러한 위험 요인은 크게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률의 변동과 사업 대상자 수의 변화임
 - 외부 요인으로 인해 취업 난이도와 사업 대상자 수가 변화할 경우에 대해, 계약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임
 - 사업 초기에는 이러한 위험의 발생 확률과 위험이 초래할 파장 효과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시행 착오가 불가피함
 -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들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압력 하에 놓일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에 있음

- 서비스 제공자의 유효 경쟁 유지
 - 지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사업의 주요 성공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사업의 진행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힘든 진입장벽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소수의 대규모 사업자를 활용할 경우 규모의 경제 실현과 거래비용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유효 경쟁 유지에는 불리함
 - 외국의 경우를 보면,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수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유효 경쟁이 유지되지 않으면,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 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큼

- 부정행위의 발생 가능성
 -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운영에 자율권을 대폭 위임하는 블랙 박스식

접근법을 취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취업 성과의 조작, 부적절한 비용의 집행, 비용의 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담당 정부 조직은 사업의 성공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 담당 정부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주체에 의한 모니터링, 감사 및 평가가 필요
- 외국의 경우, 부정행위 발생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논의됨

○ 재정절감 효과

- 성과계약 방식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인 비용 대비 효과성을 증진시켜 재정절감 효과를 달성하는 것임
- 성과계약 방식 도입에 따라 증가된 총 사업비용과 추가적인 행정 비용과 사업 대상자가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정부의 소득 보조에서 벗어남으로 절감되는 정부 지출의 감소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아직 외국의 사례에서도, 엄밀한 재정절감 효과의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는 찾기 어려움

1. 서비스 제공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 서비스 제공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성과계약의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취업이 용이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cream-skimming 또는 creaming 현상이라고 불림
- 선정된 사업 대상자 중 취업 난이도가 낮은 사업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집중 지원되고, 취업 난이도가 높은 사업 대상자에게는 최소한의 서비

스만 제공되는 경우로, creaming의 또 다른 형태로 parking 현상이라고도 불림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경우, creaming현상의 문제 발생 소지는 미약하며 parking의 문제는 발생 소지가 있음

○ 사업 대상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 대상자가 의뢰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므로, creaming의 발생 소지가 비교적 작음

- creaming 문제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임

- 우리나라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creaming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는 방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성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creaming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참여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1차 시범사업 보다 사업참여자의 건강, 학력, 연령 등에 있어서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편차를 살펴보면, 부산지역의 참여자들이 교육수준, 연령에 있어서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1차 연도 시범사업 참여자와 비교하더라도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참여자의 비율이 높아졌음

○ 성과계약에 취업난이도를 반영하여 성과급이 책정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취업난이도가 낮은 집단에게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여 성과를 달성할 유인(parking)이 존재함

- 현행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계약 내용에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최소 서비스 기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취업, 취업유지, 탈수급에 대한 성과급 기준에는 취업 난이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성과계약의 내용 상, 취업난이도가 낮은 집단에게 서비스가 집중될 유인이 존재하며, 실제 2차년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parking 현상은 어느 정도 관찰되고 있음
- 참여자의 근로능력점수(조세연에서 개발한 점수 활용), 연령, 장애, 질병, 학력 등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업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확률이 높으며, 지역 간에도 이러한 확률의 차이는 존재함
 - 이렇게 서비스 제공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parking 현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다만, 취업난이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량이 달라지는 현상이 관찰된다고는 판단됨
 - 정책방향에 따라 유인을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parking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와 민간의 위험 분담의 적정성

- 정부와 민간의 위험분담은 성과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 분담 문제로서,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사업 대상자 수의 증감과 관련이 주로 있음
- 이러한 위험 분담문제는 성과계약의 내용에 반영되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남
 - 사업 시행 초기에 외부 요인의 변화에 따른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일정 범위 이상의 외부 요인의 변화가 발생할 때는 재협상에 임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기도 함
 - 한편 외부 요인의 변화에 따른 위험의 크기에 대해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계약 조건에 일정 범위의 외부 요인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취업성공 성과급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기도 함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경우는, 처음 2년간의 시범사업 내용만으로는
정부의 위험 분담 크기를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업비 감
소 요인을 발굴하여 기본급을 줄이고, 시범사업 이후의 본 사업 추진 시
에는 기본급과 성과급 크기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경우, 계약 내용에 이런 위험 분담에 관한
문제가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음

○ 계약조건에 위험 분담의 문제가 담기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위험분담
은 사업을 위해 지급되는 기본급과 성과급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 기본급의 크기가 실제 사업 비용을 보상하고 남는다면, 사업 수행기
관의 위험분담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기본급의 크기가 실
제 사업 비용 보다 상당히 낮다면, 사업 수행기관이 위험의 많은 부
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3차 연도 시범사업에는, 기본급의 크기와 획득 가능한 총 금액은 그
대로 두고, 취업관련 성과급을 1개월 단위로 연속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성과계약의 형태를 수정하고 있음

【참고】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1, 2차년도 재정지원 구조

구분	기본급	성과급		
		취업(창업)	6개월 이상 지속시	(수급자)탈수급 (차상위자)소득규 모
1인당 지원액 (430만원)	150만원	85만원	85만원	110만원

○ 시범사업의 성과 목표는 초과 달성되어, 1, 2차년도 사업에 있어서 사
업 수행기관의 위험 분담 문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

3. 서비스 제공자의 유효 경쟁 유지 문제

-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의 성과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 간의 유효한 경쟁이 존재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다수의 민간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민간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열위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독점적인 위치에 있게 되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사업 수행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음
 - 외국의 경우를 보면, 사업의 특성상 동일지역의 수행 기관의 재계약율이 상당히 높으며, 사업 수행기관의 수효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됨
- 우리나라는 사업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유효 경쟁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유효 경쟁을 염두에 둔 사업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자활사업 관계 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민간 영리 기관 등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임으로서,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업 수행기관이 존재함은 확인됨
 - 1차 연도 시범사업에는, 경기 지역은 기존 광역자활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방식, 부산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비영리 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
 - 2차년도 시범사업에는, 광역자활센터 중심의 인천과 민간영리사업자와 광역자활센터가 협력하는 형태의 전북지역으로 확대되어, 사업자의 형태와 사업 지역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음

- 본 사업 추진 시에는 동일 지역에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단일 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 필요

4. 사업 추진 및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중앙 기능 확보 문제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이 서비스 제공자에서 계약 관리자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행기관과의 성과계약 디자인의 적정성 확보와 사업 대상자 관리 발굴 및 관리 역량 필요
 - 성과계약에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여 확보하고 사업 대상자의 필요를 파악하는 기능이 필요함
 - 성과계약에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성과급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자의 취업난이도에 따른 프로파일링을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성과계약 내용에 담긴 비용 및 성과급의 적정성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역량 필요
- 시범사업에서는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프로파일링을 수행할 역량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임
 - 프로파일링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필요
 - 개발된 프로파일링 도구를 활용하여 적용할 역량 확보 필요
 - 기존 자활사업에서는 기초지자체의 복지담당자들이 근로능력판정을 수행하였으나, 성과계약의 경우는 명시적인 경제적인 유인과 결부되므로, 보다 전문화된 인력이 일관성 있게 프로파일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기법의 개선 여지를 모색하였으며, 실제 사업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프로파일링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 수행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사 및 평가 기능의 강화 필요

○ 1, 2차년도 시범사업은 중앙자활센터에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했으나,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에는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며, 중앙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위상 정립이 필요함

○ 감사 및 평가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수행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며, 본 사업 수행에서는 이러한 독립적 감사 및 평가 기능의 확보가 필요함

5. 기타 쟁점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재정절감 효과의 판단은 1, 2차년도 사업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됨

○ 1차 연도 사업의 성과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긍정적인 첫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2차년도 사업에서도 기대 목표를 초과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취업 난이도가 높은 사업 대상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남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1, 2차 년도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또는 정합성 문제

○ 기존 자활사업과의 관계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기존 자활사업은 시

범사업과의 조율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적절한 배분을 도모하여 사업 참여자의 혼란을 해결하여야 할 것임

- 지자체에서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존 자활사업과 시범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 대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자활사업과 성과관리형 시범자활사업의 사업참여자를 병렬적으로 모집함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본 사업 추진 시에는 기존 자활사업과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 설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Ⅲ.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발전 방향

1. 2차년도 시범사업의 성과

□ 1,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차상위 계층 뿐 아니라 수급자들의 성과도 양호함
 - 취업 연계를 목표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명시적 유인을 도입하는 방식의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됨
 - 다만 탈수급에 있어서는 목표치에 근접 또는 미달하고 있음

- 1차 연도 성과급 최종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Ⅲ-1> 1차년도 성과급 지급 실적

(단위: 명, %)

구분	1차 성과급	2차 성과급	3차 성과급
전체	635 (31.8)	327 (16.4)	175 (8.8)
부산	250 (25.0)	147 (14.7)	99 (9.9)
경기	385 (38.5)	180 (18.0)	76 (7.6)

주: 1) 2010년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됨.
 2) ()안의 수는 인원 대비 비율을 나타냄.

<표 III-2> 1차년도 성과급 실적 달성률 (조건부)

(단위: 명, %)

구분	2차 성과급	3차 성과급
전체	51.5%	8.5% (132명)
부산	58.8%	10.7% (91명)
경기	46.8%	5.9% (41명)

주: 1) 2010년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됨.

2) ()안의 수는 1차성과 달성자 및 수급자 대비 비율을 나타냄.

(참고) 계약서 상 최소 성과 목표

- 취업(창업)율 : 20%(200명)
-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 : 60%(120명)
- 탈수급율 : 10%(100명)

- 2차년도 성과급의 2011년 2월말 실적은 1차 연도 사업의 동일 시점과 비교할 때 실적이 더욱 개선되었음

<표 III-3> 2차년도 취창업률

(단위: %)

구분	전체	부산	경기	인천	전북
모든 취·창업	59.2	67.3	58.2	59.8	47.0
최저임금 이상	55.0	64.7	52.4	55.8	42.4
최저임금 이상, 30일 지속 (1차 성과급 요건)	48.6	60.0	46.4	43.5	38.6
최저임금 이상, 180일 지속 (2차 성과급 요건)	18.4	26.5	16.0	12.4	15.0

- 취창업율의 절대적 수준 뿐 아니라, 취창업 유지 기간도 상당히 개선되어 성과급 요건 달성 이후의 급격한 탈락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음

-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과 탈수급율을 진도비 방식이나, 생존확률 분석 방식으로 추정해도 1차 연도 보다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취업처의 특성에 있어서도 1차 시범사업 기간 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근로 여건과 조건이 양호하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개선의 여지는 있음
 - 정규직 비율은 1차 연도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정규직과 상용직의 비율은 1차 연도의 74.8%에서 84.7%로 개선되었음
 - 취창업을 통한 수입의 수준도 1차 연도에 비해 향상되었음
 - 100만원 이하 수준이 53.3%에서 30% 이하로 감소되었음

<표 III-4> 월급여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부산	경기	인천	전북
85.9만원 이하	9.1	4.3	17.6	11.1	8.9
85.9~100만원	29.0	26.8	29.6	26.1	37.1
100~120만원	28.8	31.0	29.3	25.7	26.3
120만원 이상	33.0	37.8	23.5	37.1	27.8

주: 모든 취창업을 대상으로 함.

- 비교 대상집단으로 자활사업의 시장진입형 참여자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를 설정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성과가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 건강, 학력을 포함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 경우나 고려하지 않은 경우나, 최저 임금 및 30일 취업 요건을 충족하는 취창업율에 있어서, 시범사업의 성과가 30% 또는 1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재정절감 효과 추정

- 시범사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재정절감 효과 추정치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효과가 24개월 지속이 된다면 비용 대비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남
 - 2차년도 평가에서는 재정절감 효과 추정을 가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시범사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보다 엄밀한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음
 - 시범사업이 기존 자활사업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한 것으로 추정된 비용(1인당 약 149만원)에 비해 급여감소분은 약 86만원에서-380만원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시범사업 효과의 지속기간이 12개월에 그칠 경우에는 추가 투입 비용 대비 재정절감 효과가 작을 것이지만, 24개월간 지속되면 비용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 기존 자활사업에 비해 개선된 취창업율의 유지가 중요한 관건임을 시사함

3.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개선 및 발전 방향

- 취업을 통한 탈수급 유인이 강화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소득 증대로 기초생활보장체제를 벗어나는 경우, 각종 현물급여 혜택이 중단되므로, 수급자의 탈수급 유인이 미약함
 - 수급기간의 제한이나, 수급권을 일정 연령 이하의 계층에게는 제한하

는 방식을 검토하여, 소득 창출을 통해 탈수급 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도 내에 심을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사업 참여자의 자립 동기는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사업 수행기관의 전략적/기회주의적 행동을 최소화할 장치 마련 필요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1차 연도에서는 성과계약의 조건이 사업수행기관이 전략적/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적 행동의 양상이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2차년도에서는 취업난이도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량이 달라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음
 - 사업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사업수행기관의 선택권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으로 인해 사업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유인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됨
 - 서비스 제공 내용에 있어서도 취업난이도가 낮은 집단에 서비스가 보다 많이 제공되는 현상이 관찰됨
 -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유인체계가 취업 난이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대하기 이전에, 정책목표와 취업 난이도를 고려하여 프로파일링 요소를 포함한 계약 구조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이 확대될수록 전략적 행동의 유인이 커질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업에서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입장 정리가 필요함
 - 3차 연도의 시범사업에도 프로파일링 요소는 포함되지 않음
 - 시범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직접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취업 난이도에 연계된 성과급 구조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에 프로파일링 요소를 도입할 경우, 시범사업기간 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도입하고 점차 프로파일링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프로파일링 자체의 정확성도 문제지만,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른 형태의 프로파일링과 다른 형태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책 목표의 명확화도 필요함
 - 취약계층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인지, 취약계층 중에도 취업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목표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목표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
 - 취약계층의 취업이 정책의 목표라면, 취업난이도가 높은 경우의 취업 성공에 지급되는 성과급의 크기가 커야 하며, 반대로, 취업을 제고 자체가 정책 목표일 경우는, 취업 난이도에 따른 취업성공 성과급의 차등폭이 작아도 될 것임
- 프로파일링에 연계된 성과계약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의 최소 기준을 명시하거나,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차년도 계약에 연계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음
- 외국 사례에 의하면, 프로파일링에 연계된 성과계약 방식만으로는 완벽하게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지 못하므로, 서비스 제공의 최소 기준을 명시하거나,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재계약과 연계시키거나, 또는 사업 수행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발견됨
- 정부와 사업 수행기관과의 적절한 위험 분담 문제를, 기본급과 성과급의 적정 크기와 연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성과계약의 기본급과 성과급 크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초기이므로 판단하기에 빠른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동부의 일자리 관련 DB를 공유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취업처 발굴 비용을 절감하게 되면, 기본 사업비를 절감할 가능성이 있음
 - 연속적으로 동일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초년도 사업에 비해 기본급의 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과제로는, 가격 경쟁 요소를 포함하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유효 경쟁 여건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의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업 수행기관에게 서비스 제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1차 연도 시범사업에서, 경기지역은 기존 자활사업 경험에 근거한 사업수행기관이 선택되었으며, 부산지역은 지자체 직영 성격이 강한 비영리 기관이 선택되었음
 - 2차년도 사업 수행지역으로서 인천과 전북지역이 참여하여 지역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사업 수행기관도 민간 영리기관이 참여하여 수행기관의 성격도 다양화 되고 있음
 - 3차 연도 사업 수행지역도 확대되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함
 - 향후 시범사업의 확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에서의 사업 성공가능성과 영리기업의 사업 참여에 따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해 사업대상자 발굴, 서비스 기준 개발, 사업 참여자의 프로파일링 관련 업무, 사업 수행기관의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중앙 기구의 역량 강화 필요

- 현재의 중앙자활센터의 인력과 역량으로는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기획, 운영 및 조정 역할 수행에 난점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투자 필요
 - 특히 시범사업의 확대를 염두에 둔다면, 사업 대상자의 발굴과 사업 대상자의 취업난이도에 따른 프로파일링, 사업 수행기관의 모니터링의 기능 수행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앙 기구의 역량 개발과 확충이 필수적임
-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사업평가 방법론에 부합하는 데이터 생산과 관리를 위한 투자 필요
- 시범사업 참여자와 비교될 수 있는 집단의 사업 개시 전 초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 종료 시점에서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생산과 관리에 투자 필요하지만,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이러한 요건은 충족되지 못하고, 차선의 방법을 통하여 평가하고 있음
 -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함
 - 6개월 이후의 취업 유지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현재는 6개월 취업유지가 되면 안정적 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는 가정 하에 성과급 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재정절감효과의 추정에서도 나타났지만, 동 사업의 재정절감효과 창출의 성공 여부는 시범사업 효과가 지속성에 달려있으므로,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중요함